제22호
2025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목차

제22호 2025년

경기도 화성(수원) 만의사(萬義寺)의 역사 전개
: 조선시대~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 황철균 ····· 1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이 조선 후기
수원 지역 생태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 배성열 ····· 39

일제강점기 수원의 시각적 재현에 의한 도시 표상 연구 | 김해경 ····· 71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본 수원 미술사의 여성 주체성 연구 | 한창희 ····· 97

수원 중앙극장의 역사적 조명과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 김남석 ····· 139

수원지역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건휘 ····· 173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 지역과 비지역 언론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정성훈·조은정·김근현 ····· 215

『수원학연구』 22, 2025.12, 1~00쪽

경기도 화성(수원) 만의사(萬義寺)의 역사 전개

: 조선시대~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황철균*

1. 서론
2. 조선시대~일제강점기 만의사의 역사 전개
3. 만의사 관련 한시(漢詩)
4. 조선시대 만의사 소재 문화유산의 현주소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舞鳳山)에 있는 전통 사찰인 만의사(萬義寺, 萬儀寺)[1]에 대해서 조선시대~일제강점기에 사찰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만의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만의사는 행정구역으로는 화성시에 해당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지역에 있던 중심 사찰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먼저 만의사의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 및 고려시대까지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본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Completion of Ph.D. program, Department of History, Dongguk University), E-mail : cheolgyunh@hanmail.net, Tel : 010-6333-3979

1 만의사는 사찰명이 萬義寺였다. 그렇지만 만의사가 17세기 후반에 새로 현재의 위치(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219)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찰명이 萬儀寺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입부에 사찰의 한자 표기에 대한 2가지 표기를 모두 서술하였다.

다. 사찰명인 '만의'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權慄, 1537~1599)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과 일본군이 이 마을 근방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나 많은 사람들이 만의산(무봉산) 골짜기로 피난하여 피해가 없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만의(萬儀)라 불렀는데, 속칭(俗稱)으로는 '마내'[2]라고도 불린다. 만의사는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이후로는 오랫동안 사찰이 퇴락하여 폐허로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만의사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오게 된 시기는 14세기 고려 말기부터이다. 이 시기에 만의사의 역사와 연계된 중요한 가문이 있는데, 평양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 관료였던 조인규(趙仁規, 1237~1308)를 중심으로 한 평양조씨(平壤趙氏)이다. 조인규에게는 가족으로 친형과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친형과 아들은 모두 승려였다.

조인규의 친형은 혼기(混其, ?~?)라는 법명의 승려였으며, 조인규의 넷째 아들도 의선(義璇, 1284?~1355)이라는 승려였다. 혼기는 폐허가 된 상태의 만의사를 새로 중창하고 사찰의 주지를 맡았다. 혼기의 조카이자 조인규의 아들인 승려 의선도 혼기의 뒤를 이어 만의사의 주지를 역임[3]하였다. 이어서 중요한 불사 활동의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우왕(禑王, 1365~1389) 재위기에 만의사의 승려였던 묘혜(妙慧) 스님이 불서인 『법화삼매참조선강의(法華三昧懺助宣講義)』를 간행하여 만의사에 봉안(1377년)하였다는 사실[4]이 파악된다. 고려 말기에 만의사는 신조(神照, ?~?) 스님

2 화성문화원 홈페이지(https://hscc.or.kr/%ec%95%84%ec%b9%b4%ec%9d%b4%eb%b8%8c/%ed%99%94%ec%84%b1%ed%95%99%ec%97%b0%ea%b5%ac%ec%86%8c/?category1=%ED%99%94%EC%84%B1%EC%9D%98+%EC%A7%80%EB%AA%85%EC%9C%A0%EB%9E%98&mod=document&pageid=1&keyword=%EB%A7%88%EB%82%B4&uid=273, 검색일 2025년 4월 18일)

3 권근, 『양촌집(陽村集)』 권12, 기류(記類),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目記 – 水原之東數十里。有寺曰萬義。裨補古刹也。壞廢旣久。鞠爲榛莽。皇慶間。天台珍丘寺住持大禪師混其來觀遺址。重營以新。……"

4 『법화삼매참조선강의(法華三昧懺助宣講義)』에는 경전을 간행하게 된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의사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嘗謂讀是經者, 要看講儀與夫靈驗傳, 以其直探玄旨, 深求妙應, 斷在二書也. 妙慧謹捨貲財, 刊此二書, 安寘于萬義寺, 以壽不朽耳. 寺生至元間, 貞古·玄默相継主席, 卒傳於余王父忠肅公之伯父珎丘大禪師混其, 其又傳於三藏法師義旋. ……" / "일찍이 이 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강의(講儀)』와 더불어 무릇 『영험전(靈驗傳)』을 보아야 그 현묘한 뜻을 바르게 탐구하고 묘한 감응을 깊이 구할 수 있으니 단연코 이 두 책에 〈그 뜻이〉 있습니다. 묘혜(妙慧)가 삼가 재산을 희사하여 이 두 책을 간행하고 만의사(萬義寺)에 안치하니 오래되어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절

이 사찰의 주지를 맡았는데, 조선이 들어서기 전인 임신년(壬申年, 1392년) 2월에 만의사에서는 대규모의 불교 법회인 화엄법회(華嚴法會)를 개최하였다는 사실[5]이 전해진다.

현재까지 진행된 만의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려 정계 및 불교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만의사와 연관되어 있는 불교문화유산 단위로 살펴본 부분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의사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는 조인규의 가문과 만의사의 역사를 연계하여 살펴본 황인규의 연구[6]가 주목된다. 고려 후기~말기에 만의사의 역사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측면으로 윤기엽의 연구[7]가 주목된다. 그 밖에 박윤진과 황인규는 고려 말기에 조계종과 천태종의 불교 종파 간의 대립 과정 안에서 만의사에 대한 역사[8]를 주목하였다. 만의사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불교미술 조각사의 측면에서 분석한 조태건의 연구[9]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는 지역 문화원 등에서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만의사 및 기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글[10] 정도만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만의사가 갖고 있는 사찰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은 지원(至元) 연간에 생겼는데, 정고(貞古)와 현묵(玄默)이 서로 이어 주석하여 마침내 저의 할아버지 충숙공(忠肅公)의 백부인 진구사(珍丘寺)의 대선사(大禪師) 혼기(混其)에게 전해졌고, 혼기는 다시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에게 전하였습니다. ……").

5 권근, 『양촌집(陽村集)』 권12, 기류(記類),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目記 – …… 壬申二月。又張法會。衣服座具帶襪咸備。嘉羞異膳供具豊潔。啓聞于上。受押佛跋。邀請大天台宗師國一都大禪師玄見等韻釋三百三十指。皆一時天台碩德也。外護前洪濟寺住持大禪師明一等一百九十指。諸執事監院禪師覺恒等一百九十指。初展華嚴三昧懺儀經。講妙法蓮經。環師跋解。歷三七日而訖。其所以壽君福國濟生利物之願可謂博矣。……"

6 황인규, 1998, 「조인규 가문과 수원 만의사」,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7 윤기엽, 2004, 『고려후기 사원의 실상과 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8 박윤진, 2010, 「고려 천태종의 종파 문제 : 조선초 천태종의 선종 귀속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황인규, 2015, 「고려후기·조선초 천태종단의 존재양상 추이 및 동향 : 주요 고승과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4, 한국불교학회.

9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0 김명환, 2004, 「설화가 깃든 산사기행 무봉산(舞鳳山) 만의사(萬義寺)」, 『문화의 뜰』 제45호, 화성문화원; 한동민, 2005,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 Ⅰ』,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59~74쪽; 김진원, 2010, 「무봉산 선화대사비를 찾아서」, 『문화의 뜰, 화성의 추(秋)이야기』 66, 화성문화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만의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보완 및 연장선상으로 그동안 원전(原典) 기록은 남아 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던 만의사에서 전개된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만의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문신 및 학자 개인이 저술을 남기고 편찬한 문집(文集)도 현재 남아 전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의사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문집 기록들은 아직까지 주목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만의사와 역사적으로 연관된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현주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그 역사도 천착해 본다. 겸해서 만의사가 처음 건립되었던 자리에서 이전된 후, 19세기 조선 말기에 다시 건립된 사찰인 원각사(圓覺寺,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106번길 241-23)에 대한 역사[11]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만의사의 역사 전개 과정을 통사적(通史的)으로 정리하면서 사찰의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선시대~일제강점기 만의사의 역사 전개

2장에서는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만의사의 역사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를 거쳐 조선이 건국된 후, 조선 초기인 15세기에는 만의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선 태종(太宗, 1367~1422) 시기에 불교 사찰의 퇴폐(頹廢)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정부(議政府)에서 불교계의 폐단을 정리하는 상서를 올린 일이 있었다. 이때 사찰에 하사한 논밭인 사사전(寺社田)과 관련하여 만의사를 언급한 내용이 보이는데, 만의사의 사사전을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사사(寺社)의 토전(土田)과 인구(人口)를 혁파(革罷)할 것을 청하였다.……오직 연경(衍慶)·흥천(興天)·화장(華藏)·신광(神光)·석왕(釋王)·낙산(洛山)·성등(聖燈)·진관(津寬)·상원(上元)·견암(見菴)·관음굴(觀音窟)·회암(檜庵)·반야전(般若殿)·만의(萬義)와 서울의 감로(甘露) 등의 사사(寺社)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12]

11 경기도에서 발간한 불교 유적에 대한 학술총서인 『기내사원지』(1988년 발간), 그리고 『기내사원지』를 증보해서 발간한 『경기도불적자료집』(1999년 발간)에는 만의사 및 원각사의 사찰 현황 및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조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경기도, 1988, 『기내사원지』, 356~362쪽;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불적자료집』, 612~617쪽).

〈그림 1〉 1984년 화성 만의사 전경(화성시 포토갤러리)

이후 15세기에는 만의사에 대한 더 이상의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의사를 당시 행정구역이었던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그리고 조선 정부 차원에서 불교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사찰 운영은 현상 유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에 들어 전반기에는 조선 정부에서 편찬한 국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고 만의사에 대한 기록[13]이 수록되었다. 만의사에 대한 공식 기록으로 국가 편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전하

12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년) 을유 11월 21일, "議政府上書請革寺社田口。…… 唯衍慶, 興天, 華藏, 神光, 釋王, 洛山, 聖燈, 津寬, 上元, 見菴, 觀音崛, 檜庵, 般若殿, 萬義, 京甘露等寺社仍舊。"

1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불우(佛宇), "萬義寺。在舞鳳山。〇辛禑時, 我太祖自義州擧義回軍, 僧神照在麾下, 與定大策焉。恭讓王特賜功牌, 使主是寺, 仍給奴婢, 土田, 傳于法孫。"

는 점은 만의사가 수원도호부 지역의 주요 사찰로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 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7세기에는 만의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17세기의 중반에는 만의사에서 수도하던 고승인 선화 경림(禪華 敬琳, 1566~1643)이 있었다. 경림은 말년에 만의사의 주지[14]를 맡아 수행하다가 1643년에 입적하였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병술년(丙戌年, 1646년)에 경림대사의 비석[15]과 승탑을 건립하였는데, 이후에는 경림대사의 제자 승려였던 지해(智海)와 보응(寶應)이 각각 만의사의 주지를 맡았다는 사실[16]이 전해진다. 그 후, 실학자인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1656년에 편찬한 사찬(私撰) 지리지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도 만의사에 대한 기록[17]이 나온다.

그러나 1660년~1680년 사이에 만의사의 역사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노론(老論)의 영수였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만의사 일대 땅이 명당(明堂)이라는 이유로 묘소로 쓴다고 하여 만의사가 기존의 위치(화성시 풀무골로 106번길 241-23 원각사 일대)에서 현재의 위치(화성시 풀무골로 219)로 이전되는 안타까운 상황[18]을 맞이하였다. 기존에 조성되었던 만의사의 주지 승려였던 선화 경림대사비와 승탑은 그대로 두고 사찰의 위치를 이전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특정 지역의 불교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찰이 위치한 땅이 권력이 있는 문신 관료 및 유학자의 묫자리로 지정되어 해당 사찰이 인근의 다른 위치로 이전될 만큼 불교계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의사는 현재 위치로 이전된 이후인 18세기에도 사찰의 지역적인 위상

14 『용주사 본말사지』에는 선화 경림 스님이 만의사의 주지가 된 해를 164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참조: 이정무, 1984, 『용주사 본말사지』, 진영출판사, 33쪽).

15 김성은, 2012, 「조선후기 선불교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연구 : 17세기 고승비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49, 58쪽.

16 이정무, 1984, 『용주사 본말사지』, 진영출판사, 33쪽. / 『용주사 본말사지』에 지해(智海) 스님은 1646년에 만의사 주지에 임명되고 보응(寶應) 스님은 1652년에 만의사 주지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 유형원,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제2권 경기좌도(京畿左道) 수원진(水原鎭),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 萬義寺, 在舞鳳山. ○辛禑時, 我太祖自義州擧義回軍, 僧神照在麾下, 與定大策焉. 恭讓王時, 特賜功牌, 使主是寺, 仍給奴婢, 田土, 傳于法孫.

18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05쪽.

〈그림 2〉 수원 만의사 대웅전 중창기문 2매(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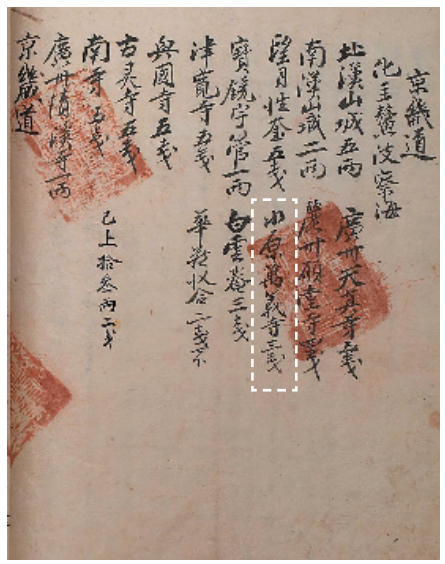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사찰이 이전된 이후, 신사년(辛巳年, 1761년)에 만의사의 주 법당인 대웅전을 중창한 기록이 남겨진 문서인 '수원만의사대웅전 중창기문(水原萬儀寺大雄殿重創記文)'[19](〈그림 2〉)이 전해진다. 만의사 대웅전 중창기문에는 대웅전의 중창에 후원하였던 후원자 및 승려, 실무자들의 현황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의사의 중창(重創) 불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다음으로 만의사는 사찰 차원에서 불사(佛事) 활동에 대한 모금(募金)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789년(기유년) 5월에 전남 해남군에 있는 사찰인 대흥사(大興寺)에서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할 때 만의사에서 3전(三錢)의 돈을 시주하였다는 기록[20]이 보이는데, 이 기록은 표충사 설립에 성금을 한 사찰들의 현황 기록인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에 수록(〈그림 3〉)되어 있다.

표충사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승병장으로 활동한 조선의 고승인 사명 유정(四溟 惟政, 1544~1610)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사당이다. 조선 후기에는 유정을 기리는 사당인 표충사를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表忠寺)와 해남의 대흥사에 각각

19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05~106쪽.

20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신집성문헌 :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



〈그림 3〉『표충설립유공록』의 표지에 기록된 만의사 3전 시주(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건립하였다. 이처럼 18세기 말에 만의사가 국가적인 불사에 성금을 낸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세기에 들어 만의사는 크게 주목되는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사찰의 명맥은 꾸준히 이어졌다. 19세기 중반인 1853년에 조선의 지리학자인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1804~1866 추정)가 편찬한 지리서인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만의사의 소재 기록[21]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만의사는 수원도호부에서 개편된 행정구역인 수원부(水原府) 지역의 주요 사찰로서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19세기 후반에 만의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해지는데, 조선 고종(高宗) 때인 1872년에 제작된 지도인 「수원부지도(水原府地圖)」(〈그림 4〉)가 주목된다. 「수원부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만의사를 그리고 신조(神照) 스님의 불사 관련 기록을 서술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 후, 조선 말기인 1888년 만의사의 옛터에 원각사(圓覺寺)라는 사찰을 새로 건

21 『여도비지(輿圖備志)』 권3, 경기도(京畿道), 수원부(水原府) 산천(山川) - 舞鳳山, 治東四十里. ○萬儀寺.

〈그림 4〉 1872년에 제작된 「수원부지도」에 기록된 만의사(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립(화성시 풀무골로 106번길 241-23)[22](〈그림 5〉)했다고 전한다. 오래전에 있던 만의사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 가고 조선 말기에 만의사의 옛터에 또 다른 새로운 사찰이 건립[23]되었다는 점에서 사찰의 역사가 별개로 구분되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만의사에서는 1894년에 사찰의 불전(佛殿) 가운데 지장전(地藏殿)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당시 지장전에 봉안된 불교 조각상들이 현륭원(顯隆園)의 원찰인 용주사(龍珠寺)로 이전되는 안타까운 상황[24]을 맞이하였다.

이후 건양(建陽) 연간인 1896년에 만의사의 주지 승려였던 연순(淵順)이 사찰의 살림이 어려워 정부 부처인 탁지부(度支部)에 소장(訴狀)을 올려 세금 감면을 요청

22 화성 원각사에 설치된 사찰 연혁에 대한 안내문 참조.

23 현재 만의사와 원각사는 불교 종단(宗團)의 소속이 다르다. 만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지만, 원각사는 대한불교법화종에 소속되어 있다. 원각사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사찰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이듬해인 1942년 8월에 대웅전을 다시 건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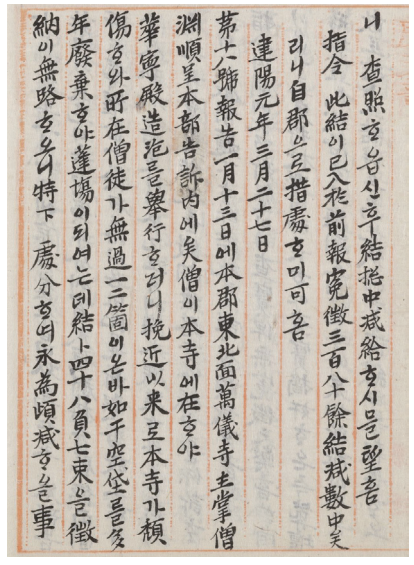
24 원래 만의사의 지장전에 장의사 지장보살도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지장전 붕괴 사고로 인해 지장전에서 대웅전으로 불화를 옮긴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5〉 만의사 옛터에 세워진 화성 원각사(圓覺寺) 전경(「[겸재 그림 길 (98) 무봉산중] 겸재 그림 덕 되살아난 만의사 두 건물」, 『문화경제 CNB저널』 2022년 4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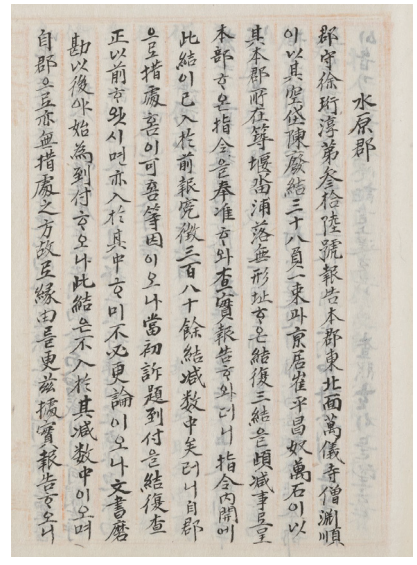
한 사실이 기록된 『공문편안(公文編案)』 문서(〈그림 6〉)가 남아 있다. 이처럼 조선 말기로 가면 만의사가 사찰 운영에서 어려움에 놓였던 안타까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공문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1896년 3월 27일 문서 : 본군(本郡, 수원군) 동북면(東北面)에 있는 만의사(萬儀寺)의 주장승(主掌僧, 주지)인 연순(淵順)이 탁지부(度支部)에 소장을 올렸다. 절이 쇠퇴하고 승도(僧徒)가 적어 빈터를 여러 해 내버려둬 쑥밭이 되어 48부(負) 7속(束)의 결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세를 영원히 감해 달라고 하자, 탁지부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감해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장교(將校)를 정해 면장(面長) 입회하에 사실을 조사해 보니 48부 7속 중에 10부 6속은 농사를 짓고 있고, 38부 1속은 묵히고 있어 우선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니 살펴보고 결총(結摠)에서 탕감해 달라는 제18호 보고서.[25]

25 원래 만의사의 지장전에 장의사 지장보살도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지장전 붕괴 사고로 지장전에서 대웅전으로 불화를 옮긴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A. 1896년 3월 27일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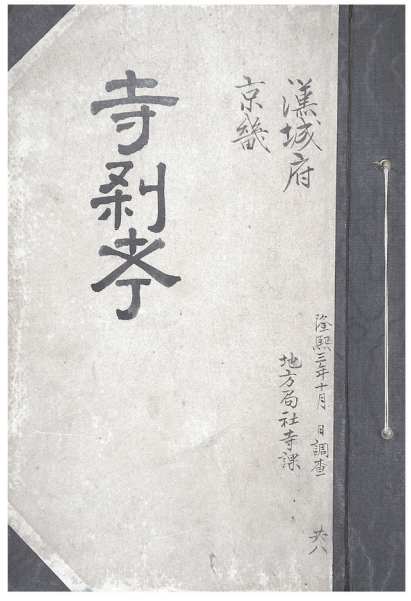
B. 1896년 5월 27일 문서

〈그림 6〉 만의사 주지 승려인 연순(淵順)이 탁지부(度支部)에 세금 감면 요청의 소장을 올린 내용을 담은 『공문편안(公文編案)』 문서 2건(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B. 1896년 5월 27일 문서 : 동북면(東北面) 만의사(萬儀寺) 승려 연순(淵順)과 서울에 사는 최평창(崔平昌)의 노비 만석(萬石) 등이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청하여 탁지부(度支部)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되 이 땅을 앞서 원징(寃徵)으로 보고하여 감면된 380여 결(結) 속에 넣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탁지부의 지령(指令)이 문서가 마감된 이후에 도착하여 그 속에 넣지 못하였고 군(郡)으로서는 조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살펴보고 처분해 달라는 제36호 보고서.[26]

그 후 만의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직전 대한제국(大韓帝國) 말기인 융희(隆熙) 3년(1909) 10월에 전국 사찰들의 현황을 정리한 도서인 『사찰고(寺刹考) : 한성부 경기』(〈그림 7〉)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만의사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만의사의 주지(主僧)로 이대석(李大錫)이란 승려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26 원래 만의사의 지장전에 장의사 지장보살도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지장전 붕괴 사고로 인해 지장전에서 대웅전으로 불화를 옮긴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7〉『사찰고(寺刹考) : 한성부 경기』(문서관리번호 : A015-004-005) 표지와 만의사 관련 내역(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알 수 있다.

만의사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주목되는 일은 없었지만, 만의사의 운영을 맡은 주지 승려들은 꾸준히 임명되면서 사찰의 역사를 이어왔다. 1910년에 국권이 피탈된 이후, 이듬해인 1911년에 만의사는 일제의 전국 사찰의 본사 및 말사의 행정 제도 시행을 통해 용주사(龍珠寺)의 말사(末寺)로 편입되기에 이른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하였던 기관지인 『관보(官報)』, 그리고 불교계에서 발행한 잡지인 『불교(佛敎)』에 만의사 주지 승려 임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현황은 〈표 1〉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의사는 1920년대에 사찰에 강도(强盜)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례(〈그림 2〉)를 찾아볼 수 있다. 사건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927년 2월 22일 0시 30분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도 2명이 만의사를 침입하여 당시 절에서 잠자고 있던 주지 승려인 김대원(金大源) 스님과 부인 2명을 결박하고 돈과 쌀, 의복류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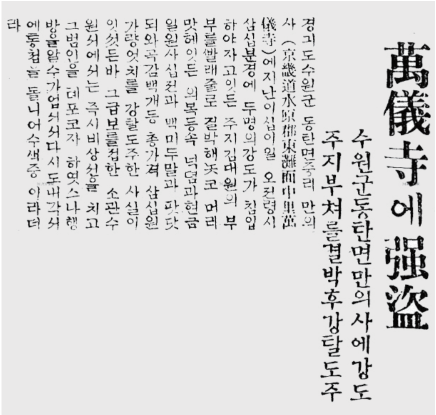
〈표 1〉 일제강점기 만의사의 역대 주지 스님 명단

성명	재임 기간
남창업(南昌業)	1912년 1월 25일[27]~1916년 10월 11일
김우담(金雨潭)	1916년 10월 11일[28]~1920년 6월 7일
한계홍(韓桂洪)	1920년 6월 7일[29]~1924년 10월 12일[30](辭職, 몇 달간 공백기)
김대원(金大源)	1925년 2월 6일[31]~1930년 5월 23일
장혜성(張慧城)	1930년 5월 23일[32] / 1933년 5월 29일[33] / 1936년 5월 19일[34] / 1939년 6월 23일[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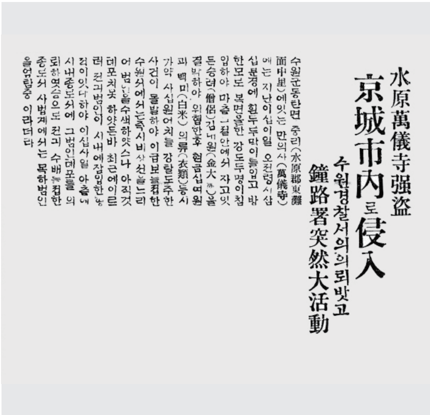
만의사의 강도 침입 사건은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간행되었던 주요 신문인 『동아일보(東亞日報)』(1927년 2월 26일) 『조선일보(朝鮮日報)』(1927년 2월 25일), 『중외일보(中外日報)』(1927년 2월 26일)를 비롯하여 일본어로 간행된 신문인 『경성일보(京城日報)』(1927년 2월 25일)에까지 보도될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 당시 만의사의 주지승이었던 김대원 스님과 배우자는 강도 침입으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보도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의사를 침입한 강도는 이후 『조선일보』〈②번 기사〉 보도 내용처럼 경성(京城,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종로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였지만, 강도가 체포되었다는 관련 소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그 외에 일제강점기에 만의사에서 시행되었던 일들 가운데, 만의사의 사찰 숲을 벌채(伐採)를 신청 및 허가 관련 기사들도 주목된다. 벌채와 관련하여 이른 기록은 1927년 2월 22일에 나온 만의사 주변의 숲 벌채(伐採) 허가 기사[36]이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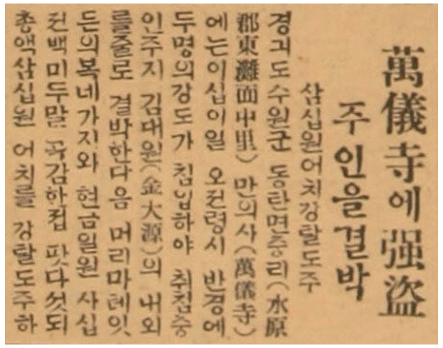
27 『조선총독부 관보』 제0421호 明治 45年(1912) 1月 25日, 住持就職認可 : 水原郡 萬儀寺 南昌業.
28 『조선총독부 관보』 제1258호 大正 5年(1916) 10月 11日, 住持及住職異動 : 水原郡 萬儀寺 金雨潭.
29 『조선총독부 관보』 제2346호 大正 9年(1920) 6月 7日, 住持異動 : 水原郡 萬儀寺 韓桂洪.
30 『불교(佛敎) 제12호』 官報抄錄 ○住持異動 : 大正十三年(1924년) 十月十二日 辭職 同 水原郡東灘面 萬儀寺 韓桂洪.
31 『불교(佛敎) 제12호』 官報抄錄 ○住持異動 : 大正十四年(1925년) 二月六日 就職認可 同 同 金大源.
32 『조선총독부 관보』 제1014호 昭和 5年(1930년) 5月 23日, 住持異動 : 水原郡 萬儀寺 金大源-張慧城.
33 『조선총독부 관보』 제1913호 昭和 8年(1933년) 5月 29日, 住持異動 : 水原郡 萬儀寺 張慧城.
34 『조선총독부 관보』 제2802호 昭和 11年(1936년) 5月 19日, 住持異動 : 水原郡 萬儀寺 張慧城.
35 『조선총독부 관보』 제3726호 昭和14年(1939년) 6月 23日 住持異動 : 水原郡 萬儀寺 張慧城.
36 『불교(佛敎) 제34호』, 官報抄錄 ○寺有林伐採許可 : 京畿道水原郡東灘面中里山百十八番地萬儀寺


萬儀寺에 强盜
수원군동탄면만의사에강도
주지부처를결박후강탈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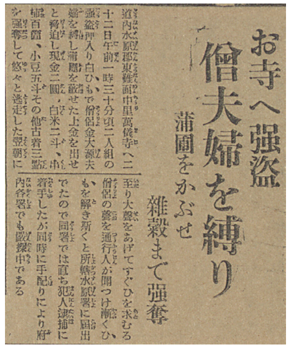
「萬儀寺에 强盜」,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2월 26일


水原萬儀寺强盜
京城市內로 侵入
수원경찰서의뒤맛코
鍾路署突然大活動

「水原萬儀寺强盜 京城市內로 侵入」,
『조선일보(朝鮮日報)』 1927년 2월 25일


萬儀寺에强盜
주인을결박
삼십원어치강탈도주

「萬儀寺에强盜 주인을 결박」,
『중외일보(中外日報)』 1927년 2월 26일


お寺へ强盜
僧夫婦を縛り
蒲團をかぶせ
雜穀まで强奪

「お寺へ强盜」,
『조선신문(朝鮮新聞)』 1927년 2월 25일

〈그림 8〉 만의사에 강도 침입 사건에 대한 신문사별 기사 목록 현황

공교롭게도 만의사 사찰 숲의 벌채 허가가 나온 시점을 전후하여 만의사에 강도가 침입하였던 일이 발생하여 두 사건이 서로 연계된 점은 없는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불교 계열의 잡지인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教月報)』,[37] 『불교(佛教)』에도 만의사와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조선불교월보』에는 만의사가 용주사의 말사로 편성되면서 사찰 명칭이 만의사가 아닌 '만의암(萬儀庵)'으로 기록된 내용[38]도 전해진다. 『조선불교월보』 이후에 새롭게 간행된 불교 잡지인 『불교(佛教)』에는 만의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39] 그리고 만의사와 『불교』 잡지와 관계를 맺은 소식[40]들을 찾아볼 수 있다.

3. 만의사 관련 한시(漢詩)

조선시대 이후로 만의사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국가 사서의 역사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만의사 관련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만의사를 주제로 설정하여 지어진 한시(漢詩)들이다. 조선시대 이후, 만의사는 국가의 불교 억제 정책 기조에 의해 고려시대보다는 주목되지 못한 사찰로 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사는 꾸준히 사찰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만의사와 연관된 한시를 비롯한 한문학(漢文學) 작품들은 사찰에 대한 공식 역사를 알려 주는 기록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기록은 만의사에 머물렀던 승려들의 법명, 그리고 사찰 및 승려와 친분이 있던 문신 및 학자들 간의 인적 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단서가 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의 국가 사서에 나온 만의사와 관련된 기록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로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문신인 원정(猿亭) 최수성(崔壽峸,

寺有林二十九町三段五畝步中二十町步內의八年生以上의櫟八千本間伐의件二月二十二日許可하다 (已上 昭和二年 二月二十六日 官報)

37 『조선불교월보』는 일제강점기 초반인 1912년에 권상로(權相老)가 불교계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반성의 글을 수록하여 간행한 불교 잡지이다. 1914년 1월에 19호를 마지막으로 간행하고 종간(終刊)되었다.

38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教月報)』 제9호, 용주사본말사법(龍珠寺本末寺法), 제2장 사격(寺格), 만의암(萬儀庵) / 『조선불교월보』 제9호는 1912년 10월에 발간(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39 『불교(佛教)』 창간호, 李朝佛教史第一編, 第一章　太祖와佛教, 二　高僧碩德을尊敬한事,〔神照大師〕/ 『불교』 창간호는 1924년 7월에 발간(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40 만의사는 『불교(佛教)』 잡지에 259번째 사우(社友)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불교(佛教)』 제55호, 社友題名錄(第六回報告), ○特別社友, 二五九 萬儀寺 水原 / 『불교』 제55호는 1929년 1월에 발간(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1487~1521),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 등이 만의사를 방문하고 남긴 한시가 전해진다. 최수성은 정확한 해를 알 수 없지만 16세기 초반에 만의사를 방문하였다. 만의사의 모습에 대한 감상의 제영(題詠) 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의 한시를 남겼는데, 최수성이 남긴 만의사의 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 불전엔 몇 안 되는 중이 지키고 있고 / 古殿殘僧在
수풀 끝엔 저녁 종 맑게 울리네 / 林梢暮磬清
창문은 트이어 천리 끝 닿고 / 窓通千里盡
담장이 눌러 서니 뭇산은 평평 / 牆壓衆山平
나무는 몇 해나 늙어 왔는지 / 木老知何歲
새는 별난 목청 우짖고 있네 / 禽呼自別聲
험난한 세상의 그물에 걸릴까 근심하려니 / 艱難憂世網
오늘에 내 인생을 한탄하노라 / 今日恨吾生[41]

김안국은 그의 문집인 『모재집(慕齋集)』에 만의사의 승려가 남긴 시축(詩軸)의 운자(韻字)를 인용한 한시를 지어 남겼는데, 이 한시의 제목에 나온 만의사 승려의 법명이 각연(覺連)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김안국이 생전에 만의사의 각연 스님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의사에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 한시는 16세기의 만의사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득한 구름과 하늘 밖에 / 渺渺雲天外
유유(悠悠)한 생각 보낸다. / 悠悠寄遠思
상가(商歌)는 그래도 부를만 하지만 / 商歌唯自放
초부(楚賦)는 너무나 슬픔이 많아 / 楚賦謾多悲
흥겨움은 걸음따라 정처(定處)가 없고 / 興逐行無定
노래는 뜻에 따라 바뀌는구나. / 吟因意所之
때때로 산승(山僧)이 찾아와 / 時時山衲到

41 최수성, 『원정유고(猿亭遺稿)』, 題萬義寺.

삼경(三徑)에 지팡이 나란히 걷는다. / 三徑伴笻枝[42]

17세기에는 만의사를 방문한 문신 및 학자들이 상당수의 만의사 관련 한시를 남겼다. 17세기 초에 만의사 관련 한시를 남긴 인물로는 우주암(宇宙菴) 곽영(郭瓔, 1588~1618)을 들 수 있다. 곽영은 경북 영주 출신의 선비 겸 학자이며 아버지는 단곡(丹谷) 곽진(郭嶜, 1568~1633)이다. 곽진이 생전에 만의사를 방문하여 돌아본 감상의 내용을 담은 한시가 그의 문집인 『우주암집(宇宙菴集)』에 수록되어 전해지는데, 이 문집은 아버지인 곽진의 문집인 『단곡문집(丹谷文集)』에 합본[43]되어 전해지고 있다. 곽영의 만의사 한시는 2수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계헌(季獻)이란 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시운(詩韻)을 차용해서 지은 한시(A)이며 다른 하나는 만의사의 풍경을 읊은 한시(B)이다.

〈A : 만의사로 돌아와서 계헌(季獻)의 운자를 사용하여 문득 부쳐 보낸다〉
소나무(蒼官)는 뜻이 있어서 귀밑에 꽃을 꽂으니 / 蒼官有意鬢簪花
골짜기 입구 봄빛은 비가 내린 뒤에 많구나. / 峽口春光雨後多
학의 등에 부는 해풍이 술기운을 없애주니 / 鶴背海風消酒暈
비로소 내 몸이 절에 있는 줄을 알겠네. / 始知身在梵王家[44]

〈B : 만의사에 있을 때 진달래꽃이 처음으로 떨어지고 산 울타리에는
배꽃과 살구꽃이 성대하게 피었기에 율시 한 수를 짓는다.〉
진달래꽃은 지고 잎은 사람을 가리는데 / 杜宇花殘葉蔽人
울타리의 배와 복숭아와 살구가 남은 봄을 만류하네. / 樊梨桃杏挽餘春
연하가 옥동에 푹푹 찌니 시인의 눈이 흐릿하고 / 霞蒸玉洞詩眸暈
구름이 참선 창문에 몰려드니 불경이 새롭구나. / 雲逗禪牕梵語新

42 김안국, 『모재집(慕齋集)』 권8, 시(詩), 次萬義寺僧覺連詩軸韻; 모재선생기념사업회, 1998, 『국역 모재전집 : 하』, 한국인문과학원, 18쪽.

43 경북 영주시의 소수서원 옆에 있는 박물관인 소수박물관에서는 곽진의 문집을 번역한 『국역 단곡선생문집』을 2020년에 발간하였다. 이 문집에는 곽진의 아들인 곽영의 문집인 『우주암집(宇宙菴集)』도 같이 한글로 번역 및 수록되어 있다.

44 A : 소수박물관, 2020, 『국역 단곡선생문집』, 『우주암집』 시(詩), "回到萬義寺. 用季獻韻却寄"(449쪽, 해석 인용).

백년의 풍경을 보며 천 섬의 술을 들이키고 / 風景百年千斛酒
만리의 산하 속에 한 외로운 몸으로 떠도네. / 山河萬里一孤身
높은 누각에 기대니 뜬구름이 저물어 가는데 / 危樓徙倚浮雲暮
남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북으로 대궐을 바라보네. / 南望庭闈北望宸[45]

특히 만의사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단일 역사 인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사람은 수색(水色) 허적(許適, 1563~1640)을 들 수 있다. 문신 관료인 허적은 생전에 만의사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이 절에서 잠을 잤던 일을 비롯하여 만의사의 승려들과 깊은 교유 관계를 나누었다. 허적의 문집인 『수색집(水色集)』에는 만의사를 주제로 지은 한시 가운데, 만의사에서 수도하였던 계원(戒元)이라는 법명의 승려에게 증정하는 한시[46]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만의사 한시[47]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만의사의 승려 가운데 법동(法洞)이라는 법명의 승려에 대한 한시가 주목되는데, 법동 스님은 단청(丹靑)을 담당한 승려 화가인 화사(畫師)였다는 단서[48]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는 인조(仁祖) 재위기에 병조좌랑(兵曹佐郎) 및 정언(正言)을 지낸 문신 관료로 백천당(百千堂) 오핵(吳翮, 1615~1653)이 있다. 오핵은 그의 문집인 『백천당유고(百千堂遺稿)』에 만의사 관련 한시를 남기고 있다. 오핵의 만의사 한시는 그의 친구 2명에게 주는 증시(贈詩)인데, 겨울에 최모언(崔慕言), 이이경(李而擎)이란 이름의 2명의 친구와 함께 만의사를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는 한시의 내용이 전해진다.

한밤중의 절간에 불등이 어둑한데 / 三更蕭寺佛燈昏
좋은 벗을 만난데다 술 또한 마시네 / 佳客相逢又酒樽

45 B : 소수박물관, 2020, 『국역 단곡선생문집』, 『우주암집』 시(詩), "在萬義. 杜鵑初落. 山樊梨杏盛開. 賦一律"(450쪽, 해석 인용).

46 허적, 『수색집(水色集)』 권6, 시(詩), "再到萬義寺, 贈戒元師. - 去年曾過宿, 今日復來投. 尙認禪房穩, 還看佛殿修. 風林生夕響, 石澗漲春流. 更感元師意, 殷勤語不休."

47 허적, 『수색집(水色集)』 권6, 시(詩), 投宿萬義寺; 허적, 『수색집(水色集)』 권6, 시(詩), "宿萬義寺, 次前韻"; 허적, 『수색집(水色集)』 권6, 시(詩), "重到萬義寺, 次前韻".

48 허적, 『수색집(水色集)』 권6, 시(詩), "贈法洞上人 卽畫師丹靑萬義寺. - 手持一片雲孫來, 求我新詩取次裁. 情意殷勤雖倦俛, 文辭老耄轉摧頹. 風搖雪樹飛瓊蕊, 日照氷簷剖蚌胎. 凍筆頻呵隨手寫, 却慙開士善敲推. 又 梵宮修畢我重來, 驚見群工盡意裁. 秖喜丹靑今煥爛, 却嘆棆桷昔崩頹. 黃龍騰壁非流血, 文豹蹲楹豈煮胎. 妙筆功成皆贊美, 蒲團高臥孰擠推."

힘써 그대를 붙잡지만 그댄 머물지 않고 / 强欲留君君不住
눈보라 가득한 중에 산문을 내려가네 / 滿天風雪下山門[49]

오핵 이후로 몇 년 뒤인 1652년(임진년)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죽당(竹堂) 신유(申濡, 1610~1665)가 만의사에서 숙박하고 감흥을 남긴 한시가 보인다. 신유가 남긴 만의사 한시는 그의 문집인 『죽당집(竹堂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원(田園)적인 분위기의 만의사와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외진 땅 마을에 연기가 가득하니 / 絶地村烟盡
하늘 가운데 산이 무르익었네 / 中天岳色濃
숲에 들아가 오직 산골짜기의 물을 보고 / 入林唯見磵
골짜기를 통과하니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네 / 穿洞忽聞鍾
빽빽한 잎에 두견이 소리 괴로우니 / 葉密鵑聲苦
꽃은 지고 손님은 게으르다 / 花殘客意慵
들판의 부엌에는 새로운 고사리만 가득하여 / 野庖新飽蕨
절의 밥은 이바지 하는 아이만 기쁘네 / 齋飯喜重供[50]

신유 이후로 만의사가 현재 위치(화성시 풀무골로 219)로 옮겨 가기 이전에 원래의 위치(화성 원각사, 화성시 풀무골로 106번길 241-23)를 기준으로 남겨진 마지막 만의사의 한시에 대해서는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한시가 주목된다. 오두인의 만의사 한시는 이 절의 승려였던 '현응(玄應)'이라는 법명의 승려에게 주는 한시이다. 그런데 오두인은 이 한시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만의사에서 독서(讀書)를 하였다는 부제 내용[51]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오두인의 문집인 『양

49 오핵, 『백천당유고(百千堂遺稿)』 권1, 시(詩), "萬義寺贈崔慕言李而擎兩友." / 오핵의 만의사 한시 해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지현·백영빈 역주, 2019, 『(譯註) 百千堂集 : 해주오씨정무공파백천당종중』, 역락, 42쪽.

50 신유, 『죽당집(竹堂集)』 권5, 낙거록 임진(駱居錄 壬辰), 宿萬義寺; 신유 저·이기범 외 5인 역, 2021, 『竹堂遺稿 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72쪽.

51 오두인, 『양곡집(陽谷集)』 권1, 시(詩), "贈萬儀寺僧玄應. 寺在水原舞鳳山, 少時讀書此寺. - 萬儀寺裏三年客, 舞鳳山中一宿僧. 忽漫相逢浮海錫, 依然却憶讀書燈. 風塵行色迷前路, 雲水生涯最上乘. 早晩禪家如可訪, 石門煙月老蒼藤." / 오두인의 만의사 한시가 수록된 『양곡집』 권1에 있는 다른 한시들을 보면 만의사 한시 앞에 또 다른 한시에 간지연도인 을미년(乙未年, 1655년)이 기록되어 있고 만의사 한

곡집(陽谷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초반에는 문신인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 남긴 문집인 『북헌집(北軒集)』의 서문(序文)에 만의사의 '계환(戒環)'이라는 법명의 승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서문에서는 계환이라는 승려가 당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묘를 지키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52]을 알 수 있다. 현재 송시열의 묘소는 충북 괴산군(충북 괴산군 청천6길 37 일대)으로 이장이 된 상황인데, 1689년에 사약을 받고 사망한 이후에 처음으로 매장된 곳은 만의사 근처 은진송씨(恩津宋氏) 가문 묘역의 장지(葬地)[53]이다.

그 후 18세기 말인 1788년 무렵에는 선공감(繕工監)을 지냈던 조선 후기에 활동한 문신인 희재(戲齋) 윤형규(尹馨圭, 1763~1840)가 만의사와 무봉산을 유람하고 한시를 남긴 사례[54]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한시는 그의 문집인 『희재잡록(戲齋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윤형규의 만의사 한시 내용에는 이 절에 있던 동승(童僧)에 대한 언급, 그리고 절에서 예불을 드리면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문신이자 여항시인이었던 존재(存齋)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이 만의사를 낮에 방문하고 쉬면서 그 소감을 담은 내용의 한시[55]를 남겼다. 박윤묵의 문집인 『존재집(存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이 한시에서는 만의사를 송시열의 가문인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원당(願堂)으로 삼은 것에 대한 소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조선시대 초기부터 후기까지 몇백 년에 걸쳐 만의사를 방문하였던 여러

시 이후에 수록된 한시에 병신년(丙申年, 1656년)의 간지명이 있다.

52 김춘택, 『북헌집(北軒集)』 권20, 노산록 문 서(蘆山錄 文 序), "送戒環遊湖南序 - 水原萬義寺僧戒環。卽守尤齋先生墓者也。昔年。吾弟仲施爲水原府使。余與之往拜先生墓。退而宿於寺。從環問先生遺事。環嘗爲擔先生籃輿。夜則侍宿。故其言先生事甚詳。……"

53 현재 송시열의 후손인 은진송씨 가문에서는 송시열의 묘소가 처음으로 있던 초장지(初葬地)의 사실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웠다(「우암 송시열 선생 무봉산강학유허비 및 초장유지비 건립식 거행」, 『중도일보』 2016년 9월 27일). 송시열의 묘소가 이장된 이후인 19세기 말에 원각사가 새로 건립되었다.

54 윤형규, 『희재잡록(戲齋雜錄)』 시(詩), "遊舞鳳山萬義寺 - 暮日飛笻石逕鳴, 禿頭僧子倦相迎. 山谿遠近通人世, 花木風霜閱物情. 崇塔于今巢鳥穴, 禮禪仍舊擊鐘聲. 西方尊者慈悲願, 强指峯雲一片生."

55 박윤묵, 『존재집(存齋集)』 권9, 시(詩), "午憩萬義寺 - 雲塔月地大禪場, 宋氏當年舊願堂, 若使福田能利益, 胡爲巨室已喪亡."

문신, 학자들이 만의사에 대한 한시들을 남기고 있다. 한시의 내용들을 보면 사찰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문신 및 학자와 만의사 승려들과의 친분 및 교유 관계를 통한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의사와 관련된 내용의 한시들은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부족한 만의사의 역사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조선시대 만의사 소재 문화유산의 현주소

다음으로는 만의사와 연관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본다. 만의사에 대한 역사를 담은 불교문화유산은 현재 몇 점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만의사에서 조성된 불교문화유산 가운데, 오늘날까지 만의사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불교 유산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대체로 만의사의 불교문화유산들은 국보, 보물 등의 문화유산의 등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유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지역 불교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첫 번째로 현존하는 만의사 관련 불교 유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유산으로는 17세기에 만의사에서 수도하고 입적한 조선의 승려인 선화 경림(禪華 敬琳)의 생애를 기록한 비석인 선화대사비와 그의 승탑(〈그림 9〉)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경림이 입적한 후, 그의 제자 승려들이 문신인 정두경(鄭斗卿, 1597~1673)에게 경림 스님의 비문 제작을 부탁하였다. 정두경은 이에 경림 스님의 비문을 찬술하고 병술년(丙戌年, 1646년)에 선화대사비를 세웠다. 선화대사비의 비문은 정두경의 문집인 『동명집(東溟集)』에 수록[56]되어 전하고 있다.

만의사 선화대사비와 승탑은 현재의 만의사가 아닌 옛 만의사 자리였던 원각사(圓覺寺)의 인근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만의사에서 수행하였던 조선 중 · 후기 고승의 비문과 승탑은 승려와 관련된 불교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만의사

56 정두경, 『동명집(東溟集)』 권16, 비갈(碑碣), 禪華堂大師碑文; 이지관, 2000,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78~279쪽.

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불교문화유산 가운데, 현재 위치가 아닌 원래의 만의사 자리였던 원각사 인근에 남아 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화대사비 이후로 만의사에서는 17세기 1600년대 후반에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불상의 복장(腹藏) 전적물을 제작(〈그림 10〉)하였다. 복장 전적물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불교 경전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들의 제작 시기는 불상 제작 경위 및 후원자의 내용을 담은 발원문(發願文)이 발견되지 않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57]이다.

그렇지만 17세기에 불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였던 조선의 불교 조각승(彫刻僧)

〈그림 9〉 만의사 선화대사비 및 승탑(「화성 원각사(圓覺寺)에 선화대사 부도와 부도비가 있는 이유는?」, 『뉴스타워』 2022년 4월 19일)

〈그림 10〉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 전적(국가유산포털)

57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106쪽.

들이 남긴 다른 사찰의 법당에 봉안된 각종 불상들과의 양식 비교의 연구[58]를 통해 만의사의 불상을 제작한 승려가 누구인지를 추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조태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만의사의 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던 승려는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불교 조각승인 금문(金文)으로 추정하였는데, 1680~1690년대 후반에 불상이 조성[59]된 것으로 보았다.

사찰이 이전된 이후, 정묘년(丁卯年, 1687년) 3월에 만의사에서는 고려(高麗)시대에 제작된 동종(銅鐘)을 다시 개주(改鑄)한 동종을 제작(〈그림 11〉)하였다. 비록 종 자체는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지만,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종을 계승하여 다시 제작하였다는 동종의 명문(銘文)을 감안할 때, 고려 범종 양식의 전통[60]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96년에 만의사의 동종은 정조 재위기에 새로 축성된 수원화성(華城)의 종각으로 이전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만의사의 동종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수원 화성 종각의 동종으로 활용되다가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수원화성의 주요 성문 가운데 하나인 팔달문(八達門)의 동종으로 이전되었다. 현재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수원시 공립 박물관인 '수원박물관'으로 이전된 상황이다.

18세기 이후, 1791년 4월에는 '장의사(莊儀寺)'란 사찰에서 불화인 『지장시

〈그림 11〉 수원화성 팔달문 동종

58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12~1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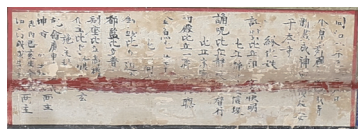
59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18쪽.

60 화성 팔달문 동종(만의사 동종)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高麗國都邑太康六年庚申二月日創建大鍾在於于后 康熙二十六年 丁卯三月日 京畿道水原府地東面 舞鳳山萬義寺大鍾改鑄重七百斤."(경기도, 1988, 『기내사원지』, 359쪽).

왕도(地藏十王圖)』를 제작(〈그림 12〉)하였다. 그런데 장의사(莊儀寺)라는 사찰에 봉안되었던 불화인 지장시왕도는 현재는 만의사로 이전되어 전해지고 있다. 불화를 처음 제작하였던 장의사란 사찰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장시왕도에 남아 있는 화기(畫記)에 따르면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에 있던 사찰로 기록[61]되어 있다.

따라서 장의사는 만의사 인근에 있었던 또 다른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장시왕도가 장의사에서 만의사로 언제 불화가 옮겨졌는지는 그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장의사가 없어지면서 만의사로 지장시왕도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인 1869년 3월에는 만의사에 또 다른 불화인 신중도(神衆圖)가 제작[62] 및 봉안(〈그림 13〉)되었다. 현재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이 신중도는 만의사에 남아 있지 않고, 경기도 안산시의 섬인 대부도(大阜島)에 있는 사찰인 쌍계사(雙溪寺)로 이전 및 소장되어 있다. 만의사의 신중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산의 쌍계사로 이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기록이 전하지 않아 불화가 이전



〈그림 12〉 화성 만의사 지장시왕도(국가유산포털)
〈그림 13〉 안산 쌍계사 신중도(神衆圖) 및 화기(畫記)(국가유산포털)

61 송천 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 2011,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연구원, 559쪽(장의사 지장탱 莊儀寺 地藏幀 화기 참조).

62 송천 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 2011,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연구원, 695쪽(만의사 신중탱 萬儀寺 神衆幀 화기 참조).

된 경위를 알 수 없다. 다만 만의사 및 경기 지역의 사찰 승려 또는 불교 신도(信徒) 가운데 안산 쌍계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통해 신중도가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및 동자상(童子像)(〈그림 14〉)이 주목된다. 총 31점의 나무로 제작된 조각상이 전해지는데, 지장보살(地藏菩薩),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의 지장보살삼존상 3점, 시왕상 10점, 귀왕상 2점, 판관 2점, 사자상 2점, 인왕상 2점, 동자상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조각상들은 원래 화성 만의사에서 제작[63]되어 만의사의 전각 건물 가운데 지장전(地藏殿)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인 1894년에 만의사 지장전의 붕괴 사고로 인해 이 불상들을 용주사로 이전[64]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들은 용주사의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고, 동자상은 용주사의 사찰 박물관인 효행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4〉 화성 용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국가유산포털)

63 만의사 지장전에 봉안된 조각상들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제작 시기는 미상이다. 그렇지만 만의사의 지장시왕도가 1791년에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4 당시 만의사의 지장전에는 앞서 살펴본 장의사에서 제작된 지장시왕도가 같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만의사의 지장전이 1894년에 퇴락한 후, 불화인 지장시왕도를 제외하고 지장전에 봉안된 모든 불교 조각상이 용주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만의사와 연관된 불교문화유산 가운데 다수의 문화유산은 현재 만의사가 아닌 경기도 지역의 다른 사찰 및 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만의사에서 제작되었던 불교문화유산들을 통해 사찰의 재난 및 수난의 역사를 증언해 주고 있다. 비록 만의사 불교문화유산들의 소재지가 이전되었어도 오늘날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전해지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일제강점기 만의사의 역사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만의사는 고려 말기에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문신 관료인 조인규 가문의 승려인 혼기, 의선이 대대적으로 중건하였다. 아울러 고려 말기에는 신조(神照) 스님의 주관한 대규모의 불교 법회인 화엄법회(華嚴法會)를 개최하면서 수원 및 화성 지역의 명찰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지만 만의사는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제하는 국가 정책의 기조의 영향으로 불교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17세기에는 만의사의 위치가 산림(山林)인 송시열(宋時烈)의 묫자리로 지정되어 사찰 위치를 이전하는 등의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사는 사찰을 옮긴 이후에도 동종(銅鐘), 불상(佛像), 불화(佛畫) 등의 불교 유산을 제작하고 사찰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大雄殿)을 중수하는 등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를 꾸준히 이어갔다.

비록 많은 수량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걸쳐 만의사를 방문하였던 수많은 문신, 학자들이 만의사를 주제로 지은 한시들이 주목된다. 만의사를 주제로 지은 한시들은 한시를 지은 문인(文人)들이 방문하였을 당시의 만의사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조선시대에 만의사에서 지내던 여러 승려들의 법명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만의사와 관련된 많지 않은 정사(正史) 기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의사의 불교문화유산들은 특정 사찰이 주체가 되어 제작된 불교유산으로서의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 곳으로 이전된 안타까운 역사의 현주소를 그대로 전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의사의 불교문화유산 이전(移轉)의 역사에 대해 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안산시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끝으로 만의사의 불교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현안이 시급한 점이 있다. 조선의 고승인 선화 경림 대사의 비문과 승탑이 아직까지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인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비지정 유산으로 남아 있는 만의사의 선화대사비와 승탑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65]한 바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경기도 단위의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을 후일의 과제로 제기한다. 끝으로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만의사의 역사를 정리한 연혁, 만의사 지장시왕도 및 신중도 등의 불화의 화기(畫記), 선화 경림대사의 비문을 별첨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투고일 2025년 4월 24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65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화성시 비지정 문화재 현황조사 시작」, 『평택자치신문』 2022년 5월 30일.

<별첨>

조선시대~일제강점기 만의사의 연혁

시기	내용
1405년 11월 21일	• 만의사의 사사전(寺社田)을 일단은 그대로 둔다는 조선 태종의 입장 공포(公布)(『태종실록』)
1500년대 초반	• 조선 초기의 문신인 최수성(崔壽峸, 1487~1521)이 만의사 한시를 남김
1530년	•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에 만의사 기록
1537년	•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만의사를 주제로 한시(丁酉 간지명이 있음)를 『모재집』에 남김
1617~1618년	• 곽영(郭瓔, 1588~1618)이 만의사를 방문하고 쓴 한시를 『우주암집』 남김
1631~1634년	• 허적(許適, 1563~1640)이 만의사에 대해 쓴 몇 편의 한시를 『수색집』 남김
1641년	• 선화 경림(禪華 敬琳, 1566~1643) 대사가 만의사의 주지가 됨
1643년	• 만의사에서 수행을 하던 고승인 선화 경림(禪華 敬琳) 대사가 입적
1645년	• 문신인 오핵(吳翮, 1615~1653)이 만의사를 방문하여 친구 2명에게 주는 한시를 남김 (오핵의 문집 『백천당유고』에 전해짐)
1646년 8월	• 무술년(戊戌年) 8월 경림대사의 제자 승려들이 만의사에 경림대사의 승탑과 비문을 세움 • 비문은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이 지었고, 그의 문집인 『동명집(東溟集)』에 선화 대사비문이 전해짐 • 이 해에 지해(智海) 스님이 만의사 주지가 됨(『용주사 본말사지』)
1652년	• 신유(申濡, 1610~1665)가 만의사에서 숙박하고 쓴 한시(壬辰 간지가 있음)를 『죽당집』에 남김 • 이 해에 보응(寶應) 스님이 만의사 주지가 됨(『용주사 본말사지』)
1655년 추정	•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이 만의사(萬儀寺)의 승려에게 주는 증시(贈詩, 乙未 간지가 수록된 한시)를 『양곡집』에 남김
1656년	• 유형원의 지리서 『동국여지지』 수원도호부조에 만의사 기록
1660~1680년	• 우암 송시열의 묘소를 만의사에서 쓴다고 하여 폐찰하고 만의사 위치를 현재 위치로 이전
1684년	• 이유태(李惟泰, 1607~1684)의 문집인 『초려집』에 만의사 언급 내용이 나옴
1687년 3월	• 만의사 동종 주조(현 수원 팔달문 동종,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종을 다시 주조) • 당시 만의사 주지 승려의 법명은 성운(性雲)(동종 명문)
1688년	•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송회석(宋晦錫)이란 사람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쓴 애사(哀辭, 추모의 글)를 『문곡집』에 남김 • 이 애사에 만의사(萬儀寺)가 언급되어 있음
1680~1690년대 중간	• 만의사에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고 복장(腹藏) 발원문을 지음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	• 김춘택의 문집인 『북헌집(北軒集)』에 만의사 승려 계환(戒環)이 언급(계환이라는 승려가 송시열의 묘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음)
1740년대 중간	•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의 저서인 『동소만록(桐巢漫錄)』에서 만의사를 언급(동소만록은 일종의 黨論書임)
1761년 3월	• 만의사의 대웅전 건물을 중창(重創)함. 화성 만의사가 소장한 『수원무봉산만의사대웅전중창기문(水原舞鳳山萬仪寺大雄殿重刱記文)』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음

시기	내용
1765년 12월	• 송덕상(宋德相, 1710~1783)이 만의사에서 소학(小學)을 강의함(송덕상 『과암집』)
1781년 10월 8일	• '연덕윤(호서 지역 유생)'이란 사람의 통문(通文) 사건과 연관하여 만의사가 언급됨(『정조실록』)
1788년 추정	• 문신인 윤형규(尹馨圭, 1763~1840)의 문집인 『희재잡록』에 만의사 유람 한시 수록
1789년 5월	• 전라남도 해남군에 사명 유정(惟政, 1544~1610)의 사당인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였는데, 이때 만의사에서 3전의 돈을 시주함(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
1791년 4월	• 경기도 수원도호부에 있던 장의사(莊儀寺)란 사찰에서 제작하여 봉안된 불화(佛畫)인 지장시왕도가 만의사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만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음(불화가 언제 이전되었는지 불확실)
1796년	• 만의사 동종이 수원 화성(華城)의 종각으로 이전됨(국가유산포털)
1831년 무렵	•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이 만의사를 낮에 방문하면서 쉬었던 소감을 바탕으로 만의사 한시를 『존재집』 남김
1853년	• 지리서인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만의사 언급
1869년 3월	• 만의사에서 불화 가운데 하나인 신중도(神衆圖)를 제작 • 그러나 이 신중도는 현재 만의사에 있지 않고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사찰인 쌍계사(雙溪寺)로 이전되어 봉안
1872년	• 조선 정부에서 간행한 「수원부지도」에 만의사 표기
1878년 6월	• 고을 수령의 치적(治績) 관련 일건으로 만의사가 언급됨(『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재위기)
1888년	• 원래의 만의사 옛터에 새롭게 원각사(圓覺寺)가 새로 건립되었다고 전함(원각사는 송시열의 은진송씨 후손들이 건립하였다고 함)
1894년경	• 만의사의 전각 건물 가운데, 지장전(地藏殿)이 무너지면서 이 전각에 봉안되어 있던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등의 불교 조각상들을 화성 용주사(龍珠寺)로 이전 • 오횡묵(吳宖默)의 지리서인 『여재촬요』에서 만의사 언급
1896년 3~5월	• 만의사의 주지 승려인 연순(淵順)이 사찰의 운영난으로 세금 감면을 요청(『공문편안』)
1899년	•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에 만의사 언급
1909년	• 융희(隆熙) 3년 10월에 발간된 『사찰고(寺刹考)』에 만의사의 주지 승려를 이대석(李大錫)으로 임명(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사진)
1911년	• 만의사가 용주사의 말사(末寺)로 지정(만의사 사적비)
1912년 1월 25일	• 만의사 주지 스님으로 남창업(南昌業)이 임명
1912년 10월	• 만의사 외에도 만의암(萬儀庵) 명칭도 보임(『조선불교월보』 제9호, 1912년 10월 발간 (용주사 본말사법 龍珠寺 本末寺法))
1916년 10월 11일	• 만의사 주지 스님으로 남창업(南昌業)이 물러나고 김우담(金雨潭) 임명
1920년 6월 7일	• 만의사 주지 스님으로 김우담(金雨潭)이 물러나고 한계홍(韓桂洪) 임명
1924년 7월	• 『불교(佛敎)』 창간호(1호)에 만의사의 역사가 언급됨(神照 스님 관련)
1924년 10월 12일	• 만의사 주지 한계홍(韓桂洪)이 사임
1925년 2월 6일	• 김대원(金大源) 주지 스님 취임(『불교』 12호, 1925년 6월; 『조선총독부 관보』 3801호, 1925년 4월 20일에서도 똑같이 언급)

시기	내용
1927년 2월 22일	• 만의사의 숲 벌채(伐採) 허가
1927년 2월 25~26일	• 만의사에 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김대원 주지 스님을 결박, 강도가 돈을 훔치고 달아났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
1928년 6~9월	• 김대원(金大源) 주지 스님 재임
1929년 1월	• 만의사가 『불교』 55호에 특별사우(特別社友) 사찰로 지정됨(259번째 특별사우로 선정)
1929년 7월	• 『불교』 61호에 신조(神照) 스님 언급(천태종 기록, 만의사 화엄법회 내용)
1930년 5월 23일	• 김대원(金大源) 주지 스님에서 장혜성(張慧城) 주지 스님 임명
1931년 10월 9일	• 조선총독부에서 만의사의 사찰 재산(財産) 현황 파악 조사
1933년 5월 29일	• 장혜성(張慧城) 주지의 만의사 주지 자리 연임
1936년 5월 19일	• 장혜성(張慧城) 주지의 만의사 주지 자리 연임
1939년 6월 23일	• 장혜성(張慧城) 주지의 만의사 주지 자리 연임
1941년	• 화성 원각사(구 만의사)가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 • 이듬해 1942년 재건(화성 원각사 설명 안내판)
1943년 12월 8일	• 만의사의 사찰 인근 숲 벌채를 허가 寺有林伐採許可

장의사(만의사) 지장시왕도 화기(莊儀寺 地藏十王圖 畵記)

乾隆伍拾陸年 辛亥四月日造成 于京畿左道水原大都護府 東嶺舞鳳山莊儀寺 中壇幀奉安

證師 性月堂 偉綜 / 性海堂 快認

誦呪 就圓 / 處覺 / 慈默

畫師秩 比丘演泓 / 比丘德樞 / 比丘義堅

都畫師 雪淳

片手 比丘文玉 / 比丘處〇 / 比丘等云 / 比丘大義 / 比丘宗侃

書記 德樞 / 鐘頭 覺淳

供養主 還眞 / 寬恬

大施主秩 波幀施主 朴守根

彩畫施主 甲寅生 全氏 / 李奉謙 / 朴大根 / 李泰澄 / 金敬瑞 / 崔放起 /

朴貴三 / 金大重 / 金重大 / 申起泰 / 申龍大 / 裵順泰 / 金〇〇

化主秩 輝侃 比丘道訓 /

都監 比丘明湜 / 淨桶慈玉

別座 瑞弘

만의사 신중도 화기(萬義寺 神衆圖 畵記)

同治八年 己巳三月日 水原舞鳳山萬儀寺 新畵成神衆幀奉安 于本寺

緣化秩

證明 比丘 印虛堂快明 / 比丘 靜月堂信瓊

誦呪 比丘 靜坡堂智行 / 比丘 永寬

持殿 比丘 一濟堂〇聰 / 金魚 比丘 幸〇 / 比丘 尙〇

鐘頭 比丘 道〇 / 都監 普〇 /

別座 比丘 尙權 / 化主 比丘 〇〇〇〇玄

施主秩

乾命 庚申生 裵氏 & 坤命 〇酉生 朴氏 兩主 /

乾命 己亥生 金氏 & 坤命 戊戌生 〇氏 兩主

※ 비고 : 현재 만의사 신중도는 경기도 안산 쌍계사 소장

만의사 선화당대사비문〈정두경, 『동명집』 권16, 비갈(碑碣)〉

禪華堂大師碑文

師廣州人 姓李氏 名敬琳 萬曆丙寅 疑有誤 生 十六出家 七十八入寂

其師西山弟子松雲師也 性根聰慧 持戒嚴謹 遠近聞風來役者甚衆

及終 弟子 智海 寶應等 建浮圖于水原舞鳳山萬義寺 安舍利 寺有六浮圖

其第一 麗季禪師奉利君神照者也 至師爲七弟子 又立石 來請銘 銘曰

噫禪師 眞法器 自童稚 厭塵累 易葷豢 甘露嗜 棄其家 亦其志

祖西山 派有自 得其門 門不二 寂兮寥 生大智 廓無聖 第一義

力龍象 出乎類 無遠邇 悅風至 若雲集 不可記 有不見 見必醉

適去順 生也寄 壽七十 加二四 大衆悲 咸涕淚 昔師存 大有庇

今也亡 誰其嗣 化之日 見靈異 夜有光 燭天地 隻履逝 舍利墜

立浮圖 安舍利 舞鳳山 萬義寺 刻諸石 後世示 弟子來 請文字

遵其言 記其事

참고문헌

『법화삼매참조선강의(法華三昧懺助宣講義)』; 『태종실록(太宗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수원무봉산만의사대웅전중창기문(水原舞鳳山萬仪寺大雄殿重刱記文)』;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 『여도비지(輿圖備志)』; 『수원부지도(水原府地圖)』; 『여재촬요(輿載撮要)』; 『공문편안(公文編案)』; 『사찰고(寺刹考)』.

권　근, 『양촌집(陽村集)』.
김수항, 『문곡집(文谷集)』.
김안국, 『모재집(慕齋集)』.
김춘택, 『북헌집(北軒集)』.
남하정, 『동소만록(桐巢漫錄)』.
박윤묵, 『존재집(存齋集)』.
송덕상, 『과암집(果菴集)』.
신　유, 『죽당집(竹堂集)』.
오두인, 『양곡집(陽谷集)』.
오　핵, 『백천당유고(百千堂遺稿)』.
윤형규, 『희재잡록(戱齋雜錄)』.
정두경, 『동명집(東溟集)』.
최수성, 『원정유고(猿亭遺稿)』.
허　적, 『수색집(水色集)』.

경기도, 1988, 『기내사원지(畿內寺院誌)』, 경기도문화공보담당관실.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불적자료집(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
곽진 · 곽영 저, 강구율 옮김, 2020, 『(국역) 단곡선생문집』, 소수박물관.
김명환, 2004, 「설화가 깃든 산사기행 무봉산(舞鳳山) 만의사(萬義寺)」, 『문화의 뜰』 45, 화성문화원.
김성은, 2012, 「조선후기 선불교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연구 : 17세기 고승 비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지현 · 백영빈 역, 2019, 『(譯註) 百千堂集 : 해주오씨정무공파백천당 종중』, 역락.
김진원, 2010, 「무봉산 선화대사비를 찾아서...」, 『문화의 뜰, 화성의 추(秋) 이야기』 66, 화성문화원.
모재선생기념사업회, 1998, 『국역 모재전집 : 하』, 한국인문과학원.
박윤진, 2010, 「고려 천태종의 종파 문제 : 조선초 천태종의 선종 귀속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송천스님 · 이종수 · 허상호 · 김정민, 2011,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연구원.
신유 저 · 이기범 외 5인 역, 2021, 『竹堂遺稿 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윤기엽, 2004, 「고려후기 사원의 실상과 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이정무, 1984, 『용주사 본말사지』, 진영출판사.
이지관, 2000,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 · 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조태건, 2023, 「화성 만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승 추론」, 『불교문화재연구』 4,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한동민, 2005,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 Ⅰ』,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황인규, 1998, 「조인규 가문과 수원 만의사」,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황인규, 2015, 「고려후기 · 조선초 천태종단의 존재양상 추이 및 동향 : 주요 고승과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4, 한국불교학회.

「住持就職認可」 明治 45年(1912년) 1月 25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0421호.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教月報)』 제9호(1912년 10월), 龍珠寺本末寺法.
「住持及住職異動」 大正 5年(1916년) 10月 11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1258호.
「住持異動」, 大正 9年(1920년) 6月 7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2346호.
「李朝佛教史第一編, 第一章　太祖와佛教, 二　高僧碩德을尊敬한事,〔神照大師〕」, 『불교(佛教)』 창간호, 1924년 7월.
「官報抄錄 ○住持異動 大正十三年(1924년) 十月十二日」, 『불교(佛教)』 제12호, 1925년 2월 6일.
「官報抄錄 ○寺有林伐採許可(1927년)」, 『불교(佛教)』 제34호, 1927.
「水原萬儀寺强盜 京城市內로 侵入」, 『조선일보(朝鮮日報)』 1927년 2월 25일.
「お寺へ强盜」, 『경성일보(京城日報)』 1927년 2월 25일(일본어 신문).
「萬儀寺에强盜」,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2월 26일.
「萬儀寺에强盜 주인을 결박」, 『중외일보(中外日報)』 1927년 2월 26일.
「社友題名錄(第六回報告), ○特別社友, 二五九 萬儀寺 水原」, 『불교(佛教)』 제55호, 1929년 1월.
「住持異動」, 昭和 5年(1930년) 5月 23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1014호.
「寺刹有財産」, 昭和 6年(1931년) 10月 9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1429호.
「住持異動」, 昭和 8年(1933년) 5月 29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1913호.

「住持異動」, 昭和 11年(1936년) 5月 19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2802호.
「住持異動」, 昭和 14年(1939년) 6月 23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3726호.
「寺有林伐採許可」, 昭和 18年(1943년) 12月 8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5055호.
「우암 송시열 선생 무봉산강학유허비 및 초장유지비 건립식 거행」, 『중도일보』 2016년 9월 27일.
「[겸재 그림 길 (98) 무봉산중] 겸재 그림 덕 되살아난 만의사 두 건물」, 『문화경제 CNB저널』 2022년 4월 14일.
「화성 원각사(圓覺寺)에 선화대사 부도와 부도비가 있는 이유는?」, 『뉴스타워』 2022년 4월 19일.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화성시 비지정 문화재 현황조사 시작」, 『평택자치신문』 2022년 5월 30일.
경기도메모리 디지털아카이브(https://memory.library.kr/main).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동국대 불교학술원)(https://kabc.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수원박물관(https://smuseum.suwon.go.kr/sw/main/view).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화성문화원(https://www.hscc.or.kr/).

요약

본 논문은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舞鳳山)에 있는 전통 사찰인 만의사(萬義寺, 萬儀寺)를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사찰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현재까지 만의사는 고려(高麗) 말기부터 조선(朝鮮)시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해당하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지역에 있던 중심 사찰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의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고려 정계 및 불교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만의사와 연관되어 있는 불교문화유산 단위의 부분적인 연구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먼저 만의사가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 고려 말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이후로 만의사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만의사에 대한 기록의 공백은 만의사와 관련이 있는 역사 인물들이 남긴 한문 저서들인 문집(文集)을 통해 파악하였다. 조선시대에 활동한 문신, 학자들 가운데는 만의사 및 만의사의 승려와 친분이 있었던 사례가 파악된다. 다음으로 만의사와 연관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들을 알아보며 사찰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조선시대에 만의사에서는 고승비(高僧碑), 승탑(僧塔), 동종(銅鐘), 불화(佛畫)와 같은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제작하였지만, 현재 이들 문화유산은 만의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찰 및 박물관으로 이전된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만의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학술 연구상으로 조명되지 못한 고문헌 자료들을 동원하여 통합적인 연구로서 만의사의 사찰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전개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만의사가 17세기 이후로 현재의 위치에서 전개된 사찰의 역사, 그리고 만의사의 옛터에 조선 말기에 다시 새로 건립된 사찰인 원각사(圓覺寺)까지 모두 포괄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그동안 특정 사실(史實)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던 만의사에 대한 역사를 통사적(通史的)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제어 : 만의사, 사찰 연혁, 역사 전개, 한시(漢詩), 불교문화유산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of Manuisa Temple in Hwaseong (Suwon), Gyeonggi Province

: Focus on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wang Cheol-Gyun

This paper explores the people and history of Manuisa Temple, a traditional temple located on Mubong Mountain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study traces the temple's history from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torically, Manuisa Temple served as the central temple of the Suwon Protectorate, corresponding to the present-day Hwaseong, during the lat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However, previous research has been limited, focusing mainly on the temple's role in Goryeo politics and religious circles, or select aspects of its Buddhist cultural heritage.

Beginning with the temple's first documented appearance in the late Goryeo period, this study examines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rough the Joseon Dynasty and beyond. Gaps in the historical record during the Joseon period were supplemented by examining Chinese literary collections written by historical figures associated with Manuisa Temple. The research reveals that several civil officials and scholars of the Joseon period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temple and its monks.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Buddhist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Manuisa Tem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temple produced various forms of heritage, such as Goseungbi (tombstones for monks), Seungtap (stupas), Bronze bells, and Buddhist paintings. Unfortunately, many of these artefacts were relocated to other temples or museums and are no longer housed at Manuisa Temple itself.

Drawing on previously overlooked sources,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temple's history from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It also addresses the history of Manuisa Temple at its current site from the 17th century onward, and includes an exploration of Wongaksa Temple, which was established at Manuisa's original site in the 19th centur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By synthesizing these findings, the study aims to offer a more complete and contextualize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Manuisa Temple, which has until now been explored only in fragmented ways.

Key words : Manuisa Temple(萬義寺), History of Temple, Historical Development, Sino-Korean Poetry, Buddhist cultural heritage

『수원학연구』 22, 2025.12, 39~00쪽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이 조선 후기 수원 지역 생태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배성열*

1. 서론
2.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 속 수원 지역의 산림환경
3. 수원화성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그 영향
4. 현륭원 식목 활동과 생태환경의 변화
5. 결론

1. 서론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문제 개인을 넘어서 인간 전체는 물론 지구상에 모든 생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에서 국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 분야에서도 이어져 생태환경사(生態環境史)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에서도 생태환경사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생태환경사 연구는 17세기 소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는 김덕진은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2008)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현종 · 숙종 연간에 발생한 대기근(大飢饉)과 같은 현상은 17세기

* 수원화성박물관 연구원(Researcher, Suwon Hwaseong Museum), E-mail : bsymir3578@naver.com, Tel : 031-5191-3022

에 있던 소빙기 현상의 여파임을 설명하였다. 2015년에는 한국생태환경사학회가 창립되어 한국의 생태환경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김동진(한국생태환경사학회 초대회장)의 『조선의 생태환경사』(2017)는 최근 생태환경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사는 연구 자료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적 한계로 인해 생태환경사 연구가 지역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행히 수원 지역의 경우 정조시기의 있었던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지역학 차원에서 생태환경사 연구를 하기에 비교적 많은 자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수원의 지역학 차원에서 이러한 생태환경사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생태환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를 하나 꼽는다면 당시의 산림(山林) 문제였다. 산림의 문제는 동물과 식물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활 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김소라는 「불과 물: 조선 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2022)[1]을 통하여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가 도시 환경과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재구성하여 생태환경사를 당시의 생활사, 제도사 등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 문제와 관련하여 왕릉의 생태환경사적 가치 역시 조명되고 있다. 배성열은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의의」(2022)[2]를 통하여 당시의 산림 환경의 변화가 동물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동물 중 최상위 포식자였던 호랑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왕릉 주변의 산림(山林)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조선 후기 산림 환경의 파괴로 인해 터전을 잃은 동물들이 이 시기 아직 산림 환경이 유지되고 있던 왕릉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 역시도 먹이사슬에 따라 왕릉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이것이 주변 지역에서 호환(虎患)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환-착호(捉虎)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 왕릉의 생태환경사적 가치를 조명

1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2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옛 수원 지역에 조성된 융건릉의 사례를 특별한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기 지역 안에서 17세기 후반에 호환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이었으며, 이곳은 17세기 전반에도 호환이 자주 발생한 적 있는 지역이었다.[3] 이에 비해서 당시 수원은 이전까지 호환으로 인해 큰 문제가 있던 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현륭원(현재 융릉) 조성 이후에는 단기간에 걸쳐 호환 연속으로 발생하는 모습이 관측되기 시작한다.[4]

본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당시 산림 문제를 중심으로 수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정조시기의 화성건설과 현륭원 조성을 생태환경사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 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이 있기 이전의 전국적인 산림 문제와 그 가운데에 수원 지역의 산림 문제를 우선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 만들어지는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이 각각 수원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19세기 수원화성 주변에서 발생한 수해(水害) 발생 사례와 현륭원 · 건릉 주변에 발생한 호환(虎患) · 착호(捉虎)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원의 지역학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사 · 문화적 공간이 가진 또 다른 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 속 수원 지역의 산림환경

현륭원 천장이 있던 시기는 전국적으로 산림황폐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앞선 생태환경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산림황폐화의 원인은 17세기에 있었던 이상 기후로 인한 것이었다. 소빙하기(小氷河期) · 소빙기로 불리는 이 시기의 이상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해 · 재난을 초래하였다. 조선에서도 대기근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였다.[5]

3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3쪽.

4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34쪽.

5 김덕진, 2008,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60~277쪽.

조선의 주민들은 소빙기의 이상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화전(火田)을 일구고 거주지에는 온돌을 설치해 나갔다. 그리고 화전과 온돌은 이 시기 산림황폐화의 주된 원인이었다.[6] 산림황폐화의 결과는 단순히 산과 숲의 식생(植生)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산림에 의지해 살던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7]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도 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그 안에 식물들은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초식동물들을 먹는 육식동물들로 생태계가 순환한다. 따라서 산과 숲의 식생이 소멸하는 것은 초식동물과 그 초식동물을 먹이로 한 육식동물들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산림황폐화의 피해에서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시기 산림황폐화로 인해 인간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졌다. 특히 산림황폐화는 홍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무와 풀이라는 완충지가 사라진 산은 그대로 빗물을 내려보내 주변을 침수시켰다.[8] 그리고 나무가 없어진 곳에서 더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피해를 일으켰다. 17세기 중엽 이후 증가한 서울 지역의 홍수 피해 사례는 모두 산림황폐화로 인한 것이었다.[9] 이처럼 조선 후기의 산림황폐화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였다.

이러한 산림황폐화는 17세기부터 관측되어 현륭원 천장이 있던 18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산림황폐화는 이미 17세기 중엽에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화전(火田)이었다. 1660년(현종 1)의 기록에 의하면 크고 작은 산골짜기 중 7~8할은 화전(火田)이 되었다고 한다. 화전에 대한 지속적인 금지령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들은 빠르게 민둥산이 되어갔다.[10] 화전으로 산과 숲이 줄어들자, 재목(材木)은 물론 약초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었다.[11] 숙종 재위 초에는

6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111~139쪽.
7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177쪽.
8 오청현·남동호·김병식, 2019, 「강원도 지역의 산불발생이 홍수량 및 토석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평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 한국방재학회, 85쪽.
9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128~139쪽.
10 『備邊司謄錄』 顯宗 4년 12월 18일.
11 『備邊司謄錄』 肅宗 1년 2월 28일.

벌써 전국의 산들이 모두 민둥산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12]

이러한 산림황폐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북쪽부터 살펴보면 평안도는 숙종 초에 모든 산이 화전으로 민둥산이 되었다고 한다.[13] 특히 이 지역은 국방상의 요충지가 많았는데, 전투 시 엄폐물이 되어주는 나무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평안도의 요충지 주변의 많은 산들이 화전으로 민둥산이 되었는데[14] 평안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충지인 효성령(曉星嶺)이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15] 이처럼 북방에선 민둥산으로 군사 · 국방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평안도와 도성 사이에 있던 황해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숙종 초 요새를 설치한 백치(白峙)의 경우, 본래 좁은 길에 많은 수목이 있어 험준했는데 수목이 줄어들면서 험준함을 잃었다.[16] 동선령(洞仙嶺)을 비롯한 여러 산은 정상까지 화전이 가득 생겨 날 지경이었다.[17] 이 때문에 황해도 · 평안도 순무사(巡撫使)에게 화전을 엄히 단속하라 했지만[18] 평안도와 황해도의 산림 상황은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19]

가장 많은 산지를 가진 함경도와 강원도 역시 숙종 초에 이미 많은 산이 민둥산으로 변해있었다. 봉수대 사이에 있는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있었다고 한다.[20] 1714년(숙종 40)부터 1715년(숙종 41)까지 길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여적(李汝迪)에 의하면 그가 길주에 있던 시절 수목이 울창했던 함경도 철령이나 강원도의 쌍포령 등의 산들이 근래 들어 화전으로 모두 민둥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길주에 있던 시절에서 불과 13년 지난 시점의 증언이었다.[21]

삼남 지방의 경우는 산림황폐화로 선재(船材) 공급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숙종 때에는 민둥산이 많아져서 앞으로 10년이면 선재로 쓸 나무가 남아 있지 않을 것

12 『備邊司謄錄』 肅宗 4년 10월 26일.
13 『備邊司謄錄』 肅宗 4년 10월 26일.
14 『備邊司謄錄』 英祖 5년 8월 28일.
15 『英祖實錄』 19년 4월 20일; 『備邊司謄錄』 영조 19년 4월 21일.
16 『備邊司謄錄』 肅宗 1년 9월 12일.
17 『肅宗實錄』 6년 1월 6일
18 『備邊司謄錄』 肅宗 32년 9월 6일.
19 『英祖實錄』 19년 4월 20일
20 『備邊司謄錄』, 肅宗 1년 4월 4일.
21 『承政院日記』 肅宗 40년 11월 18일; 『備邊司謄錄』 영조 3년 11월 10일.

이라고 전망하였다.[22] 실제로 10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조시기에 선재 공급처가 모두 민둥산으로 변해 조창(漕倉)에서 조선(漕船)을 만들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23]

충청도에서 선재를 조달하던 곳은 안면도였다. 안면도는 선재뿐 아니라 왕실, 정부에서 소요되는 목재를 공급하던 곳이었다. 수원화성 공역 당시 대형 건축물에 들어갈 대부등(大不等) 344개도 모두 이곳에서 공급하였다. 이곳은 전국의 산림황폐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20세기 초에도 상당한 면적의 입목지(立木地)가 유지되고 있었다.[24] 그러나 어쨌거나 안면도의 민둥산 범위도 17세기 이래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25]

전라도의 주된 선재 공급처들 역시 하나둘 민둥산이 되어 갔다. 해남의 황원산(黃原山)은 17세기 후반부에 민둥산이 되었다.[26] 이 무렵 전라도에서는 남벌의 행태가 목격되는데 숙종 때는 화재로 인한 소실이라 속이고 나무를 베거나 하는 데에 수령과 변장들까지 가담하는 일이 있었으며,[27] 영조 때는 풍락송(風落松)을 베는 과정에서 다른 나무들을 함께 베는 행태가 발견된다.[28] 영조 때에 이르면 이제 보길도와 고금도에서만 선재를 공급받았으나 질도 나쁘고 양도 충분치 못하였다.[29] 정조시기에는 아예 추가적인 조선(漕船) 제조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30]

경상도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진행을 보였다. 정조시기에 이르면 연해(沿海) 지역의 봉산(封山)들 상당수가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31] 경상좌도 쪽에서는 아예 선재 공급지가 없어져서 경상좌수영에서 필요한 선재들을 경상우도 쪽에서 공급받아야 했다.[32] 민둥산이 많아지자, 경상도 지역의 조선(漕船) 운영이 선재를 많이 소비한다는

22 『備邊司謄錄』 肅宗 29년 1월 22일.
23 『正祖實錄』 21년 1월 15일.
24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177쪽.
25 『備邊司謄錄』 肅宗 13년 1월 21일; 肅宗 20년 8월 7일; 英祖 50년 3월 24일.
26 『備邊司謄錄』 肅宗 3년 7월 28일.
27 『備邊司謄錄』 肅宗 19년 5월 19일.
28 『備邊司謄錄』 英祖 17년 11월 25일.
29 『備邊司謄錄』 英祖 8년 2월 24일.
30 『備邊司謄錄』 正祖 5년 12월 4일.
31 『備邊司謄錄』 正祖 13년 11월 15일.
32 『備邊司謄錄』 正祖 20년 8월 22일.

지적이 일기도 했다.[33]

각 지방의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라의 중심인 서울과 그 주변부인 경기 지역의 산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 경기 지역의 산들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많은 훼손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온돌로 인한 땔감 소비량은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서울 · 경기 지역은 가장 많은 땔감을 소비하는 곳이었다.[34] 이러한 땔감을 대기 위해 서울과 경기엔 많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숙종 때엔 왕릉과 가까운 산들조차도 민둥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숭릉 화소(火巢) 경계 안에 있는 산은 아니었으나 내안산(內案山)과 외안산(外案山) 사이에 있던 산 하나가 민둥산이 되었다.[35] 정조시기에는 고양의 서오릉(西五陵)의 능역 안팎의 민둥산이 더러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36]

경기 지역의 민둥산 문제는 군영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숙종 때 산성 축조를 위해 홍복산을 살펴본 훈련도감의 대장 이기하(李基夏, 1648~1718)의 보고에 따르면 홍복산 산성 터는 안팎에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어있어 군병들이 땔감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되었다.[37] 그밖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끝에 산성은 북한산에 축조되었으나 결국 이후에 북한산 근처에도 민둥산이 생겨났다.[38]

이 시기 군영(軍營)은 막대한 땔감을 소비하는 기관이었다. 광주 무갑산은 수어청에 땔감으로 나무가 소진되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다.[39] 훈련도감은 땔감을 공급받던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 염초를 굽는 데 쓰던 소나무를 시초(柴草)로 바꾸어야 했다.[40]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당시 중앙의 다른 군영들도 최소한 하나의 산을 민둥산으로 바꾸어버렸을 것으로 보인다.

33 『備邊司謄錄』 正祖 22년 11월 30일.
34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122~128쪽.
35 『備邊司謄錄』 肅宗 9년 1월 12일.
36 『備邊司謄錄』 正祖 18년 11월 20일.
37 『備邊司謄錄』 肅宗 36년 10월 14일.
38 『備邊司謄錄』 英祖 41년 4월 17일.
39 『備邊司謄錄』 肅宗 40년 8월 6일.
40 『備邊司謄錄』 英祖 30년 9월 25일.

경기 광주 지역에는 도자를 굽는 가마로 인해 민둥산이 생기기도 했다. 왕실에 필요한 백자를 공급하기 위해 광주(廣州)에 설치한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은 가마터 주변에서 땔감을 공급하였는데 이 때문에 영조시기에는 가마터에 땔감을 대던 광주 7개 면(面)과 양근(楊根)의 1개 면(面)의 산들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41] 가마터를 옮기고자 하여도 이미 민둥산이 아닌 곳이 없어 옮길 곳도 마땅치 않았다.[42] 이 시기 궁방과 중앙관서의 땔감 소비량 적지 않았다. 궁궐과 물론 정부 관서 건물에는 온돌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들은 막대한 땔감을 소비하였다.[43] 이러한 땔감 소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둥산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봉상시(奉常寺)에 땔감을 대던 파주의 파평산(坡平山)이 민둥산이 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아예 땔감 공급처를 황해도로 옮기려 했으나 황해도에도 이미 민둥산이 많아 옮길 곳이 없었다.[44]

이 밖에도 경기 지역에 많은 곳이 민둥산이 되었다. 남양부 영종도의 금양산도 민둥산이 되었고[45] 철원의 보개산(寶蓋山)도 둔전과 화전으로 민둥산이 되어 갔다.[46] 18세기 중엽에는 도성의 사산(四山)까지도 민둥산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삼군문에 금송 구역을 분정(分定)한 뒤 단속하게 하였지만[47] 오히려 단속을 맡은 군인들이 남벌 및 유통에 가담하는 폐단이 생겨나 큰 실속을 거두지는 못하였다.[48]

이상과 17세기부터 지속된 산림황폐화는 이후에도 지속 · 심화 되어 20세기까지 이어졌다. 191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임야분포도」에 의하면 한반도의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지역인 성림지(成林地)는 32.3%에 불과했고 나머지 7할에 가까운 곳이 나무가 거의 없는 무입목지(無立木地, 25.9%) 혹은 어린나무가 듬성듬성 자라있을 뿐인 치수발생지(稚樹發生地, 41.8%)로 확인된다.[49]

41 『備邊司謄錄』 英祖 1년 1월 7일.
42 『備邊司謄錄』 英祖 3년 6월 4일.
43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123~124쪽.
44 『備邊司謄錄』 英祖 1년 4월 2일.
45 『備邊司謄錄』 英祖 14년 7월 10일.
46 『備邊司謄錄』 英祖 22년 1월 15일.
47 『備邊司謄錄』 英祖 41년 4월 17일.
48 『備邊司謄錄』 英祖 50년 6월 3일.
49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128~129쪽.

이처럼 조선 후기에 산림황폐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 수원 지역도 산림황폐화를 피할 수 없었다. 수원에서도 이미 현종 때부터 민둥산이 관측되었다. 현종 즉위년에 효종의 산릉(山陵)으로 당시 수원부 관아 뒤쪽이 선정된 바 있다. 이때 산릉도감에 관여했던 이시백(李時白. 1581~1660)은 이 지역에 민둥산을 민망하게 여겨 이전부터 나무를 심었지만 끝내 수풀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50] 이를 통해 이미 현종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이 일대의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효종의 산릉은 세종의 영릉(英陵)이 위치한 여주로 정해지게 되었으나 이후 정조시기 현륭원을 이곳에 옮김으로써, 이 지역에 민둥산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조 역시 이 민둥산을 그냥 둘 수 없었기에 현륭원 천장 직전부터 10년에 걸친 식목사업을 진행하였다.[51] 정조시기에 진행된 식목사업은 바꿔 말하면 이 일대의 산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미 식목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91년(정조 15)에도 수원 치악산(雉岳山)이 민둥산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52] 이 치악산은 현륭원을 감싸는 산맥의 주산이었다. 이처럼 옛 수원부 관아가 있던 현륭원 일대에는 이미 대부분의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있었다.

이처럼 17세기 소빙기가 초래한 환경 변화로 많은 산들의 식생(植生)이 소멸했고 이에 기대어 살아가던 동물들 역시 보금자리를 잃어갔다. 이러한 산림황폐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수원 지역의 산들도 상당수가 민둥산으로 변해 있었다. 이 시기 현륭원 천장으로 시작되는 수원 지역의 커다란 변화는 바로 이러한 생태환경적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3. 수원화성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그 영향

앞서 살펴봤듯이 정조 시기 수원 지역의 변화는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라는 환경적

50 『顯宗實錄』 즉위년 6월 22일.
51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126~161쪽.
52 『正祖實錄』 15년 8월 15일.

배경 위에서 진행되었다. 1789년(정조 13)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지역으로 천장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부의 관아가 위치한 이 일대는 이미 산릉으로 낙점받은바 있는 길지였으나 일찍부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단 산릉으로 정한 위치가 당시 수원부 관아의 뒤편이었다.[53] 따라서 이곳에 원소(園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관아와 주변 읍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행정적 공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륭원 천장에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병행되어야 했다.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하고 팔달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다. 원래 유수부는 옛 왕도에 붙이는 이름이었다.[54] 유수부가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부도(副都)에 준하는 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그 위상에 맞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주변 지역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수원화성 공역에는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조시기엔 이미 전국적으로 산림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에 건설을 위한 목재를 안면도와 영호남의 여러 섬을 통해 생산 · 조달하였다.[55] 이 시기 안면도는 뭍에서 가까운 부분에 나무가 없어서 섬 깊이 들어가 나무를 베어 와야 했으며, 영호남은 나무가 부족해 조운선 제조가 금지된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화성 공역은 다른 지역의 산림 환경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안면도와 영호남에서 핵심적인 목재를 충당했지만, 수원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목재가 충당되었다.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서 목재상을 통해서 나무를 조달했는데, 이때 목재상은 수원부와 광교산, 남양, 광주, 서봉동, 용인 등 수원과 인근 지역에서 나무를 사서 베어왔다.[56] 이 중 수원부에서 조달한 목재는 대연목(大椽木) 43개와 중연목(中椽木) 5,328개, 소연목(小椽木) 831개로 총 6,202개의 목재가 수원 현지에서 조달된 것이었다. 이처럼 수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역에 있어서 현지 나무를 소비하는 것은

53 『顯宗實錄』 즉위년 6월 16일.
54 『光海君日記』 10년 6월 8일.
55 이달호, 2008,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128~134쪽.
56 이달호, 2008,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128~134쪽.

불가피한 일이었다.[57]

나무는 직접적인 건축물의 자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었다. 수원화성에는 많은 벽돌 · 전돌과 기와 등이 들어왔는데, 이를 생산하는 데에도 많은 나무가 소비되었다. 벽돌과 기와를 굽는 가마는 북성 밖과 광주 왕륜면(旺倫面) 2곳에 있었지만 이후 땔감 조달이 쉬운 서봉동에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 세 군데에 설치된 가마는 모두 20개였다.[58] 이때 생산량은 큰 벽돌을 기준으로 작은 가마에서 1,600장 정도를 구울 수 있었고 큰 가마에서는 3천여 장을 구워낼 수 있었으며, 기와는 가마당 약 800~900장 정도를 구워냈다고 한다.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땔감의 양은 작은 가마를 기준으로 약 200바리(駄) 정도가 필요하였다.[59]

작은 가마 하나에서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땔감에 양을 200바리라고 했는데 1바리란 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50~100kg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200바리면 약 10톤에서 20톤에 해당하는 양의 땔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 공역에 소비된 기와가 약 52만 장 벽돌과 전돌이 약 70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60] 당시 도자 굽는 가마터 주변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예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과 같이 이때 기와와 벽돌을 굽는 과정에서도 가마터 주변의 산림 역시 많은 훼손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가마터 중 왕륜면에 있던 가마터의 위치는 오늘날 광교산의 자락인 백운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1] 서봉동 가마 위치는 오늘날 용인시 소재의 신봉동으로 추정된다. 용인 지역의 읍지(邑誌)에 의하면 오늘날 광교산 용인 방면을 서봉산으로 부르던 것이 확인된다.[62] 또 이곳은 기존의 가마가 운영되던 광주 왕륜면과도 가까이 있었으

57 『華城城役儀軌』 권5, 措備, 材木.
58 『華城城役儀軌』 권3, 별단, 병진년(1796) 8월 29일.
59 『華城城役儀軌』 권수, 圖說.
60 『華城城役儀軌』 권6, 措備.
61 이에 대해서는 화성시 팔탄면에 소재한 서봉산 주변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해당 서봉산은 현륭원 화소 안에 있는 산이라고 전해진다. 화소 경계 안에 가마터를 두는 것은 조선시대 왕릉 관리 지침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해당 시기 현륭원 원소에 식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땔감의 조달을 위해 현륭원의 화소 경계 안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반면 용인 옛 서봉동 일대에는 도자의 가마터 등이 확인되어 가마터의 입지로써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璿源續譜』 등에서 '용인 서봉동', '용인 수진면 서봉동' 등 용인의 서봉동의 이름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본문에서는 광교산 지류의 서봉산 일대에 있었던 서봉동을 벽돌 및 기와의 가마터 위치로 서술하였다.
62 『龍仁郡邑誌』, 龍仁全圖; 『龍仁郡邑誌』, 山川名勝, 棲鳳山.

며, 수원화성 공역 현장과도 가까이 위치하였다. 또 이 지역에서 도자를 굽던 가마터도 발견되었기에 당시 기와와 벽돌의 가마터를 운영하기엔 적절한 장소였다. 이처럼 기와와 벽돌을 굽는 가마터는 광교산 지류에 설치되어 그 일대의 나무들을 땔감으로 소진하였다.

산은 나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화성 공역에는 많은 양의 석재가 소비되었다. 나무에 비해서 운반이 어려운 석재는 철저히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숙지산 2곳, 여기산 2곳, 권동, 팔달산 등 6곳에 부석소를 두고 총 28만 7,600여 덩어리의 돌을 캐냈다. 돌을 캐는 것은 그 행위는 말 그대로 산을 깎는 행위였으며 작업 과정과 운반 과정에서도 산은 적잖은 훼손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산에서 캐낸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각종 유형거와 대거, 평거, 동거, 발차, 썰매, 굴림판 등의 각종 운반 도구가 동반되었다. 그리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로를 조성해야 했다.[63] 특히 이 운반로 조성에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갔다.[64] 이러한 석재 운반로 조성과 채석행위는 그 과정에서 산의 훼손을 적잖이 감수해야 했다.

산은 자재뿐만 아니라 공간도 내주어야 했다. 수원화성 성벽과 시설 일부는 팔달산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남문인 팔달문(八達門)에서 서장대(西將臺), 화서문(華西門)으로 이어지는 성벽과 서장대를 비롯한 군사시설 등은 당장 산 위에 지어졌다. 당시 팔달산이 조선의 산림황폐화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목을 유지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성벽과 군사시설이 자리 잡아야 하는 공간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동로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선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치워내야 했다.

화성 공역에 들어가는 자재의 공급, 생산, 조달 외에도 공역에 투입된 노동자들에 의한 땔감 소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땔감 소비량은 인구에 비례하였다. 수원화성 공역 당시에 투입된 인원은 건설 초기인 1794년(정조 18)에는 최대 4,000여 명에서 1795년과 1796년에는 2,000여 명이 투입되었다.[65] 이러한 인원들을 운용 · 유지하는 데에도 적잖은 땔감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군영인 장용외영(壯勇外營)의 존재 또한 수원 지역의 산림자원 소비에 많은 영향을

63 이달호, 2008,『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126~128쪽.
64 이달호, 2008,『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168~170쪽.
65 이달호, 2008,『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114~117쪽.

주었을 것이다. 1793년(정조 17) 장용외영이 설치되면서 중앙군영에 준하는 군영이 수원 지역에 상주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5,000여 명에서 출발한 장용외영의 군액(軍額)은 점차 늘어나 1798년(정조 22) 10월에는 2만여 명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이 중 수원부 본부의 병력은 약 1만 2,000명 규모였고 독산성의 독성군은 약 2,000명이었다.[66] 앞장에서 북한산성과 수어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영의 운영은 한 산을 민둥산으로 바꿀 수 있었다. 수어청의 땔감 소비로 인해 광주(廣州)의 무갑산이 민둥산이 되었던 사례[67]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장용외영과 이후 총리영의 운영이 수원 지역의 산림에 미칠 영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사례였다.

이 외에도 행궁 및 유수부 관아의 운영과 수원부의 인구 증가와 같은 이후 일상적 소비도 지역의 산림황폐화 심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온돌의 확산으로 땔감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궁궐과 주요 관서 역시 온돌이 설치되어 막대한 땔감을 소비하였다. 한성부에서는 궁궐과 중앙관서 등의 땔감 소비 증가로 민인들이 합법적으로 땔감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서울 4산의 봉표(封標)를 몰래 넘어 나무를 베거나 경복궁 담장 안에 쓰러진 소나무를 몰래 훔쳐 가는 일까지 생겼다.[68]

수원화성에 새롭게 만들어진 행궁과 유수부의 공해(公廨)에도 많은 온돌방이 설치되었다. 행궁과 공해에도 많은 온돌이 설치되었다. 행궁건물을 보면 봉수당은 91칸 중 15칸이 온돌이었고 장락당은 22칸 중 11칸, 복내당은 19칸 중 10칸 반, 유여택은 48칸 중 22칸, 낙남헌은 17칸 중 5칸 반, 노래당은 7칸 중 3칸, 득중정은 14칸 중 6칸, 신풍루의 행각은 8칸 중 4칸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다.[69] 유수부 공해에는 남군영과 북군영 행각이 각 13칸씩이었는데 1794년(정조 18)에 19칸을 더 지었다. 이 중 4칸이 온돌이었다. 이 밖에도 외정리소 18칸 반 중 6칸이 온돌이었고 강무당의 행각은 총 40칸에서 3칸, 수성고 7칸 반 중 4칸, 영화정 8칸 중 2칸에 온돌이 설치되었다.[70]

행궁과 유수부 공해의 규모는 서울의 궁방과 중앙의 관서 규모보다는 작았으며, 그

66 김준혁, 2007,「朝鮮 正祖代 壯勇營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1쪽~185쪽.
67 『備邊司謄錄』 肅宗 40년 8월 6일.
68 김소라, 2022,「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120~126쪽.
69 『華城城役儀軌』 부편1, 행궁(行宮).
70 『華城城役儀軌』 부편1, 공해(公廨).

에 따라 땔감 소비량도 서울 지역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지방관아의 땔감 소비량보다는 많은 땔감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관아 주변의 읍민들에 의한 소비량도 주변 산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미 이전 시기에 수원부 관아가 위치했던 지역 일대의 산들이 민둥산이었으며, 이는 현종 때 산릉과 관련해서도 지적되던 문제였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확대된 관아와 읍치 존재는 주변 산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이처럼 수원화성의 건설과 운영은 주변 지역에 산림황폐화를 심화시킬 다양한 요인들을 제공하였다. 이 당시 주변 산림의 훼손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수원화성 근처에 있었던 홍수 피해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당시 산림의 상태를 파악해 볼 수는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산림황폐화는 홍수로 인한 토사유출과 침수 등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17세기 중엽 도성인 한양에서는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토사유출로 개천들이 막혀 따라 당시 도성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영조는 사산참군(四山參軍)을 두어 도성 주변산의 금송(禁松)을 단속하고 도성 내 개천을 관리할 관서로 준천사(濬川司)를 설립하고 삼군문을 중심으로 금송과 준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71]

이처럼 산림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피해에 대하여 서울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 기구와 관원을 두어 이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습은 19세기 수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9세기 수원(화성)은 유수부 차원에서 총리영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1836년(헌종 2) 1월에서 1837년(헌종 3) 12월까지 화성유수로 재임했던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남긴 『화영일록(華營日錄)』에서 확인된다.

『화영일록』에는 서유구가 부임하던 당시 헌종이 내리는 우주송(牛酒松) 삼금(三禁)에 대한 전령(傳令)이 남아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소에 대한 도축, 농작물을 낭비하는 술, 그리고 나무를 베는 것을 보다 엄격히 단속하라는 특별 지시였다. 이중 금송(禁松)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 시기 범작(犯斫)의 만연으로 샘이 마르고

71 염정섭, 1998,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 준천(濬川)의 시행」,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85~90쪽.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72] 이러한 전령(傳令)이 화성유수에게만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관에게도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산림황폐화로 홍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화성유수였던 서유구에게도 이 문제는 실제로 중점 업무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수원은 이미 서유구가 부임하기 전부터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서유구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유수로 재임했던 정원용(1783~1873)의 『경산일록(經山日錄)』에 의하면 정원용은 1833년(순조 33) 4월부터 당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화성유수로 재임 중이었다. 그해 6월 홍수로 남수문과 북수문이 부서지고 북둔전은 여의교를 비롯해 수리시설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정원용은 재임 중 북수문과 북둔전은 복구했으나 남수문은 끝내 복구하지 못하였다.[73]

대유둔(大有屯)에 대한 북둔전의 복구작업은 정원용의 임기 이후에 한 차례 더 진행되었다. 서유구는 1837년(헌종 3) 2월 28일에 춘계 군사훈련인 춘조(春操)를 끝마친 뒤 수원부와 휘하 5읍의 군병들을 동원해 대유둔의 제언(堤堰)수축과 소준(疏濬)을 시작하였다. 서유구는 공역에 앞서 둔전의 소착(疏鑿) 상황을 살펴보았다.[74] 공역은 3월 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언급에 따르면 북쪽 둔전, 즉 대유둔은 임(壬)·계(癸)년 2년 동안 있었던 큰 홍수로 토사에 파묻혀 버렸다고 한다.[75] 『화영일록』의 시점에서 추정되는 임계년은 앞서 언급한 1832년(순조 32, 임진년)과 1833년(순조 33, 계사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원용의 임기 중 발생한 홍수 이전에도 추가로 홍수 피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원용이 한 차례 복원작업을 하였으나 토사유출 등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토사에 둔전이 파묻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유둔의 위치는 오늘날 수원특례시 정자동, 화서동, 영화동 일대에 있던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중 일부인 현재 정자동 일대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연초제조창이 운영되다가 2024년에 대유평

72 『華營日錄』, 1836년(憲宗 2) 2월 1일, 牛酒松三禁傳令.

73 정규완, 2021, 「수원유수 정원용의 일상업무 연구 –『경산일록』을 중심으로 – 」, 『조선시대사학보』 98, 조선시대사학회, 167~170쪽.

74 『華營日錄』, 1837년(憲宗 3) 2월 28일.

75 『華營日錄』, 1837년(憲宗 3) 3월 4일.

〈그림 1〉 1872년 「수원부지도」(좌측)와 현대 위성지도(우측) 속 숙지산과 여기산, 축만제, 대유둔(현 정자2동 일원) 일대

공원이 조성되었다.[76] 〈그림 1〉은 1872년(고종 9)에 만들어진 「수원부지도」와 현대 지도에 숙지산과 여기산, 그리고 대유둔으로 추정되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이중 「수원부지도」의 우측 상단에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 일대가 대유둔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부지도」에서는 숙지산과 대유평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현대 지도에서 보듯 대유둔의 일부는 숙지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지산은 화성 공역 당시 석재를 캐던 부석소를 설치한 곳이었고 채석 과정과 이후의 작벌 등으로 지반을 비롯하여 산림 전반의 훼손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9세기에 있었던 홍수로 피해 당시 대유둔에 쌓인 토사가 숙지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석소가 위치했던 여기산 주변에서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 대유둔의 소준(疏濬) 작업이 이루어진 무렵 여기산 주변의 축만제의 수문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다.[77]

〈그림 1〉에서 보듯 축만제의 위치는 여기산과 매우 인접해 있었다. 「수원부지도」에는 여기산의 이름이 따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현대 지도에서 보듯 여기산 바로 아래에는 서호천이 서호로 흘러 가는 지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축만제는 현재 서호에 위치

76 이동희 · 양옥경 · 박희윤, 2024, 『대유평농악, 수원의 잊혀진 과거와 미래를 잇다』, 수원문화원, 24~39쪽.
77 『華營日錄』, 1837년(憲宗 3) 7월 29일.

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축만제의 수문 파손도 여기산으로부터 유입된 빗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살펴본 19세기에 발생한 대유둔과 축만제의 수해(水害) 사례는 둘 다 수원화성 공역 당시 훼손을 겪었던 산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아마도 숙지산과 여기산은 공역이 끝난 이후엔 새롭게 조성된 읍치의 주민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작벌을 경험했을 것이며, 이렇게 훼손된 산림에 내리는 폭우는 주변 지역에 토사 피해 내지는 침수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처럼 현륭원 천장에 연이어 건설된 새로운 도시는 인간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주변 자연이 다소 위축되고 있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왕릉 주변에는 새로운 자연이 싹트고 있었다.

4. 현륭원 식목 활동과 지역 생태환경의 변화

수원화성이 주변이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라는 흐름에 따라가는 동안 원래 수원부의 읍치가 있던 곳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역행(逆行)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 수원부 읍치가 있던 화산(花山) 일대는 이미 이전부터 산릉으로 거론되었던 만큼 검증된 명당이었다.[78] 그러나 이 일대도 산림황폐화를 피하지 못하고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현종 때 이시백은 이곳을 두고 민망한 민둥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79]

이러한 민둥산 가운데에 현륭원 천장이 결정되자 정조는 일찍부터 원소(園所) 안팎의 수풀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현륭원이 완공된 것은 1789년(정조 13) 10월이었으나 정조는 그해 9월부터 이 일대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80] 잡목 약 22만 그루를 심는 것으로 시작한 현륭원 일대의 식목 공역은 이후 1799년(정조 23) 봄에 이르기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현륭원 원소와 중앙관서, 수원부와 주변 읍, 다른 지방의 관서, 여기에 자원자들까지 참여하였다. 이렇게 심은 나무는 약 520만 그루로 추산되며, 잡목 135만 1,101그루, 소나무 360만 1,615그루, 회나무 8,248그루, 버드나무 3

78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34~35쪽.
79 『顯宗改修實錄』 顯宗 즉위년 6월 22일, "臣曾莅本府, 至於六年之久。先儒之論, 及地家之說, 皆以草木之茂盛爲美。而今此所定之地, 乃是衙舍之後。臣常嫌其濯濯, 種樹而終不成, 此實可疑之大者".
80 『顯隆園園所都監儀軌』 권3, 補土後 奏啓.

만 3,402그루, 잣나무 1만 6,046그루, 밤나무 1만 8,717그루, 오얏나무 2만 2,965그루,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나무들을 이곳에 심었다.[81]

직접 나무를 심은 것 외에도 도토리나 밤, 호두와 같은 나무 종자들도 심었다. 이러한 파종 활동은 1790년(정조 14)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10차례에 걸쳐 식목과 병행되었다. 이때 파종한 종자는 도토리 2,363섬(石) 2두(斗)와 송자(松子) 100섬 6두, 직(稷) 90섬, 추자(楸子) 84섬, 율자(栗子) 7섬, 피백자(皮栢子) 15섬 7두, 백타(栢朶) 1,692과, 백자(柏子) 80섬 12두, 초종(草種) 375섬, 호두 5두, 풍실(風實) 2두, 호초(胡椒) 60두 등이 확인된다.[82] 이처럼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소 주위의 민망한 숲을 녹림으로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시기 현륭원 일대에 식목 활동이 성과를 내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목사업의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대에 호랑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호랑이가 출몰한 것은 아직 식목사업이 진행 중이던 1797년(정조 21)에 홍범산 주변에서 호환이 발생한 사례였다.[83] 홍범산은 화소 경계 안에 있던 산이었다. 또 1806년(순조 5) 2월 15일에는 현륭원 · 건릉 일대에 호랑이가 나타나 이를 잡기 위해 금위영의 포수들이 출동하였다.[84] 이러한 호랑이의 등장은 이곳의 동식물 생태계가 단기간에 빠르게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호랑이는 역사적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동물이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와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에서 멸종한 이후에도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호랑이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적 기억은 신화와 민담, 지명(地名), 역사적 기록 등에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등장한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호랑이 이야기의 나라'라고 불렀다.[85] 이러한 호랑이는 한국의 생태환경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생물로 여겨진다. 한 지역의 생태계의 상태를 가늠하게 해주는 종족을 지표종이라고 부르는데 호랑이는 조선시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표종이었다. 조선 후기 야생동

81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126~163쪽.
82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128~163쪽.
83 『顯隆園謄錄』 丁巳년(1797) 6월 28일.
84 『承政院日記』 純祖 5년 2월 15일.
85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5~7쪽.

물 생태계 연구에서 호랑이는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86] 따라서 현륭원 · 건릉 주변에 호랑이의 출현은 해당 지역의 동물 생태계, 나아가 생태계 전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한국 호랑이는 학명 상 시베리아 호랑이로 분류된다. 한국의 호랑이들이 선호하는 환경은 조선시대 풍수에서 선호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유사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전기 인구의 증가와 농지의 확대 과정에서 호랑이의 영역과 충돌했고 이것이 호환(虎患)이 증가하는 원인이었다.[87] 이 때문에 조선은 국초부터 적극적인 포호정책을 통해 호랑이의 개체수를 줄여 나가 호환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양난(兩難) 이후의 행정적 공백과 17세기 소빙기의 영향으로 다시 한 번 호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88]

17세기 조선의 환경은 동물들에게도 가혹한 환경이었다. 이 시기 우역(牛疫)이 야생동물에게도 퍼지면서 많은 동물들이 죽었으며, 자연스레 먹이가 감소한 호랑이들도 타격을 입었다.[89] 심지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는 북방에서 호랑이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개체수도 증가하였다.[90]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의하면 이 시기 넘어온 호랑이의 수가 수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였다.[91]

이와 중에 인간의 산림파괴로 서식지가 줄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들은 산림파괴 동물 전염병으로 서식지와 먹이가 줄었는데, 개체수는 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7세기 후반부터 호환 피해가 증가하였다.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 시기에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기근과 재해로 발생한 피해 내역을 언급하는 와중에 호환으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92] 이후 호환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숙종 때에는 『착호절목(捉虎節目)』이 제정되었다. 이때 경기 지역을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삼군문에

86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24~49쪽.
87 김동진, 2005, 「조선전기 農本主義와 捕虎政策」, 『역사와 담론』 41, 호서사학회, 74~87쪽.
88 김문기, 2011, 「특집 : 기후변동과 역사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79~85쪽.
89 김덕진, 2008,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149~152쪽.
90 심승구, 200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188쪽.
91 『星湖僿說』 권5, 鬼物驅獸.
92 『顯宗實錄』 顯宗 12년(1671) 2월 29일; 『顯宗實錄』 顯宗 12년 6월 30일; 『顯宗實錄』 顯宗 12년 8월 30일; 『顯宗實錄』 顯宗 12년 9월 30일; 『顯宗實錄』 顯宗 12년 12월 30일.

분정하여 범을 잡게 하는 '착호분수(捉虎分授)'가 시행되었다.[93] 이후 '착호분수'는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이를 기준으로 왕릉에서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하였다.[94]

정황상 이 시기 왕릉은 호랑이의 서식지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군영의 착호활동(捉虎活動, 호랑이 사냥)은 1682년(숙종 8) 순릉(順陵)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1882년(고종 19) 삼청동과 인왕산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총 397건의 사례가 확인된다.[95] 이중 왕릉이나 원소(園所) 등에서 수행한 활동은 총 260회로 전체 활동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며, 시베리아 호랑이의 활동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성과 경기에서 발생한 호환은 모두 왕릉에 있던 호랑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96]

실제로 여러 왕릉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해 보면 호랑이들은 낮에는 능 안에서 엎드려 있다가 밤에는 능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다.[97] 왕릉 주변 민가에서는 인명 피해와 가축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98] 또한 왕릉을 관리하는 능졸들은 상시적으로 호환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99] 이 밖에도 가축과 능졸들의 짐말 등이 호랑이에 잡아먹히는 사례가 잇따랐다.[100] 이러한 상황은 왕릉 주변 숲의 수목이 울창하고 풀이 우거지면서 크고 작은 호랑이들이 들어와 굴을 파고 살게 됨에 따라 벌어졌다.[101] 이는 바꾸어 말하면 경기 지역에서 왕릉 외에 다른 산들은 호랑이가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왕릉이 호랑이의 서식지가 되어감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는 호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102] 정조시기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능소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 숲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103] 이처럼 18세기 왕릉 주변의 울창한 숲에 호랑이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수목이 우거진 곳이어서가 아니었다. 이곳에 수목을 비롯한 식물생태계는 물론 그와 연결되는 동물 생태계도 잘 보존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1702년(숙종 28)의 선릉 · 정릉에서의 사례였다. 당시 한성부에서는 서울에서부터 호랑이를 쫓아 선릉 · 정릉에 도착한 삼군문의 병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는데, 이에 따르면 군병들이 잡으라는 호랑이는 잡지 않고 능침의 숲속을 분주히 뛰어다니며 노루와 토끼 등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여 수레를 채우기 바빴다고 한다. 이때 군병들이 잡은 동물의 양이 세 바리(3駄) 정도였다.[104] 이는 약 150~300*kg* 정도의 양인데, 한국멧토끼(약 2.6*kg*)를 기준으로는 60~110여 마리, 노루(30*kg*)를 기준으로는 5~1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때 장교들의 처벌을 논의한 이후로 다른 동물들을 잡았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때의 사례만 보더라도 호랑이가 살던 곳은 이미 다른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당시 호랑이의 서식 여부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고 그만큼 왕릉 주변에는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 현륭원 · 건릉 주변에 출현한 호랑이의 존재는 그 주변 산림에 건강한 생태환경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불과 한세기전 '민망한 민둥산'이었던 곳은 정조의 노력에 힘입어 불과 16년 만에 울창한 숲이 되고 그 아래에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수원은 호랑이의 출현이 잦은 지역이 아니었다. 물론 수원 최씨의 시조

93 『備邊司謄錄』 肅宗 25년 11월 12일, 「捉虎節目」.

94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15쪽.

95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쪽, 60~83쪽.

96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51쪽.

97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2, 肅宗 24년 5월 26일.

98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2, 英祖 1년 4월 12일; 英祖 9년 6월 2일; 英祖 9년 6월 2일; 9년 11월 29일.

99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2, 肅宗 46년 3월 22일; 景宗 1년 11월 23일; 英祖 5년 4월 9일; 英祖 6년 12월 7일; 英祖 11년 8월 22일.

100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2, 肅宗 38년 6월 12일; 肅宗 39년 2월 4일; 景宗 3년 12월 17일; 英祖 1년 4월 12일; 英祖 5년 10월 15일; 英祖 7년 3월 17일; 英祖 11년 8월 24일; 英祖 12년 9월 27일; 英祖 13년 1월 16일; 英祖 2월 10일; 英祖 14년 2월 12일; 英祖 14년 3월 6일.

101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2, 英祖 5년 10월 15일, "禮曹 啓曰 卽接 健元陵 顯陵 泰陵 康陵 穆陵 徽陵崇陵惠陵官員等所報則諸 陵處於京城至近之地曾無虎患矣近年以來樹木茂密有二三大小虎入山作窟長時蹲踞."

102 『英祖實錄』 英祖 45년(1769) 3월 24일; 肅宗 39년 2월 4일; 景宗 3년 12월 17일.

103 『日省錄』 正祖 2년(1778) 5월 10일; 『日省錄』 正祖 2년(1778) 10월 4일; 『日省錄』 正祖 3년(1779) 3월 24일; 『日省錄』 正祖 5년(1781) 윤5월 4일.

104 『禁衛營謄錄』 肅宗 27년 12월 21일, "府啓曰, 昨漢江近處捉虎時, 各軍門砲手出入宣靖陵內, 旣不能蹤迹其去處, 則乃及獵取他獸至於仙寢至邊之地無數墮突, 任意放砲所穫獐兔等物備載三駄, 而歸各自分用, 其憑公營私震驚陵寢之罪, 不可不痛懲請, 其時捉虎領率將校等摘發科罪.

인 최루백(崔婁伯, ?~1205)의 이야기와 같이, 아주 무관했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선시대에 들어서 호환이랑은 크게 연관된 지역은 아니었다. 경기 지역의 호환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꼽히는 숙종과 영조 연간 때에도 보통 양주와 포천, 가평과 같이 주로 경기 북부 지역이 언급되었다.[105] 영조 때 수원부에서 감목관이 포수들을 이끌고 호랑이를 잡은 사례 2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 착호인으로는 이처익(李處益), 최유항(崔有恒) 1인씩으로 확인된다. 호랑이를 잡은 두 포수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들로 확인된다. 이 둘은 당시 잡은 호랑이를 포함하여 전후로 잡은 것이 모두 다섯 마리를 잡은 포수로서 포상이 논의되었다.[106]

일반적으로 중앙군영이 호랑이를 잡을 땐 정예 포수인 선방포수(善放砲手)가 많게는 80명 적게도 50명 정도는 동원되었고 범의 크기에 따라 시상의 차이는 있지만 중호(中虎) 이상의 경우 3번째 맞힌 포수까지 착호군 포상을 주며, 금위영의 경우는 최대 5명까지 포상을 주기도 하였다.[107] 또한 1703년(肅宗 29)에 마련된 착호 포상 규정에 따르면 대호나 중호(中虎)를 3마리 이상 잡은 경우 해당 고을 수령을 진급시키고, 6마리 이상이면 자급(資級)을 더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작은 호랑이 두 마리는 대호 · 중호 한 마리로 계산하였다.[108] 이 밖에도 삼군문과 장용영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교와 포수들 모두 호랑이를 3마리 이상 잡으면 자급을 올려주는 등의 포상 규정이 있었다.[109]

반면 현륭원 · 건릉에서 금위영 포수들이 잡은 것은 모두 대호가 잡혔다. 현재 현륭원 · 건릉에서 확인되는 군영의 착호 활동은 3번의 사례가 확인된다. 앞에 언급한 1805년(순조 5)의 사례 이후에 1811년(순조 11)과 1813년(순조 13)에 모두 대호가 잡혔다.[110] 특히 1813년(순조 13)에는 12월 16일에 출송(出送)하여 22일에 대호 한 마리를 잡고, 이어서 23일에 한 마리, 25일에 또 한 마리를 잡아 총 3마리를 잡았다.[111] 따라서 이처익과 최유항 등이 영조시기 수원에서 잡은 호랑이에 비해서 순

105 『訓局謄錄』 肅宗 28년 3월 8일; 『英祖實錄』 9년 12월 12일.
106 『承政院日記』 英祖 30년 6월 19일; 英祖 32년 윤9월 5일.
107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33쪽.
108 『備邊司謄錄』 肅宗 29년 1월 29일.
109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33쪽.
110 『承政院日記』 純祖 5년 3월 14일; 純祖 11년 9월 4일; 純祖 13년 12월 25일.
111 『承政院日記』 純祖 13년 12월 16일; 純祖 13년 12월 22일; 純祖 13년 12월 23일; 純祖 13년 12월 25일.

조시기에 잡힌 대호(大虎)들은 좀 더 크고 강한 개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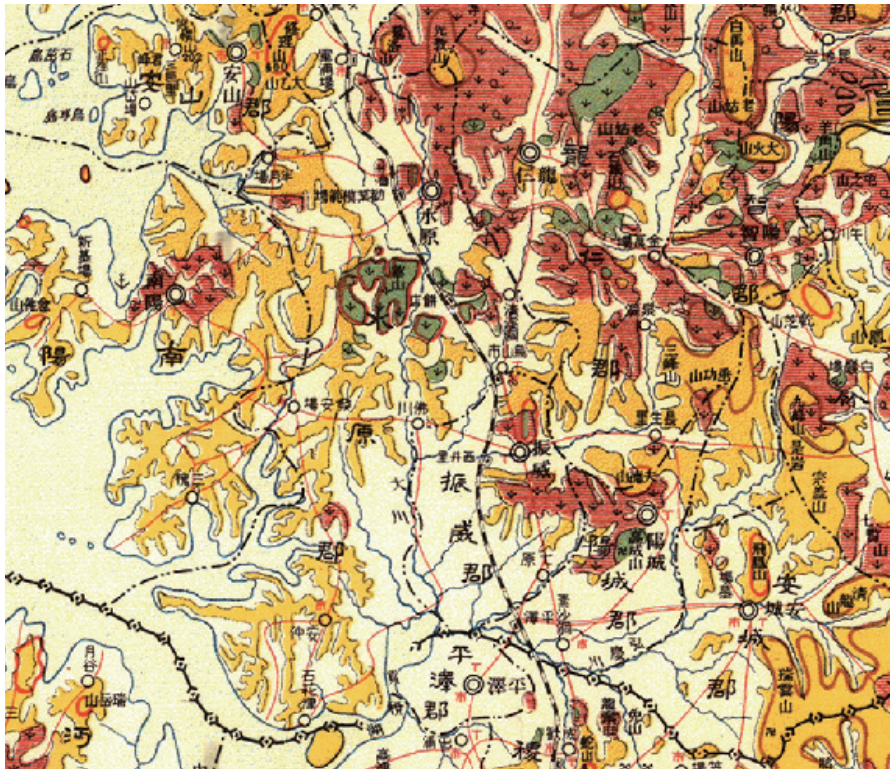
특히 1813년(순조 13)의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 중 하나였다. 조선 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을 통틀어도 한 번에 3마리 이상의 범을 잡은 사례는 27건 정도가 확인된다. 이 중 대호만으로 3마리가 잡힌 사례는 4번에 불과하였다. 1813년(순조 13) 현륭원 · 건릉의 사례는 이 4건 중 하나였다.[112] 이처럼 현륭원 · 건릉 일대에는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지표종인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개체가 3마리나 모여 사는 생태환경이 구축되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확인된 개체 다섯 마리가 모두 대호인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순조시기에 이르면 중앙군영이 잡는 개체에서 표범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이었다. 이전에 호랑이 대 표범의 비율이 8:2 정도였다면 순조시기에는 거의 1:1에 가까워졌고 이후 헌종, 철종, 고종시기에 잡은 것은 표범이 대부분이었다.[113] 이러한 시기에 현륭원 · 건릉에서 잡힌 5마리가 모두 대호(大虎)에 해당하는 것은 그만큼 풍부한 먹이와 보금자리가 보장됨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민둥산으로 이루어졌던 이 일대는 19세기 초반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훌륭한 산림생태계로 탈바꿈하였다.

수원에서 호랑이를 잡은 사례는 1813년(순조 13)을 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호랑이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최소 영조시기부터는 왕릉을 호환의 근원지로 인식함에 따라 능원묘(陵園墓) 등에 공역이 있을 때마다 삼군문의 포수들을 돌아가며 대기시켰고, 이는 고종시기까지 계속되었다.[114] 이러한 사례는 현륭원 · 건릉에서도 있었다. 1821년(순조 21) 건릉의 위치를 옮기는 공역을 하던 당시에는 공역 현장에 호환을 막기 위한 삼군문의 포수들을 배치해 달라는 산릉도감의 요청이 있었다.

이때의 공역은 효의왕후의 국장을 위해 현륭원 서쪽에 능역을 봉표하고 여기에 건릉을 천장하여 합장(合葬) 하는 공역이었다. 이 당시 산릉도감의 요청에 대하여 순조는 삼군문의 포수들은 보내지 않고 수원유수부의 포수들을 배치하여 호환을

112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83쪽.
113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48쪽.
114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36쪽.



〈그림 2〉「조선임야분포도」의 수원군(水原郡) 가운데 녹색으로 표기된 곳이 융건릉 일대이다.

막도록 지시하였다.[115] 그런데 이전 시기에는 삼군문의 포수가 배치되던 사례가 확인된다. 1815년(순조 15) 12월에 혜경궁 홍씨의 국장으로 현륭원에 합장을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에 호환을 막기 위해 삼군문의 포수들이 배치되었다.[116] 따라서 적어도 1821년(순조 21)부터는 현륭원과 건릉 관리에서 착호에 관한 업무까지 수원부가 전담하도록 함에 따라 『군영등록』 등에 집계되지 않는 착호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륭원 · 건릉의 산림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그 울창함을 유지하였

115 『承政院日記』 純祖 21년 6월 10일.
116 『承政院日記』 純祖 15년 12월 28일.

다. 1836년(헌종 2)과 1837년(헌종 3) 수원유수부의 행정 기록을 담은 서유구의 『화영일록(華營日錄)』에서도 현륭원 · 건릉의 숲에서 작벌을 단속하고 묘목을 심는 내용이 확인된다.[117]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행정문서들을 모아 놓은 『각사등록(各司謄錄)』의 수원유수부의 장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1845년부터 1857년 사이에 이곳에 대한 작벌 단속과 보식(補植)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에도 꾸준히 숲을 보존하여 20세기에도 그 숲을 보전(保全)하였다.

1899년(광무 3) 사도세자의 추존과 함께 현륭원도 융릉으로 격상되며 이곳을 융건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융건릉 일대에 푸른 숲은 191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임야분포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는 해당 지도에서 수원군 일대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보듯이 대부분 지역이 무입목지(노란색)와 치수발생지(빨간색)로 표기된 와중에 유독 융건릉 일대에는 성림지(녹색)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융건릉 주변의 산림은 20세기 초입에도 여전히 푸른 숲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8] 이처럼 정조시기 현륭원 일대의 식목 활동의 결과는 20세기에 들어서도 그 결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5. 결론

2011년에 발표된 융건릉의 생태환경조사서에 따르면 이곳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를 비롯한 각종 침엽수와 활엽수가 자리 잡아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총 116종(種) 식물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두더지, 개, 너구리,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 고라니, 멧토끼 등의 포유류와 17종의 조류, 45종의 곤충들이 발견되었다.[119] 이처럼 정조의 효심으로 만들어진 융건릉의 숲은 오늘날까지도 수원 · 화

117 『華營日錄』 憲宗 3년 2월 28일; 憲宗 3년 3월 2일; 憲宗 3년 3월 4일; 憲宗 3년 5월 5일; 憲宗 3년 5월 21일; 憲宗 3년 8월 15일; 憲宗 3년 10월 10일.
118 최병택, 2021, 「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역사와 경계』 118, 부산경남사학회, 59~60쪽.
119 이유진·이현우·김종걸·한승훈·노대균·이홍일·정동준, 2011, 「조선 왕릉 역사경관림의 생태적 특성-융건릉 중심으로-」, 『산림과학 공동학술발표논문집』, 1168~1173쪽.

성 · 오산 등 옛 수원 지역에서 생태계의 보고(寶庫)로써 시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7세기 소빙기의 이상기후는 한반도의 산과 숲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조선의 사람들은 이 시기의 이상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을 불태워 밭을 만들었고 나무를 베어 온돌의 땔감으로 소비하였다. 이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산과 숲이 민둥산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산림황폐화 현상은 옛 수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두 번이나 산릉이 거론되던 수원의 산들도 민둥산으로 변해 있었다.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조성은 이처럼 산림황폐화가 심화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같은 시기에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옛 수원 지역의 정치적 위상, 사회문화, 경제구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는 수원화성 건설 이후 수해 피해와 복구 사례, 현륭원 조성 이후 호환 피해와 착호 사례를 예시로 하여 수원 지역의 지역학 차원에서 생태환경사 연구를 시도하였다.

정조시기 현륭원 천장으로 읍치 이전과 그에 따른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원화성 일대에는 적잖은 산림 훼손이 발생했으며, 이후에 도시의 기능 유지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산림의 나무들은 지속적인 훼손을 겪었다. 이러한 산림의 훼손으로 19세기 수원화성 일대에는 성 내 수문과, 대유둔, 축만제 등이 홍수로 피해를 겪었고 이러한 피해 발생은 화성 공역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훼손을 겪은 숙지산, 여기산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구(舊) 수원부 읍치에 조성된 현륭원은 조성과 함께 주변 산림에 대한 대규모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고 아버지의 능침 근처를 황량하게 둘 수 없었다. 현륭원 화소 경계 안에 있는 산에는 많은 묘목과 종자들을 심어졌다. 정조시기 10년에 걸친 식목 활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어 19세기에는 여러 동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 현륭원 · 건릉에서의 출현한 호랑이의 존재는 이곳에 산림과 더불어 생태계가 보존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렇게 정조의 효심으로 탄생한 융건릉의 숲은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받으며 19세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에도 그 푸른 숲을 지켜냈다.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와 같은 역사적 · 환경적 풍파를 지나면서 융건릉의 숲도 점차 줄어들었고 융건릉 주변에는 많은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가 들어섰다. 하지만 융건릉의 숲은 여전히 우리에게 휴양처를 제공하고 많은 동물 · 식물들의 보금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융건릉은 생태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융건릉의 역할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5년 4월 20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참고문헌

『各司謄錄』; 『經山日錄』; 『禁衛營謄錄』; 『光海君日記』; 『備邊司謄錄』; 『星湖僿說』; 『水原府邑誌』;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英祖實錄』; 『龍仁郡邑誌』; 『日省錄』; 『正祖實錄』; 『顯宗改修實錄』; 『顯宗實錄』; 『訓局謄錄』; 『華城城役儀軌』; 『華營日錄』; 『顯隆園園所都監儀軌』.

김덕진, 2008,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김동진, 2005, 「조선전기 農本主義와 捕虎政策」, 『역사와 담론』 41, 호서사학회.

김동진, 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김문기, 2011, 「특집 : 기후변동과 역사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이화사학연구소.

김소라, 2022,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 조선시대사학회.

김준혁, 2007, 「朝鮮 正祖代 壯勇營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성열, 2022,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착호활동과 그 의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시, 2014, 『수원시사』 1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심승구, 200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염정섭, 1998,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 준천(濬川)의 시행」,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부설 서울학연구소.

오청현 · 남동호 · 김병식, 2019, 「강원도 지역의 산불발생이 홍수량 및 토석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평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 한국방재학회.

이달호, 2008,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혜안.

이동희 · 양옥경 · 박희윤, 2024, 『대유평농악, 수원의 잊혀진 과거와 미래를 잇다』, 수원문화원.

이유진 · 이현우 · 김종걸 · 한승훈 · 노대균 · 이홍일 · 정동준, 2011, 「조선 왕릉 역사경관림의 생태적 특성-융건릉 중심으로-」, 『산림과학 공동학술표논문집』.

정규완, 2021, 「수원유수 정원용의 일상업무 연구 -『경산일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6, 조선시대사학회.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최병택, 2021, 「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역사와 경계』 118, 부산경남사학회.

요 약

17세기 소빙기의 여파는 조선의 많은 산과 숲을 민둥산으로 바꾸어 갔다. 이러한 산림황폐화는 국토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생태환경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현상이었다. 산림황폐화로 동물들은 터전을 잃었고 가중되는 홍수 피해는 인간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산림황폐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살던 서울과 그 주변부인 경기 지역의 산도 다양한 요인으로 민둥산이 되어 갔으며, 이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었다. 경기 남부의 요지에 해당하는 수원부에도 많은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가운데에 시작된 수원화성의 건설은 주변 산림의 훼손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광교산은 벽돌과 기와를 굽는 과정에서 많은 땔감을 제공했으며, 팔달산, 여기산, 숙지산 등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원화성의 관청과 군영, 주민들이 필요한 땔감의 소비를 감당하는 가운데에 지속적인 훼손을 겪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이래로 지속된 산림의 훼손은 19세기의 수해 및 토사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순조 · 헌종 시기에 확인되는 수해와 토사 피해는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주변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모두 수원화성 건설 당시부터 지속적인 훼손을 겪은 곳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 옛 수원부 읍치에는 새로운 숲이 조성되었다. 이미 17세기부터 민둥산으로 변해 있던 이 일대로 사도세자의 원소가 옮겨짐에 따라 대규모 식목 활동이 진행되었다. 약 10년 동안 관민이 함께한 대규모 식목 활동은 이 일대의 푸른 숲을 회복시켰으며, 그로 인해 이곳은 새로운 동물생태계가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에 이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호랑이의 존재는 이러한 동물생태계의 정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왕릉의 호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산림황폐화로 인해 전국의 산림이 민둥산이 된 가운데에 왕릉의 주변은 여전히 푸른 산림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왕릉의 숲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당시 한반도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호랑이 역시도 왕릉의 숲으로 들어왔다. 이처럼 현륭원에 등장한 호랑이의 존재는 그 하위에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함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산림황폐화를 배경으로 하여 수해와 호환이라는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의 수원 지역의 생태환경사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지역학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수원, 화성, 현륭원, 융건릉, 산림, 산림황폐화, 소빙기, 생태환경사, 홍수, 호랑이, 호환(虎患)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and Hyeollyungwon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Suwon Region in Late Joseon

Bae Seongyeol

The aftermath of the Little Ice Age in the 17th century transformed many of Joseon's mountains and forests into barren lands. This widespread deforest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Joseon, a country where approximately 70% of the territory was mountainous. The degradation of forests led to the displacement of wildlife and exacerbated flood damage, which in turn had considerable impacts on human life.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and the development of Hyeollyungwo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ook place amidst this ongoing deforestation crisi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cological impact of these two major events—Hwaseong Fortress and Hyeollyungwon—focusing particularly on the floods and famines that occurred in Suwon during the 19th century. By doing so, this paper seeks to reinterpret topics traditionally addressed within the field of regional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history.

Key Word : Suwon, Hwaseong Fortress, Hyeonryungwon, Yunggeonleung, forest, Deforestation, Environmental History, flood, Tiger, Tiger Menace

『수원학연구』 22, 2025.12, 71~00쪽

일제강점기 수원의 시각적 재현에 의한 도시 표상 연구

김해경*

1. 서론
2. 일제강점기 수원 경관의 재구조화
3. 시각자료에 묘사된 근대 수원
4. 근대 수원의 경관 체험과 기억
5. 결론

1. 서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관광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근대적 시공간 감각과 문화적 기호를 내면화하는 실천이자 제도로 기능하였다. 교통의 근대화와 철도망의 확충, 수학여행의 제도화, 하이킹 문화의 확산 등은 식민지 조선의 여러 지역을 새로운 관광지로 표상하고 소비하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은 오랫동안 '교통 발달'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와 관련한 일제강점기 수원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도시 구조의 변화와 도시 표상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일제강점기 수원이 교통망 확충과 관공서의 입지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 경관

*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reen Environment Planning, Konkuk University), E-mail : ahjuna@konkuk.ac.kr, Tel : 010-8954-4981

으로 재편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 한편, 도시 표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작품에 나타난 수원의 이미지 분석이나, '수원팔경'으로 대표되는 표상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2] 김용국[3]은 수원팔경이 일제에 의해 훼손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반면, 한동민[4]은 수원팔경의 대중적 확산을 긍정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일제강점기 엽서나 기념 스탬프에 구현된 도시 이미지에 주목하여 포항, 이리(현 익산) 등 지역의 도시 표상을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5] 특히 김선희[6]는 일제강점기 제작된 사진엽서를 분석하여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제국주의적 시선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엽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의 선정과 배열이 지배권력의 기획에 따라 도시 소비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시각적 매체를 통한 도시 표상의 정치성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수원이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표상 연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부터 존재하던 경관 구조인 '수원팔경'은 근대기에 들어와 새로운 시각

1 김병희, 2015, 「구한말~일제강점기 전주와 수원의 경관 변화 – 식민지 경관 및 도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21, 587~642쪽; 김태오·양세종, 2019, 「해방 이후 최초의 수원시 도시계획과 그 의미」, 『국토계획』 54(6), 43~55쪽; 박상진, 2021, 「일제강점기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의 성립과 확대에 대하여 – 경기도 인천, 수원, 개성을 중심으로 –」, 『지명학』 35, 57~103쪽; 백선경·정혜진·김광현, 2016, 「근대기 수원(水原)의 시설유형과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수원 내 농업시설 및 철도와 관련한 시설 분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9); 안국진·최지해, 2019,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8(4), 7~26쪽; 홍금수, 2018, 「일제강점기 전통 계획도시 수원의 지역구조 재편 – 식민통치를 위한 공간의 생성(生成)과 장소의 전용(轉用) –」, 『기전문화연구』 39(1), 1~35쪽.

2 김용국, 2012,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2, 87~103쪽; 노재현, 2008, 「수원팔경의 형성배경과 문화경관적 함의」, 『한국조경학회지』 36(1), 90~102쪽; 이지현·김영재, 2018, 「수원팔경의 역사도시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141~144쪽; 한동민, 2012, 「수원팔경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변용」, 『수원역사문화연구』 2, 7~26쪽.

3 김용국, 2012,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2, 87~103쪽.

4 한동민, 2012, 「수원팔경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변용」, 『수원역사문화연구』 2, 7~26쪽.

5 김경리, 2019, 「철도관광과 조선선 철도역 기념스탬프를 통한 도시 표상 연구」, 『도시연구』 21, 7~36쪽; 김경리, 2023, 「한국 도시 표상의 역사적 변천과 지속 가능성 – 식민도시 이리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42, 81~113쪽; 김선희, 2021, 「근대관광도시로서 평양과 부산에 대한 일제의 시선과 표상」, 『국토지리학회지』 55(3), 365~378쪽; 阪野祐介·김윤환, 2021, 「식민지도시 부산을 그린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의 조감도와 타소표상 :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 『문화 역사 지리』 33(2), 49~68쪽.

6 김선희, 2021, 「근대관광도시로서 평양과 부산에 대한 일제의 시선과 표상」, 『국토지리학회지』 55(3), 365~378쪽.

과 동선에 따라 재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경관 인식의 변화가 확인된다. '수원관광도'와 관광팜플렛, 관광안내서와 관련 책자, 신문과 잡지에 등장한 관광 코스, 관광사진엽서표지와 기념 스탬프 등은 당시 사람들이 수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관점과 내용을 내포한 시각적 단서이다. 본 연구가 도시 표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수원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보–체험–기억의 순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각적 재현물이 매개되어 수원 방문객들에게 새롭게 표상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시각적 재현물과 그 구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관광안내서에서는 수원이 어떻게 표상되었는가. 둘째, 새롭게 등장한 수원팔경은 수원의 경관을 어떻게 재구조화했는가. 셋째, 근대 도시로 표상된 수원은 어떠한 경로와 시점으로 안내되었는가. 넷째, 수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스탬프는 어떠한 명소가 대표성을 획득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수원이 근대적 시선과 감각, 기억이 교차하는 장소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수원이 단지 표면적으로 '관광지'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정보–체험–기억의 매개 과정을 통해 근대적 감각이 형성되고 기억된 장소였음을 밝히는 데 있다.

2. 일제강점기 수원 경관의 재구조화

1) 수원에 관한 관광안내서와 신문연재물의 도시 표상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각종 관광안내서와 신문연재물은 수원의 도시적 특성과 경관을 중심으로 수원을 표상하는 전략적 서술을 전개하였다. 내용에는 수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과 관광지로의 대상화된 유인이 내재되어 있다. 시기별로 출판된 관광안내서의 수원 관련 서술을 비교 · 분석하면, 수원이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1911년에 발간된 『조선철도선로안내(朝鮮鐵道線路案內)』에서는 수원을

‘한반도 유일의 인공조림지이자 저수지의 모범 사례지’, ‘푸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지역’, ‘농업의 희망지’,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로 묘사하고 있다. 1927년과 1929년에 간행된『경성 · 인천 · 수원 · 개성』시리즈에서는 수원을 ‘경성에서 1시간 거리의 근교 도시’, ‘울창한 팔달산의 도시’, ‘수림의 도시’, ‘수량이 풍부한 도시’, ‘한반도에서 살기 좋은 장소’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수원에 대한 이미지는 1936년판『경성 · 인천 · 수원 · 개성』관광안내도에서도 계속되며, 수원이 “산빛과 물빛이 어우러진 경관을 지닌 하루 여행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서술되었다.

1938년과 1939년의 안내서들에서는 수원을 ‘물의 도시’, ‘숲의 도시’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조선 농업지도의 중심지’, ‘정조의 권농 정책이 실현된 장소’, ‘권농 및 식림 사업의 중핵지’로 서술하였다. 1940년 발간된『모던 일본(モダン日本)』조선판에서는 수원을 “녹색의 에메랄드에 묻힌 산자수명의 고도(古都)”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회화적 묘사를 제시한다. “기와지붕 위에 풀이 자란 팔달문, 성벽을 따라 이어진 봉화대, 연무대, 방화수류정, 고풍스러운 수문인 화홍문” 등의 경관과 함께, ‘하류에서 빨래하는 마을 아낙네들’과 ‘하얀 옷이 널린 풍경’은 수원을 감성적 풍경화로 서사화하는 서술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얀 옷’과 ‘신성한 아메노카구야마(天香山)’라는 일본 고유의 전통 노래의 인용은 수원을 제국 일본의 감성으로 번역하려는 표상 기획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신문연재물에서도 수원에 관한 서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6년에『동아일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각 지역의 명물을 ‘향토예찬 내 고을 명물’이란 제목으로 독자투고 형식을 차용하여 기사로 서술했으며, 수원 대표적인 명물로 ‘수원 명물 화홍문의 관창(觀漲)’을 거론했다. 내용은 과거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서호의 붕어가 유명했으나 당시는 그림 같은 풍광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이라고 했다. 1927년에는 ‘순회탐방,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日人)이 잠식(蠶食), 대오(大悟)를 요(要)할 우리’는 관광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당시 수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의 측면에서도 조명하였다. 해당 연재는 총 10회에 걸쳐 수원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구간이 일본인의 거주지로 번창하고 있는 반면, 조선인

의 중심지였던 종로 일대는 쇠퇴해 가는 양상을 부각시켰다.[7] 이 연재에서는 수원이 고등농림학교, 잠업강습소, 이왕직목장 등 농업 전문 교육 및 실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8] 척식박람회 및 공진회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수원 거주자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수원의 농업 중심 위상을 부각하였다. 또한 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울창한 수림과 다양한 수종을 보유한 임업의 중심지로 평가되었다. 반면, 산업 및 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중등교육기관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이 경성으로 통학하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지적되었다.[9] 아울러『동아일보』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삼일학교, 삼일여자보통학교, 화성학원 등 지역 내 주요 교육기관을 상세히 소개하며 수원의 교육 지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10] 이 외에도 산업 발전의 정체, 지역 내 종교적 특성 등도 함께 언급되며, 수원이라는 도시의 다면적 성격을 드러내는 자료로 기능하였다.

1930년대에는 수원의 전통 건축물이 관광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1929년『조선일보』의「팔도의 건축순례」에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선정하였다.[11] 1935년에는『조선일보』는 ‘팔도풍광(八道風光) 기(其)9 : 고도(古都) 수원(水原)’이란 제목으로 제7회에 걸친 연재물은 수원 출신의 근대화가 홍득순(洪得順, 1907~1946)이 수원에 대한 애상을 표현했지만, 수사에는 수원을 상징성을 표현했다. 수원을 ‘위대한 예술의 도시’, ‘약진하는 수원’, ‘애수의 고도’로 표현하였고, 본인이 그린 장안문, 연무대, 방화수류정, 화홍문, 서문, 동문, 항미정 등의 삽화가 함께 수록되어 시각적 표상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관광안내서와 신문연재물에 나타난 수원에 대한 서술은 수원을 ‘농업의 중심지’, ‘권농과 식림의 본거지’, ‘물과 숲의 도시’로 강조하면서, 정조의 근대적 통치 이념과 연결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근대적 실천의 공간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방화수류정, 화홍문, 팔달문 등 전통 경관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감성적 풍경화로 재구성되었으며, ‘녹색의 에메랄드’, ‘산자수명의 고도’

7 「순회탐방(196)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1〉」,『동아일보』1927년 1월 14일.
8 「순회탐방(197)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2〉」,『동아일보』1927년 1월 15일.
9 「순회탐방(198)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3〉」,『동아일보』1927년 1월 16일.
10 「순회탐방(199)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4〉」,『동아일보』1927년 1월 17일.
11 「팔도건축순례(51) ‘우리의 정말 자랑 조선미술을 차저 : 화홍문 수류정」,『조선일보』1929년 12월 21일.

와 같은 수사를 통해 시각적이자 정서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표상 전략은 수원을 근대적 시선과 감각,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통치 논리와 결합된 장소로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1〉 일제강점기 신문에 등장하는 근대 도시 수원 묘사

구분	내용
『동아일보』 1926.7.29.	향토예찬 내고을 명물(24) '수원 명물 화홍문의 관창'
『동아일보』 1927.1.14.	순회탐방(196)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1〉'
『동아일보』 1927.1.15.	순회탐방(197)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2〉'
『동아일보』 1927.1.16.	순회탐방(198)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3〉'
『동아일보』 1927.1.17.	순회탐방(199)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4〉'
『동아일보』 1927.1.18.	순회탐방(200)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5〉'
『동아일보』 1927.1.19.	순회탐방(201)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6〉'
『동아일보』 1927.1.20.	순회탐방(202)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7〉'
『동아일보』 1927.1.21.	순회탐방(203)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8〉'
『동아일보』 1927.1.22.	순회탐방(204)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9〉'
『동아일보』 1927.1.23.	순회탐방(205)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10〉'
『조선일보』 1929.12.21.	팔도건축순례(51) '우리의 정말 자랑 조선미술을 차저 : 화홍문 수류정'
『동아일보』 1935.11.12.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1〉
『동아일보』 1935.11.13.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2〉
『동아일보』 1935.11.14.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3〉
『동아일보』 1935.11.15.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4〉
『동아일보』 1935.11.16.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5〉
『동아일보』 1935.11.22.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6〉
『동아일보』 1935.11.28.	팔도풍광기 9 : 고도의 수원〈7〉

2) 전통적 경관 명소의 재배열 : 수원팔경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연과 경물(景物)을 대상으로 곡(曲)과 경(景)을 선정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경영하였다. 이때 '경'은 단순히 고정된 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적 · 인공적 특성은 물론 생활환경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의 질서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경의 선정은 조선시대 사대부 문화의 중요한 미적 실천 중 하나였으며, 경승지의 지정과 감상 태도는 일제강점기

에도 계승되었다.[12] 다만,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주의적 통치와 근대 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경을 둘러싼 의미와 기능에 변형이 수반되었다.

'수원팔경'은 정조 시대에 형성된 '화성춘추팔경(華城春秋八景)'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명칭은 수원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장소를 대상으로 춘팔경과 추팔경을 도식화한 것으로, 주요 경관을 열거하면 화산, 유천, 매향교 · 오교, 길야, 신풍루, 대유평, 영화역, 연지, 남지, 화홍문, 만석거, 용연 · 용지, 구암, 화서문 밖, 동장대, 미로한정, 화양루가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수원팔경의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발간된 관광안내서, 신문기사, 수필 등 다양한 매체에서는 기존의 전통 경관에 더해 근대성과 제국적 감성이 반영된 명승지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원팔경은 홍보와 유행의 문화적 코드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1912년 『매일신보』에는 이원규(李元珪)의 '수원팔경가'가 2등으로 입선하였고, 1925년 『조선일보』에는 동화작가 유도순(劉道順)이 시조 형식으로 '수원팔경'을 발표하였다. 또한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 1914)』, 나이토 린세이(內藤倫政)의 『고적과 풍속(古蹟と風俗, 1927)』, 『삼천리』(1935년 3월호) 나혜석의 「학계문단 : 나여사의 서한」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수원팔경이 언급되며, 수원의 대표 경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수원시사』에도 수원팔경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문헌들을 종합하여 『화성성역의궤』부터 『수원시사』에 이르기까지 수원팔경에 언급된 장소를 정리한 결과(〈표 2〉 참조), 가장 자주 언급된 공간은 화홍문, 화산, 용지, 서호, 광교, 북지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빈도 분석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수원이 어떻게 기억과 정체성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는 화홍문이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팔달산, 서호, 광교, 북지, 남제 등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수원팔경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그 중심은 수원화성이었으며, 팔경은 주로 화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수원팔경은 근대시설의 도입과 도시 확장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원팔경이 단순한 경관요소의 선정에 그치지 않고,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 변화 양상을

12 김해경·안경진, 2015, 「일제강점기 반도팔경 선정과정을 통해 본 경관인식」, 『한국조경학회지』 33(2), 80쪽.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즉, 수원팔경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정한 사회 ·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선택적 부각과 배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원을 상징하는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팔경은 단절 없는 '전통'이 아니라, 당대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재배열된 전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 '수원팔경'의 등장과 명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빈도
화산(華山)	●			●	●	●	●		●	6
유천(柳川)	●							●		2
매향교·오교(午橋)	●		●							2
길야(吉野)	●		●							2
신풍루(新豊樓)	●		●							2
대유평(大有平)	●		●							2
영화역(迎華驛)	●		●							2
연지(蓮池, 남지)	●									1
화홍문(華虹門)		●		●	●	●	●	●	●	7
만석거(萬石渠)		●								1
용연, 용지(龍池)		●	●		●	●	●		●	6
구암(拘巖)		●								1
화서문 밖(華西門)		●	●							2
동장대(東將臺)		●								1
미로한정(未老閒亭)		●	●							2
화양루(華陽樓)		●								1
팔달산(八達山)				●	●	●	●		●	5
서호(西湖)				●	●	●	●	●	●	6
광교(光敎)				●	●	●	●	●	●	6
북지(北池)				●	●	●	●	●	●	6
남제(南提)				●	●	●	●		●	5
나각(螺角)				●				●		2
동산(東山)								●		1
병암(屛岩)								●		1

출처 : ①『화성성역의궤』 춘팔경 ②『화성성역의궤』 추팔경 ③ 김홍도의 화봉팔관도(홍길주, 『표롱의참』) ④ 이원규, 「수원팔경가」, 『매일신보』 1912년 4월 7일 ⑤ 「시조」, 『조선일보』 1925년 12월 18일 ⑥ 사카이 마사노스케, 『發展せる水原』, 1914 ⑦ 나이토 린세이, 『古蹟と風俗』, 1927 ⑧ 나혜석, 「학계문단 : 나여사의 서한」, 『삼천리』 1935년 3월호 ⑨『수원시사』, 1986.

3. 시각자료에 묘사된 근대 수원

1) 근대 엽서표지, 관광안내서와 팸플릿에 표상된 수원

일제강점기 관광의 발달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 · 서사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확산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간단한 해설과 함께 주요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관광안내서, 팸플릿, 엽서 등의 발간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적 기획의 일환이었다. 그중에서도 엽서에 수록된 사진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 기록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 그림엽서는 보통 하나의 도안으로 구성된 표지와 8매에서 10매 내외의 엽서로 구성되었다. 이 중 표지는 전체 엽서의 내용을 대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시각적 전략으로 작동했다. 표지 도안은 각 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13]

① 엽서표지 ② 여행지도 ③ 여행지도 ④ 여행책자 ⑤ 여행지도 ⑥ 여행책자 ⑦ 여행책자 ⑧ 여행책자

⑨ 엽서표지 ⑩ 여행책자 ⑪ 여행책자 ⑫ 엽서표지 ⑬ 엽서표지 ⑭ 여행책자 ⑮ 소개책자 ⑯ 소개책자

〈그림 1〉 일제강점기 발간된 수원 관련 엽서와 여행지도 표지

13 김선희, 2018,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대한지리학회지』 53(4), 570쪽.

수원과 관련된 여행안내책자 및 엽서 표지의 구성도 이러한 시각적 기획에 포함된다. 이들 엽서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성'을 중심으로 '인천 · 수원 · 개성'을 연계한 형태(①–⑪)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 단독의 이미지를 강조한 구성(⑫–⑯)이다. 전자의 경우, 엽서 표지에는 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회루, 세검정, 숭례문 등의 조선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안이 구성되었으며, 때로는 조선신궁과 같은 식민지 종교물도 포함되었다. 반면 수원을 대표하는 도상으로는 화홍문, 봉수대, 팔달문 등이 채택되었다(〈그림 1〉 참조).[14] 이는 수원의 경관적 특성과 역사성을 압축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적 표상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제강점기 철도의 발달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철도 노선 안내와 함께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권인 『경성 · 인천 · 수원 · 개성』이라는 제목의 관광 팸플릿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며, 경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권의 주요 도시를 관광지로 소개하였다. 이 시기의 팸플릿은 간략한 도시 평면도, 인구 통계, 주요 명소의 사진과 개

〈표 3〉 일제강점기 관광 안내에 등장하는 명소

도서	발간연도	명소
『조선철도선로안내』	1911	화성장대, 문묘, 미로한정, 화성행궁, 화령전, 칠간수, 방화수류정, 연무대, 청연암, 구산, 서호, 화홍문, 화산
『조선풍속풍경사진첩』	1915	팔달문, 수문, 권업모범장, 봉수대, 용주사
『경성·인천·수원·개성』	1927	팔달문, 행궁, 화령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경성·인천·수원·개성』	1929	팔달문, 행궁, 화령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경성·인천·수원·개성』	1936	팔달문, 행궁, 화령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경성·인천·수원·개성』	1938	팔달문, 행궁지, 화령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경성·인천·수원·개성』	1939	팔달문, 행궁지, 화령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14 ① · ② · ⑥ · ⑩ · ⑫ · ⑮ · ⑯ 출처: 개인 소장, ③ · ⑦ 출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④ 출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⑤ · ⑨ · ⑭ 출처: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⑧ 출처: 인천시립박물관, ⑪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⑬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 : 「조선중요물산병특산물분포도」(국립민속박물관) b : 「조선중요물산병특산물분포도」(국립민속박물관)

〈그림 2〉 「조선중요물산병특산물분포도」에서의 수원 도상

요, 숙소 정보 등을 포함한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했다. 1911년에 간행된 『조선철도선로안내』에서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명승지로는 화성장대, 문묘, 미로한정, 화성행궁, 화령전, 칠간수, 방화수류정, 연무대, 청연암, 구산, 서호, 화홍문, 화산 등이 포함되었다. 1915년에 발간된 『조선풍속풍경사진첩』에는 팔달문, 수문, 권업모범장, 봉수대, 용주사의 사진과 간단한 해설이 수록되어 시각적인 정보가 우선시 제공되었다. 1927년부터 간행된 『경성 · 인천 · 수원 · 개성』에서는 명승지로 팔달문, 행궁, 화녕전, 화성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봉수대, 서호, 권업모범장, 화산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언급은 해당 공간들이 수원의 대표적 관광지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관광 미디어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형성과 제도화된 표상의 정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조선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생산물과 특산품을 도상화한 특산물 지도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36년경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중요물산병특산물분포도(朝鮮重要物産並特産物分布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조선 전역의 특산물과 해역별 어종 자원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 동시에, 주요 도시의 수출입 무역액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산업 및 경제 구조를 직관적으로 재현하였다. 지도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지역별 생산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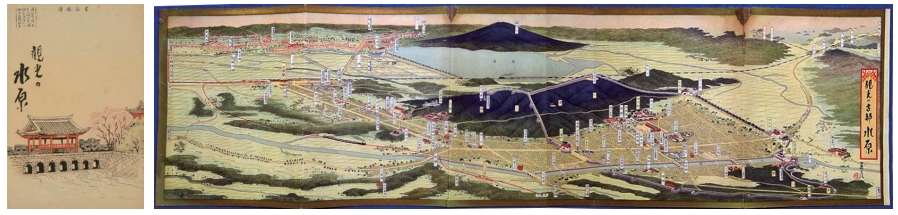
제공을 넘어 식민지 조선의 산업 역량을 시각적으로 과시하고, 총독부의 경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도는 식민지적 시선 아래에서 조선을 경제적 자원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각적 기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수원 지역을 살펴보면, 지도에는 경성역과 연계된 철도 노선 위에 기차 그림이 삽입되어 교통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수원이라는 지명 옆에는 지역의 상징적 경관인 화홍문이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수원의 경관적 · 역사적 정체성이 시각적 기호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서호 일대를 중심으로 고등농림학교 등 농업 관련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도에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별도의 특산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도 제작의 기준이 생산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었거나, 도시의 상징적 표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수원은 교통과 경관적 상징성은 부각되었으나, 물리적 생산 기반이나 특산물의 경제적 비중이 지도상에서 두드러지게 표기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1930년대 특산물 지도는 조선 각 지역의 산업적 위상과 경제적 역할을 시각적으로 체계화함과 동시에, 식민지 통치 당국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시각적 자료로 기능하였다. 수원 사례는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와 실제 산업적 위상 간의 간극, 그리고 식민지 경제 정책의 표상 전략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관광하는 시선'으로 재구축된 수원 조감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유행한 관광 지도는 전통적인 측량 기반의 지도와 다른 시각적 표현 전략을 채택한 조감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단순한 지리정보의 전달을 넘어 회화성과 정보성을 결합한 시각 자료로 소비되었으며, 대중 관광의 확산과 함께 항공 시점의 비정축적(非定縮尺) 형식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특징을 지녔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회화식 조감도 제작자 요시다 하쓰사부로(吉田初三郎)가 제작한 조감도이다. 이 계보를 잇는 대표적 작품이 1936년 제작된『관광의 수원(觀光の水原)』조감도이다. 이 지도는 요시다의 제자 가네코 쓰네미쓰(金子常



a : 표지　　b : 수원 조감도

〈그림 3〉『관광의 고도, 수원』의 표지와 조감도(수원화성박물관)

光)와 일본명소도회사를 설립한 고야마 기치조(小山吉三)에 의해 제작되었다.『관광의 수원』은 요시다식 조감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동양화적 구도를 강조하고 일본화(日本畫)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등 양식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도 표지에는 '관광의 고도, 수원(觀光の古都 水原)'이라는 제목 아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이 전면에 배치되어 수원의 대표 경관을 시각적으로 부각하였다(〈그림 3〉 참조). 이는 수원을 '역사적 고도'로 규정하고, 특정 경관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도 내부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측에는 경성에서 영등포를 거쳐 수원역에 이르는 철도 노선이 표시되어 관광객의 접근 경로가 명확히 드러난다. 지도 중심부에는 팔달산이 팔달공원으로 재편된 형태로 배치되어 시각적 중심축을 이루고, 후면에는 서호와 여기산이 배치되어 있다. 수원화성과 관련된 공간은 지도 우측에, 수원역과 농업 관련 교육시설은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화령전을 중심으로 세무서, 군청, 도립의원, 법원지청, 우편국, 경찰서 등 식민지 관공서가 화성 내부에 병치되어 도시의 근대 행정 구조가 시각화되고 있다. 이는 정조가 조성한 전통적 성곽도시 내부에 식민 권력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의 중층성이 시각화되었다. 특히 팔달문 바깥 옹성에는 문묘로 표기된 수원향교보다 높은 지점에 수원신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식민지 통치 이념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원신사는 1915년 대정천황 즉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면장이었던 곤도 토라노스케(近藤虎之助)와 일본인 유력자의 주도 아래 설립되어 1917년 준공되었으며, 이후 매년 대제가 거행되고 신사 후면에는 일장기가 게양된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제국적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도에는 수원역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신작로와 1932년 신설된 팔달문~수원역 간 도로가 직선 축선으로 표현되어 도시 공간의 재편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수원역과 구도심 간의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의 중심축을 재정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수원역 후면에는 권업모범장, 농업학교 등 농업 관련 교육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권업모범장에서 항미정과 농림학교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벚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벚꽃길로 조형화되어 있다. 항미정은 1908년 순종 황제의 능행 중 잠시 머문 장소로, 실제 규모에 비해 지도상에서 과장된 크기로 표현되어 상징적 위상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지도 구성은 단순한 경관 묘사를 넘어서, 식민 통치 질서와 근대 도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도록 각인시키는 표상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즉, 조감도는 관광객의 시선을 통제하고, 전통과 근대, 식민 권력이 중첩된 도시 공간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근대 수원의 경관 체험과 기억

1) 수학여행과 하이킹코스로 본 수원

일제강점기 지역 관광은 대체로 학교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학여행과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탐승(探勝) 및 하이킹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 조성운은 1899년 경인선의 개통을 시작으로, 이후 경부선과 경의선의 연결로 인해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인천, 수원, 개성, 평양 등으로 확대되었으며,[15] 지방 소재 학교 학생들이 경성을 방문하는 형태의 역방향 수학여행도 나타났다고 지적한다.[16] 이 시기 수학여행은 단순한 유희의 장이 아니라, 지식 함양과 교양 교육의 연장선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에서는 역사, 지리, 과학 등의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며 견문 확대가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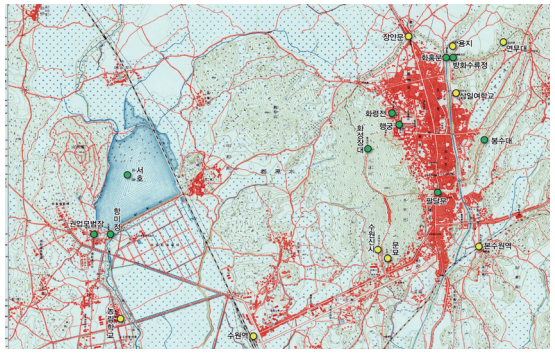
15 조성운, 2012,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351쪽.
16 「수학여행을 의의있게 하려면(2)」, 『동아일보』 1927년 10월 5일.

1927년 『동아일보』의 수학여행 관련 기사에서는 경성 근교의 교육적 수학여행지로 수원 항미정을 지목한 바 있으며, 수원의 수학여행 코스는 여학생들의 견문 확대를 위한 구조화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인천 영화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오전에 수원역에 도착하여 서호 일대의 권업모범장을 견학하고, 수원화성 내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본 후, 삼일여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9시 열차로 인천에 귀환하는 일일형 수학여행을 수행하였다.[17] 이러한 사례는 수원이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 담론 속에서 역사, 농업, 도시 경관이 결합된 복합적 교육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수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식민지 교육 체계 내에서 특정한 지식과 가치의 체득을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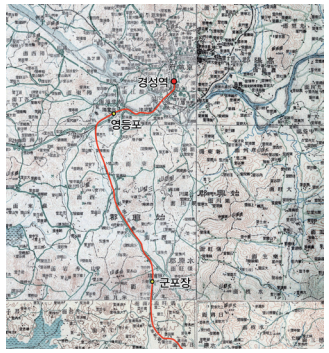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이킹'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도회지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반나절 또는 하루 일정으로 교외 지역을 도보로 여행하는 행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30년대 신문기사에서는 하이킹을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 또는 '힘을 들여 걷는다'는 의미로 정의[18]하였으며, 1930년대 하이킹의 주요 대상지는 대체로 산과 같은 자연경관이었다.

1936년 발간된 『경성 · 인천 · 수원 · 개성』 관광안내서에는 기차를 활용한 탐승 경로와 구체적인 명소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수원은 경성역에서 41㎞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기차 요금은 2등석 1원 18전, 3등석 66전이었다. 수원에는 군청, 법원지청, 농사시험장, 고등농림학교, 경동철도주식회사 등 관공서가 소재하였고, 여관으로는 산본여관, 소화여관(이상 역전), 비후여관(읍내)이 소개되었다. 수원읍을 유람하는 코스는 '역-팔달문-화성장대-화홍문-방화수류정-농사시험장-서호-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경우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그림 4〉-a 참조). 승합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10전, 시내 택시를 이용할 경우 60전이었다. 각 명소는 특징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지적 특성도 함께 설명되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장대한 팔달문, 정조시대에 지어져 남문으로 불리며 도립경찰서로 사용되던 행궁터, 수원의 근교를 조망 가능한 정조 친필이 걸린 화성장대, 일

17 「수학여행」, 『동아일보』 1927년 10월 9일.
18 「오늘의 말슴」, 『조선일보』 1934년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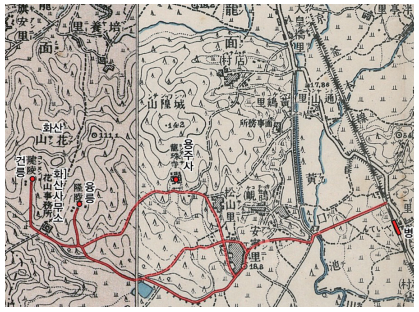


a : 수원역 주변 탐방 명소(1932년)



b : 화산 용주사 코스

〈그림 4〉 수원역 주변 탐방 명소와 화산 용주사 코스(국토지리정보원)



a : 병점역에서 화산 용주사

b : 화산 용주사 천보루

〈그림 5〉 병점역에서 화산 용주사 가는 코스(국립중앙박물관)

곱 개의 수문을 가진 화홍문, 아름다운 방화수류정, 수원의 절경을 이루는 중심부에 있으며 도성이 위급할 때 사용했던 봉돈, 농업 장려를 위해 정조가 만들었지만 항미정과 함께 위락공간으로 사용된 서호,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농업에 대한 농사시험장, 그리고 역에서 20㎞ 떨어졌지만, 용주사와 융건릉이 있는 아름다운 화산이 소개되었다(〈그림 5〉-b 참조).

이처럼 일제강점기 수원은 수학여행과 하이킹 등 근대적 관광과 교육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했으며, 이는 식민지 교육정책과 근대 도시 문화의 확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37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수원과 관련된 하이킹코스가 소개되었다.[19] 이 시리즈에서는 광릉, 삼각산, 성산, 소요산, 망월사, 천축사, 도봉산, 관악산, 오봉이 포함되었다. 기사에서 제시된 하이킹코스의 특징은 기존의 구도심 수원이 아니라, 화산과 용주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다. 교통편은 경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병점역에 하차한 후, 융건릉과 용주사를 차례로 방문하는 순서로 안내되어 있다. 각 명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해당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과 소용 시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전체 코스가 걷기에 무리 없는 경로임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병점역에 도착한 후 병점역에서 건릉까지 4㎞(약 1시간 30분), 건릉에서 용주사까지 2㎞(약 1시간 30분), 용주사에서 다시 병점역까지 2㎞(약 1시간)로 안내되었다. 총 도보 거리는 8㎞, 전체 소요 시간은 약 4시간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하이킹코스의 소개는 1930년대 대중 관광의 확산과 더불어 근교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8년 『동아일보』의 경부선 관련 기사에서는 수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탐승 코스가 제시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성역에서 출발한 여정은 수원역을 거쳐 서호, 항미정, 팔달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용지, 화령전, 화산, 건릉, 용주사에 이르는 제시되었으며, 각 명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경관적 특성도 함께 안내되었다. 이러한 탐승 코스는 수원이 단일 목적지라기보다는 근교 하이킹과 역사 탐방이 결합된 근대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경부선 수원역의 개통으로 수원은 식민지 수도인 경성에서 기차로 약 1시간 반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은 관광지로서의 접근성과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접근성은 수원이 근대 관광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기사에는 경성역과 용산역에서 수원을 목적지로 하는 왕복 할인 승차권 광고가 실려 있어,[20] 수원이 하이킹코스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원이 경성에서 가까운 근교 도시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독립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 확립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수원은 관광의 종착지라기보

19 「근교행각지 기8 화산용주사 코스」, 『동아일보』 1937년 9월 29일.
20 「지정 회유단체승객」, 『조선일보』 1937년 10월 12일.

다는 경성 관광의 연장선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 일정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수원이 식민지 지배 질서 하에서 제국 수도인 경성의 위성 관광지로 기능하였으며, 독자적인 관광권을 형성하기보다는 근교 소도시로서의 위상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2) 명소스탬프를 통한 수원의 표상과 '화홍문'의 시각적 기획

일제강점기 철도역과 우체국은 인적과 물적 이동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우편물에는 다양한 기념스탬프(記念スタンプ)가 압인되었다. 이러한 스탬프는 박람회나 공진회 등 제국주의적 대중 행사를 기념하는 도구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명소 스탬프의 형태로도 발행되었다. 1931년부터 1938년 사이 공식적으로 발행된 명소 및 기념스탬프는 총 77종에 이르나, 수원을 대상으로 한 스탬프는 단 1종에 불과하다.

명소기념스탬프는 대체로 직경 약 36㎜의 원형 또는 변형 도안 안에 관광지, 특산물, 지역명, 날짜 등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의 도장이 해당 지역의 내러티브를 압축적으로 표상하는 상징 장치로 작동하였다. 수원 명소스탬프는 1932년 5월 1일 수원우편국과 수원역전우편소에서 발행되었으며(〈그림 6〉-b 참조), 도상에는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이 등장한다. 이 두 장소는 이미 수원팔경, 엽서, 수학여행 코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근대적 감상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호출된 수원의 대표 경관이었다. 특히 화홍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조선의 풍경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주 언급되었으며,[21] 1910년에는 화폐 도안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그림 6〉-a 참조). 1920년대에는 홍수로 파괴되었다가 중수되었고, 1930년대에는 풀장이 조성되어 위락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그림 6〉-d와 〈그림 6〉-e 참조), 근대적 도시 편의시설화와 전통유산의 보존이라는 이중적 시선 속에서 도시 경관이 기획되었다.

이처럼 명소기념스탬프는 단순한 장소의 '기억'을 넘어, 특정 지역을 '보아야 할 장소'로 지정하고 의미화하는 표상의 실천이었다. 스탬프는 지역의 물리적 장소를

21 「수원고건물 방화수류정 금월부터 중수」, 『동아일보』 1929년 3월 11일.

a : 1909년 1원 화폐에 등장하는 화홍문(국립중앙박물관)

b : 명소스탬프 (조선총독부 체신국)

c : 명소스탬프와 같은 조망 (국립중앙박물관)

d : 휴게시설이 도입된 화홍문 일대(국립중앙박물관)

e : 화홍 풀장(『동아일보』1935년 8월 10일)

〈그림 6〉 화홍문의 다양한 표상

동상화하여 상징화함으로써, 근대 관광과 식민지 시각문화의 중요한 매개 장치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수원을 사례로 삼아, 관광이 단순히 교통망 확충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보-체험-기억이 순환하는 근대 문화 시스템으로 작동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 관광도', 수원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기사, 신문 · 잡지에 등장하는 관광 코스, 관광사진엽서, 명소기념 스탬프 등 다양한 시각 자료와 매체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이 수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제강점기 관광안내서와 신문연재물에 나타난 수원에 대한 서술에서는 정조의 통치 이념과 연결된 역사성이 강조되었으며, 수원은 '농업 중심지'이자 '물

과 숲의 도시'로 표상되었다. 전통 경관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감성적 관광의 대상으로 점경물화되었고, 관람과 소비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 당시 수원의 현황을 다룬 기사에서는 조선인 거주지의 쇠퇴와 일본인 거주지의 번창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수원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임업 중심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도시의 자연환경과 농업적 정체성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원팔경은 도시 공간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배제함으로써, 도시의 미적 질서와 통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구성하는 문화적 필터로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에 형성된 수원팔경은 전통적 경관 인식의 산물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수원의 도시 변화 양상과 결합되어 재맥락화되었다. 이처럼 수원팔경은 단절 없는 '전통'이라기보다, 당대의 사회 ·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구성된 '재배열된 전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엽서표지와 특산물 지도에 나타난 수원의 표상은 지도 제작의 기준이 생산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치중되었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도시 상징 전략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수원이 조선 식민경제의 공간적 구성 속에서 시각적 통치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해당 지도는 당대 수원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로 기능한다.

넷째,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조감도는 도시를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도상 기획이었다. 1936년 제작된 『관광의 수원』 조감도는 그의 제자 가네코 쓰네미쓰와 고야마 기치조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요시다식 형식을 따르면서도 동양화적 구도와 일본화의 분위기를 강조한 양식적 변화를 보여주며, 표지에는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으로 수원 대표 경관을 부각시켰다.

다섯째, 수원이 경성에서 가까운 근교 도시라는 이점은 독립적 관광지로서 위상을 갖추는 데 오히려 한계로 작용했다. 탐승과 하이킹코스의 대상으로 수원은 종착지라기보다는 경성 관광의 연장선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 일정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수원이 제국 수도 경성의 위성 관광지로 기능하며 독자적 관광권을 형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명소기념스탬프는 장소를 단지 기억하는 수단을 넘어 '보아야 할 장소'로 지정하고 의미화하는 표상의 실천이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은 '조선의 아름다움'과 '전통 건축의 정수'를 담아내며, 수원은 근대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로

반복적으로 표상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수원이 단순한 교통의 산물이 아니라, 정보-체험-기억이 순환하는 근대 관광 문화 시스템의 핵심 사례였음을 밝힌다. 최근 경관의 감각적 체험, 기억의 구성, 정보 매체의 역할 등에 주목하는 문화사적 접근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수원 관광의 문화적 · 시각적 표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투고일 2025년 4월 30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참고문헌

內藤八十八 編, 1927,『古蹟の風俗』, 京城 : 朝鮮事業及經濟社.

朝鮮総督府逓信局, 1938,『朝鮮逓信事業沿革史』.

『동아일보』;『조선일보』.

『朝鮮鐵道線路案內』, 1911.

『朝鮮風俗風景寫眞帖』, 1915.

『京城·仁川·水原·開城』, 1927.

『京城·仁川·水原·開城』, 1929.

『京城·仁川·水原·開城』, 1936.

『京城·仁川·水原·開城』, 1938.

『京城·仁川·水原·開城』, 1939.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gii.go.kr/kor/main.do).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홈페이지.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일제강점기 엽서.

일제강점기 발행 관광안내서와 안내도.

김경리, 2019a,「식민지 조선의 명소기념스탬프의 장소성」,『아시아문화연구』 50, 5~40쪽.

김경리, 2019b,「철도관광과 조선선 철도역 기념스탬프를 통한 도시 표상 연구」,『도시연구』 21, 7~36쪽.

김경리, 2023,「한국 도시 표상의 역사적 변천과 지속 가능성 - 식민도시 이리와 포항을 중심으로-」,『한림일본학』 42, 81~113쪽.

김병희, 2015,「구한말~일제강점기 전주와 수원의 경관 변화 - 식민지 경관 및 도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21, 587~642쪽.

김선희, 2018,「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대한지리학회지』 53(4), 569~583쪽.

김선희, 2021,「근대관광도시로서 평양과 부산에 대한 일제의 시선과 표상」,『국토지리학회지』 55(3), 365~378쪽.

김용국, 2012,「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42, 87~103쪽.

김태오 · 양세종, 2019,「해방 이후 최초의 수원시 도시계획과 그 의미」,『국토계획』 54(6), 43~55쪽.

김해경 · 안경진, 2015,「일제강점기 반도팔경 선정과정을 통해 본 경관인식」,『한국조경학회지』 33(2), 78~88쪽.

노재현, 2008,「수원팔경의 형성배경과 문화경관적 함의」,『한국조경학회지』 36(1), 90~102쪽.

박상진, 2021,「일제강점기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의 성립과 확대에 대하여 - 경기도 인천, 수원, 개성을 중심으로 -」,『지명학』 35, 57~103쪽.

백선경 · 정혜진 · 김광현, 2016,「근대기 수원(水原)의 시설유형과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수원 내 농업시설 및 철도와 관련한 시설 분포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9).

안국진 · 최지해, 2019,「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28(4), 7~26쪽.

이지현 · 김영재, 2018,「수원팔경의 역사도시경관변화에 관한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141~144쪽.

조성운, 2012,「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349~405쪽.

阪野祐介· 김윤환, 2021,「식민지도시 부산을 그린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의 조감도와 타소표상 :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문화 역사 지리』 33(2), 49~68쪽.

한동민, 2012,「수원팔경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변용」,『수원역사문화연구』 2, 7~26쪽.

홍금수, 2018,「일제강점기 전통 계획도시 수원의 지역구조 재편-식민통치를 위한 공간의 생성(生成)과 장소의 전용(轉用)-」,『기전문화연구』 39(1), 1~35쪽.

홍선영 외 역, 2009,『모던일본』(조선판) 1940, 모던일본사.

사카이 마사노스케 저, 이창식 역, 2011,『발전하는 수원』, 수원박물관.

요 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수원을 사례로 관광이 교통망 확장의 단순한 결과가 아닌 정보-체험-기억이 순환하는 근대 문화 시스템으로 작동했음을 규명했다. 일제강점기 수원은 정조의 통치 이념과 연결된 역사성, 농업 중심지, '물과 숲의 도시'로 표상되었으며, 전통 경관은 감성적 관광 및 소비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 수원팔경은 일부 도시 공간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해 미적 질서와 통치적 상징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필터로 작용했다. 이는 조선시대 전통 경관이 일제강점기 사회 · 정치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된 '재배열된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엽서 · 특산물 지도는 생산량 중심의 시각 전략을 반영하며, 수원을 식민경제 공간 구성의 일부로 포착했다. 1936년 『관광의 수원』 조감도는 동양화적 구도로 전통 · 근대 · 식민 권력의 중첩을 시각화했고, 화홍문 · 방화수류정을 전면에 배치해 상징성을 강화했다. 수원은 경성(서울) 근교 접근성으로 인해 독립적 관광지보다 위성적 관광지로 소비되었으며, 반나절 코스로 경성 관광의 연장선에 머물렀다. 명소기념스탬프는 화홍문 등을 '보아야 할 장소'로 지정하며 근대성과 전통의 공존을 표상했다. 본 연구는 수원이 교통망을 넘어 정보 · 체험 · 기억이 상호 작용하는 문화 시스템의 핵심 사례이자, 식민지 시각문화가 공간을 재구성한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식민지 시각문화, 정보–체험–기억, 도시 표상, 근대성과 전통, 관광 기획 전략

ABSTRACT

A Study on Urban Representation through Visual Reproduction of Suw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Hai-Gyoung

This study examines colonial-era Suwon as a case to reveal that tourism functioned not merely as a result of transportation network expansion, but as a modern cultural system in which information, experience, and memory circul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won was represented as a historically significant site tied to King Jeongjo's political ideology, an agricultural hub, and a "city of water and forests." Its traditional landscapes were reconfigured as objects of emotional tourism and consumption. The Suwon Palgyeong (Eight Scenic Views of Suwon) served as a cultural filter that selectively highlighted certain urban spaces, thereby constructing an aesthetic order and reinforcing symbolic authority. This indicates that the traditional landscap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not preserved in continuity, but rather reassembled as a "rearranged tradition" in response to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colonial rule. Postcards and specialty product maps reflected visual strategies centered on production volume, capturing Suwon as part of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colonial economy. The 1936 bird's-eye map Touristic Suwon visualized the overlapping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lonial power through an East Asian pictorial composition, with Hwaseong Fortress gates like Hwahongmun and Banghwasuryujeong prominently featured to enhance symbolic visibility. Due to its geographic proximity to Gyeongseong (modern Seoul), Suwon was consumed as a satellite destination rather than an independent site, typically visited as a half-day extension of Seoul tourism. Commemorative location stamps designated places like Hwahongmun as "must-see" sites, embodying the coexistence of modernity and tradi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scholarship by demonstrating how Suwon served as a central example of a cultural system wherein information, experience, and memory interacted beyond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A cultural-historical approach to the sensory experience and mnemonic construction of landscape offers new insights into the multilayered urban representation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eywords : Colonial Visual Culture, Information-Experience-Memory, Urban Representation, Modernity and Tradition, Tourism Representation Strategy

『수원학연구』 22, 2025.12, 00~00쪽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본 수원 미술사의 여성 주체성 연구

한창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본 미술사 재구성
3. 수원 지역 여성 미술가의 예술적 실천과 근대적 주체성 구현
4.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전략과 그 의의
5. 결론

1. 서론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서술에서 여성 미술가들의 존재와 기여는 오랫동안 주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주변화는 단순한 누락이나 망각이 아닌, 우리 미술사 서술 자체에 내재된 젠더 편향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더욱이 지방 출신 여성 미술가들은 '여성'이자 '지방 출신'이라는 이중의 주변성 속에서 중앙 중심적, 남성 중심적 미술사 서술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수원 미술사의 여성 주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첫째, 지역성(locality)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성은 마틴 존스(Martin Jones)와 마이클 우즈(Michael Woods)

* 한국영상대학교 교양학부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E-mail : philoart.h@gmail.com, Tel : 010-8937-7838

의 '새로운 지역성(New Localities)'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1]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성은 "특정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관계와 정체성의 복합체"[2]로서,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닌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개념"[3]으로 파악된다.[4] 수원의 경우, 18세기 후반 화성 축조 이후 형성된 근대적 도시 문화와 개방적 성격, 그리고 일제강점기 신식 교육기관의 설립과 해방 이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토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지역성 개념은 중앙 중심적 역사 서술에서 주변부로 간주되어 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창조적 역량을 재평가하는 분석 틀로 기능한다. 둘째,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sex)과 구별되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 정체성 개념으로서,[5] 자연적 주어성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권력 관계의 산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근대 조선 사회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경험한 사회적 제약과 그에 대한 저항적 실천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젠더 개념을 활용한다. 이는 단순한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근대적 주체 형성 과정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구조적 억압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능동적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포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젠더는 고정된 범주가 아닌, 지속적인 수행(performance)과 협상을 통해 구성되는 유동적 정체성으로 개념화된다. 셋째, 여성 주체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수동적 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자기를 정립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 주체성은 특히 예술 창작을 통해 구현되는 자기표현과 사

1 Jones, Martin and Woods, Michael, 2013, "New Localities", *Regional Studies,* 47(1), p.29.

2 Jones, Martin and Woods, Michael, 2013, "New Localities", *Regional Studies,* 47(1), p.30.

3 Jones, Martin and Woods, Michael, 2013, "New Localities", *Regional Studies,* 47(1).

4 존스와 우즈는 이러한 지역성을 절대공간(absolute space), 상대공간(relative space), 관계공간(relational space)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절대공간의 관점에서 지역성은 "정치적·행정적으로 인정받는 경계가 설정된 영토적 공간"으로, 상대공간의 관점에서는 "연결된 컨테이너들로서의 공간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 관계공간의 관점에서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와 흐름의 공간 내에서의 노드나 얽힘"으로 이해된다. 다음과 같이 참고할 수 있다. Jones, Martin and Woods, Michael, 2013, "New Localities", *Regional Studies,* 47(1)

5 젠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이론에 기반한다. 버틀러는 젠더가 자연적 범주가 아니라 반복적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담론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였다.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회적 발언권의 확보, 그리고 기존의 성별 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적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나혜석과 백남순의 경우, 미술이라는 근대적 문화 영역에 진입하여 독창적 예술 언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당대 여성에게 요구된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려 했던 시도들이 여성 주체성의 구체적 발현으로 분석된다. 넷째, 교차점(intersection)은 지역성과 젠더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화적 역학을 지칭한다. 이는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에 기반한 개념으로,[6] 단일한 정체성 범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의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자 '지방 출신'이라는 이중적 주변성이 단순한 억압의 중첩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중심-주변 이분법을 넘어선 창조적 가능성을 여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즉, 교차점은 주변화된 위치가 역설적으로 지배적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대안적 시각과 혁신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지점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중적 주변화의 전복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원이라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 나혜석(1896~1948)과 백남순(1904~1994)이라는 두 여성 화가의 예술적 궤적과 미학 실천을 비교 분석한다. 이들은 8년이라는 짧은 출생 시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시대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 언어를 발전시켰으며, 이들의 작품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관통하는 여성 예술가의 복합적 시선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미술사 서술을 넘어, 보다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역사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이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로 한국 미술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백남순은 최초의 파리 유학 여성화가—은 한국 근대미술의 형성 과정에서 이들이 개척자적 위치를 점했음을 방증한다.

나혜석과 백남순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으나, 두 여성 화가를 비교하는 연구, 특히 수원이라는 지역성의 맥락에서 이들의 예술적 실천을 교차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혜석 연구는 주로 그

6 Carbado, Devon W. 외, 2013, "INTERSECTIONALITY: Mapping the Movements of a Theory", *Du Bois Review: Social Science Research on Race,* 10(2), pp.303~312.

의 여성해방론과 페미니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7] 백남순 연구는 그의 파리 유학 경험과 모더니즘적 작품 세계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예술적 실천을 단순히 개인적 성취나 미학 특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지역적 맥락의 복합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여성 화가의 작품 세계를 그들이 공유하고 또한 차별적으로 경험한 지역성, 여성성, 근대성의 교차 지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 미술사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맥락화된 이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잊힌 여성 미술가들의 복권이라는 수정주의적 기획을 넘어, 미술사 서술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비판적 개입이다. 나혜석과 백남순의 작품 세계를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중앙 중심적, 남성 중심적 미술사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미술사 서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수원이라는 지역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나 행정구역이 아닌,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섭과 대화 속에서 형성되는 역동적 문화 공간임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수원학 연구의 지형도에서 여성 미술가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화성 축조와 정조의 개혁정치, 근대화 과정에서의 도시 변화 등에 집중되어 온 기존 수원학 연구 경향 속에서, 여성 주체들의 문화적 기여와 예술적 실천은 상대적

7 나혜석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안나원(1998)의 「나혜석의 회화 연구-나혜석의 회화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중심으로」가 나혜석의 예술 세계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로 평가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혜석 연구는 보다 다각적이고 심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2012년 나혜석학회의 설립과 함께 『나혜석연구』의 정기 발간이 시작되면서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나혜석과 수원의 관계에 주목한 지역학적 연구는 한동민의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선구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동민(2012)의 「수원의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은 나혜석의 가족사와 수원 지역 사회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로, 나혜석의 예술적 형성 과정을 지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한동민(2016)의 「여성 4대를 통해 본 한국 근대 여성의 존재 양상과 변화」는 나혜석을 포함한 근대 여성들의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여성사의 흐름을 조명했으며, 한동민(2023)의 「나혜석과 불교 – 작가적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은 나혜석의 정신세계와 종교적 지향을 탐구한 연구로 그녀의 예술관과 인생관 형성에 불교 사상이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용창(2013)의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은 나혜석의 파리 체험을 최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그녀의 국제적 경험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그러나 백남순에 관한 연구는 나혜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며, 두 작가를 연결하는 계보학적 관점이나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체계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안나원, 1998, 「나혜석의 회화 연구 – 나혜석의 회화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동민, 2012, 「수원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 『나혜석연구』 1(1), 177~224쪽; 한동민, 2016, 「여성 4대를 통해 본 한국 근대 여성의 존재 양상과 변화」, 『나혜석연구』 9, 7~37쪽; 한동민, 2023, 「나혜석과 불교-작가적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 『대각사상』 39권, 37~79쪽; 이용창, 2013,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 『나혜석연구』 2, 74~111쪽.

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나혜석이라는 시대의 별을 배출한 이 도시가, 그녀의 예술혼과 정신적 계보를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최열이 지적하듯 "수원 출신 미술인 중 나혜석처럼 대중성과 함께 커다란 담론을 제공하는 인물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술 성취와 지역 맥락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은 단순한 누락이 아닌, 지역사 서술에서 여성 주체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온 양상을 반영한다.

지역 미술사 연구와 여성 예술가 연구의 접점에서 나혜석과 백남순의 작품 세계를 비교 분석하는 이 연구는 수원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동시에, 수원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여성 예술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나혜석은 1896년 수원에서 출생하여 그의 예술 생애 전반에 걸쳐 수원과 깊은 정신적 유대를 유지했으며, 1929년 9월 수원 불교포교당에서 개최한《구미사생화전람회》는 수원 미술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백남순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수원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나, 그녀의 국제적 경험과 예술 성취는 수원을 포함한 한국 근대미술사의 지형도를 확장하는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 더욱이 나혜석과 백남순이 파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조선 미술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은 두 여성 화가가 공유했던 역사적 사명감과 연대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예술 실천은 수원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화성 축조 이래 형성된 수원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문화는 나혜석과 같은 독창적 예술가를 배출한 토양이 되었으며, 역으로 이들의 예술적 성취는 수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특히 2015년 수원시립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나혜석과 백남순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 전시함으로써, 수원은 이제 이들 여성 예술가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수원의 문화 정체성이 단순히 고정된 역사적 유산이 아닌,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작품 분석, 전시 큐레이션 분석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나혜석과 백남순에 관한 1차 및 2차 자료를 분석한다. 1차 자료로는 두 화가의 작품, 글, 서신, 사진 등 직접적 생산물을 검토하며, 2차 자료로는 미술사학, 여성학, 지역학 분야의 선행 연구

와 비평을 검토한다. 특히 나혜석의 『삼천리』 기고문과 백남순의 『조선일보』 기고문과 같은 직접적 진술은 이들의 예술관과 시대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두 여성 화가의 예술적 궤적을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수원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작품 분석을 통해 두 화가의 미학적 특성과 예술적 성취를 비교 분석한다. 나혜석의 〈자화상〉, 〈김우영 초상〉, 〈나부〉, 〈학서암 염노장〉 등과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 등 수원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은 두 화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 텍스트이다. 이들 작품에 드러난 형식적 특성, 주제의식, 표현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화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고 변용한 양상을 탐구한다. 특히 나혜석의 〈화령전 작약〉과 같은 작품에 드러난 수원의 지리적 공간과 작가의 정체성 간의 복합적 관계에 주목한다. 셋째, 2023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물은 별을 담는다》 전시, 특히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 섹션에 대한 큐레이토리얼 분석을 통해, 지역 미술관이 어떻게 여성 미술가들의 계보학적 연속성을 시각화하고 미술사 서술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지 탐구한다. 이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두 여성 예술가 사이의 가상적 대화를 구현하는 실험적 장치로서, 미술관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이 어떻게 미술사 서술의 대안적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자화상〉과 〈한 알의 밀알〉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한 전시공간의 구성과 중앙에 마련된 파리 포토존이 담지한 문화적, 역사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화가의 예술적 실천을 수원이라는 지역성의 맥락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젠더 재구성과 수원학 연구의 확장이라는 이중의 학문적 과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잊힌 여성 미술가들의 복권을 넘어, 미술사 서술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적 기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본 미술사 재구성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미술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학술적 작업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이라는 위계적 구도를 해체하고, 이들 범주가 상호 교섭하는 복합적 공간에서 새로운 미술사적 인식론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기존 미술사 서술에서 '누락된 여성들'을 보완하는 보정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미술사 서술의 인식론적 틀 자체를 전환하는 비판적 개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지방 출신이라는 이중적 주변성이 단순한 사회적 제약의 중첩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 담론 체계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독창적 시각과 혁신적 실천의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생산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변부적 위치가 갖는 비판적 잠재력에 대한 것으로, 중심부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대안적 문화 형성의 동력을 의미한다. 수원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나혜석, 백남순이라는 여성 예술가들의 실천은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개별 작가들의 성취를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서술 체계 자체를 보다 포용적이고 복합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 미술사의 젠더 재서술과 방법론적 전환

한국 미술사의 캔버스 위에서 여성 작가들은 오랫동안 희미한 붓질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점차 선명해지며, 우리 미술사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변화가 아닌, 한국 사회가 품은 젠더 인식의 변혁과 예술적 가치관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1970년대까지의 미술사는 마치 남성 중심의 주류 서사에 '여류'라는 작은 각주를 달아 놓은 듯했다. 나혜석, 백남순 같은 선구적 여성 서양화가들과 박래현, 천경자와 같은 동양 화단의 별들은 김영기의 『조선미술사』(1948)와 김용준의 『조선미술대요』(1949) 등에서 '최초'나 '여류'라는 수식어와 함께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8] 이런 접근은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이 지닌 본질적 가치보다는 그들의 '예외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미술계의 근시안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1980년대 후반은 서구 페미니즘의 파도가 한국 미술계에 밀려 들어온 시기였다. 김홍희가 「미술에서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1994)에서 정찬영, 이옥순 등 여성 동양화가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기존 미술사의 경계를 확장했다.[9] 그녀의 연구는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왜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했는가?'로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왔다. 이 흐름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팥쥐들의 행진》(1999)이라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발전했고, 김소연의 연구를 통해 기생 출신 서화가들이 미술사의 주체로 재발견되는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졌다.[10] 이는 단순히 누락된 퍼즐 조각을 찾아 넣는 작업이 아니라, 미술사의 계급적, 젠더 편향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며, 미술사 지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야심찬 도전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연구의 체계화와 다양화가 진행된 시기로, 윤범모의 나혜석 연구와 '나혜석학회' 설립(2012), 최열의 기생 출신 서화가 연구, 김철효의 자수 예술가 연구, 김현주와 서희정의 재외동포 여성 미술가 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이 심화 · 확장되었다.[11] 특히 자수와 같은 전통적 '여성 공예'를 미술사의 중요한 장으로 끌어올린 연구들은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게 한다. 그러나 전술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 동향은 여전히 기존 미술 제도가 인정한 일부 여성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는 여성 미술가 연구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약한다. 효과적인 미술사 재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명 복원을 넘어, 작품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비평적 담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미술사 속 여성 작가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별화된 미적 가치 체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학술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영역의 근본적 과제는 지워진 역사의 복원을 넘어서, 미술이라는 제도적 영역의 형성 과정과 그 담론적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데

8 조수진, 2020, 「한국 여성미술 연구사: 근대에서 1970년대까지」, 『인물미술사학』 16, 269~316쪽.
9 조수진, 2020, 「한국 여성미술 연구사: 근대에서 1970년대까지」, 『인물미술사학』 16, 274쪽.
10 조수진, 2020, 「한국 여성미술 연구사: 근대에서 1970년대까지」, 『인물미술사학』 16, 274~275쪽.
11 조수진, 2020, 「한국 여성미술 연구사: 근대에서 1970년대까지」, 『인물미술사학』 16, 304~305쪽.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여성 작가 추가하기'가 아닌, 미술사 서술의 방법론적 전제와 평가 기준 자체를 재고하는 비판적 관점과 대안적 분석 틀의 정립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여성 미술가 연구와 현대 여성 미술가 연구는 방법론적 접근과 담론 구성에 있어 단순한 시대적 차이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두 연구 영역 사이에는 단순한 시대적 격차를 넘어선 인식론적 단절이 존재한다. 근대 여성 작가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고고학적 발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파편화된 기록들 사이에서 지워진 흔적을 찾아내고, 왜곡된 평가를 재고하며, 시대적 제약 속에서 그들이 펼친 미적 저항의 언어를 해독해내는 작업이다. 반면 현대 여성 미술가 연구는 살아있는 목소리와 현재진행형 실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민족지학적 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방법론적 차이는 근본적인 질문의 차이로 이어진다. 근대 연구가 '그들은 어떻게 침묵 당했는가?'를 묻는다면, 현대 연구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전자가 역사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해부하는 데 집중한다면, 후자는 현재의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능동적 협상과 전복 전략에 주목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 연구가 직면한 자료의 희소성, 남성 중심 비평 언어의 지배, 작품 소실과 같은 특수한 난관을 짚어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대 여성 미술가 연구의 역동성이 근대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근대 여성 미술가 연구는 '부재의 고고학'이라는 본질적 딜레마와 대면한다. 김지혜가 밝힌 "백여 명이 넘는" 조선인 여성 유학생들의 존재와 그들이 "미술가, 여성운동가, 교육자"로서 걸어간 다층적 여정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지만,[12] 구체적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은 희미한 별빛을 좇는 작업과도 같다. 이는 여성의 창조적 행위를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던 가부장적 아카이브 정치의 결과다.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들을 따라 신문 구석의 짧은 전시 소식, 일기 속 단편적 언급, 가족 앨범의 흐릿한 작품 사진까지 발굴해내는 미시사적 탐구를 감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불완전성은 역설적으로 지배적 미술사 서술의 객

12 김지혜, 2017,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8, 10쪽.

관성이라는 신화를 해체하고, 미술사 쓰기 자체의 정치성을 폭로하는 방법론적 전환점이 된다.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버려졌는가'라는 질문은 곧 '누구의 예술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가'라는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근대 여성 미술가들은 식민지-제국, 전통-근대, 공적-사적 영역의 복합적 교차점에서 활동한 경계인이었다. 김지혜의 분석처럼,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되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개조"[13]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 앞에 놓였던 나혜석, 백남순, 장선희, 이숙종과 같은 여성 미술가들의 행보는 단순한 미적 실험을 넘어, 민족적 자의식과 젠더적 자기해방이라는 두 축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된 복합적 협상의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현주는 "한국현대미술사에서 1980년대 '여성미술'은 민중미술로 환원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음을 지적한다.[14] 이는 여성 미술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가시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미술사 서술에서 여성 미술가의 위치 설정은 단순히 기존 서사에 여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미술사의 범주와 가치 평가 기준 자체를 재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예컨대 장선희의 자수 작업이나 나혜석의 삽화 활동은 전통적 순수미술의 범주에서는 주변화되었으나, 이들 작업이 가진 사회적, 교육적 함의는 오히려 당대 여성의 생활세계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현대 여성 미술가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유동성, 다양한 주체성의 교차적 형성이 중요한 분석 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본질주의적 여성성 개념에서 벗어나 젠더, 계급,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 여성 미술가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나혜석의 작품과 활동을 단순히 '여성 해방'이나 '민족주의'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해석하기보다, 식민지 지식인, 여성 예술가, 중산층 여성이라는 다층적 정체성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최근 연구 경향은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여성 미술가들의 계보를 구축하고, 시대적 맥락의 차이 속에서도 발견되는 젠더화된 미술 실천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 보존을 넘어 새로운 연결과 맥락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선형적 미술사 서술을 넘어선 네트워크적 이해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나혜석에서 윤석남으로, 백남순에서 최경화로 이어지는 여성 미술가들의 실천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의 지점을 더욱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근대와 현대 여성 미술가 연구는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사의 젠더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대안적 미술사 서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다. 김지혜가 규명한 근대기 여성 미술가들의 '이중적 경계 넘기'와 김현주가 포착한 현대 여성미술의 '은폐된 계보'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성한다. 두 영역 간의 대화와 방법론적 교류는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의 창조적 실천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재현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한국 미술사의 젠더 재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지역학 연구 영역에도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수원과 같이 18세기 후반 화성 축조를 통해 근대적 도시계획이 일찍 도입되고, 일제강점기 수원삼일여학교 등 신식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여성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일찍 구축된 지역에서는 여성 예술가들의 출현과 활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적 재능의 발현이 아닌, 특정한 사회문화적 구조와 조건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나혜석과 같은 선구적 여성 예술가의 등장을 개별적 예외 사례가 아닌 수원이라는 지역이 제공한 문화적 토양과 교육적 여건의 필연적 결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백남순과 같이 직접적인 수원 연고는 제한적이지만 나혜석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의 계보를 형성한 인물들의 경우에도, 지역을 넘어선 여성 예술가들 간의 연대와 상호 영향관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 미술사에서 젠더 재구성의 구체적 가능성과 그 문화사적 의의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학 연구에서 여성 주체성의 의미

지역학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포착하려 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가피하게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지역 서사를 구성하는 한계에 봉착해 왔다. 지역학에 젠더 관점을 도입하는 것

13 김지혜, 2017,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8, 25~26쪽.
14 김현주, 2013, 「한국현대미술사에서 1980년대 '여성미술'의 위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6, 134쪽.

은 단순히 여성 인물을 기존 서사에 '추가'하는 표면적 작업이 아니라, 지역사의 서술 방식과 가치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미술가와 지방 도시는 미술계와 국가적 담론에서 모두 '주변화(marginalization)'된 위치에 놓여 왔다는 구조적 동형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적 주변성(dual marginality)'의 교차점에서 독창적 예술 언어를 구축해 간 여성 미술가들의 실천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기존 중심-주변 패러다임의 위계적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하는 대안적 미술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수원 미술사의 계보는 18세기 후반 화성(華城) 축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89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묘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면서 시작된 화성 건설은 단순한 도시계획 사업을 넘어 당대 최고 수준의 예술적 역량이 결집된 문화사적 사건이었다. 화성 신도시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비롯한 당대 학자와 기술자와 예술가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이룩한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였다.[15]

그러나 화성 축조 이후 19세기 수원 지역의 미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 기록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 미술사 서술에서 지역적 관점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던 학문적 한계와 더불어, 19세기 한국 미술사 전반에 대한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성 축조 과정에 참여했던 지역 내 화원(畫員) 전통의 존속 여부와 그 계승 양상은 수원 미술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수원학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젠더 접근은 미개척된 영토와도 같다. 나혜석이라는 시대의 별을 품어낸 이 도시가, 그녀의 예술혼과 정신적 계보를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전국적' 틀 안에서 나혜석을 꺼내어 단편적으로 조명했을 뿐, 그녀의 창작 세계를 빚어낸 수원이라는 토양, 그 지역적 정체성과의 교직(交織)에 대한 심층적 해석은 부재했다. 물론 수

15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에서 동원된 인력 중 '화공(畫工)이 46명, 조각장(彫刻匠)이 36명'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화성 축조가 단순한 건축적 과업을 넘어 종합적 예술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원 김홍도가 용주사 불화 제작에 서양화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전통과 외래 요소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후대 수원 미술의 개방적 성격을 예고하는 단초로 해석할 수 있다. 최열, 2023, 「나혜석과 수원」, 『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212쪽.

원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활동이나 인적 네트워크의 실증적 흔적을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나혜석에게 수원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삶의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수원으로 귀환했고, 이곳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며 다시금 예술적 영감을 불태웠다.[16] 이처럼 수원은 나혜석의 내면 지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좌표로 기능했다.

이러한 정신적 귀의(歸依)가 가능했던 근원에는 개항기 수원만의 독특한 도시적 특수성이 자리한다. 화성 축조 이후 형성된 근대적 도시 공간과 수원 삼일여학교 설립으로 구현된 여성 교육 인프라의 선구적 확립이 나혜석이라는 예외적 여성 미술가를 배양한 문화적 토양으로 작용했다. 나혜석을 포함한 신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억압되고 숨겨지고 외면해 왔던 만큼 그들의 탈주 욕망은 남성보다 강렬한 것이었고 그 새로운 욕망은 여전히 전통적 공간이었던 당시 조선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혐의"[17]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지역 사회와 여성 주체 간의 관계가 단순한 지리적 '출신지' 표지를 넘어선 복합적 사회문화적 역학의 교차점에 위치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나혜석은 단순히 '수원 출신 미술가'라는 협소한 범주에 머물 수 없는 인물이다. 그녀는 한국 근대미술사와 여성사의 중요한 접점에 서서,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문학가, 민족운동가, 그리고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역사에 뚜렷한 각인을 남겼다.[18] 이처럼 나혜석의 다면적 정체성은 예술과 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그녀가 받았던 '질서 교란자'라는 비난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역사적 중요성을 방증한다. 1929년 9월 수원 불교 포교당에서 개최된 나혜석의《구미사생화전람회》는 수원 미술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19]

16 한동민, 2009, 「나혜석과 수원」, 『나혜석학술대회논문집』 2,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 12~62쪽.

17 유진월, 2012, 「나혜석의 탈주 욕망과 헤테로토피아」, 『인문과학연구』 35, 31쪽.

18 나혜석은 1918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국내 최초의 여성 유화가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조선미술전람회에 18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꾸준한 예술 활동을 통해 남성 중심적 미술 제도 내에서 여성 예술가의 주체적 위치를 구축했다. 윤범모, 1988, 「최고령화가 백남순여사의 뉴욕화실 탐방」, 『가나아트』 1, 168쪽.

19 홍성후는 이 전시가 "수원 역사상 최초의 개인전이자 조선인으로서나 여성미술인으로서 지역 최초의 전시"였으며, "수원 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한 토대"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나혜석의 전시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지역 미술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낸 계기였음을 시사한다. 홍성후, 2023, 「근대 수원미술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186쪽.

최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원미술사학은 ‘나혜석’으로 한정되었던 수원미술사를 확장시키고 중후하게 만든” 학술적 전환점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확장된 지평 속에서 백남순(白南舜, 1904~1994)의 사례는 식민지기라는 변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여성 예술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최초의 파리 유학 여성화가”로서 백남순의 역사적 위상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지방 출신 여성으로서는 전례 없는 문화적 월경(越境)과 예술적 실험이었으며, 파리에서 나혜석과의 조우를 통해 “조선의 여성미술 진흥을 위해 뜻을 모으기도 했다.”는 기록[20]은 지역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여성 예술가들의 초국적 연대 의식이 당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역사적 단서이다. 이러한 만남은 식민지 시대 여성 미술가들이 지녔던 이중의 소외—‘지방’과 ‘여성’이라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적 예술 실천을 넘어 집단적 정체성과 공동의 문화적 비전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단초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근대미술사의 젠더 재구성뿐만 아니라 지역미술사의 복합적 맥락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1930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화성학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프롤레타리아미술전람회는 수원 미술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미술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열은 이 전시가 “한국 미술사상 전에 없던 사건을 수원에서 일으킨 주역이라는 점에서 수원 미술계 탄생의 역사에 기억해야 할”[21]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본 전시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로 대표되는 식민지 공식 미술 제도에 대한 대항담론의 형성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전시가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지역 미술계의 진보적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심-주변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선 한국 근대미술의 복합적 지형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혜석과 백남순의 예술적 궤적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의 병렬적 나열이 아닌, 지역과 여성 예술가 간의 관계가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며 어떻게 역동적으로 재구조화되는지,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여성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충돌하며 상호 구성되는지에 관한 복합적 양상이다.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조하는 문화적 변용 과정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그들의 작업[22]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역 미술사의 맥락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근대 여성 미술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차점으로, 분절된 학문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역성’을 단순한 지리적 경계나 행정구역으로 한정 짓지 않고, 사회 · 문화 · 역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확장된 시각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과 예술가의 관계는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수원 미술계의 발전 과정과 여성 미술가들의 위상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당 시기 수원 지역 미술계의 침체 또는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으나, 단순한 학술적 공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공백은 역설적으로 지역 미술사 서술에서 남성 중심적 내러티브가 무비판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방식을 드러내는 징후로 읽힐 수 있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 미술가들의 계보와 그들의 작품 세계, 그리고 선대 여성 미술가들과의 연속성과 단절의 지점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 현대 미술사의 지역적, 젠더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다행히도 2015년 수원시립미술관의 개관은 수원 미술사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성 미술가들의 역사적 족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열의 지적처럼 “수원시립미술관은 개관 이래 수원미술사 연구의 거점기관”이었다.[23] 미술관이 발간하는 『수원미술연구』와 같은 정기 간행물은 지역 미술사 연구의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나혜석, 홍득순, 백영수, 박승구, 김혜일 등 수원 출신 미술가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지역 미술사가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하위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미술사의 지형도를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론적 전

20 윤범모, 2013, 「근대기 여성미술의 형성, 나혜석과 백남순의 경우」, 『나혜석연구』 2, 191쪽.
21 최열, 2023, 「나혜석과 수원」, 『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223쪽.
22 김지혜, 2016,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8, 25~26쪽.
23 최열, 2023, 「나혜석과 수원」, 『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260쪽.

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원의 여성 미술가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단순히 기념비적 '자랑거리'로 환원하는 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場)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와 그 속에서 이들의 예술적 실천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미술사 서술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 주체들의 활동을 재평가함으로써, 지역 미술사의 젠더화된 구조를 가시화하고 그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문제화하는 학술적 시도이다. 더불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자료의 부재성과 단편성이라는 근대 여성 미술가 연구의 고질적 난점을 극복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수원 지역 여성 미술가의 예술적 실천과 근대적 주체성 구현

수원에서 배출된 여성 미술가들의 예술적 실천은 지역의 문화적 토양과 근대적 여성 주체성이 만나는 독특한 지점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 화성 축조 이후 형성된 수원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문화는 전통적 성별 규범을 넘어선 여성 주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혜석(1896~1948)은 수원 출신으로서 지역적 정체성과 깊이 결합된 예술 세계를 구축했으며, 그녀의 창작 활동은 수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출생지를 넘어 정신적 귀의처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백남순(1904~1994)의 경우 직접적인 수원 연고는 제한적이나, 나혜석과의 파리에서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의 계보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두 작가가 파리에서 나눈 "우리는 조선 미술의 역사이다."라는 대화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여성 예술가들 간의 연대 의식과 공통된 역사적 사명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백남순이 비록 수원 출신은 아니지만, 나혜석이 개척한 한국 여성 미술가의 전통을 국제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로서 수원 미술사의 확장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절에서는 이 두 작가의 예술적 실천을 통해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역학을 분석한다. 특히 나혜석의 경우 수원이라는 지역적 공간

이 그녀의 정체성 형성과 예술적 실천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백남순의 경우 초국적 모더니즘의 수용과 한국적 변용 과정에서 나혜석과의 계보적 연속성이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조선에서 여성 예술가로서의 주체성 구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문화적 형성체를 만들어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나혜석 : 수원 정체성과 근대적 여성 주체성의 구현

나혜석은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에서 태어났다. 정월(晶月)이라는 아호로도 알려진 그녀는 수원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나혜석은 나주나씨 부사공파(府使公派) 가문의 일원으로, 시흥군수를 역임한 나기정(羅基貞, 1863~1915)의 딸로 태어났다.[24] 이러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토대가 되었다. 그녀가 받을 수 있었던 교육 기회와 가족의 지지는 보통의 여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술적 여정을 가능케 했으며, 이는 나혜석이 단순한 '여성 예술가'가 아닌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나혜석의 성장과 예술적 탐구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인물은 그녀의 오빠 나경석(羅景錫, 1890~1959)이었다. 그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과 소비조합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당대 지식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다.[25] 이 시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주성과 민족 정체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던 때로, 나경석의 진보적 활동은 나혜석에게 단순한 가족적 영향을 넘어 시대정신을 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제 간의 이러한 지적 교류는 당시 사회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위계적으로만 형성되던 시대에 동반자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혜석이 후에 보여준 사회적 관습에 대한 도전과 예술적 실험성은 이러한 가족 내 진보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으로, 그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24 홍성후, 2023, 「근대 수원미술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189쪽.
25 홍성후, 2023, 「근대 수원미술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간과할 수 없다.

교육 면에서 나혜석은 1913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에 일본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함으로써 정규 미술교육을 통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단순한 학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조선 여성의 해외 유학은 극히 드문 사례였으며,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나혜석의 일본 유학 경험은 서양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뿐만 아니라 근대적 여성상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윤범모는 나혜석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나혜석은 조선미전 출품작 18점을 비롯 생전에 약 3백 점(소품 2백 점 포함)의 작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이렇듯 다량의 작품을 발표한 유화가는 없었다. 나혜석은 최초의 여성 유화가라는 타이틀 보다 최초의 본격적 전업화가라는 칭호가 더 어울릴 것 같다.26

이처럼 나혜석의 예술 여정은 '여성 화가'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 한국 근대미술의 본격적 전업 작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의 근간에는 나혜석과 수원의 깊은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나혜석과 수원의 관계는 단순한 출생지를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예술 세계 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경관과 공간 감각은 수원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녀가 추구한 미적 가치의 바탕에는 고향의 문화적 토양이 깊이 스며있다.

나혜석이 인생의 주요 전환점마다 수원으로 돌아와 정신적 안식과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혼 이후인 1935년경 수원으로의 낙향 시기는 그녀의 예술적 성찰과 재생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혜석이 『삼천리』에 기고한 다음의 서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나고 자라나든 수원 땅에 20년 만에 다시 도라와 주택을 정하였습니다. 노마성(로마성)을 본 후에 수원성을 보는 감상은 이상히도 로맨틱합니다. 수원은 팔경을 가젓스나 즉 광교적설, 화홍잔벽, 동산석봉, 병암간수, 류천장제, 서호낙조, 북지상련이올시다. 실로 화제(畫題)도 많고 산책처도 많습니다.27

26 윤범모, 2016, 「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나혜석연구』 8, 152쪽.

이 글에서 나혜석은 세계 여행에서 경험한 서구 문화와 자신의 고향 수원을 비교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원의 지역적 특성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있다. 한동민은 이 시기를 "구미를 여행하고 귀국한 나혜석이 '고향 수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 화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발견'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특히 기존 수원팔경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나혜석이 '화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28]을 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재발견은 단순한 향수를 넘어 그녀의 예술적 시각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수원이 나혜석의 예술 세계에 미친 영향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범모[29]가 분석한 〈화령전 작약〉(그림 1)은 "수원행궁 부근의 화령전 풍경을 담은 것"으로, "화령전은 정조대왕의 사당으로 현존하는 건축물이다. (중략) 특히 이 건축은 나혜석 생가의 골목 입구에 위치해 있어 나혜석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친숙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나혜석이 이혼 이후 수원으로 낙향했을 때, 그러니까 1935년경 고향 생가마을을 회상하면서, 또 마을의 대표적 상징물인 화령전의 추억을 현장에서 묘사한 것 같다." 이처럼 수원의 지리적 공간은 나혜석에게 단순한 그림의 소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재확인하는 정서적 매개체로 작용했으며,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수원과의 깊은 연결은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수원시립미

〈그림 1〉 나혜석, 〈화령전 작약〉, 1930년대, 패널에 유채, 33.7×24.5㎝(국립현대미술관)

27 최열, 2023, 「나혜석과 수원」, 『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한동민, 2009, 「나혜석과 수원」, 『나혜석학술대회논문집』 2,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 12~62쪽.

28 한동민, 2009, 「나혜석과 수원」, 『나혜석학술대회논문집』 2,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

29 윤범모, 2016, 「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나혜석연구』 8, 159쪽.

술관에 소장된 나혜석의 사진 앨범은 그녀의 다채로운 삶의 궤적과 수원과의 불가분한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다. 2016년 특별전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 앨범은 나혜석의 다면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있다.[30] 앨범 속에서 나혜석은 "흰색 치마저고리 차림에서 샤넬 라인의 양장 차림으로, 다시 체크무늬의 통치마에 안경을 쓴 신여성 차림으로, 다시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여 때로는 나혜석이 맞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31]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처럼 사진 속 나혜석의 격변하는 외양은 그녀가 겪었던 내적 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민감한 응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변화 속에서도 수원이라는 고향이 그녀의 삶에서 변함없는 정신적 닻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현재 수원시는 나혜석을 지역의 핵심적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그녀의 예술적 족적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5년 개관한 수원시립미술관이 첫 대형 기획으로 나혜석 특별전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범모가 지적했듯 "개관 직후의 행사여서 수원 출신 나혜석에 대한 각별한 배려임을 알게 한다. 더군다나 미술관은 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는바, 부근의 화령전 골목에 나혜석의 생가터도 있어 특기하게 한다."[32] 이러한 지리적 중첩은 단순한 물리적 근접성을 넘어 나혜석과 수원의 역사적, 정서적 불가분성을 상징적으로 구현한다.

종합하면,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적, 세계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예술적 뿌리는 분명히 수원이라는 지역적 토양에 깊숙이 내려져 있다. 최열이 명쾌하게 표현했듯 "수원 출신 미술인 중 나혜석처럼 대중성과 함께 커다란 담론을 제공하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33] 이런 관점에서 나혜석의 생애와 창작 세계를 수원이라는 지역성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조명하는 것은 지역사, 미술사, 여성사가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학문적으로 풍요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0 권행가, 2021,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소장 〈나혜석 사진앨범〉」, 『수원미술연구』 5, 245쪽.
31 권행가, 2021,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소장 〈나혜석 사진앨범〉」, 『수원미술연구』 5, 247쪽.
32 윤범모, 2016, 「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나혜석연구』 8, 151쪽.
33 최열, 2023, 「나혜석과 수원」, 『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251쪽.

2) 백남순의 초국적 모더니즘과 한국적 변용 : 나혜석 계보의 연장선에서

백남순의 예술사적 의의는 수원과의 직접적 지역적 연관을 넘어, 나혜석이 개척한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의 계보를 초국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8년의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가 파리라는 초국적 공간에서 마주했던 순간은 단순한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여성 주체로서의 연대 의식과 역사적 사명감이 구체화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백남순이 나혜석과 달리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서구 모더니즘을 직접 체험했다는 점이다. 파리 아카데미 그랑쇼미에르와 아카데미 스캔디나브에서의 학습은 그녀로 하여금 식민지 조선 미술계가 일본을 통해 굴절되게 수용하던 서구 미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직접적 체험은 〈낙원〉(1937) 등 그녀의 대표작에서 나타나는 서구적 조형 감각과 동양적 서정성의 절묘한 융합을 이해하는 핵심적 배경이 된다.

백남순의 예술 실천은 나혜석이 추구했던 근대적 여성 주체성의 예술적 구현을 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 계보의 국제적 확장과 심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4년 서울 출신으로 1994년 뉴욕에서 9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백남순의 생애[34] 자체가 한국 근대미술사의 초국적 전개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궤적이라 할 수 있다. 백남순의 예술사적 위상과 그 모순적 운명은 한국 근대미술사의 젠더화된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식민지 시기 화단의 중심부에 당당히 발을 들여놓았던 그녀는 1930년대 당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러한 급격한 '가시성의 소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젠더와 권력, 역사 서술의 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백남순의 작품 대다수가 6·25전쟁의 폭풍 속에서 유실된 물리적 소멸과 더불어, 그녀에 대한 미술사적 기억마저 체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여성 예술가의 창조적 성취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그녀가 90세 고령으로 뉴욕에서 생을 마감할

34 강정화, 2023, 「백남순의 예술세계 연구 : 근대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61, 72쪽.

때까지도 한국 미술계는 이 선구적 예술가의 재발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백남순의 화단 등장은 1923년 고려미술회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펼쳤으며, 당시 안석주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색채(色彩)가 신선(新鮮)하고 '데싸인'이 정확(正確)하엿다."[35]라고 평가했다. 이는 백남순이 일찍부터 독특한 색채 감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3년에는 도쿄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공부했으나,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과 이에 따른 조선인 학살 사태로 인해 귀국하게 되었다.[36] 파리에서는 아카데미 그랑쇼미에르(Grand Chaumiere)와 아카데미 스캔디나브(Scandinave)에서 수학하며,[37] 살롱 드 라 소시에테 데 아티스트 프랑세(Salon de la Societe des Artistes Francais)와 튈르리 예술가전(Salon des Artistes Tuileries)에서 입선하는 등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38]

백남순의 파리 유학은 순수한 모더니즘 미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미술계가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서양 미술을 굴절되게 수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서구 모더니즘의 원류를 직접 체험하고 독자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학 경험을 넘어선 미학적 · 문화적 독립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백남순은 파리에서 임용련(任用璉, 1901~?)을 만나 결혼 후 1930년 귀국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조선 최초의 부처전(夫妻展)을 개최했다.[39] 1934년부터는 목일회 동인으로 활동하며[40] 서구 모더니즘과 조선의 전통 사이에서 독자적인 예술 언어를 모색했다. 백남순의 예술 세계는 "베네치아파 풍경양식과 세잔풍의 색조"와 "삼원법 구도에 소림모정(疏林茅亭) 모티프"의 결합을 통해[41] 동서양 미학의 구조적 통합을 추구했다. 당대 비평가들은 이러한 백남순 특유의 색채 감각과

35 강정화, 2023, 「백남순의 예술세계 연구: 근대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61, 73~74쪽.

36 이경모에 따르면, "한편, 일본에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뉴스가 조선에 전해지자, 아버지 백낙준은 다급하게 딸을 귀국시키게" 되었으며, 이후 백남순은 잠시 교편생활을 하다가 파리로 유학하게 된다. 이경모, 2023, 「관동대지진과 화가 백남순」, 『더원미술세계』 3, 16쪽.

37 이경모, 2023, 「관동대지진과 화가 백남순」, 『더원미술세계』 3, 16쪽.

38 강정화, 2023, 「백남순의 예술세계 연구: 근대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61, 78쪽.

39 이경모, 2023, 「관동대지진과 화가 백남순」, 『더원미술세계』 3.

40 강정화, 2023, 「백남순의 예술세계 연구 : 근대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61, 83쪽.

41 홍선표, 2009,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아트, 233쪽.

구성력에 주목했으며, 특히 그녀의 색채는 '신선하고 정확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몽롱함'[42]의 정서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백남순의 예술 세계가 임용련과의 결혼 이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점이다. 두 예술가 사이의 교감과 영향 관계는 창작의 역학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특히 '온화한' 주홍빛 계열의 색채 실험이 두드러진다. 이종우는 이러한 변화를 "임파형의 색은 냉정하고 해농씨의 빛은 온화한 것"이라고 표현하며,[43] 두 작가의 색채적 특성을 대비시켰다. 이처럼 백남순은 단순히 서양화 기법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독자적 궤적을 선도했다. 나아가 백남순의 예술사적 의의는 나혜석이 개척한 한국 근대 여성 미술가의 계보를 국제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나혜석은 수원 출신의 여성 화가로, 수원시립미술관이 '나혜석기념홀'을 운영하며[44] 그녀와 관련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두 여성 화가는 도쿄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연이어 입학한 선후배 관계로, 나혜석의 개척자적 행보를 백남순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백남순과 수원의 직접적 연관성은 제한적이지만, 나혜석과의 예술사적 연결고리를 통해 수원 지역 미술사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백남순은 나혜석이 제기한 전통과 근대의 갈등 문제를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백남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뇌와 탐구는 그녀의 대표작 〈낙원〉(1937)(그림 2)에서 동양적 서정과 서구적 조형 감각이 절묘하게 융합된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2021년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에 백남순의 〈낙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주원에 따르면, 나혜석과 함께 제1세대 여성 서양화가로 파리에서 유학한 백남순은 예일대 미대 출신의 남편 임용련(1901~?)과 함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던 작가였고, 〈낙원〉은 캔버스 위에 유채로 그린 8폭 병풍으로 《귀국부부전》(1930)에 출품되었으며,[45]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

42 안석주, 「제이회 고려미전을 보고서」, 『조선일보』 1924년 10월 27일; 김복진, 「제사회미전 인상기 2」, 『조선일보』 1925년 6월 3일.

43 이종우, 「임씨부처전」, 『동아일보』 1930년 11월 8일.

44 임창섭, 「한국 근대미술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성작가들」, 『월간 미술세계』 2025년 1월, 56쪽.

45 작품은 6·25전쟁 중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로 지냈던 부부가 그림을 두고 월남하면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

〈그림 2〉 백남순, 〈낙원〉, 1937, 캔버스에 유채, 166×366㎝(삼성미술관 리움)

명작》에 전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백남순은 서구 모더니즘의 표현 기법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동양화의 공간 구성과 정신적 여백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이 단순한 기법적 실험이 아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전통과 근대 사이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탐구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것이다. 이는 화성 축조 이후 전통과 서구 문물이 공존하며 형성된 수원의 이중적 도시 정체성과 공명하는 부분으로,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예술적 표현 사이의 잠재적 연결고리를 시사한다. 김지혜가 백남순의 〈낙원〉을 "당시 그가 조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파리의 유학 시절을 떠올리며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화폭에 담은 것"으로 해석한 점[46]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수원의 도시적 특성과도 상징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백남순이 수원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그녀의 예술적 성취와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 및 재해석 과정은 수원을 포함한 한국 근대미술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이 나혜석을 기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백남순에 대한 재조명과 연구도 수원의 근대미술사를 더

려졌으나, 백남순의 동료 교사가 결혼 선물로 받아 간직해온 것이 발굴되어 소개되었다. 이구열(1981)의 글을 통해 〈낙원〉의 미술사적 위치가 강조되었고, 이는 이건희 회장이 작품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김주원, 2023, 「이건희컬렉션-순회전 이펙트: 모든 사람을 위한 엘리트 경험」, 『월간미술』, 66쪽.

46 김지혜, 2016,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8, 22쪽.

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상에서 살펴본 나혜석과 백남순의 예술 실천은 근대 조선 사회에서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문화 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혜석의 경우 수원이라는 지역적 토양에서 배태된 근대적 여성 주체성이 어떻게 전국적,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를, 백남순의 경우 초국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미학적 성취가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재맥락화되어 독창적 예술 언어로 구현되었는지를 각각 보여주었다. 두 작가의 사례는 또한 여성 예술가들 간의 계보적 연속성과 상호 영향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혜석에서 백남순으로 이어지는 여성 미술가의 계보는 단순한 시대적 계승을 넘어, 근대적 여성 주체성 구현이라는 공통된 과제 의식과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창조적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작업을 통해 이들의 예술 실천이 어떻게 현재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전략과 그 의의

앞서 분석한 나혜석과 백남순의 예술 실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머물지 않고, 현재 지역 문화기관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새롭게 의미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개관한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작업은 단순한 유물 전시나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서는 학술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나혜석과 백남순의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성취를 단순히 과거의 기록물로 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지역학과 젠더 연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미술사 재구성 실천으로, 기존의 중앙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미술사 서술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비판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수원시립미술관의 수집정책과 전시 기획이 지닌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술관이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사와 미술사 재구성의 능동적 주체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

천이 한국 미술사학과 지역학 연구에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이 학술 연구와 어떻게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지역 문화기관의 수집정책과 미술사 재구성

수원시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예술가의 작품 수집과 전시, 연구를 통해 지역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사의 젠더 재서술이라는 보다 확장된 담론적 실천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제도화된 미술관의 수집 정책이 어떻게 기존 미술사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기존의 중앙 중심적, 남성 중심적 미술사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미술관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 기관이 아닌 문화적 가치 창출과 역사 재구성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술관장 이채영이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미술사의 온전한 구축"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연구 범위를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수원시(행정구역상), 시간적 범위 : 1896년(나혜석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명시하고 있다.[47]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지역 미술사 구축의 시작점이 나혜석의 탄생과 함께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연대기적 편의를 넘어, 수원 미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여성 미술가를 중심축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원시립미술관의 중점 수집 주제가 "수원미술, 여성주의 작품"[48]으로 설정된 것은 지역성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집 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드러낸다.

수원시립미술관은 2015년 개관 직후부터 나혜석의 〈자화상〉, 〈김우영 초상〉, 〈나부〉, 〈학서암 염노장〉 등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이 작품들은 나혜석의 막내아들 김건의 유언에 따라 기증받은 것으로, 유족의 적극적인 협조는 나혜석의

47 이채영, 2017, 「서문」, 『수원미술연구』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48 정경아,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예술적 유산을 공적 영역에서 보존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범모는 "생전의 막내아들은 이들 작품을 거실에 걸어놓았으며 타계에 앞서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하며, 이러한 기증이 "가족의 사적 기억에서 공적 문화유산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49] 이러한 작품 기증은 공적 영역에서 나혜석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미술관은 2018년 2층 전시홀에 '나혜석기념홀'을 개관하여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다.[50]

나혜석과 더불어 백남순 작품의 수집도 수원시립미술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에서는 "가장 최근 수집한 백남순의 작품과 가장 처음 수집한 나혜석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연결에서, 수원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특별한 맥락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1] 이는 미술관의 소장품이 단순한 작품 축적이 아닌, 일관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진 체계적 수집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수원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술관이 단순히 완성된 예술 작품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첩, 편지, 개인 일기 등 작가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파두라이(Appadurai)가 강조한 "물질문화에 내재된 사회적 생애(social life of things)"의 개념과 연결된다.[52] 즉,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독립된 심미적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생애, 사회적 맥락, 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문화적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2016년 4월 개최된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 특별전은 이러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전시에서는 "나혜석 유족(김건 · 이광일) 기증 유화작품의 공개, 오사카 모모야마학원 소장의 나혜석 친필 공개, 그리고 유족 소장 나혜석

49 윤범모, 2016, 「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나혜석연구』 8, 153쪽.

50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나혜석 기념홀〉」, 수원문화재단.

51 정경아,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52 Appadurai, A., 1986,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8.

앨범의 공개"가 이루어졌다.[53] 특히 나혜석의 사진 앨범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다면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권행가는 이 앨범에서 나혜석이 "흰색 치마저고리 차림에서 샤넬 라인의 양장 차림으로, 다시 체크무늬의 통치마에 안경을 쓴 신여성 차림으로, 다시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여 때로는 나혜석이 맞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54] 이러한 시각 자료는 나혜석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그녀가 경험한 근대성의 다층적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미술작품의 형식적 분석을 넘어선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미술관의 수집 활동은 단순한 소장품 확보를 넘어 지역 미술사의 재구성과 미술사 방법론의 혁신이라는 보다 확장된 학문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벤자민(Benjamin)이 지적한 "수집가는 물건들을 그들의 원래 기능적 관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역사적 체계 속에 위치시킨다."는 관점[55]에서, 수원시립미술관의 수집 활동은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예술가를 기존 미술사의 제한된 틀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문화사적 맥락 속에 재배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판단을 넘어선 문화정치학적 실천으로, 박일호가 강조한 "지역미술관의 수집 정책은 미술사의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능동적 개입"이라는 관점과 연결된다.[56]

이러한 수집 정책의 구체적 결실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체계적인 수집 정책은 2023년 개최된《물은 별을 담는다》전시에서 구체적인 큐레이토리얼 실천으로 구현되었다. 이 전시는 미술관이 지난 8년간 축적한 소장품을 기반으로 기획된 것으로, 단순한 컬렉션 공개를 넘어 수원 미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전시 내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 섹션은 앞서 논의한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실험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 공간에서는 나혜석의 〈자화상〉(1928년경)과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1983년)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5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을 초월한 두 여성 예술가 간의 가상적 대화를 연출했다. 이러한 큐레이토리얼 장치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서 미술사 서술

53 윤범모, 2016,「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나혜석연구』8, 152쪽.
54 권행가, 2021,「수원아이파크미술관 소장 〈나혜석 사진앨범〉」,『수원미술연구』5, 247쪽.
55 Benjamin, W., 1999, *The Arcades Project,* Harvard University Press, p.207.
56 박일호, 2020,「지역미술관 수집정책과 지역미술사 서술」,『미술사학연구』46, 175쪽.

의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형적 시간관과 위계적 가치 체계에 기반한 기존 미술사 서술에 대한 공간적 · 시각적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실천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전시 기획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고려에 기반하여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미술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확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물은 별을 담는다》 전시 분석 : 큐레이토리얼 실천의 의미

수원시립미술관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열었던 소장품 상설전《물은 별을 담는다》는 미술관 개관 이후 7년간 수집한 260여 점 가운데 엄선한 39명 작가의 46점을 선보인 전시로, 수원의 지역 정체성과 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이 전시에서 특히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은 지역성과 젠더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큐레이토리얼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본고는 이 전시 공간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숨겨진 서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지역 미술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시공간을 넘어선 여성 예술가들의 대화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은 여성주의 컬렉션 섹션인 '[성, 별을 넘어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이 공간의 핵심은 나혜석의 〈자화상〉(1928년경)과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1983년)이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한 공간 구성에 있다.[57] 이 두 작품 사이에는 5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지만, 전시 공간은 이를 극복하고 두 여성 예술가 사이의 가상적 대화를 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미술사 서술의 선형적 시간성에 도전한다. 특히 자화상 속 나혜석의 시선이 백남순의 작품을 향하도록 배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배치를 넘어 세대 간 계승과 영향 관계를 암시하는 시각적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이러한 배치는 에릭슨(Eriksen)이 언

57 수원시립미술관, 2023,「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 수원시립미술관 웹사이트.

급한 "미술관의 공간 구성은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문화적 서사를 구체화하는 수행적 행위"[58]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사례로, 두 작품의 대면 구조는 한국 여성 미술사의 단절된 계보를 시각적으로 복원하는 상징적 행위로 읽힐 수 있다.

(2) 작품 선정과 배치의 변증법적 의미

〈자화상〉과 〈한 알의 밀알〉이라는 두 작품의 선정과 대비는 세심한 큐레이토리얼 전략을 보여준다. 나혜석의 〈자화상〉은 "어둡고 무거운 눈빛, 앙다문 입술"에서 감지되는 고뇌와 내면의 긴장이 특징적인 작품으로, 이혼 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반영한다.[59] 이 작품은 서양 미술의 자화상 전통과 당시 일본을 통해 유입된 근대적 재현 양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한 중요한 작품으로, 세계와 나혜석 자신 사이의 갈등하는 시선 교환을 담고 있다.

반면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1983)은 제목에서부터 생명과 재생산, 희망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두 작품 간의 이러한 정서적 대비는 볼프보웰(Wolff-Bowell)이 언급한 "미술관 전시에서의 정서적 대위법"[60]을 구현하는 동시에, 벤자민의 '변증법적 이미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두 작품은 한국 근현대사의 서로 다른 지점을 반영하는 변증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한국 여성 미술가들이 겪어온 역사적 변화와 연속성을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3〉 수원시립미술관 《물은 별을 담는다》 전시,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 전경, 2023(『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58 Eriksen, J., 2018, "Museum Spaces and Narrative Constructio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36(2), p.123.

59 이선아,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염노장' 원본 첫 공개」, 『한국경제신문』 2023년 4월 27일.

(3) 참여와 체험을 통한 미술사 재구성

이 전시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에 마련된 "1920년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61]이다. 이 장치는 단순한 기념사진 촬영 장소를 넘어, 두 예술가가 공유했던 파리 경험을 환기시키며 관람객이 그들의 시공간적 맥락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숍(Bishop)의 주장처럼, 이러한 참여형 전시 장치는 "관람객을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예술적 담론의 공동 생산자로 위치시킨다."[62] 관람객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나혜석과 백남순이 경험했던 파리라는 공간에 가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술사적 서사에 대한, 보다 감각적이고 체화된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객 참여적 요소는 미술사를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재구성하는 열린 과정으로 만든다. 이는 페미니스트 미술사학이 강조해 온 지식의 체화된 성격과 역사 서술의 참여적 측면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접근법이다.

(4) 전시 제목의 은유적 의미와 지역성의 재해석

전시의 제목《물은 별을 담는다》는 수원시립미술관의 큐레이토리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제목에서 '물'은 수원(水原)의 지명적 의미를 환기하면서, 동

60 Griersova, M., 2015, "The Politics of Exhibition Space: Gaze, Spectacle and Viewership in Contemporary Museums", *Cultural Studies Review*, 21(1), p.76.

61 정경아,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62 Bishop, C., 2012,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Verso Books, p.219.

시에 유동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성의 본질을 상징한다.[63] '별'이 개별 작품과 작가들의 고유한 빛남을 표상한다면, 이 전시는 결국 지역성이 어떻게 다양한 예술적 성취들을 담아내고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간적 메타포를 제시한다. 특히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은 이러한 메타포가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공간으로, 수원이라는 지역적 맥락이 여성 예술가들의 계보를 품어 안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성이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 아닌, 대안적 미술사 서술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혜석에서 백남순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연결은 중앙 중심적 미술사와 남성 중심적 캐논 형성에 대한 이중의 저항으로, 주변화된 주체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탈식민적 · 페미니스트적 실천의 일환이다.

(5) 순환적 동선 구조와 대안적 미술사 서술

이 공간이 '나혜석기념홀'로 다시 이어지는 순환적 동선 구조는 전통적 미술사의 직선적 · 진보적 서사에 도전하는 급진적 큐레이토리얼 실험이다. 이는 페미니스트 미술사학이 지향하는 네트워크적, 관계적 역사 인식을 공간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관람객들에게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고립된 개체가 아닌 상호 연결된 대화의 연속체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순환적 동선은 지역 미술사가 단일한 내러티브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이야기들의 집합임을 시사하며, 미술사 서술 자체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유도한다. 관람객들은 두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주류적 서술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재발견하게 되며, 이는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미술사적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의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은 지역성과 젠더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큐레이토리얼 실험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숨겨진 서사를 재구성하고 지역미술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이 전시 공간은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두 여성 예술가 사이의 가상적 대화를 구현함으로써, 중앙 중심적, 남성 중심적 미술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개입

63 정경아,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을 시도한다. 아울러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수원이라는 지역성을 재해석하는 방식은, 지역미술관이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소가 아닌 능동적인 문화 생산과 비판적 담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미술사 서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 전시는 지역과 젠더라는 두 가지 주변화된 범주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인식론적 가능성을 발굴함으로써, 한국 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구적 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수원시립미술관의 이러한 실험이 다른 지역미술관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의 지역학과 미술사 연구는 보다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 전시의 성과를 보다 큰 맥락에서 조망해 보면,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작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문화기관이 단순한 문화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학술 연구와 문화 정책의 교차점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술관의 수집정책과 전시 기획이 보여준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적 접근은 기존 미술사학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실천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재적 실천의 의의는 과거의 역사적 성취를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현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의 문화적 비전과 연결시키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데 있다. 나혜석과 백남순으로 대표되는 근대 여성 미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수원시립미술관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생명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학과 젠더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현실적 문화 정책과 제도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수원시립미술관의 사례는 지역 문화기관이 어떻게 학술 연구의 성과를 문화적 실천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그러한 실천을 통해 학술 연구에 새로운 자료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지역학과 미술사학의 학제간 연구에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나혜석(1896~1948)과 백남순(1904~1994)이라는 두 여성 화가의 예술적 궤적을 수원이라는 지역성의 맥락 속에서 비교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조명하거나 여성 미술가라는 범주로 일반화하는 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두 화가를 동일한 지역적 기반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성과 젠더가 창작 실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 두 화가는 단순히 '여성 미술가'라는 협소한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 주체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고 변용하며 독자적 예술 언어를 구축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나혜석이 자기표현과 여성 정체성의 직접적 표출에 주력했다면, 백남순은 동서양 미학의 구조적 통합과 형식적 실험에 천착했다. 그럼에도 두 화가 모두 '여성'이자 '지방 출신'이라는 이중의 주변성 속에서 창작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는 '이중의 주변성'(젠더적-지역적)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시각과 달리, 이를 창조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주체성에 주목한 점이다. 나혜석에게 수원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닌 "정신적 귀의(歸依)의 장소"로 기능했으며, 〈화령전 작약〉과 같은 작품에서 수원의 지리적 공간은 정체성 재확인의 정서적 매개체로 작용했다. 백남순의 경우 파리 유학을 통한 서구 모더니즘의 직접적 체험과 〈낙원〉(1937)에서 보여준 동서양 미학의 융합 시도는 식민지 조선 미술계의 일본 중심적 서양 미술 수용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경로를 보여준다. 수원시립미술관의 나혜석과 백남순 재조명 작업에 대한 본 연구의 새로운 관점은 이를 단순한 '복권' 사업이 아닌 '대안적 미술사 서술의 능동적 주체이자 비판적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개념화한 것이다. 특히 나혜석의 탄생(1896년)을 수원미술사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을 "미술사 서술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는 급진적 결정"으로 해석한 본 연구의 관점은 기존의 행정적 · 기념적 접근과 구별된다. 2023년《물은 별을 담는다》전시의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에 대한 분석에서, 본 연구는 이를 "시공간을 넘어선 가상적 대화 구현"이라는 큐레이토리얼 실험으로 규명했다. 나혜석의 〈자화상〉(1928년경)과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1983년)을 마주보도록 배치한 공간 구성과 중앙의 파리 포토존이 담지한 문화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술관 전시가 어떻게 미술사 서술의 대안적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역-젠더-모더니즘의 삼각 구조 분석'은 기존의 개별 작가 연구나 여성 미술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이는 지역성과 젠더성이 모더니즘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미학적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단순히 지역적 맥락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선 인식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수원학이라는 학문적 틀에서 본 연구는 지역성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예술가를 통해 지역 미술사가 단순한 중앙 미술사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자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영역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1950년대 이후 수원 관련 여성 예술인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의 부족, 백남순과 수원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사료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방법론적 혁신, 미술사 교육에서 지역 여성 작가들의 적극적 조명, 그리고 지역 간 연계 연구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사 지형도의 복합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포착한 핵심은 나혜석과 백남순의 예술적 실천이 이중적 주변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역설적으로 창조적 역능(agency)으로 전환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례는 지역성과 젠더가 단순한 사회학적 범주나 정체성 표지를 넘어, 기존 문화 질서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대안적 미학 체계 구축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발견은 주변부를 결핍의 공간으로 사유하는 근대적 위계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일방향적 영향사가 아닌 상호구성적 역학으로 재개념화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한다. 나혜석과 백남순이 보여준 것은 주변부가 중심부의 단순한 모방이나 지연된 반복이 아닌, 고유한 문화적 논리와 미학적 가능성을 창출하는 생산적 장소라는 사실이다.

수원시립미술관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이 함의하는 바는 지역 문화기관이 단순한 문화 소비의 거점이 아닌,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문화적 상상력을 촉발하는 비판적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실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한국의 지역학과 미술사 연구는 중앙집권적 지식 생산 체계

를 해체하고, 다중심적이며 네트워크적인 문화 지형도를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다양성의 증진을 넘어, 문화적 민주주의와 지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근본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내포한다.

투고일 2025년 4월 30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참고문헌

강정화, 2023,「백남순의 예술세계 연구: 근대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동양예술』 61.
권행가, 2021,「수원아이파크미술관 소장 〈나혜석 사진앨범〉」,『수원미술연구』 5.
김지혜, 2016,「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나혜석연구』 8.
김현주, 2013,「한국현대미술사에서 1980년대 '여성미술'의 위치」,『한국근현대미술사학』 26.
박일호, 2020,「지역미술관 수집정책과 지역미술사 서술」,『미술사학연구』 46.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나혜석 기념홀〉」, 수원문화재단.
안나원, 1998,「나혜석의 회화 연구-나혜석의 회화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진월, 2012,「나혜석의 탈주 욕망과 헤테로토피아」,『인문과학연구』 35.
윤범모, 2013,「근대기 여성미술의 형성, 나혜석과 백남순의 경우」,『나혜석연구』 2.
윤범모, 2016,「나혜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나혜석연구』 8.
이용창, 2013,「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나혜석연구』 2.
이채영, 2017,「서문」,『수원미술연구』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조수진, 2020,「한국 여성미술 연구사: 근대에서 1970년대까지」,『인물미술사학』 16.
최　열, 2023,「나혜석과 수원」,『수원학연구』 20, 수원학연구소.
한동민, 2009,「나혜석과 수원」,『나혜석학술대회논문집』 2,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
한동민, 2012,「수원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나혜석연구』 1(1).
한동민, 2016,「여성 4대를 통해 본 한국 근대 여성의 존재 양상과 변화」,『나혜석연구』 9.
한동민, 2023,「나혜석과 불교 – 작가적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대각사상』 39.
홍선표, 2009,『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아트.
홍성후, 2023,「근대 수원미술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김주원, 2023,「이건희컬렉션-순회전 이펙트: 모든 사람을 위한 엘리트 경험」,『월간미술』 462.
윤범모, 1988,「최고령화가 백남순여사의 뉴욕화실 탐방」,『가나아트』 1.
이경모, 2023,「관동대지진과 화가 백남순」,『더원미술세계』 3월호.
임창섭, 2025,「한국 근대미술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성작가들」,『월간 미술세계』 1월호.
김복진,「제사회미전 인상기2」,『조선일보』 1925년 6월 3일.
안석주,「제이회 고려미전을 보고서」,『조선일보』 1924년 10월 27일.
이선아,「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염노장' 원본 첫 공개」,『한국경제신문』 2023년 4월 27일.

이종우, 「임씨부처전」, 『동아일보』 1930년 11월 8일.
정경아,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경기신문』 2023년 5월 3일.
수원시립미술관, 2023,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 수원시립미술관, https://suma.suwon.go.kr/exhi/past_view.do?lang=ko&ge_idx=1199 (2025년 7월 24일 검색).

Appadurai, A., 1986,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8.
Benjamin, W., 1999, *The Arcades Project,* Harvard University Press, p.207.
Bishop, C., 2012,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Verso Books,* p.219.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Carbado, Devon W. 외, 2013, "INTERSECTIONALITY: Mapping the Movements of a Theory", *Du Bois Review: Social Science Research on Race,* 10(2), pp.303~312.
Eriksen, J., 2018, "Museum Spaces and Narrative Constructio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36(2), p.123.
Griersova, M., 2015, "The Politics of Exhibition Space: Gaze, Spectacle and Viewership in Contemporary Museums", *Cultural Studies Review,* 21(1), p.76.
Jones, M. and Woods, M., 2013, "New Localities", *Regional Studies,* 47(1), p.29.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미술사의 젠더 재구성과 수원이라는 지역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혜석과 백남순이라는 두 여성 미술가의 예술 실천을 분석하고,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활동이 지닌 지역학적 의의를 고찰한다. 수원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 두 여성 미술가는 단순한 '출신 인물'이 아닌, 수원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역사적 주체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미술사는 남성 중심적 서사에 '여류'라는 수식어로 여성 미술가들을 주변화해왔으며, 이는 지역 미술사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수원학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에서 나혜석과 백남순의 미학적 실천을 재조명한다.

나혜석에게 수원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닌 정신적 귀의처로 기능했다. 그녀는 삶의 주요 전환점마다 수원으로 돌아와 예술적 영감을 얻었으며, 〈화령전 작약〉과 같은 작품에서 수원의 지리적 공간은 단순한 소재가 아닌 정체성 재확인의 정서적 매개체로 작용했다. 반면 백남순은 파리 유학을 통해 서구 모더니즘을 직접 체험하고 〈낙원〉(1937)과 같은 작품에서 동양적 서정과 서구적 조형 감각을 융합하는 독자적 예술 언어를 모색했다. 두 작가의 미학적 실천은 '여성 미술가'라는 단일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 문화 현상으로, 수원의 지역적 특수성과 맞물려 한국 근대 미술사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2015년 개관 이후 나혜석과 백남순의 작품 수집과 전시,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수원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2023년 개최된《물은 별을 담는다》전시의 '[나혜석과 백남순의 방]'은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두 여성 예술가 사이의 가상적 대화를 구현하는 실험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 공간은 나혜석의 〈자화상〉(1928년경)과 백남순의 〈한 알의 밀알〉(1983년)을 마주 보도록 배치함으로써 5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을 초월한 예술적 대화와 계보적 연속성을 시각화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여성 작가 재조명 작업은 수원학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특히 '지역성'과 '젠더'라는 두 주변화된 범주의 교차점을 전략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지역학 연구가 단순한 향토사적 접근을 넘어 비판적 지식 생산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혜석의 탄생(1896년)을 수원 미술사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미술관의 접근법은 단순한 편년적 선택이 아닌, 지역 정체성의 핵심 축으로 여성 예술가를 위치시키는 과감한 전복적 실천이다. 이는 수원학 연구가 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고고학적 작업을 넘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미래를 모색하는 능동적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수원학, 수원 미술사, 여성 미술가, 나혜석, 백남순, 지역성, 젠더, 수원시립미술관

ABSTRACT

At the Intersection of Locality and Gender

: Reconstituting Female Subjectivity in Suwon Art History

Changhee Han

This research examines the artistic practices of two female artists, Rha Hye-seok and Baek Nam-soon, at the intersection of gender-based reconstitution of Korean art history and the locality of Suwon, while exploring the regional academic significance of Suwon Museum of Art's efforts to reilluminate female artists. From the perspective of Suwon Studies, these two female artists should be reevaluated not merely as "local figures" but as historical subjects who played pivotal roles in shaping Suwon's cultural identity. Korean art history has marginalized female artists with the modifier "female artists" in male-centered narratives, which has also been the case in regional art historical discourse. This study reexamines the aesthetic practices of Rha Hye-seok and Baek Nam-soon in the complex field where locality and gender intersec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expand the horizons of Suwon Studies.

For Rha Hye-seok, Suwon functioned not just as her birthplace but as a spiritual sanctuary. She returned to Suwon at major turning points in her life to find artistic inspiration, and in works such as "Peonies at Hwalyeongjeon," Suwon's geographical space served as an emotional medium for reaffirming her identity rather than merely subject matter. In contrast, Baek Nam-soon directly experienced Western modernism through her studies in Paris and sought an independent artistic language that fused Eastern lyricism with Western formative sensibilities in works like "Paradise" (1937). The aesthetic practices of these two artists represent complex cultural phenomena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singular category of "female artists," and, intertwined with Suwon's regional

specificity, they suggest new interpretative possibilities for modern Korean art history.

Since its opening in 2015, Suwon Museum of Art has established its identity as a regional cultural institution through the collection, exhibition, and research of works by Rha Hye-seok and Baek Nam-soon, while als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 scope of Suwon Studies. In particular, the "Room of Rha Hye-seok and Baek Nam-soon" in the 2023 exhibition "Water Embraces Stars" functioned a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implemented a virtual dialogue between the two female artists across spatiotemporal boundaries. This space visualized artistic dialogue and genealogical continuity transcending a 50-year temporal gap by arranging Rha Hye-seok's "Self-Portrait" (c.1928) and Baek Nam-soon's "A Grain of Wheat" (1983) to face each other.

The reillumination of female artists by Suwon Museum of Art mark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Suwon Studies. By strategically utilizing the intersection of two marginalized categories—'locality' and 'gender'—it demonstrates how regional studies can function as a site for critical knowledge production beyond a simple local historical approach. The museum's approach of establishing Rha Hye-seok's birth (1896) as the starting point of Suwon art history is not merely a chronological choice but a bold subversive practice that positions female artists as central axes of regional identity.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for Suwon Studies to develop as an active discipline that critically reinterprets the past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cultural future of the region, beyond an archaeological work that objectively describes the past.

Keywords : Suwon Studies, Suwon Art History, Female Artists, Rha Hye-seok, Baek Nam-soon, Locality, Gender, Suwon Museum of Art

수원 중앙극장의 역사적 조명과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남석*

1.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2. 수원중앙극장의 설립과 그 역할
3. 수원중앙극장의 사주와 운영자의 면모
4. 수원중앙극장의 구조와 그 변모
5. 수원중앙극장의 성장과 그 이유
6. 결론 : 도시의 기억과 문화의 흔적으로서 수원 중앙극장

1.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수원 최초의 근대 극장은 풍창관(豊昌館)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풍창관에 대한 풍문과 기억이 전해오기만 할 뿐, 풍창관의 존재 유무와 운영 상황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풍창관은 수원 최초의 근대 극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은 극장이기는 했지만, 그 활동 내역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극장으로 막연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풍창관은 1910년대 수원에서 운영되었으며, 1920년대까지 존속한 극장이었다. 아래 발굴 자료에 의하면, 풍창관은 1916년 기생 연주회장으로 사용된 바 있고, 1920년에는 축하회장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풍창관이 1910~20년대 수원 지역의 공연 활동과 행사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darkjedi73@naver.com, Tel : 051-629-5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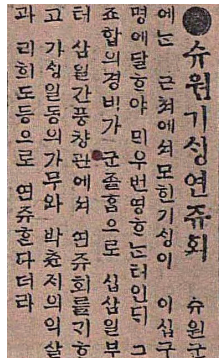
인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풍창관의 활동 내역과 운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그에 따른 조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풍창관은 수원 최초 근대 극장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극장이었고 이후 1920년대 수원극장에 그 위상을 이양할 때까지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로써 풍창관은 수원 근대 극장의 시초로 비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연구를 통해 수원 근대 극장의 새로운 출발을 확인할 과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원 지역극장으로 일차적으로 각광을 받은 극장은 수원극장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원극장은 일제 강점기에 설립되어 해방과 전쟁 이후 한동안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존재했다. 지금도 그 극장의 흔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원극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와 존재감을 함축한 극장으로 남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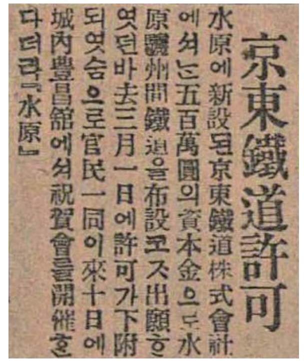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이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수원극장 다음으로 수원 거주민에게 깊은 기억을 남긴 극장은 수원중앙극장이다. 수원 사람들에게는 흔히 '중앙극장'으로 기억되고 불렸지만, 서울과 부산 등지에 존재했던 '중앙극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수원중앙극장'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수원 극장사에서 수원지역극장은 풍창관–수원극장–수원중앙극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극장사 맥락을 형성한다.

기존 극장의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근대 극장 풍창관에 이어 설립되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극장은, 1950년대에 수원중앙극장과 극장 판도를 양분하기 시작한다. 6·25전쟁 이후 건립된 수원중앙극장은 기존의 수원극장과 수원 지역 근대 극장의 계보를 형성했으며, 수원중앙극장 이후 늘어나는 여타의 근대 극장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풍창관과 수원극장은 근대극 초기 수원의 공연 환경을 뒷받침하고 문화적 맥락을 지원하는 수원 대표 극장의 면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수원극장 다음에 수원중앙극장이 그 위상을 점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수원중앙극장에 대한 연구이고, 기존 수원 극장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풍창관–수원극장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개괄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창관에 대한 개괄적 접근과 그 이후의 수원 극장사의 흐름을 개관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 계보의 시작을 점유하는 풍창관과 수원극장 관련 1920년대 실증 자료이다. 특히 풍문으로만 그 존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풍창관의 실증 자료가 발굴된 점은 주목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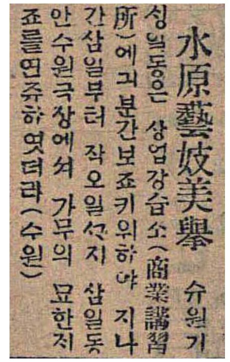

●슈원기셩연쥬회 슈원군에는 근쳐에셔모힌기셩이 이십구명에달ᄒᆞ야 ᄆᆡ우번셩ᄒᆞᄂᆞᆫ터인ᄃᆡ 그죠합의경비가 군졸ᄒᆞᆷ으로 십삼일부터 삼일간풍창관에셔 연쥬회를기ᄒᆞ고 가셩일동의가무와 박츈지의익살과 리히도등으로 연쥬ᄒᆞᆫ다더라

〈그림 1〉 1916년 풍창관 (연주회장)


京東鐵道許可

水原에新設된京東鐵道株式會社에셔는五百萬圓의資本金으로水原驪州間鐵道을布設코ᄌᆞ出願ᄒᆞ엿던바去三月一日에許可가下附되엿슴으로官民一同이來十日에城內豐昌館에셔祝賀會를開催ᄒᆞᆫ다더라「水原」

〈그림 2〉 1920년 풍창관(축하회장)


水原藝妓美擧

슈원기싱일동은 상업강습소(商業講習所)에 긔분간보죠키위하야 지나간삼일부터 작오일ᄭᆞ지 삼일동안수원극장에셔 가무의 묘한지죠를연쥬하엿더라(수원)

〈그림 3〉 1922년 수원극장 (연주회장)

위의 기사에서 풍창관은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철도(부설) 허가와 관련된 축하연이 개최되는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근대 초창기 극장이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풍창관 역시 수원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풍창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풍창관은 성내 그러니까 수원성 내 위치한 극장이었다. 일설에는 수원 유지들이 건립한 극장이었다고 한다. 풍창관이 수원성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남문 밖에 건립되었던 수원극장과 지리적, 환경적, 민족적(조선인과 일본인)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풍창관 다음으로 건립된 극장은 수원극장(수원좌)이었다. 수원극장은 일제 강점기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다. 수원극장 이외의 극장이 수원에 들어선 시점은 1950년대이다. 그때까지 수원의 극장은 수원극장이 유일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근대 극장 관련 연구는 주로 수원극장에 집중되기 일쑤였다.[1]

이러한 수원극장 연구에 대한 편중 현상은, 연구 대상인 수원극장이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타의 극장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수원극장에

1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 – 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333~346면; 양훈도, 2014,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시사』 9, 홍익문화사, 423~441면; 김남석, 2017, 「수원극장의 역사와 그 의미」, 『국토연구』 94, 국토연구원, 83~105면; 위경혜, 2023, 「1960~1970년대 경기도 주요 도시 흥행 자본과 극장문화 : 모빌리티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6(2), 영화연구소, 239~270면.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수원극장은 수원 지역 안팎에서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역극장의 운영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희귀한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는 기본적으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편중 현상에 대한 학문적 재고가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수원극장에 집중된 연구 혹은 수원 지역극장에 대한 개괄적 조사는 주요한 대상(극장)에 대한 연구 공백과 함께 수원극장의 면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연구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수원극장인 1970~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원의 여타 극장과 달리 미미한 활동만을 거듭했다고 할 때,[2] 1970년대 이후 수원 지역극장사의 연구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해서라도 여타 극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수원극장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수원의 주요 극장에 대한 연구로 학문적 시야를 확대해야 할 시기가 대두되었다고 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더 소실되기 전에, 수원의 지역극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증언은 과거 수원의 극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수원 지역극장의 지형과 위상을 보여 주는 효율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 "남문 로데오거리에 예전 영화관은 5개라고 보아야 해요. 로얄극장, 수원극장, 중앙극장, 제일극장과 매산극장이 있었고요. 나중에 현재 해피니스와 거리 한편에 메가박스와 CGV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로데오거리에 소재하던 우리 극장과는 관계없다고 보아야죠. 남문로데오거리에 극장은 앞서 말한 다섯 개라고 보아야 해요."
> 20일 남문 로데오거리 김한중 전 상인회장은 남문 로데오거리에 극장을 6개라고 하는 것은 영동극장까지 포함한 것이라면서 로데오거리에 소재하던 과거 극장은 5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극장들이 남문 로데오거리에 있을 때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가 남문 로데오거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라는 것이다.[3]

위 증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수원 지역에 존재했던 지역극장으로 수원극장 이

2 김남석, 2017, 「수원극장의 역사와 그 의미」, 『국토연구』 94, 국토연구원, 100쪽.
3 「영화관 6개 소재해 젊은 청춘 모이던 곳, 남문로데오거리」, 『e수원뉴스』 2018년 3월 21일.

외에도 (수원)중앙극장, 매산극장(아카데미극장), 로얄극장(국제극장), 제일극장 등을 들 수 있고, 2000년대 이후에 메가박스[4]나 CGV[5] 같은 극장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단오극장이나 피카디리극장 등도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6]

이러한 극장은 수원 로데오거리와는 차이를 보이는 수원 남문 로데오거리를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수원 거주민들은 패션과 외식 그리고 유흥의 중심인 남문 로데오거리를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유입 원인 중 하나가 극장이었다. 극장으로서도 이러한 유흥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유동 인구와 예비 관객을 포섭하는 이점을 누리고자 했다. 자연스럽게 남문 로데오거리에는 극장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극장가는 수원극장이 위치했던 교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극장가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수원의 극장 분포[7]를 표시한 다음의 약식 지도는 이러한 극장가의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위의 기사 속 증언대로, 남문을 둘러싼 형세로 수원중앙극장, 영동극장, 제일극장, 로얄(국제)극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조금 떨어져서 수원극장과 대한극장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앞에서 개관한 것처럼, 수원극장과 수원중앙극장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각자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 1960년대 이후 극장의 판도는 점 차 수원중앙극장이 있는 수원 남문 로데오거리로 이전했다.

〈그림 4〉 수원의 극장 분포(요약 지도)
(중앙극장은 팔달문 옆)

이러한 극장 분포는 수원의 극장 분포와 역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미진

4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은 2013년 12월 21일에 개관하였다. 관련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메가박스, 수원남문점, 제주아라점 개관…전국 총 60개 지점으로 확대」(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13122311251040258), 『뉴스웨이』 2023년 12월 23일.
5 CGV 수원남문점은 2000년대에 운영되었다(「CGV 수원점 내일 개관」, 『경인일보』 2003년 2월 13일).
6 「이제는 중년이 된 40~50대 수원시민들, 수원 중앙극장-(구)로얄극장-매산극장 기억하시죠?」(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28384), 『CNB뉴스』 2019년 11월 22일.
7 「수원미디어센터, 수원의 사라진 극장 소개 전시회」, 『연합뉴스』 2019년 11월 22일.

했던 수원 지역의 여타 극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원중앙극장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수원중앙극장 이외에도 위에서 열거한 극장들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원중앙극장 연구가 더 시급한 형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원중앙극장에 대한 연구는, 수원의 극장 판도와 흐름을 설명하는 서술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원중앙극장의 특징이 거론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8]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수원중앙극장이 수원극장과 함께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원 지역극장의 흐름 속에서 부상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수원극장 판도를 뒤바꾸는 모험적 경영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충실하게 수용하여, 이후 연구의 진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수원중앙극장은 수원의 남문이라고 불리는 팔달문 인근에 위치한 극장이었다. 지금까지 수원 중앙극장은 1952년 개관하였고, 최초 개관 시기에는 가건물 극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다.[9] 그리고 이후 1960년대까지 극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1970~80년대 극장으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2009년 폐업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기억에 의한 기술과는 달리, 수원중앙극장의 정식 개관일과 폐관 시점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비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중앙극장이 1960년대부터 성장하여 1970~1980년대 수원 극장사의 정점에 오르고, 1990년대를 지나면 점차 그 위명을 잃고 2000년대에 해체되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지만, 그러한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주장이 통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 역시 숙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상황은 대략적인 기억과 개인적인 주장이 횡행하는 상태이다. 이에, 수원중앙극장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하는 연구부터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수원중앙극장의 면모와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수원중앙극장에 대한 사진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극장의 기능을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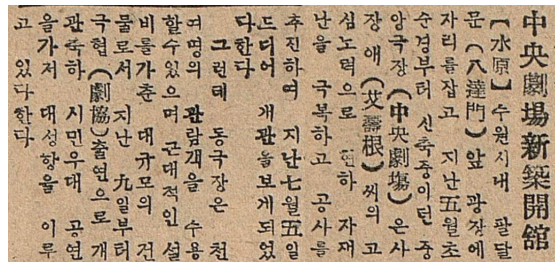
8 수원중앙극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양훈도, 2014,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시사』 9, 홍익문화사, 423~441쪽; 위경혜, 2023, 「1960~1970년대 경기도 주요 도시 흥행 자본과 극장문화 : 모빌리티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6(2), 영화연구소, 243~248쪽.

9 「오-리지날 핱플레이쓰 … 나? 남문(南門)깍쟁이야」, 『경인일보』 2024년 3월 7일.

10 「오-리지날 핱플레이쓰… 나? 남문(南門)깍쟁이야」, 『경인일보』 2024년 3월 7일.

2. 수원중앙극장의 설립과 그 역할

수원중앙극장은 1953년 7월 5일에 개관하여,[11] 2004년 4월 22일에 실질적으로 영화 상영을 중단하면서,[12] 대략 50여 년 동안 운영된 수원을 대표하는 지역극장이었다. 개관할 당시에는 1920년대 설립되었던 수원극장이 수원의 유일한 극장이었기 때문에, 초기 수원중앙극장은 수원의 공공 업무와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中央劇場新築開館
【水原】수원시내 팔달
문(八達門)앞 광장에
자리를잡고 지난五월초
순경부터 신축중이던 중
앙극장(中央劇場)은사
장애(艾壽根)씨의고
심노력으로 현하 자재
난을 극복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七월五일
드디어 개관을보게되었
다한다
그런데 동극장은 천
여명의 관람객을 수용
할수있으며 근대적인 설
비를가춘 대규모의 건
물로서 지난 九일부터
극협(劇協)출연으로 개
관축하 시민우대 공연
을가저 대성항을 이루
고 있다한다

〈그림 5〉 수원극장 개관[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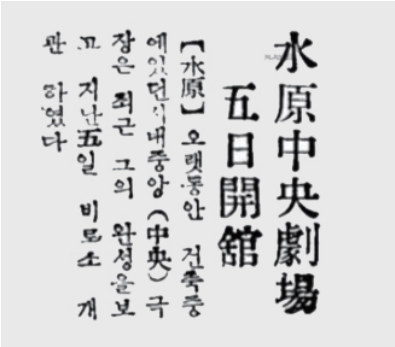
개관 당시 수원중앙극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원중앙극장은 1953년 5월경부터 신축 중이었고, 7월 5일에 개관을 시행할 수 있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극장 위치는 팔달문(남문) 광장이었고, 사주는 애수근(艾壽根)이었다. 애수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다루기로 한다.

개관 당시 수원중앙극장은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되었는데, 이러한 규모는 대극장 규모에 해당한다. 195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이러한 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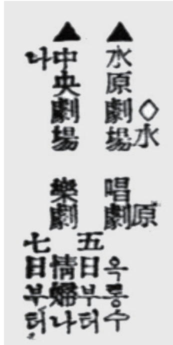
11 「수원중앙극장(水原中央劇場) 5일 개관」, 『조선일보』 1953년 7월 10일.2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3071000239102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3-07-10&officeId=00023&pageNo=2&printNo=9380&publishType=00010

12 「수원 중앙극장 52년 만에 폐관」, 『문화일보』 2004년 4월 19일.

13 「지방소식」, 『평화신문』 1953년 7월15일. 2면. http://lod.nl.go.kr/resource/CNTS-00131852193


水原中央劇場 五日開館
【水原】오랫동안 건축중에있던시내중앙(中央)극장은 최근 그의 완성을보고 지난五일 비로소 개관하였다

〈그림 6〉 수원중앙극장 개관(1953년 7월 5일)[14]


◇水原
▲水原劇場 唱劇 五日부터 옥통수
▲中央劇場 樂劇 七日부터 情婦나나

〈그림 7〉 수원중앙극장에서 공연된 악극 〈정부 나나〉[15]

수용 능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수원중앙극장은 7월 7일부터(9일까지) 악극 〈정부(情婦) 나나〉를 공연하였다.[16] 위의 기사에서는 7월 9일부터 극협 공연이 시작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광고를 참조하면, 7월 9일부터 수원중앙극장에서 연극 〈녹쓰는 파편〉이 공연되었는데,[17] 이 작품이 극협의 공연으로 확인된다.

신협에서 분리된 연극인을 규합한 극협은 1952년 무렵 유치진 작품 공연을 필두로 활동을 재개했는데,[18] 재개 이후 공연을 위한 희곡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 중 하나가 〈녹쓰는 파편〉이었다.[19] 작품 〈녹쓰는 파편〉은 1953년 6월(26일)부터 서울(시공간)을 필두로 공연을 시작하여,[20] 7월 5일부터는 애관 공연을 시행했고,[21] 그다음 수원중앙극장 공연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 수원중앙극장 측은 〈녹쓰는 파편〉을 순회 일정을 감안하여, 개관기념 공연작으로 선정한 셈이다. 비록 일정으로 인해

14 「수원중앙극장수(水原中央劇場) 5일 개관」, 『조선일보』 1953년 7월 10일. 2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3071000239102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3-07-10&officeId=00023&pageNo=9380&publishType=00010
15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11일.
16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11일.
17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15일.
18 「극협 창립공연 〈조국은 부른다〉」, 『경향신문』 1952년 9월 28일; 「〈통곡(痛哭)〉을 통곡하는 무대」, 『동아일보』 1952년 12월 14일.
19 윤방일, 「회고와 청산」, 『경향신문』 1953년 10월 19일.
20 「〈녹쓰는 파편〉」, 『경향신문』 1953년 6월 20일.
21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9일.

두 번째 공연작이 되었지만, 수원중앙극장 측은 극협이라는 당대의 극장을 앞세워 개관을 실질적으로 대내외에 공표하고자 했고, 극협 역시 지방 순회공연의 거점을 수원에 확보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수원극장이 무대 공연에 특화된 극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22] 개관 초부터 수원중앙극장 역시 무대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정도로 무대 공연에 문제가 없었던 극장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무대 공연(악극, 연극, 사극)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개관 이후 수원중앙극장은 수원극장과 함께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부상하였다. 수원중앙극장이 탄생한 배경에는 수원 중심가의 이동 현상이 결부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점차 남문(팔달문)으로 이전 확장되었고,[23] 점차 남문 상권(수원 팔달문로터리 상권)은 1990년대까지 경기도 3대 상권 중 하나이자 수원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24]

이러한 유구한 이 팔달문 인근 상권(이른바 남문 상관)을 바탕으로 하여, 1950년대 수원중앙극장이 설립되어 1960~70년대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25] 마찬가지로 수원중앙극장이 폐쇄된 이유도 상권과 관련이 깊다. 수원 남문의 상권이 위축되고 복합영화관(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수원중앙극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지역의 문화공간을 되살리려는 계획 또한 추진되면서, 과거 수원중앙극장이 확보한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재고되고 있다.

실제로 1950년대 개관한 수원 중앙극장, 이후 수원극장과 함께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다. 수원중앙극장은 비단 극장으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26] 회의장,[27] 행사

22 김재국, 1999, 「수원의 문화요람 '수원극장'」, 『한국근대건축사연구』.
23 1920년대부터 일본인들은 '역전거리 상권'을 형성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장악하였으며 점차 이 상권은 점차 팔달문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 소위 '남문상권'이 수원의 핵심 상권으로 부상하여 1990년대까지 특수를 누렸다.
24 「수원 팔달문로타리 상권 옛 명성 살리자」(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8), 『수원일보』 2024년 3월 29일.
25 백병두, 「수원중앙극장의 옛 모습 찾기」, 『경기신문』 2013년 7월 31일.
26 김남석, 2017, 「수원극장(水原劇場)의 역사와 그 의미」, 『국토연구』 94, 국토연구원, 83~105쪽.
27 「읍면장회의(邑面長會議)」, 『조선일보』, 1953년 7월 13일.

장,[28] 결혼식장,[29] 환영회장,[30] 음악회장,[31] 웅변대회장[32] 등으로도 활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대표적인 약소 장소 겸 외식 공간으로 성장하면서, 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리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력의 중심이라는 명성을 누린 바 있고,[33] 패션 1번지라는 영예를 부여받은 바 있다.[34]

수원중앙극장은 1950년대 영화관뿐만 아니라, 연극과 악극 공연장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35] 극장 시설이 귀하던 시절인 만큼 신설 극장은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기 일쑤였는데, 수원중앙극장은 과거 수원극장이 담당하던 다목적 역할을 분담하는 극장으로 활용되었다.

수원중앙극장이 담당한 공연장의 기능 중에는, 연극(악극) 공연 무대로서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수원중앙극장은 개관 이후 〈정부 나나〉를 비롯하여 연극 〈녹쓰는 파편〉,[36] 〈새벽과 같이 찾아온 사람〉,[37] 〈백진주 칠일〉,[38] 〈사랑의 묘약〉,[39] 사극 〈마의태자〉,[40] 악극 〈오동추야〉와[41] 〈피 묻은 단추〉,[42] 창극 〈옥루몽〉[43] 등의 무대 공연을 집중적으로 공연하였고, 영화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면서,[44] 영화 상영

28 「내 고장 모임」, 『경향신문』 1955년 6월 6일; 「어린이예술제 거행 애향 사업회서」, 『경향신문』 1955년 11월 30일; 「수원에서도 고아(孤兒)들 결연(結緣)」, 『조선일보』 1957년 9월 24일.

29 「상군(傷軍) 구쌍(九雙) 합동결혼(合同結婚)」, 『경향신문』 1953년 7월 19일; 「삼십쌍이 백년을 가약(佳約)」, 『조선일보』 1954년 12월 4일.

30 「반공 청년 환영회」, 『조선일보』 1954년 3월 20일.

31 「지방행사」, 『경향신문』 1954년 11월 1일.

32 「각지의 방첩 주간 가지가지의 행사」, 『조선일보』 1954년 11월 5일; 「각지서 다채(多彩) 방첩 강조 주간 행사」, 『조선일보』 1956년 10월 30일; 「퇴비 증산 경진회」, 『조선일보』 1957년 11월 30일.

33 「팔달구, 수원의 중심에서 발전을 견인했다」. 『수원신문』 2023년 2월 15일.

34 「남문 패션1번지, 과거의 영화(榮華)를 되찾을 수 있을까」, 『e수원뉴스』 2011년 3월 4일.

35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15일;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20일.

36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3일.

37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8월 22일.

38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9월 9일.

39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11월 6일.

40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10월 18일.

41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18일.

42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31일.

43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8월 15일.

44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27일;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8월 8일;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29일;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10월 25일;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12월 31일.

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지금까지 수원중앙극장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시점은 1953년인데, 이때 극장 활용에 대한 빈도를 보면, 수원 중앙극장은 주로 연극과 악극의 공연장으로 사용된 바 있었다. 참고로, 경쟁극장인 수원극장 역시 다양한 영화를 비롯하여, 창극(〈백화궁의 달밤〉),[45] 사극(〈경혜궁삼십일〉)[46] 등을 공연하면서 수원중앙극장과 함께 수원 방문(순회) 공연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3년 8월 영화 〈성불사〉 상연 사례는 수원중앙극장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한다. 6·25 전쟁기(피란수도 시기) 영화 〈성불사〉(윤봉춘 감독, 이금룡 주연)이 제작되어, 1952년 6월 28일부터 상연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서울과 부산 동시 개봉을 표방했지만, 개봉 시점에서 서울에서는 계림극장이 독점적으로 개봉하였다.[47] 이후 〈성불사〉는 시내 주요 극장을 돌면서 상연을 이어갔는데, 〈성불사〉를 상연한 대표적인 극장이 명동극장,[48] 광무극장,[49] 성남극장,[50] 한성극장[51] 등이었고, 명동극장과 한성극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성불사〉를 상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 〈성불사〉는 1953년 8월 수원중앙극장에서 상연하였다.[52]

최초 개봉 시점으로부터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수원중앙극장에서 〈성불사〉가 상연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제법 크다. 당시 수원중앙극장은 상연 혹은 개봉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최초 개봉 영화를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상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극장이 아직은 그 인지도와 공급망에서 견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45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5월 28일.

46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7월 3일.

47 「〈성불사〉」, 『평화신문』 1952년 6월 28일.

48 「연예안내」, 『조선일보』 1952년 7월 3일.

49 「연예안내」, 『조선일보』 1952년 7월 15일.

50 「연예안내」, 『조선일보』 1952년 7월 19일.

51 「연예안내」, 『조선일보』 1952년 7월 24일.

52 「연예안내」, 『조선일보』 1953년 8월 30일.

3. 수원중앙극장의 사주와 운영자의 면모

지금까지 수원중앙극장의 설립자를 비롯한 사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전술한 대로 수원중앙극장을 건립하고 최초로 운영한 인물은 애수근이었다. 애수근은 1926년 8월 1일 경기도에서 출생하였고 1950년대 당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81)였다. 그는 1954년 시점(11월 30일)에 중앙극장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1954년 국제청년상공회의소 제4차 아세아 지역회의에 한국 대표자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이력으로 볼 때, 1950년대 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음에도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훗날 애수근은 한국선물거래(주)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화제의 기업인으로 손꼽히기도 했다.[53]

1959년 시점에서 수원중앙극장 사장은 송경호(宋璟鎬)였다.[54] 송경호는 한때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2가 13에 거주했으며, 1952년 대한상이용사회 경기도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55] 그는 1960년대에는 민정당 지구당 조직위원으로 선정된 인물로,[56] 수원지구 부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57]

1960년대 관주는 고동이였는데, 그는 공격적인 투자로 단순히 극장 사장을 넘어서는 활동 이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196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극장으로서의 입지와 명성이 더욱 상승한 이유로 고동이가 영화 상영관 경영에서 나아가 한국 영화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 극장의 황금기인 1960년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52년 팔달문 옆에 세워진 중앙극장은 고동 이 씨로 주인이 바뀌면서, 영화 제작까지 손을 뻗는다.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이 이 시기 큰 흥행을 하면서 중앙극장은 영화 개봉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는데, 외화에 의존하거나 악극과 행사 대관으로 극장을 유지하던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이다.[58]

다만 이러한 견해는 아직 실증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연구를 통해 보강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서술의 시작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수원 내 영화관 판도가 중앙극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사건은 1961년 한국 영화사에서 유래 없었던 '춘향전 전쟁'이었다. 쟁쟁하던 영화 제작자인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과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이 동시에 제작 · 개봉되면서, 이 두 영화의 흥행 여부는 단연 화제가 되었다. 1960년대 극장 관계자의 기억에 따르면, "중앙극장은 외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고, 수원극장은 방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다. 그런 중앙극장에서 한국영화 〈성춘향〉을 개봉한 것이다. 그때 당시 중앙극장 사장이었던 분이 〈성춘향〉에 돈을 투자했었기도 하지만, 중앙극장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자체가 큰 모험이었다. 어쨌거나 〈성춘향〉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대단했다." 중앙극장은 외화, 수원극장은 방화로 양분되었던 틀이 깨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59]

김요배의 증언을 바탕으로[60] 양훈도가 분석한 당시 극장 판도는, 수원극장의 성세가 하락하고 수원중앙극장의 위세가 상승하는 시점을 〈성춘향〉의 개봉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흥미로운 분석이고 타당한 정세 판단이지만, 아직은 수원중앙극장의 내부 사정을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차후의 연구에서 수원중앙극장의 경영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53 「새벽 4시 퇴근…"원자재수급에 기여 자부심"」, 『조선일보』 1991년 11월 4일.
54 「극장 여덟 군데에도」, 『조선일보』 1959년 2월 6일.
55 「송경호」(https://db.history.go.kr/contemp/im/detail.do), 『근현대인물자료』.
56 「민정당(民政黨) 지구당 조직위원 명단」, 『동아일보』 1963년 2월 13일.
57 「임원(任員) 4명을 선출 민정당(民政黨) 수원지구(水原地區)」, 『조선일보』 1963년 2월 22일.
58 「수원 극장 변천사를 통한 시간여행」, 『e수원뉴스』 2017년 9월 18일.
59 양훈도, 2014,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시사』 9, 홍익문화사, 432~433쪽.
60 류현희, 2010, 「김요배 증언—화성 안 이야기」,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V, 수원박물관.

4. 수원중앙극장의 구조와 그 변모

수원중앙극장의 시설과 건물 구조 그리고 편의 시설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극히 일부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와 발굴된 자료를 조합하여 수원중앙극장에 관련된 시설 정보과 건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중앙극장의 좌석 수는 1,172석(1 · 2층 포함)이었고, 폐관 시점까지 2,5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한 바 있다.[61] 수원중앙극장의 외관과 구조에 대한 사진 자료는 여러 문헌과 신문에 흩어져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한다면, 수원중앙극장의 변화와 역사를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수원중앙극장(1956년 사진으로 명기)[62]

〈그림 9〉 수원극장의 입간판 (〈두견새 우는 □□〉)

〈그림 10〉 1960년대 수원중앙극장 전경[63]

61 「수원 중앙극장 '문닫다'」, 『경향신문』 2004년 4월 19일.

62 양훈도, 2014,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시사』 9, 홍익문화사, 432쪽.

63 「수원미디어센터, 수원의 사라진 극장 소개 전시회」, 『연합뉴스』 2019년 11월 22일; 「영화관 6개 소재해 젊은 청춘 모이던 곳, 남문로데오거리」, 『e수원뉴스』 2018년 3월 21일.

1950~60년대 수원중앙극장 모습(외관)은 위의 사진에서 확인된다. 위의 사진을 소개하는 『수원시사』에서는 이 사진을 1956년 사진으로 기록했지만, 사진 옆에 세워진 입간판에는 영화 〈두견새 우는 □□〉이 적혀 있다. 이 작품은 1967년 이규용 감독의 〈두견새 우는 사연〉으로 파악된다.[64] 따라서 위의 수원중앙극장 사진은 1950년대의 모습이 아니라 1960년대 모습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미묘한 점을 감안하여 위의 사진을 1960년대 중앙극장의 모습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196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팔달문 인근 도로변 코너에 위치하였고, 전체적으로 'ㄴ' 형태의 외관을 취하고 있다. 구부러진 구역에는 '中央劇場'이라는 극장 명칭이 크게 붙어 있고, 그 좌우 외관이 차이를 보인다. 중앙 왼쪽 측면 건물은 2층 구조이고, 중앙 오른쪽 측면 건물은 3층에 육박하는 구조이다.

양측 모두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좌측에는 출입구만 존재하고 우측에는 극장 선전대와 검표소가 보인다. 좌측으로는 주로 퇴장하고 우측 출입구로 입장하는 구조로 판단된다. 극장 매표소는 중앙 코너에 있으며 유리창으로 외부와 단절된 내부 공간에서 표를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 수원중앙극장을 원경에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건립 초기 수원중앙극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건립 초기 수원중앙극장과 그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외관은 1960년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림 11〉 1950년대 초 팔달문과 그 주변 풍경[65]

〈그림 12〉 팔달문 근처 수원중앙극장 전경

64 「〈두견새 우는 사연〉」, 『동아일보』 1967년 7월 25일.

65 「수원의 옛날 사진」(10)(2025년 2월 27일 검색), https://sm-sunny.tistory.com/entry/%EC%88%98%EC%9B%90%EC%9D%98-%EC%98%9B%EB%82%A0%EC%82%AC%EC%A7%84-%EB%AF%B8%EA%B5%B0%E7%BE%8E%E8%BB%8D%EC%9D%B4-%EB%B3%B8-%EC%

1950년대 초 수원중앙극장의 전경을 보면, 건물의 중앙이라고 생각되던 코너가 실제로는 우측 모서리이고, 건물 좌측에 또 다른 모서리가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좌측-정면-우측 외양이 'ㄷ'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원중앙극장이 'ㄴ'자로 파악된 것은 우측 모서리를 화면 중심에 놓고 촬영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본 수원중앙극장 구조는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와 그 위에 세워진 '日'자 모양의 극장이었다.

〈그림 13〉 1980년대 수원중앙극장(1984년)[66]

〈그림 14〉 1980년대 수원중앙극장[67]

1980년대 수원극장은 1950~60년대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사진은 재단장 이후 달라진 수원중앙극장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68] 자료로 확인되는 1950년 수원극장과 6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1980년대 수원극장 모습은 세부적으로 달라진 상태이다. 특히 건물의 코너에 기둥이 생겼고, 그 사이에 문이 생기면서,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수원중앙극장의 1950~1960년대 구조와 1980년대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수원중앙극장의 1950~1960년대 외관은 2(~3)층 구조였다면, 198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4층 구조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극장 외관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참작하면, 1970년대부터 4층 구조의 극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물 코너의 오른편에 해당하는 수원중앙극장의 우측 벽면에는 대형 간판이 걸릴 수 있는 좌우 폭이 확보되어 있고, 1층에는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문이 11

66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jinhwan1016/220537776176,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67 「월급날, 데이트, 하굣길에… 우리에겐 '남문'이 있었다」. 『경인일보』 2024년 3월 21일.

68 「월급날, 데이트, 하굣길에… 우리에겐 '남문'이 있었다」. 『경인일보』 2024년 3월 21일.

〈그림 15〉 1980년대 수원중앙극장[69]

〈그림 16〉 2000년대 수원중앙극장[70]

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11개의 유리문 가운데 왼쪽 5개는 모두 출입문으로 사용될 수 있고, 오른쪽 끝 2개 역시 출입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사이의 4개 유리문은 매표소에 딸린 문으로 영화 광고가 부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층 입구가 크고 넓은 편이었으며, 유리문의 오른쪽 끝에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우측(정문) 구조는 1960년대부터 수원중앙극장이 가진 구조적 특징에서 유래했다.

초기(1950~6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낮은 건물이었지만, 이후 극장을 증축하면서 4층 건물로 변화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코너) 외벽이 철거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과거 매표소였던 공간이 점차 독립 공간으로 변화했고, 두 개의 원형 기둥으로 떠받치는 변화 역시 가미되었다. 그 결과 수원중앙극장은 우람한 인상을 풍기게 되었으며 독립된 공간이 세부적으로 활성화되는 미시적 변화도 발생했다.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맞게, 수원중앙극장은 확장되었고 세부 공간이 개발되었으며 외관과 인상이 크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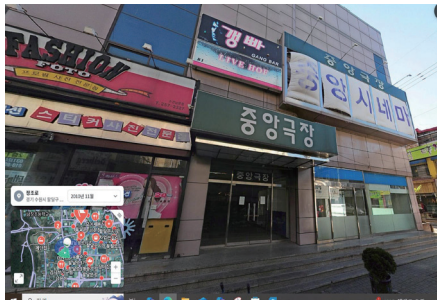
시간이 더 흘러, 2000년대 수원중앙극장은 다목적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극장 외관에는 상가들의 광고(판)와 상영 영화 광고 사진이 함께 걸려 있고, 외벽은 베이지색 마감재로 통일성 있게 정리되어 있다. 극장이라는 인상보다는 상업용 건물의 인상이 강해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극장과 상가가 결합되는 당시 극장가의 풍경과 일치한다.

69 「수원의 옛날 사진(13)」, https://sm-sunny.tistory.com/entry/%EC%88%98%EC%9B%90%EC%9D%98-%EC%98%9B%EB%82%A0%EC%82%AC%EC%A7%8413-1950%EB%85%84%EB%8C%801960%EB%85%84%EB%8C%80%EC%9D%98-%EC%88%98%EC%9B%90-7656657,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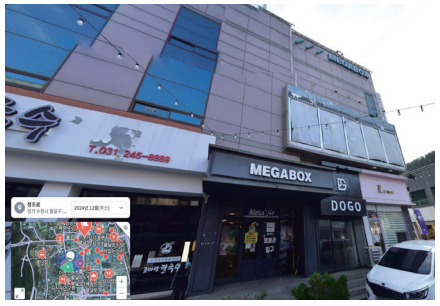
70 「극장사 산증인 수원 중앙극장 폐관」, 『경인일보』 2004년 4월 23일.

수원중앙극장은 2004년 4월 22일에 영화 상영을 종료하고 철거에 들어갔고,[71] 2013년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으로 (재)개관하였다.[72] 이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의 운영을 맡은 주체는 ㈜중앙씨네마로, 당시 시점에서 환산할 때 약 60년 동안 중앙극장을 운영한 바 있는 주체와 동일 주체였다.[73] 이렇게 탄생은 메가박스(수원 남문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총 4개 관을 운영하며, 625개 좌석을 갖춘 극장이었다.[74] 극장 관람에 적합한 편안한 좌석을 구비했고 주차 공간을 대폭 확보했으며 각종 위락 시설을 갖춘 극장으로 재탄생한 셈이다.[75]

다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의 지리적 위치는 과거 수원중앙극장의 위치와 같지는 않다. 팔달문 근처이기는 하지만 동일 장소는 아니었다. 메가박스가 들어선 건물의 주소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팔달구 팔달로3가 84-5)였다.



〈그림 17〉 이전한 중앙극장 (2010년 11월)[76]



〈그림 18〉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2024년 12월)[77]

〈그림 18〉 사진은 2024년 12월 시점의 수원(팔달문) 메가박스 전경이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 지점에서 14년 전인 2010년 11월 시점에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다(〈그림 17〉). 이 좌측 사진에는 '메가박스' 간판 자리에 '중앙극장'이라는 간판이 먼저 걸려 있었고, 2024년 시점에서 간판 위에 가려져 있던 글자 또한 2010년 시점에서

71 「수원 중앙극장 52년 만에 폐관」, 『문화일보』 2004년 4월 19일.
72 「수원의 명물 '중앙극장' 4년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경기일보』 2013년 12월 19일.
73 「수원 중앙극장, 메가박스 남문점으로 부활」, 『수원일보』 2023년 12월 22일.
74 「수원의 명물 '중앙극장' 4년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경기일보』 2013년 12월 19일.
75 「수원 중앙극장, 메가박스 남문점으로 부활」, 『수원일보』 2023년 12월 22일.
76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5일).
77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5일).

는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시점에서 보면, 해당 극장은 이전한 '중앙극장'이었던 것이다. 비록 장소를 이전하여 기존 위치에서는 벗어났지만, 메가박스가 들어오기 전의 극장은 분명 중앙극장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고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전한 중앙극장이 다시 메가박스가 변모하는 시점이 2013년 12월이었다.[78] 그러니까 2004년 폐관한 수원중앙극장은 인근으로 이전하여(주소지 변화) 중앙극장으로 유지되었고, 이렇게 유지된 극장은 2010년까지 훗날 메가박스가 변모하는 위치(건물)에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이 되면, 중앙극장에서 메가박스로 이전되었다. 2014년 시점의 극장 사진(아래)은 중앙극장에서 메가박스가 되어 중앙극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의 풍경을 증언하고 있다.

〈그림 19〉 가운데 :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2014년 9월)[79]

한편, 2025년 현재 구 수원중앙극장 터에는 극장이 아닌 일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수원중앙극장의 과거 자리에 자리 잡은 건물의 모습은, 다행스럽게도 2010년과 2024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과거의 수원중앙극장은 사라졌지만, 아래 사진을 통해 그 흔적으로서 후대 풍경을 비교할 수는 있다.

구 중앙수원극장에는 과거의 극장(구조)을 닮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다. 건축물의 한 코너를 중심으로 'ㄴ'형태의 양 날개를 거느린 듯한 구조로 이루어진 지상 3층(지하 2층, 면적 2,569㎡) 건물이다. 이 건물의 현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8 「수원의 명물 '중앙극장' 4년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경기일보』 2013년 12월 19일.
79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5일).

〈그림 20〉 옛 수원중앙극장 터(2010년 4월)[80]

〈그림 21〉 옛 수원중앙극장 터(2024년 12월)[81]

정조로 781(팔달로 2가 112-2)로 건물 명칭은 '중앙니즈몰'이다.[82]

이 건물의 터를 보며, 과거 수원중앙극장의 모양과 구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팔달문 근처 수원중앙극장 전경 (1950년대)

〈그림 23〉 현재 건물의 지형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1)[83]

1950년대 수원중앙극장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거리

80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7일).

81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5일).

8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1」,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6일).

8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1」,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년 2월 26일).

에서 바라볼 때는 오른쪽 코너가 강조되어 'ㄴ'자 형태로 보였다. 현재 건물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ㄴ'자 형태가 남아 있고, 과거와 같이 건물의 한 코너를 부각하여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와 시간은 달라졌지만, 그 형태와 구조는 아직도 수원중앙극장의 형해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5. 수원중앙극장의 성장과 그 이유

극장의 입지 조건과 지리적 이점에서 수원중앙극장의 성세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입지상의 장점은 수원 화성과의 연계성이었다는 점이다. 1960년 수원의 발전과 도시 성장을 위해 고려된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가 수원 화성이었고,[84] 팔달문(남문)은 이러한 수원 화성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1960년대 초 수원은 시세(市勢)를 확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호기를 맞는다. 하나는 이농 현상으로 인해 수원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1964년에는 10년 전보다 3.8% 증가하는 높은 증가율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수원시 행정구역이 확장되어 화성군의 몇 개 면과 그 일부가 편입된 점이다. 마지막 하나는 1963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되면서 수원시가 도청 소재지가 된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수원의 위상을 높였고 수원시는 1960년대 초부터 활발한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도시 재정비에 돌입했다.[85]

이러한 수원의 변화는 수원 내 도시 시설의 활성화에 맞물렸고, 1960년대 극장 건립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었다. 1960년대 전후에 설립된 극장으로는 수원중앙극장을 비롯하여, 수원제일극장, 매산극장, 로얄극장 등이었다.

수원제일극장은 1960년 3월 10일에 개관하였다. 극장 위치는 영동이었고, 총공사비는 1억 2천만 환이었으며, 건평 524평의 삼 층 구조 건물이었다. 개관 당시 좌석 수는 1,200석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극장이었다.[86]

84 박경렬, 2025, 「1960년대 한국 도시계획의 균열과 경합-수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림』 91, 수선사학회, 59~66쪽.

85 박경렬, 2025, 「1960년대 한국 도시계획의 균열과 경합—수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림』 91, 수선사학회, 60쪽.

86 「수원제일극장(水原第一劇場) 10일경에 개관」, 『조선일보』 1960년 3월 8일, 4면.

매산극장도 1960년대부터 그 존재와 운영이 확인되는 극장이다.[87] 1970년대에도 이 극장의 운영은 확인되고 있다. 로얄극장은 1970년대 수원에서 운영 중인 극장이었다.[88] 1980년대(1987년) 로얄 극장의 외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4〉 매산극장 [89]

〈그림 25〉 국제극장 [90]

〈그림 26〉 로얄극장 [91]

다만 1950년대에 이미 극장으로서의 명성을 다져나간 수원중앙극장은 이러한 후발 극장에 비해 높은 인지도와 함께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앞에서도 설명한 남문 상권을 배경으로 한 극장의 입지는 수원 개발과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중앙극장이 위치한 남문 일대의 교통 접근도와 편의성도, 주요 성장 요인으로 거론된다. 1960년대 초 수원 재정비 계획의 골자는 도시의 생산 능률을 제고하려는 계획과, 합리적인 교통 체계를 수립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유기적

87 「반공의 날 기념식」, 『조선일보』 1960년 1월 26일, 3면; 「네 여학생 가출」, 『조선일보』 1962년 12월 5일, 7면; 「파월(派越) 가족에 영화관람권」, 『조선일보』 1966년 12월 30일, 4면.

88 「국민투표 앞두고 '유신 찬양 노래' 보급」, 『동아일보』 1975년 1월 30일, 7면; 「소매치기 교사(敎唆) 10대 4명 구속」, 『조선일보』 1976년 1월 24일, 7면.

89 「수원의 옛날 사진(13)」, https://sm-sunny.tistory.com/entry/%EC%88%98%EC%9B%90%EC%9D%98-%EC%98%9B%EB%82%A0%EC%82%AC%EC%A7%8413-1950%EB%85%84%EB%8C%801960%EB%85%84%EB%8C%80%EC%9D%98-%EC%88%98%EC%9B%90-7656657,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90 「수원의 옛날 사진(13)」, https://sm-sunny.tistory.com/entry/%EC%88%98%EC%9B%90%EC%9D%98-%EC%98%9B%EB%82%A0%EC%82%AC%EC%A7%8413-1950%EB%85%84%EB%8C%801960%EB%85%84%EB%8C%80%EC%9D%98-%EC%88%98%EC%9B%90-7656657,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91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jinhwan1016/220537776176,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연계를 도모하려는 계획이었다.[92] 이에 따라 수원의 교통 체계는 비약적으로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과 교통 편의성은 수원중앙극장의 성장에 상당한 자극을 가했다.

> 중앙극장이 수원극장을 제치고 전성기를 맞이한 데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 전역과 화성 · 오산 등 인근 도시를 잇는 이른바 황금노선 버스들이 팔달문 로터리 정류장을 지나는 지점에 중앙극장이 자리했기 때문이죠.[93]

수원중앙극장 이전에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던 수원극장(수원좌)은 일제 강점기에 설립되어(1922년이 최초의 기록),[94] 수원역과 일본인 거리를 배경으로 성장한 극장이었다. 이후 팔달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 공간이 형성되면서, 수원역 중심 상권에 비해 더 확장된 상권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위경혜는 수원 지역에 교통 체계가 개편되고 이에 따라 서울과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수원의 극장이 증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95]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견해가 표출될 정도로 당시 수원에서는 교통수단과 이동 시간이 도시 개발과 도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 체계의 변화는 수원과 외부 도시를 잇는 거점인 팔달문 인근 상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에 가깝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로 인해 수원중앙극장은 수원극장이나 제일극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다음 기사는 1990년대까지 팔달문 남문 상권이 수원 상권을 대표하는 상권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96]

92 박경렬, 2025, 「1960년대 한국 도시계획의 균열과 경합—수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림』 91, 수선사학회, 61~63쪽.

93 「월급날, 데이트, 하굣길에… 우리에겐 '남문'이 있었다」, 『경인일보』 2024년 3월 21일.

94 김남석, 2017, 「수원극장(水原劇場)의 역사와 그 의미」, 『국토연구』 94, 국토연구원, 84~85쪽.

95 위경혜, 2023, 「1960~1970년대 경기도 주요 도시 흥행 자본과 극장문화 : 모빌리티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6(2), 영화연구소, 243쪽.

96 2020년대에는 팔달문 중심의 수원 남문 상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지역은 여전히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중핵을 차지하면 쇼핑 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여전히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분석되어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구역으로 관측되고 있다(정대영·한석호,

수원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손꼽히는 곳은 팔달문(일명 남문) 주변.
전형적인 재래 상권이었던 이 지역이 일부는 의류 패션 등 현대 상권으로 탈바꿈하면서 재래와 현대 상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번창하고 있다. 특히 팔달 3가에서 영동시장에 이르는 뒷골목은 종전에는 갈비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했으나 주차난으로 이들 업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대신 의류 패션 제화 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남문 상권은 남문을 중심으로 2백여 미터 팔달 1, 3가 대로변과 수원천까지의 영동시장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수원 시내버스의 주요 노선인데다 동서울, 의정부, 동두천 등의 교외로 나가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팔달 3가에서 영동시장까지의 대로변과 뒷골목이 이 지역 상권의 핵심이다. (…중략…) 수원역과 신갈 방면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 중앙극장 주변에는 LG25편의점과 레스모아, 센서스, 코오롱모드, 해피아이, 롯데매니아 등이 성업 중이다. 남문에서 북쪽으로는 삼성전자랜드와 대동은행 부근까지 번화가로 꼽히고 있으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의해 상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97] (밑줄 : 인용자)

팔달문(남문) 주변 상권은 1990년대 진단으로 수원의 중심 상권이었고, 이러한 상권 지위는 상당한 기간 이 지역 상권이 유지 개발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남문 주변 상권은 수원에서 최고 상권으로서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왔는데, 그러한 상권의 이점과 수원중앙극장의 영업의 효과가 맞물려,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 일대가 경제와 상업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 독점적 지위를 90년대까지 점유할 수 있었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 남문 상권은 유동 인구의 측면에서 극장의 흥행에 유리했고, 상인들은 수원중앙극장으로 접근하는 수원 소비자들의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수원을 대표하는 인지도상으로도, 팔달문은 수원을 대표하는 명소로 꼽힐 수 있었다.[98] 또한 팔달문 일대에는 서울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 등의 경기도 일대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로 인해 외부 지역 인구의 유입도 원활한 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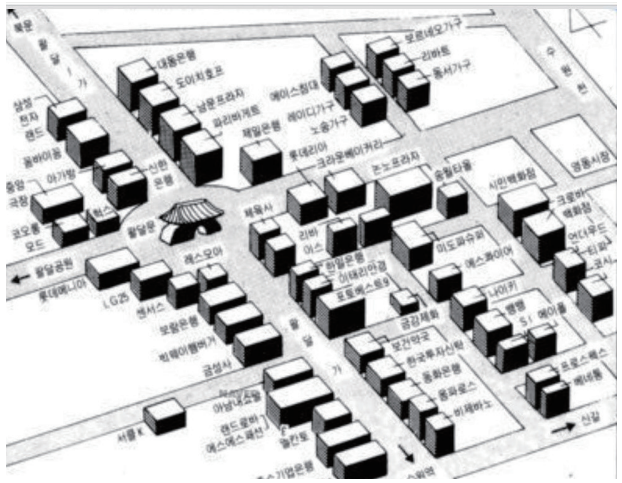
2020,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기본 연구』, 경기연구원, 57~60쪽).

97 「상권(商圈)이 달라진다(38) 수원시 팔달문 주변」, 『매일경제』 1994년 5월 2일.

98 이옥섭·류연택, 2021, 「수원의 도시 이미지 및 장소자산에 대한 수원 시민의 인식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2), 한국도시지리학회, 89~96쪽.

이기도 했다. 물론 수원에서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과 외출을 하려는 이들에게도 빈번하게 거쳐 가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위의 기사와 함께 제시된 당시 지도는 이러한 남문 상권의 위력과 함께 그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원중앙극장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7〉 남문 상권 범위와 수원중앙극장의 위상(1990년대)[99]

위의 상권 지도를 보면, 그 중심에 팔달문이 있고 그 우측에 영동시장이 위치한다. 두 권역 사이에는 남북 도로를 따라 상가가 들어서 있고(팔달 1~3가), 그 좌측에 수원중앙극장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북으로 뻗은 도로(과거 '팔달가', 현재 '정조로')와 그 이면도로는 상가들이 효율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제공했다. 상가들은 이 중심 도로(팔달가)를 중심으로 스포츠용품과 구두 판매를 포함하는 의류 업체가 주를 이루었고, 이와 함께 은행과 신탁회사, 전자 제품 상가 등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수원 지역 의류 의복 판매(소매) 업종에서는, 남문 상권이 가장 높은 점포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100]

99 「상권(商圈)이 달라진다(38) 수원시 팔달문 주변」, 『매일경제』 1994년 5월 2일.

100 이경민 외, 2014, 「대형상업시설 입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소매업 및 음식업 점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4), 대한건축학회, 52쪽.

한편, 팔달문 왼쪽 구역 뒷골목에는 음식점과 주점이 늘어났고 농협 등이 생겨났는데, 이로 인해 이 구역은 이른바 수원의 '먹자골목'으로 탈바꿈하였다. 남문 상권 우측(제일은행 주변)에는 가구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남문 주변에는 약국 10여 개가 몰려 있었으며, 버스 정류장이 있는 중앙극장 주변에도 편의점을 비롯한 식의류 업체가 영업 중이었다. 특히 이 지역 약국의 경우에는 특수를 누렸는데, 90년대 중반만 해도 권리금만 2억에 가까웠음에도 이를 팔겠다는 매물이 없을 정도였다.

1960년대 공표된 수원 도시계획에 따라, 수원시 내외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수원 도심에 각종 도로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101] 이러한 도로 건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팔달로 건설이었는데(1972년), 이러한 도로 교통망의 정비와 개선은 남문 일대의 위상을 증강시켰다. 남문 일대는 사통팔달의 수원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으면서, 1990년대까지 교통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다음 사진은, 1950년대 팔달문 부근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다. 수원 외부로 나가는 승객들은 이 팔달문 밖 정류장에서 교통편을 구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유동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통 거점 역할은 1990년

〈그림 28〉 팔달문 밖 시외버스 정류장(1953년)[102]

〈그림 29〉 팔달문 버스 정류장(1980년대)[103]

101 김태오·양세종, 2019, 「해방 이후 최초의 수원시 도시계획과 그 의미」, 『국토계획』 54(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50쪽.

102 「수원의 옛날 사진」(10), https://sm-sunny.tistory.com/entry/%EC%88%98%EC%9B%90%EC%9D%98-%EC%98%9B%EB%82%A0%EC%82%AC%EC%A7%8410-%EB%AF%B8%EA%B5%B0%E7%BE%8E%E8%BB%8D%EC%9D%B4-%EB%B3%B8-%EC%88%98%EC%9B%90%EB%99%94%EC%84%B11%EB%B6%80-7656648,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103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jinhwan1016/220537776176,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대까지 이어져서, 팔달문 일대는 수원 교통의 핵심적인 중추로 기능했다.

이러한 상권을 바탕으로 형성된 극장이 수원중앙극장이었고, 여기에 교통 시설과 기능이 더해지면서 1960~70년대 극장으로서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 수원중앙극장의 공격적 경영도 그 성장에 한몫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극장 입지와 지리적 이점은 수원극장의 성장과 확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6. 결론 : 도시의 기억과 문화의 흔적으로서 수원중앙극장

수원중앙극장은 1953년 개관하여 2004년 공식 폐관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극장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영화관을 넘어선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사례였다. 특히 1960~1980년대에는 수원 팔달문 인근의 남문 상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수원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와 여가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본 극장은 개관 초기부터 1,000석 규모의 대형 극장으로 건립되었으며, 연극과 악극, 창극, 사극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은 물론, 영화 상영, 결혼식, 회의, 환영회, 음악회, 웅변대회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대표 공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1961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이 수원중앙극장에서 상영되면서, 이 극장은 수원극장과의 경쟁 구도를 벗어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외화 위주의 상영에서 한국 영화 개봉관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수원중앙극장의 건축 구조 변화와 공간 활용 방식은 시대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문화공간의 발전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물이었다. 초기 'ㄴ'자 형태의 외관에서 이후 4층 규모의 입체적 공간으로의 확장은, 단지 건물의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당대 수원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기 위한 극장의 의지와 전략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더불어 본 극장은 수원의 도시 공간 재편과 상권 이동,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수원중앙극장은 지역극장으로서 드물게 명확한 개관일과 폐관일이 밝혀진 사례로, 비교적 정밀한 역사 재구성이 가능하며, 풍부한 사진 및 기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공연 활동과 공간 활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역극장사 연구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수원중앙극장의 역사는 단순한 지역극장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한 도시의 성장과 공간 변화,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과 정체성 형성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도시 문화 공간이 단지 소비의 장소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중앙극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극장사의 복원을 통해, 잊혀가는 지역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영화사 및 공연 예술사, 도시 문화사, 공간 기억 연구 등에 있어서도 소중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CGV 수원점 내일 개관」, 『경인일보』 2003년 2월 13일.
「경동철도(京東鐵道) 허가」, 『매일신보』 1920년 3월 9일.
「극장사 산증인 수원 중앙극장 폐관」, 『경인일보』 2004년 4월 23일.
「극협 창립공연 〈조국은 부른다〉」, 『경향신문』 1952년 9월 28일.
「기생연주회장 풍창관」, 『매일신보』 1916년 4월 13일.
「내 고장 모임」, 『경향신문』 1955년 6월 6일.
「반공 청년 환영회」, 『조선일보』 1954년 3월 20일.
「삼십쌍이 백년을 가약(佳約)」, 『조선일보』 1954년 12월 4일.
「상군(傷軍) 구쌍(九雙) 합동결혼(合同結婚)」, 『경향신문』 1953년 7월 19일.
「수원 극장 변천사를 통한 시간여행」, 『e수원뉴스』 2017년 9월 18일.
「수원 남문 패션1번지, 과거의 영화(榮華)를 되찾을 수 있을까」, 『e수원뉴스』 2011년 3월 4일.
「수원 미디어센터, 수원의 사라진 극장 소개 전시회」, 『연합뉴스』 2019년 11월 22일.
「수원 팔달구, 수원의 중심에서 발전을 견인했다」, 『수원신문』 2023년 2월 15일.
「수원 중앙극장 , 메가박스 남문점으로 부활」, 『수원일보』 2023년 12월 22일.
「수원 중앙극장 '문닫다'」, 『경향신문』 2004년 4월 19일.
「수원의 명물 '중앙극장' 4년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경기일보』 2013년 12월 19일.
「수원의 옛날 사진(10)- 미군(美軍)이 본 수원화성(1부)」, 2019년 4월 19일
「수원의 옛날 사진」(13), https://sm-sunny.tistory.com/entry/수원의-옛날사진13-1950년대1960년대의-수원, 2025년 2월 27일 검색.
「수원제일극장(水原第一劇場) 10일 경에 개관」, 『조선일보』 1960년 3월 8일.
「수원중앙극장(水原中央劇場) 5일 개관」, 『조선일보』 1953년 7월 10일.
「수원중앙극장 52년 만에 폐관」, 『문화일보』 2004년 4월 19일.
「수원중앙극장 개관기념 연극 〈녹쓰는 파편〉」, 『조선일보』 1953년 7월 9일.
「연예 안내」, 『조선일보』 1953년 5월 28일, 7월 3일, 7월 9일, 7월 11일, 7월 15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7일, 7월 31일, 8월 8일, 8월 22일, 8월 30일, 9월 9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6일, 12월 31일.
「오-리지날 플레이쓰… 나? 남문(南門)깍쟁이야」, 『경인일보』 2024년 3월 7일.
「월급날, 데이트, 하굣길에… 우리에겐 '남문'이 있었다」, 『경인일보』 2024년 3월 21일.
「이제는 중년이 된 40~50대 수원시민들, 수원 중앙극장-(구)로얄극장-매산극장 기억하시죠?」, 『CNB뉴스』 2019년 11월 22일.
「지방 소식」, 『평화신문』 1953년 7월 15일.
「청년상의아주대회(青年商議亞洲大會)에 우리 대표 5명을 파견」, 『조선일보』 1954년 2월 21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8월 15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8월 22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8월 29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5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12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19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26일.
「평화신문 연예푸로」, 『평화신문』 1953년 9월 29일.

김남석, 2017, 「수원극장의 역사와 그 의미」, 『국토연구』 94, 국토연구원, 83~105쪽.
박경렬, 2025, 「1960년대 한국 도시계획의 균열과 경합—수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림』 91, 수선사학회, 59~66쪽.
백병두, 2013, 「수원중앙극장의 옛 모습 찾기」, 『경기신문』 7월 31일.
류현희, 2010, 「김요배 증언—화성 안 이야기」,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V, 수원박물관, 233~236쪽.
양훈도, 2014,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시사』 9, 홍익문화사, 423~441쪽.
윤방일, 1953, 「회고와 청산」, 『경향신문』 10월 19일.
위경혜, 2023, 「1960~1970년대 경기도 주요 도시 흥행 자본과 극장문화 : 모빌리티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6(2), 영화연구소, 239~270쪽.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 - 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333~346쪽.

요약

이 연구는 수원의 대표적 극장인 수원중앙극장의 설립과 운영, 구조적 변화, 문화적 위상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그동안 수원극장 중심의 지역극장사 서술에서 벗어나 수원중앙극장의 독립적 위상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수원중앙극장은 1953년 7월 5일 개관하였으며, 약 50여 년간 수원의 대표 극장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기존 수원극장과 함께 무대 공연과 영화 상영이 모두 가능한 극장으로 출발하여, 초기에는 악극과 연극 등 공연 중심 극장이었으나, 점차 영화 상영 중심의 극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연극 〈녹쓰는 파편〉 등의 유치로 수도권 순회공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공회의, 결혼식, 음악회, 웅변대회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극장의 설립자 애수근은 20대 후반의 젊은 사업가로서 수원중앙극장의 사주로 등장하였고, 이후 송경호, 고동이 등이 극장을 운영하였다. 특히 고동이는 영화 〈성춘향〉 제작에 투자하여 수원중앙극장을 주요 개봉관으로 육성하며, 수원극장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앙극장은 외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관이라는 한계를 넘어 한국 영화 상영과 제작 참여를 시도한 혁신적 운영의 사례로 기록된다.

극장의 위치 또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수원중앙극장은 팔달문(남문) 인근 중심 상권 내에 자리하여 수원 남문 로데오거리의 발전과 밀접히 연계되었고, 1960~80년대에는 '남문 패션 1번지'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조건과 수원 화성과의 연계성도 극장의 입지 전략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과 지리적 연계는 수원중앙극장이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 지역 상권 및 도심 공간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극장의 구조와 건물 변천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초기에는 2~3층 규모의 'ㄴ'자 형태 건물이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4층 구조로 확장되었고, 매표소 및 출입구 등도 현대적 설비로 변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반 상가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며 문화시설로서 기능이 종료되었지만, 2013년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이 인근에 들어서며 극장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수원중앙극장은 수원 근현대 극장사에서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선 지역 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녔으며, 도시의 기억과 문화적 흔적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극장을 둘러싼 지형 · 상권 · 도시계획의 변화와 긴밀히 결부되며 도시 내 극장의 사회적 · 문화적 역할을 입증하는 대표 사례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지역극장의 복합적 기능과 의미를 역사적 · 공간적 맥락에서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 나아가 수원중앙극장의 면면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지역 문화사와 도시문화유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주제어 : 수원중앙극장, 지역극장, 극장사, 팔달문, 수원 남문 상권, 극장 문화, 공간 기억, 도시 재편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Illumination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Suwon Jungang Theaterr

Kim Nam-seok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structural transformation, cultural status, and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of Suwon Jungang Theater, one of the representative theaters in Suwon. It aims to move beyond the Suwon Theater-centered narrative of local theater history and to clarify the independ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Suwon Jungang Theater.

Suwon Jungang Theater opened on July 5, 1953, and functioned as a representative theater in Suwon for approximately fifty years. Alongside the existing Suwon Theater, it initially served as a venue for both stage performances and film screenings, starting as a performance-centered theater for plays and musical dramas, but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theater focused on film screenings. Particularly by hosting plays such as Rusty Fragments, it functioned as a key base for touring performanc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was also used as a multipurpose cultural space for public meetings, weddings, concerts, and speech contests.

The theater's founder, Ahn Sugun, appeared as a young businessman in his late twenties and was later succeeded by operators such as Song Gyeongho and Go Dong-i. Go Dong-i, in particular, is credited with elevating Suwon Jungang Theater to a major premiere theater by investing in the production of the Korean film Seong Chun-hyang, thereby securing an advantage over Suwon Theater in their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the theater is recorded as a case of innovative operation that went beyond being a foreign film-oriented cinema to attempting domestic film screening and production participation.

The theater's location also holds special meaning. Situated near Paldalmun (South Gate), a central commercial district, Suwon Jungang Theater was close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Suwon Nammun Rodeo Street and played a central cultural role in the 1960s to 1980s as "Fashion Street No. 1." Excellent accessibility and its connection with Suwon Hwaseong supported its locational strategy. These locational and geographical connections signify that the theater functioned as a core base in the reorganization of Suwon's urban space and commercial area, beyond a mere screening venue.

The structure and transformation of the theater building are also important research subjects. Initially a 2–3 story 'L'-shaped building, it was expanded into a 4-story structure in the 1970s, with ticket booths and entrances upgraded to modern facilities. In the 2000s, its function as a cultural facility ended as it was repurposed into a commercial building, but in 2013, the opening of Megabox Suwon Nammun Point nearby showed an attempt to inherit the legacy of the theater.

In conclusion, Suwon Jungang Theater held a status as a central cultural venue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heater history of Suwon, functioning as a memory and cultural trace of the city. It served as a representative case proving the social and cultural role of theaters within the city, closely tied to changes in terrain, commercial districts, and urban plann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tores the multifaceted functions and meanings of local theaters that had been overlooked, from historical and spatial perspectives. Furthermore,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various aspects of Suwon Jungang Theater, it lays the groundwork for expanding research on regional cultural history and urban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Suwon Jungang Theater, local theater, theater history, Paldalmun, Suwon South Gate commercial district, theater culture, urban memory, urban transformation

『수원학연구』 22, 2025.12, 00~00쪽

수원지역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건휘*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1. 서론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현대 식품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 최근 글로벌 식량 위기와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구축은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2]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토양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는 소비 행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 소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 장안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and Food Service, Jang-An University), E-mail : notnice@jangan,ac.kr, Tel : 031-299-3074

1 김태훈, 2020,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지』 29(1), 15~30쪽.

2 이영민, 2023,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지속가능발전연구』 8(1), 43~58쪽.

고 있다.[3] 이러한 소비 행위는 단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윤리적, 환경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에서도 감정적, 기능적, 인식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요인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4] 특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윤리적 신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5]

수원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농업 지역으로, 다양한 채소류와 곡류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은 공공급식 및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수원 지역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과 친환경적 생산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지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는 탄소발자국 저감과 같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7]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의 지역애착이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수원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애착의 조

3 박영미, 2021,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network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6(11), pp.2013~2031.

4 박수정, 202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행동연구』 34(2), 45~60쪽.

5 이민재, 2019,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Chen, T. B. & Lobo, A., 2012, "Sustainable consumption: The effects of knowledge, cultural valu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1), pp.9~23.

6 김진수, 2021, 「수원 지역 농산물의 품질 및 친환경 생산방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농촌사회연구』 31(2), 95~112쪽; 최경희, 2018,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분석」, 『농업경제연구』 32(4), 90~110쪽.

7 이승민, 2023,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요인 분석」, 『한국환경농업학회지』 45(2), 88~104쪽.

절효과에 초점을 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8]

또한, 본 연구는 수원 지역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 지역 농업과 소비자 행동을 연계한 실증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실천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의 지역애착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9]

2. 이론적 배경

1) 수원 지역 농산물

수원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지역 농업과 도시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 개선과 유통망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농법과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10]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수원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현황

수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로는 쌀, 채소, 과일 등이 있으며, 이들 농산

8 이정훈, 2022, 「지역애착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자학회지』 40(3), 125~140쪽; 박진우, 2019, 「공공급식 정책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농업정책연구』 25(1), 67~82쪽.

9 김지훈, 2023, 「지역애착 기반 마케팅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통과 소비자 연구』 30(1), 55~74쪽; 박선영, 2023, 「지역 정서적 유대와 지속가능 소비행동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22~139쪽.

10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202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로컬푸드 정책 보고서」, 수원시청 농업정책과 자료집.

물은 지역 내 공공급식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농산물 소비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사회 연대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11] Feagan & Morris[12]의 연구에 따르면, 로컬푸드는 지역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 농산물 소비는 소비자의 건강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건강 관심도와 환경 관심도가 소비자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수원 지역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이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를 넘어 소비자 건강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

수원시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이다. 수원시는 지역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14]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의 지역 농산물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공공급식 지원 확대 정책이다. 수원시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급식 시스템

11 박영미, 2021,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12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movements and consumer awareness”, *Journal of Rural Studies,* 21(1), pp.1~15.

13 이경미·이종호, 2019,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가 소비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형태의 조절효과」,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25(1), 1~12쪽.

14 수원시 농업정책과, 2023, 「공공급식 시스템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수원시 농업정책 보고서.

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우[1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기반 공공급식 정책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과 외식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 방식 개선과 유통망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셋째, 친환경 농업 지원 정책이다. 수원시는 저탄소 농업 기술의 보급, 친환경 인증 확대, 생태 보전형 농업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정책은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정책들은 수원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지역 농산물 소비의 지속가능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과 같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8]

이정훈 · 최경희의 연구[19]에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가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일수록 환경 및 윤리적 소비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수원 지역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5 박진우, 2019, 「공공급식 정책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농업정책연구』 25(1), 67~82쪽.

16 김민정, 2023,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17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movements and consumer awareness”, *Journal of Rural Studies,* 21(1), pp.1~15.

18 김민정, 2023,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19 이정훈·최경희, 2022, 「지역 농산물 소비가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 『외식산업연구』 45(1), 78~95쪽.

수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연간 생산량과 주요 소비처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원 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소비현황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주요 소비처
쌀	5,000	지역 농협, 로컬푸드 마켓
채소	3,500	공공급식, 직거래장터
과일	2,000	학교급식, 지역시장

출처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202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로컬푸드 정책 보고서」, 수원시청 농업정책과 자료집.

2)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할 때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성, 기능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Grunert & Juhl[20]은 소비자의 개인적 가치와 환경적 태도가 유기농 식품 구매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가치가 실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weeney & Soutar[21]는 소비자의 인지된 소비가치를 다차원적으로 분류하면서,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치로 감정적, 기능적, 사회적, 인식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1차 생산물이라는 특성상 지속가능한 소비가 더욱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태훈[22]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으로 평가되며, 이는 소비자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Feagan, Morris, & Krug[23]은 로컬푸드 소비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형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20 Grunert, S. C & Juhl, H. J., 1995, "Value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uying of organic foo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1), pp.39~62.

21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2), pp.203~220.

22 김태훈, 2020,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지』 29(1), 15~30쪽.

23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network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6(11), pp.2013~2031.

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를 다음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감정적 가치는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느끼는 정서적 만족과 자긍심을 의미하며, 기능적 가치는 가격, 품질, 신선도 등 실용적 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인식적 가치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치이며, 사회적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인정 및 규범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는 농산물 소비를 통해 탄소 감축, 자원 보호 등 환경적 기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이다.[24]

3) 소비자 태도

소비자 태도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 감정, 신념 등을 의미하며,[25] 이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6] 인지적 요소는 소비자의 지식과 신념을, 감정적 요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행동적 요소는 구매 의도 및 실제 행동을 포함하며,[27] 이러한 소비자 태도는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가치관 등), 사회적 요인(가족, 친구, 미디어 영향), 심리적 요인(동기, 학습, 감각 지각) 및 마케팅 요인(광고, 브랜드 이미지, 가격, 유통 경로 등)에 의해 형성된다.[28]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와 관련한 소비자 태도는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 윤리적 소비, 건강 신념 등의 영향을 받으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선택할 때 환경보호, 윤리적 가치, 개인 건강 등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24 박수정, 202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행동연구』 34(2), 45~60쪽; 김민정, 2023,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25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26 Kotler, P & Keller, K. L., 2016, *Marketing Management* (15th ed.), Pearson.

27 Oliver, R. L., 2010,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2nd ed.), Routledge.

28 Solomon, M. R., 2017,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12th ed.), Pearson; Schiffman, L. G & Kanuk, L. L., 2009, *Consumer Behavior* (10th ed.), Pearson.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지역 생산 농산물이 신선도와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30] 또한, 이영훈 · 박기준 · 손동우[31]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태도가 젊은 소비자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환경 및 윤리적 소비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태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적 개입,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32] 최근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공 캠페인, 친환경 라벨링,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소비자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33] 특히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34]

4) 소비자 소비행동

소비자 소비행동(Consumer Behavior)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는 소비자의 가치관, 신념,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35]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소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하

29 김현준·이수연·최지연, 2020,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저널』 5(2), 45~61쪽.

30 박영미, 2021,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31 이영훈·박기준·손동우, 2022,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와 로컬푸드 소비의 역할」, 『호텔관광학연구』 15(3), 78~92쪽.

32 박재현·김은수·임승현, 2019, 「공공급식 정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정책학회지』 28(2), 55~73쪽.

33 김민정, 2023,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34 김진우·박수현·이현석, 2020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농촌경제』 43(3), 121~140쪽.

35 Solomon, M. R., 2017,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12th ed.), Pearson.

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36] 최근 지속가능한 소비가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이나 지역 농산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행동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시장 형성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비 패턴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37]

소비자 소비행동은 크게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38]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라이프스타일 등이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젊은 소비자층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윤리적 가치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장년층 소비자는 가격 및 접근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39] 심리적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동기부여, 태도, 학습 및 지각 과정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신념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소비자가 속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도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40]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36 Schiffman, L. G & Kanuk, L. L., 2009, *Consumer Behavior* (10th ed.), Pearson.

37 박재현·김은수·임승현, 2019, 「공공급식 정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정책학회지』 28(2), 55~73쪽.

38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 2006, *Consumer behavior* (10th ed.), Thomson South-Western.

39 이영훈·박기준·손동우, 2022,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와 로컬푸드 소비의 역할」, 『호텔관광학연구』 15(3), 78~92쪽.

40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히,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유통망 확대가 소비자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영훈 · 박기준 · 손동우[41]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격, 접근성, 브랜드 인지도보다 윤리적 가치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이러한 소비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분석하였다.

소비자 소비행동은 변화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42] 최근 연구에서는 공공 캠페인, 지속가능성 라벨링,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43]

5) 지역애착

지역애착(Place Attachment)은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과 심리적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44] 지역애착은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을 포함하는데, 장소 정체성은 개인이 해당 지역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장소 의존성은 특정 지역이 제공하는 기능적 가치를 반영한다.[45] 즉, 개인이 특정 지역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할수록 해당 지역과의

41 이영훈·박기준·손동우, 2022,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와 로컬푸드 소비의 역할」, 『호텔관광학연구』 15(3), 78~92쪽.

42 박재현·김은수·임승현, 2019, 「공공급식 정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정책학회지』 28(2), 55~73쪽.

43 김민정, 2023,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 『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44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pp.207~230.

45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pp.830~840.

관계가 더욱 강해지며, 이는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역애착이 소비자의 경제 활동,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46] 지역애착이 강한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47] 이는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의 품질과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과의 정서적 연결이 소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애착은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며, 친환경 제품이나 로컬푸드 구매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즉, 소비자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지역애착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9]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50] 이는 지역 주민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유대감이 강화되며, 이러한 정서적 연결이 지속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애착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

46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pp.213~225.

47 Yuksel, A., Yuksel, F & Bilim, Y., 2010, "Destination attachme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loyalty", *Tourism Management,* 31(2), pp.274~284.

48 Kim, H & Kaplanidou, K., 2019,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local food consumption and sustainable behavior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7(6), pp.845~860.

49 박영미, 2021,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50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pp.830~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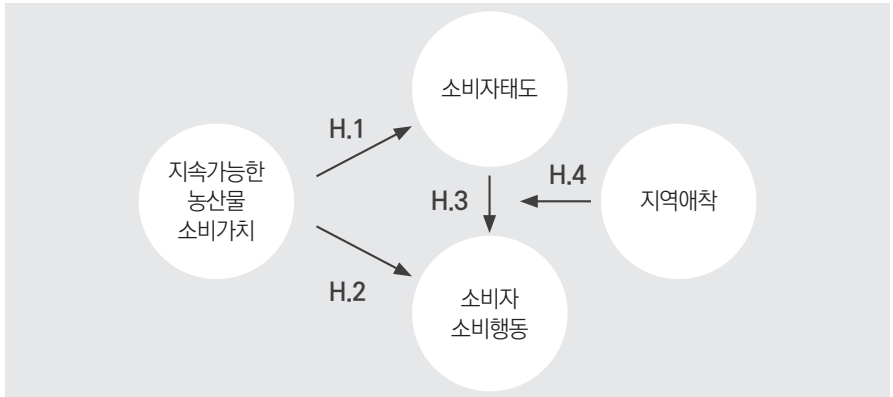
역애착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51]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애착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애착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51 박재현·김은수·임승현, 2019, 「공공급식 정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정책학회지』 28(2), 55~73쪽.

2) 가설설정

(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와 소비자 태도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환경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신념에 기반하여 소비자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효실과 윤혜현[52]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Kaplanidou[53] 또한 소비가치가 윤리적 소비 태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Grunert와 Juhl[54]은 환경적 소비가치가 지속가능한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며, 이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행동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소비가치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heth와 Gross[55]는 소비가치를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로 구분하였고, Sweeney와 Soutar[56]는 이러한 가치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맥락에 적합한 가치 유형으로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다.

감정적 가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이나 기쁨을 의미하며, 기능적 가치는 농산물의 품질, 가격 대비 효율성, 편의성 등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인식적 가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생산 정보의 투명성과 같은 인지적 신뢰에 기반한 평가이며, 사회적 가치는 해당 농산물의 소비가

52 윤효실·윤혜현, 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행동의 조절 효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지』 22(1), 1~18쪽.

53 Kim, H & Kaplanidou, K., 2019,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local food consumption and sustainable behavior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7(6), pp.845~860.

54 Grunert, S. C & Juhl, H. J., 1995, "Value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uying of organic foo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1), pp.39~62.

55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pp.159~170.

56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2), pp.203~220.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나 주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소비가치 요인은 각각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변수로 설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1을 설정하였다.

H1 :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감정적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기능적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인식적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 사회적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 환경적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와 소비자 태도

Sweeney & Soutar[57]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지각하는 가치가 구매 행동의 핵심 결정 요인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감정적, 기능적, 사회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윤효실 · 윤혜현[58] 또한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능적 · 환경적 가치가 유의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Sheth & Gross[59]는 소비가치를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맥락에 적합한 감정적, 기능적, 인식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로 이를 재구

57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2), pp.203~220.

58 윤효실·윤혜현, 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행동의 조절 효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지』 22(1), 1~18쪽.

59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pp.159~170.

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의 행동, 즉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H2 :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감정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기능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인식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 사회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 환경적 소비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 감정적 소비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7 : 기능적 소비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8 : 인식적 소비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9 : 사회적 소비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0 : 환경적 소비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소비행동

소비자의 태도는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Fishbein & Ajzen[60]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현선 · 이기춘[61]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가 실제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준영 · 조남재[62]는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

60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61 민현선·이기춘, 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Human Ecology Research』 37(1), 1~18쪽.

62 박준영·조남재, 2005,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학회지』 8(3), 57~79쪽.

됨을 지지하는 연구를 통해,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환경의식적 행동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3을 설정하였다.

H3 :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 간의 조절관계

지역애착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Kyle & Mowen의 연구[63]에서는 지역애착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지역 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으며, Yuksel & Bilim[64]도 지역애착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김용만[65]의 연구에서는 프로배구 관중의 팀 애착이 팀 태도와 팀 만족, 관람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4를 설정하였다.

H4 : 지역애착은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4-1 : 지역애착은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4-2 : 지역애착은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63 Kyle, G. T & Mowen, A. J., 2005, "An Examination of the Leisure Involvement-Agency Commitment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3), pp.342~363.

64 Yuksel, A., Yuksel, F & Bilim, Y., 2010, "Destination attachme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loyalty", *Tourism Management,* 31(2), pp.274~284.

65 김용만, 2019, 「남자프로배구 관중이 지각하는 다차원적 팀동일시와 팀애착, 팀태도, 팀만족 및 관람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5, 9~26쪽.

3) 조사대상 및 기간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수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하였으며,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2주간(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본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응답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32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20부를 제외한 300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쳤으며, SPSS v.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 EFA) 을 수행하였으며, 각 변수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친화성,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Grunert & Juhl[66]은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가치가 소비자의 친환경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효실 · 윤혜현[67]은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양혜선 · 박영일[68]의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식품 가치소비 유형에 따라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를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환경보호, 공정 거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신념과 행동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3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소비자 태도

소비자 태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를 의미한다. Fishbein과 Ajzen[69]은 태도를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희[70]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 태도가 실제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태도를 지속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감정

66 Grunert, S. C & Juhl, H. J., 1995, "Value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uying of organic foo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1), pp.39~62.

67 윤효실·윤혜현, 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행동의 조절 효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지』 22(1), 1~18쪽.

68 양혜선·박영일, 2022, 「MZ세대의 식품 가치소비 유형에 따른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행동 비교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5(6), 852~861쪽.

69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70 이경희, 2004,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 29~44쪽.

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 소비자 소비행동

소비자 소비행동은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Schiffman & Kanuk[71]은 소비자 행동을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데 관련된 행동과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olomon[72]은 소비자 행동을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소비행동을 지속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로 정의하고, 이를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4) 지역애착

지역애착은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심리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이경희[73]는 지역애착을 거주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의존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교 · 남궁미[74]는 도시재생 활동이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애착을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과

71 Schiffman, L. G & Kanuk, L. L., 2000, *Consumer Behavior* (7th ed.), Prentice Hall.

72 Solomon, M. R., 2017,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12th ed.), Pearson.

73 이경희, 2004,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 29~44쪽.

74 김영교·남궁미, 2019, 「도시재생사업이 장소애착 및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4(3), 5~17쪽.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측정요인	문항수	척도	선행연구
A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	감정적 가치	3	Likert 5점	Grunert & Juhl(1995), 윤효실·윤혜현(2013), 양혜선·박영일(2022)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B	소비자 태도		3		Fishbein & Ajzen(1975), 이경희(2004)
C	소비자 소비행동	구매의도	3		Schiffman & Kanuk(2000), Solomon(2018)
		재방문의도			
D	지역애착		3		이경희(2004), 김영교·남궁미(2019)
E	인구 통계학적 특성		8	명목척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심리적 연관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체성과 의존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4.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의 설문은 수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소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공공급식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로 한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308명 중 여성 응답자가 202명(6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 응답자가 85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응답자도 67명(21.8%)을 차지하여 비교적 고른 연령 분포를 보였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 응답자가 207명(67.2%)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학력 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이 113명(3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144명(46.8%), 고졸 이하 41명(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 수준에서는 200만~300만 원이 11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 원 87명(28.2%), 400만~500만 원 54명(17.5%)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원이 60명(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47명(15.3%), 공무원 26명(8.4%), 가사 62명(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산물 구매 동기로는 신선도와 품질이 102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가 78명(25.3%), 환경보호가 70명(2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농산물 1회 평균 구매 비용은 1만~2만 원 미만이 150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2만~3만 원 미만이 87명(28.2%), 3만 원 이상이 52명(16.9%)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징(N=308)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성별	남성	106	34.4	월수입	100만~200만 원	43	14.0
	여성	202	65.6		200만~300만 원	112	36.4
	합계	308	100		300만~400만 원	87	28.2
연령	20세 미만	23	7.5		400만~500만 원	54	17.5
	20~30세	50	16.2		500만 원 이상	22	7.1
	31~40세	67	21.8		합계	308	100
	41~50세	85	27.6	직업	학생	42	13.6
	51~60세	57	18.5		회사원	60	19.5
	61세 이상	26	8.4		공무원	26	8.4
	합계	308	100		자영업	47	15.3
학력	고졸 이하	41	13.3		가사	62	20.1
	전문대졸	144	46.8		기타	24	7.8
	대졸	113	36.7		합계	308	100
	대학원 이상	10	3.2	결혼 유무	미혼	101	32.8
					기혼	207	67.2
	합계	308	100		합계	308	100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지역 농산물 구매 동기	신선도 및 품질	102	33.1	지역 농산물 1회 평균 구매비용	1만 원 미만	22	7.1
	지역 경제 활성화	78	25.3		1만~2만 원 미만	150	48.7
	환경보호	70	22.7		2만~3만 원 미만	87	28.2
	기타	58	18.8		3만 원 이상	52	16.9
	합계	308	100		합계	308	100

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신뢰성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신뢰성은 반복된 측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75]

1) 지속가능한 농산물 타당성 및 신뢰도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MO 값은 0.752로 표본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Hair & Anderson[76]에 따르면 요인적재량이 .50 이상이면 실무적 활용이 가능하고, .70 이상일 경우 강한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연구의 경우 일부 요인은 .70을 상회함으로써 수렴타당성 확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요인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75 채서일, 2016,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앤엠북스.

76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Component Analysis, PCA)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회전 방식으로는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의 요인은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5가지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총 누적 분산 설명력은 81.532%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은 0.912, 0.898, 0.872, 0.859, 0.821로 모두 0.6 이상을 충족하여 설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지속가능한 농산물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	KMO Bartellet	Cronbach α
감정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만족감을 준다.	0.912	2.856	22.314	KMO =.752 Bartellet =3125.482*	0.912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즐거움을 준다.	0.865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	0.832				
기능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실용적이다.	0.898	2.723	21.015		0.898
	지속가능한 농산물은 효율적이다.	0.861				
	지속가능한 농산물은 경제적이다.	0.823				
인식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윤리적이다.	0.872	2.584	19.673		0.872
	지속가능한 농산물은 가치가 있다.	0.847				
	지속가능한 농산물은 신뢰할 수 있다.	0.812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한농산물 소비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	0.859	2.421	18.024		0.859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타인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0.83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사회적 책임감을 반영한다.	0.798				
환경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0.821	2.315	17.506		0.821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편이다.	0.792				
	지속가능한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있다.	0.767				

***p<.001

2) 소비자태도 타당성 및 신뢰도

소비자 태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소비자 태도의 총 누적분산 설명력은 74.582%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0.91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5〉 소비자 태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	KMO Bartellet	Cronbach α
소비자 태도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912	3.462	74.582	KMO= .789 Bartellet= 2157.394***	0.913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긍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0.874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는 만족감을 준다.	0.84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를 실천하고 싶다.	0.812				

***p〈.001

3) 소비자 소비행동 타당성 및 신뢰도

소비자 소비행동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소비자 소비행동은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총 누적 분산 설명력은 78.462%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구매의도는 0.918, 재방문의도는 0.882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6〉 소비행동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	KMO Bartellet	Cronbach α
구매 의도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0.918	3.612	42.315	KMO= .761 Bartellet= 2563.718***	0.918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0.893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앞으로도 구매할 계획이 있다.	0.869				
재방문 의도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매장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0.882	2.648	36.147		0.882
	지속가능한 농산물을 구매했던 곳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	0.854				
	지속가능한 농산물 판매점을 신뢰하고 재이용할 것이다.	0.829				

***p〈.001

4) 지역애착 타당성 및 신뢰도

지역애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지역애착의 총 누적 분산 설명력은 73.524%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0.90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7〉 지역애착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	KMO Bartellet	Cronbach α
지역 애착	나는 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0.912	3.267	73.524	KMO= .743 Bartellet= 1987.653***	0.906
	나는 이 지역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0.884				
	나는 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신뢰한다.	0.859				
	나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0.832				

***p〈.001

3.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환경적 가치와 소비자 태도 및 소비자 행동(구매의도, 재방문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적 가치와 소비자 태도(r = .183, p〉.05), 환경적 가치와 구매의도(r = .192, p〉.05), 환경적 가치와 재방문의도(r = .178, p〉.05)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환경적 가치가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감정적, 기능적, 인식적,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감정적 가치(r = .524, p〈.01), 기능적 가치(r = .518, p〈.01), 인식적 가치(r = .506, p〈.01), 사회적 가치(r = .522, p〈.01) 모두 소비자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자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와 소비자 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감정적 가치(r = .472, p〈.01), 기능적 가치(r = .482, p〈.01), 인식적 가치(r = .479, p〈.01), 사회적 가치(r = .499, p〈.01)는 구매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정적 가치(r = .438, p〈.01), 기능적 가치(r = .459, p〈.01), 인식적 가치(r = .444, p〈.01), 사회적 가치(r = .463, p〈.01) 역시 재방문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r = .573, p〈.01),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의도(r = .524, p〈.01)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가능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의도와 재방문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애착과 소비자 태도 및 소비자 행동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

가 확인되었다. 지역애착과 소비자 태도(r = .501, p〈.01), 지역애착과 구매의도(r = .487, p〈.01), 지역애착과 재방문의도(r = .479, p〈.01)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태도 및 행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상관관계

변수명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소비자 태도	구매 의도	재방문 의도	지역 애착
감정적 가치	1								
기능적 가치	.482**	1							
인식적 가치	.453**	.512**	1						
사회적 가치	.521**	.489**	.468**	1					
환경적 가치	.389**	.435**	.496**	.275*	1				
소비자 태도	.524**	.518**	.506**	.522**	.183*	1			
구매 의도	.427**	.482**	.479**	.499**	.192*	.573**	1		
재방문 의도	.438**	.459**	.444**	.463**	.178*	.524**	.608**	1	
지역 애착	.417**	.430**	.425**	.432**	.165*	.501**	.487**	.479**	1

*p〈.05, **p〈.01

4.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2.341, p〈.001). 독립변수 별로는 감정적 가치(*β*=.462, p〈.001), 기능적 가치(*β*=.318, p〈.001), 인식적 가

〈표 9〉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감정적 가치	0.521	.046	0.462	11.085	.000***
기능적 가치	0.387	.031	0.318	7.684	.000***
인식적 가치	0.342	.029	0.291	7.125	.000***
사회적 가치	0.315	.026	0.267	6.789	.000***
환경적 가치	0.112	.085	0.085	1.802	.072
R^2=.584, Adj. R^2=.576, F=82.341***, p=.000					

***p〈.001

치(β=.291, p〈.001), 사회적 가치(β=.267, p〈.001)로 소비자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적 가치(β=.085, p=.072)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 H1-4는 지지되었으며, H1-5는 기각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소비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8.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76.214, p〈.001). 독립변수별로는 감정적 가치(β=.421, p〈.001), 기능적 가치(β=.308, p〈.001), 인식적 가치(β=.272, p〈.001), 사회적 가치(β=.239, p〈.001)로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가치(β=.118, p=.045)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H2-1, H2-2, H2-3, H2-4, H2-5는 모두 지지되었다.

〈표 10〉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감정적 가치	0.479	.052	.421	9.125	.000***
기능적 가치	0.341	.054	.308	6.319	.000***
인식적 가치	0.301	.051	.272	5.902	.000***
사회적 가치	0.267	.047	.239	5.678	.000***
환경적 가치	0.135	.061	.118	2.012	.045*
R^2=.593, Adj. R^2=.585, F=76.214***, p=.000					

*p〈.05, ***p〈.001

둘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8%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9.582, p〈.001). 독립변수별로는 감정적 가치(β=.398, p〈.001), 기능적 가치(β=.289, p〈.001), 인식적 가치(β=.263, p〈.001), 사회적 가치(β=.222, p〈.001), 환경적 가치(β=.102, p=.038)로 재방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6, H2-7, H2-8, H2-9, H2-10은 모두 지지되었다.

〈표 11〉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감정적 가치	0.453	0.050	0.398	8.739	.000***
기능적 가치	0.312	0.053	0.289	6.135	.000***
인식적 가치	0.287	0.049	0.263	5.786	.000***
사회적 가치	0.245	0.046	0.222	5.210	.000***
환경적 가치	0.124	0.059	0.102	2.081	.038*
R^2=.568, Adj. R^2=.560, F=69.582***, p=.000					

*p〈.05, ***p〈.001

3) 가설 3의 검증

다음은 소비자태도와 소비자 소비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2.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5.612, p<.001).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β=.726,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1은 지지되었다.

〈표 12〉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소비자 태도	0.659	0.049	0.726	10.281	.000***
R^2=.527, Adj. R^2=.521, F=105.612***, p=.000					

***p<.001

둘째, 소비자 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8.743, p<.001). 소비자 태도는 재방문의도(β=.70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2는 지지되었다.

〈표 13〉 소비자 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소비자 태도	0.635	0.051	0.709	9.936	.000***
R^2=.503, Adj. R^2=.497, F=98.743***, p=.000					

***p<.001

2) 가설 4의 검증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2.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9.562, p<.001). 1단계에서는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659, p<.001), 2단계에서는 지역애착 변수를 추가한 결과, 지역애착 역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265,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소비자 태도 × 지역애착)을 추가한 결과, 해당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3, p<.05). 이는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H4-1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14〉 지역애착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소비자태도	0.659	10.281***	0.582	10.981***	0.521	9.457***
m(지역애착)			0.265	5.401***	0.198	4.203***
소비자태도 * m					0.113	2.135*
R^2	0.527		0.598		0.624	
ΔR^2			0.071		0.026	
F	105.612***		89.783***		79.562***	

*p<.05, **p<.01, ***p<.001

둘째,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9.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4.382, p<.001). 1단계에서는 소비자 태도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79, p<.001), 2단계에서는 지역애착 변수를 추가한 결과, 지역애착 역시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249,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소비자 태도 × 지역애착)을 추가한 결과, 해당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9, p<.05). 이는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H4-2가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15〉 지역애착이 소비자태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소비자태도	0.564	10.512***	0.487	9.738***	0.439	8.625***
m (지역애착)			0.249	5.212***	0.198	4.589***
소비자태도 * m					0.129	2.431*
R^2	0.503		0.573		0.597	
ΔR^2			0.070		0.024	
F	98.743***		83.285***		74.382***	

*p<.05, **p<.01, ***p<.001

5. 결론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8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환경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원 지역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선택할 때 환경보호와 같은 추상적 가치보다는 감정적 만족, 기능적 효용, 정보 신뢰성, 사회적 이미지 등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를 우선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 지역 소비자의 전반적인 환경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가치 실현'보다는 실질적 효익을 중시하는 지역적

소비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Grunert & Juhl[77]의 연구에서 환경적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치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효과는 소비자의 관심도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중 환경적 요소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모두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소비가치가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셋째,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지역애착은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지속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이 소비자의 친환경적 · 윤리적 소비 행동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77 Grunert, S. C. & Juhl, H. J., 1995, "Value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uying of organic foo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1), pp.39~62.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당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친환경 인증, 공정무역 등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 태도가 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캠페인 및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식품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의 장점을 알리는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애착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전략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지역애착이 소비자 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지역애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특정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적 가치가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개념의 핵심인 환경적 요소보다 개인의 정서적 만족이나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거나, 환경적 혜택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효용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비자 행동을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넘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 친환경 생산자 지원 정책,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연구 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환경적 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식품을 구매할 때 환경적 요소보다 개인적인 감정, 실용성, 사회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경적 가치를 소비자 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소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는 다양한 홍보 방식과 소비자의 환경 인식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원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농민, 로컬푸드 유통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의 급식 시스템에 수원 지역 농산물을 우선 도입하거나, 정기적인 지역 농산물 소비의 날과 같은 공동 캠페인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가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행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을 통한 자기보고 방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 등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5년 2월 27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참고문헌

김민정, 2023,「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소비자환경연구』 19(3), 144~159쪽.

김영교 · 남궁미, 2019,「도시재생사업이 장소애착 및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국토계획』 54(3), 5~17쪽.

김용만, 2019,「남자프로배구 관중이 지각하는 다차원적 팀동일시와 팀애착, 팀태도, 팀만족 및 관람만족의 구조적 관계」,『한국사회체육학회지』 75, 9~26쪽.

김지훈, 2023,「지역애착 기반 마케팅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유통과 소비자 연구』 30(1), 55~74쪽.

김진수, 2021,「수원 지역 농산물의 품질 및 친환경 생산방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농촌사회연구』 31(2), 95~112쪽.

김태훈, 2020,「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연구」,『한국소비자학회지』 29(1), 15~30쪽.

김현준 · 이수연 · 최지연, 2020,「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저널』 5(2), 45~61쪽.

민현선 · 이기춘, 1999,「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Human Ecology Research』 37(1), 1~18쪽.

박선영, 2023,「지역 정서적 유대와 지속가능 소비행동 간의 관계」,『소비자환경연구』 19(3), 122~139쪽.

박수정, 2021,「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소비자행동연구』 34(2), 45~60쪽.

박영미, 2021,「로컬푸드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농업경제연구』 62(3), 87~105쪽.

박영미, 2021,「소비자 구매 행동과 지역애착의 관계」,『유통과 소비자 연구』 28(2), 55~75쪽.

박영미, 2021,「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지역 경제연구』 21(1), 78~95쪽.

박준영 · 조남재, 2005,「소비자의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한국유통학회지』 8(3), 57~79쪽.

박재현 · 김은수 · 임승현, 2019,「공공급식 정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식품정책학회지』 28(2), 55~73쪽.

박진우, 2019,「공공급식 정책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농업정책연구』 25(1), 67~82쪽.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2023,「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로컬푸드 정책 보고서」, 수원시 농업정책과 자료집.

수원시 농업정책과, 2023,「공공급식 시스템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수원시 농업정책 보고서.

양혜선 · 박영일, 2022,「MZ세대의 식품 가치소비 유형에 따른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행동 비교 연구」,『한국식품영양학회지』 35(6), 852~861쪽.

윤효실 · 윤혜현, 2013,「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 행동의 조절 효과」,『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지』 22(1), 1~18쪽.

이경미 · 이종호, 2019,「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가 소비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형태의 조절효과」,『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25(1), 1~12쪽.

이경희, 2004,「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대한가정학회지』 42(1), 29~44쪽.

이민재, 2019,「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속가능성」,『지역경제연구』 21(1), 78~95쪽.

이승민, 2023,「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요인 분석」,『한국환경농업학회지』 45(2), 88~104쪽.

이영민, 2023,「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지속가능발전연구』 8(1), 43~58쪽.

이영훈 · 박기준 · 손동우, 2022,「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와 로컬푸드 소비의 역할」,『호텔관광학연구』 15(3), 78~92쪽.

이정훈, 2022,「지역애착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소비자학회지』 40(3), 125~140쪽.

이정훈 · 최경희, 2022,「지역 농산물 소비가 지속가능한 외식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외식산업연구』 45(1), 78~95쪽.

채서일, 2016,『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앤엠북스.

최경희, 2018,「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태도 분석」,『농업경제연구』 32(4), 90~110쪽.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 2006, *Consumer behavior* (10th ed.), Thomson South-Western.

Chen, T. B & Lobo, A., 2012, "Sustainable consumption: The effects of knowledge, cultural valu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1), pp.9~23.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movements and consumer awareness", *Journal of Rural Studies*, 21(1), pp.1~15.

Feagan, R., Morris, D & Krug, K., 2004, "Local food network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6(11), pp.2013~2031.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Green, T & Peloza, J., 2011, "How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eate value for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8(1), pp.48~56.

Grunert, K. G., 2011, "Sustainability in the food sector: A consumer behaviour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n Food System Dynamics,* 2(3), pp.207~218.

Grunert, S. C & Juhl, H. J., 1995, "Value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uying of organic foo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1), pp.39~6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Kim, H & Kaplanidou, K., 2019,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local food consumption and sustainable behavior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7(6), pp.845~860.

Kotler, P & Keller, K. L., 2016, *Marketing Management* (15th ed.), Pearson.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pp.213~225.

Kyle, G. T. & Mowen, A. J., 2005, "An Examination of the Leisure Involvement－Agency Commitment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3), pp. 342~363.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pp.207~230.

Oliver, R. L., 2010,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2nd ed.), Routledge.

Schiffman, L. G. & Kanuk, L. L., 2000, *Consumer Behavior* (7th ed.), Prentice Hall.

Schiffman, L. G. & Kanuk, L. L., 2009, *Consumer Behavior* (10th ed.), Pearson.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pp.159~170.

Solomon, M. R., 2017,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12th ed.), Pearson.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2), pp.203~220.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pp.830~840.

Yuksel, A., Yuksel, F. & Bilim, Y., 2010, "Destination attachme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loyalty", *Tourism Management,* 31(2), pp.274~284.

요 약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행동(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8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는 소비자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모두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지역애착은 소비자 태도와 소비자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구매의도 및 재방문의도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 수원,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가치, 소비자 태도, 소비자 행동, 구매의도, 지역애착

ABSTRACT

The Effect of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Value in the Suwon Region on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Place Attachment

Kim GeonWhee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values on consumer attitudes and consumer behavior (purchase intention and revisit intention) among consumers in the Suwon reg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308 valid responses were utilized for empirical analysis.

First,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valu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attitudes. Specifically,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epistemic value, and social valu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attitudes, whereas environmental value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Second,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values significantly influenced consumer behavior (purchase intention and revisit intention). All five values—emotional, functional, epistemic,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positively affected both purchase intention and revisit intention.

Third, consumer attitud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consumer behavior. The more positive the consumer attitude, the stronger the purchase intention and revisit intention.

Fourth, place attachment was confirm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attitudes and consumer behavior. Consumers with a strong attachment to a specific region showed a stronger influence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on purchase intention and revisit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marketing strategies to promote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policy interventions to enhance consumer awareness, and regional collaboration efforts to encourage local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additional variables to derive practical strategies for fostering sustainable consumer behavior.

Keywords : Suwon,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Consumption Value, Consumer Attitude, Consumer Behavior, Purchase Intention, Place Attachment

『수원학연구』 22, 2025.12, 00~00쪽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 지역과 비지역 언론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성훈*/조은정**/김근현***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수원의 경제 현안이 언론보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이슈들이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양상에는 매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이 경제 이슈를 보도하는 방식이나 다루는 주제, 강조점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 구미시청 미래도시전략과 주무관(Manager, Future Urban Strategy Division, Gumi City Hall), E-mail : jsh0425k@korea.kr, Tel : 010-6677-3975
** 전주시의회 입법정책팀 주무관(Manager, The Legislative Policy Team, Jeonju City Council)
*** 전주시의회 입법정책팀 주무관(Manager, The Legislative Policy Team, Jeonju City Council, 교신저자, kimgh0307@korea.kr, 010-7270-8446)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지역 언론은 지역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비지역 언론은 좀 더 거시적이거나 전국적 맥락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기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와 같이 시대별로 사회 · 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온 가운데, 시기별 언론보도에서 수원 지역과 수원 지역 외 비지역 언론 간 차이가 심화되거나 완화되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담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1]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의제를 강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지역 경제 이슈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양상은 지역사회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언론이 지역 경제 현안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론을 형성하는가에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를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지방 환경 속에서 언론보도의 특징과 그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언론과 비지역의 보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언론이 지역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를 시기별(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수집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비지역 간 보도 양상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 ·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수원 지역 경제 이슈 보도의 의미 구조를 언론의 지역성과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수단일 뿐이며, 이를 통해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이 수원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재현하는가'를 밝히는 것

1 Ban. Hyun, 2004, "The role of press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Coverage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by central and local newspapers", *professor's essay*, 3(1), pp.263~286.

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기별 매체 유형에서 나타난 주요 경제 키워드, 보도 빈도, 감성(긍정/부정) 경향, 프레임(frame) 구성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 수원 지역에서 두드러진 경제 현안에 대해 지역지와 비지역이 각각 얼마나 자주 보도했고 어떤 어휘와 논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의 프레임으로 그 이슈를 해석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량적 비교 분석을 통해 수원 지역 경제에 대한 외부 재현 양상(비지역 언론을 통한 전국적 portray)과 지역 내 미디어 인식구조(지역 언론을 통한 지역적 이해) 간의 연계를 밝히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비추어진 수원 경제 이슈의 모습과 지역 내부에서 형성된 미디어 담론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 지역사회 여론 형성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의제설정 이론

언론보도가 대중의 이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의제설정이론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McCombs와 Shaw[2]의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어떤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관심과 인식이 형성된다. 실제로 언론이 특정 주제를 집중 보도하면 대중은 그 이슈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언론이 대중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결정짓는 의제설정 효과로서, 언론보도량과 국민의 의제 인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3]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수원 지역의 경제 현안에 대해 지역 언론이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이슈와 비지역 언론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2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176~187.

3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176~187.

이슈가 다를 경우 수원 지역 주민과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이슈 중요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의 의제 설정 차이는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인식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제설정이론은 언론이 어떤 이슈를 우선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담론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특히 지역 언론의 의제 설정은 비지역 언론과 달리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 여론 형성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4] 최근에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언론이 형성하는 의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5] 이들은 특정 키워드의 빈도와 관계망 분석을 통해 의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지역과 비지역 언론이 수원경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다른 의제를 형성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2) 지역 언론의 역할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사회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로 평가된다. 여러 연구자는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의 감시견(watchdog)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역 내 공론장에서 여론 형성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왔다.[6] 예를 들어, Janowitz[7]는 지역신문과 같은 커뮤니티 매체가 지역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적 전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Hindman[8] 역시 지역 언론이 지역 공론장(public sphere)의 중심에서 정보 중개자로 기능하며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화와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논의

4 Zain, N. R. M., 2014, *Agenda setting theory,*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pp.1~11.

5 Kwak, S. J & Kim, H. H., 2019, "Keywords and topic analysis of social issues on twitter based on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8(1), pp.13~18.

6 Jonscher, N., 1995, *Lokcale Publizistik,* Opladen.

7 Janowitz, M., 1980, *The Community Press in an Urban Setting,* The social Elements of Urbanism Second Edition.

8 Hindman, 2009, *The Myth of Digital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한다. 실제로 지역언론은 지역 주민에게 밀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나 지역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 내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비지역 언론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두 매체 간 보도 프레임의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9]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역 언론이 의제설정 과정에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비지역 언론 프레임을 수용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이슈를 어떻게 보도했는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지역 언론의 의제 생산 구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지역 언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이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수원 지역 경제 이슈 보도 양상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3) 빅데이터와 텍스트마이닝 기법

본 연구는 방대한 언론 기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정량적 텍스트 분석이 활발히 도입되어, 대규모 문서 집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10]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기사에서 나타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어조를 파악하고,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시기별 주요 이슈 주제를 추출하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요 키워드 간 연관성을 시각화하는 등의 접근이 활용된다. 이러한 자동화된 내용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규

9 Hujanen, J., Dovbysh, O., Jangdal, L. & Lehtisaari, K., 2021, "Towards (hyper) local public sphere: Comparison of civic engagement across the Global North", *Media and Communication,* 9(3), pp.74~84.

10 Praet, S., Van Aelst, P., Daelemans, W., Kreutz, T., Peeters, J., Walgrave, S. & Martens, D., 2021, "Comparing automated content analysis methods to distinguish issue communication by political parties on Twitter", *Comput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 3(2), pp.1~27.

모로 언론보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방대한 정치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11]

Grimmer와 Stewart[12]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이 정치학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을 보이며,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대량의 문서들을 일관되게 처리함으로써 인간 연구자가 놓치기 쉬운 패턴까지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빅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도구로서, 지역 및 비지역의 보도 특성을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역 언론과 중앙(비지역) 언론 간의 보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정량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담론 구조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확대되고 있다. Jung[13]는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부산 지역일간지인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보도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토픽모델링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 언론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용적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앙언론은 거시적 정책이나 국가 전략 중심의 보도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지역성이 의제 설정과 보도 프레임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Seo[14]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 문서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영역(예 : 관광, 지속가능성, 산업성장 등)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는 지방 정책 이슈에서도 지역 간 담론 구조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를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유사한 맥락에서, Cheon et al[15]는 중앙언론의 스마트도시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TF-IDF,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적용하여 시기별로 언론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언론이 스마트도시를 기술 중심의 담론에서 생활 · 도시 문제 중심 담론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키워드, 감성, 토픽의 구조적 변화가 실제 사회 담론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Yang[16]은 5·18민주화운동 보도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한겨레』, 『광주일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언론(『광주일보』)이 5·18을 공동체적 기억의 관점에서 보도한 반면, 중앙언론은 사건 중심 서사와 이념적 논쟁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빈도, 연관어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동일 이슈라도 언론의 지역성과 정체성에 따라 재현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는 지역과 중앙언론의 보도 방식 차이를 다양한 주제에 걸쳐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이 같은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의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의 보도 담론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 방대한 뉴스 기사들을 전수 분석함으로써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외부 언론의 재현과 지역 언론의 담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pp.267~297.

12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pp.267~297.

13 Jung, Y., Kim, J. & Park, J. 2021, "Analysi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ext Mining Approach: Based on comparison between Central and Local Daily Newspapers", *Locality & Communication,* 25(4), pp. 7~32.

14 Seo, H. J,, 2023, "Analysis on Local Smart City Plan of Local Government Using Text Min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27(2), pp.129~158.

15 Cheong, A. Y., Park, J.Y. & Nam, Y. J. 2022, "Analysis of Smart City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4), pp.1563~1582.

16 Yang, H.-S., 2020, "How is 5.18 recalled after 40 years?: Analysis of Chosun-Ilbo, Hankyoreh, and Gwangju-Ilbo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Regional and Communication,* 24(2), pp.4~28,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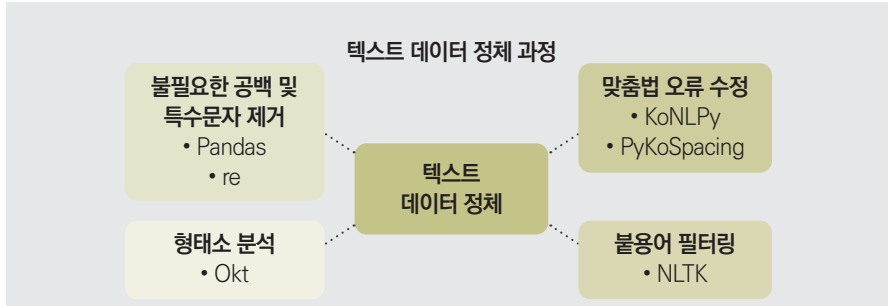
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

본 연구는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 간의 보도 양상 및 경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원 지역 언론(『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신문』, 『인천일보』)과 수원 외 지역 언론(『강원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등 총 44개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는 '수원', '경제'가 포함된 언론 기사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수집하였으며, 각 시기별 기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1990년대 2,237건, 2000년대 2,381건, 2010년대 5,220건, 2020년대 3,207건으로 총 1만 3,045건의 보도를 수집하였다. 반면, 수원 외 지역 언론에서는 1990년대 821건, 2000년대 2,977건, 2010년대 6,160건, 2020년대 3,743건으로 총 1만 3,701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2만 6,746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시계열적 분류는 수원 지역 경제에 대한 언론보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비교 ·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지역과 비지역 언론 간의 관심도 및 보도량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기반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사 본문 및 제목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텍스트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수행되었다. 먼저 Python의 Pandas 및 정규표현식(re)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텍스트 내 불필요한 공백, 특수문자, HTML 태그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텍스트의 품질 향상을 위해 KoNLPy의 형태소 분석기와 PyKoSpacing을 이용해 맞춤법 오류와 띄어쓰기 문제를 보완하였다. 특히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기 위해 NLT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 경제 이슈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 표현이나 중복된 수식어들을 필터링하였다. 이후 Okt(Open Korean Text)를 통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고,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 정보를 추출하여 핵심 키워드 중심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경제 관련 핵심 주제의 도출과 의미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이 수원 경제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시기별, 매체별로 데이터를 분류하였으며, 보도량 변화, 키워드 출현 빈도, 주요 이슈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 경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변화와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 시각화

2) 분석기법

본 연구는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프레임 구성 방식의 비교를 위해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하였다. 둘째, 보도 주제의 구체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F-IDF와 N-gram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단순한 빈도 비교를 넘어 담론 구조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함이다.

총 여섯 가지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첫째, 워드클라우드 분석(word cloud analysis)을 통해 수원 경제 관련 주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기법은 특정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슈나 트렌드를 빈도 기반 강조 단어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7] 분석은 단어와 빈도가 포함된 tibble 데이터를 생성한 후, R의 wordcloud2() 함수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둘째,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 기법은 단순한 빈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문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원 경제 이슈 중 언론사별 또는 시기별로 특화된 핵심 단어를 식별하기 위해 적용되었으며, 이는 단어 빈도(TF)와 역문서 빈도(IDF)를 조합함으로써 가능하였다.[18]

셋째, N그램(N-gram) 분석을 통해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경제 관련 키워드들이 주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 쌍(예 : “수원 경제”, “산업 단지”, “기업 유치” 등)을 식별하여 보다 구체적인 담론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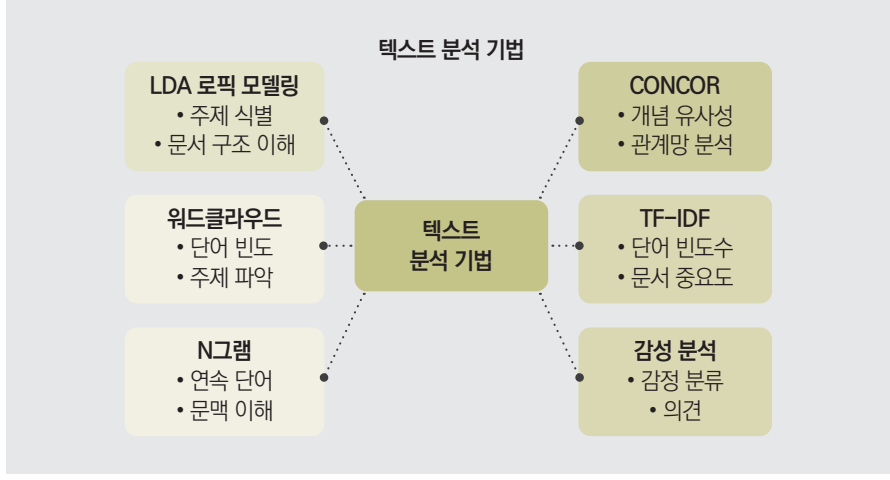
넷째,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언론보도 내 감정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수원 경제에 대한 보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한국어 감성 어휘 사전인 군산대학교의 KNU 감성 사전을 활용하여 본문 내 감성 단어를 추출하고, 시기별 긍 · 부정 비율을 산출하였다.[20] 감성 분석결과를 통해 수원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정서적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 언론은 ‘지원’, ‘성장’, ‘협력’과 같은 긍정적 어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비지역 언론에서는 ‘논란’, ‘문제’, ‘위기’ 등의 부정적 어휘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 차이는 단순한 어휘 사용 빈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양 언론의 보도 프레임과 태도 차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17 Heimerl, F., Lohmann, S., Lange, S. & Ertl, T., 2014, “Word cloud explorer: Text analytics based on word clouds”, *In 2014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1833~1842.

18 Salton, G. & Buckley, C., 1988, “Term-weighting approaches in automatic text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24(5), pp.513~523.

19 Manning, C. D., Raghavan, P. & Schütze, H., 2008,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 Turney, P. D., 2002, “Thumbs up or thumbs down? Semantic orientation applied to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reviews.”, Proceedings of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그림 2〉 분석기법 시각화

다섯째, LDA 토픽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통해 수원 경제 보도에서 잠재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분석은 언론기사 집합에서 공통 주제를 추출하고, 각 문서가 해당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강조된 지역 경제 이슈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21] 수원이라는 키워드의 빈도 중심 접근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서, 토픽모델링은 오히려 의미 있는 주제를 자동 분류해 낼 수 있는 적합한 분석 도구로 기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시기별로 구조화함으로써, 언론 담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분석은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수행하였고, 일관성 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여 주제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CONCOR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을 통해 단어 간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고, 수원 경제 관련 키워드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은 주요 단어 간의 연결성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군집화 및 중심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수원 경제 담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

21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993~1022.

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상위 50위 단어를 기준으로 50x50 상관행렬을 생성하고, UCINET 6.0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4. 연구결과

1)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1) 수원 지역 언론 분석결과

〈표 1〉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표(수원 지역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	수원	1882	1	수원	2357	1	수원	7149	1	수원	5105
2	경제	1596	2	경제	1538	2	경기	3829	2	경기	3153
3	지역	1260	3	지역	1226	3	경제	3354	3	경제	1732
4	경기	717	4	경기	1082	4	지역	2476	4	지역	1510
5	시장	454	5	의원	541	5	시장	1814	5	의회	1310
6	지방	410	6	후보	523	6	도시	1421	6	시장	1147
7	후보	405	7	시장	513	7	의원	1326	7	후보	910
8	의원	394	8	도시	474	8	사업	1324	8	민주당	877
9	금융	384	9	도지사	427	9	의회	1318	9	특례시	844
10	시민	357	10	기업	385	10	기업	1210	10	도시	812
11	사회	351	11	정부	354	11	사회	1199	11	의원	777
12	도시	295	12	지원	352	12	후보	1087	12	시민	696
13	정부	273	13	사업	350	13	지원	1075	13	제공	694
14	지원	271	14	한나라당	348	14	시민	909	14	기업	654
15	지점	269	15	지방	345	15	지방	857	15	사업	622
16	참석	266	16	수도	340	16	센터	811	16	도지사	564
17	도지사	265	17	문화	332	17	정책	808	17	지원	558

22 Brieger, R. L., 1974, "Th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In M. Hardy & A. Bryman (Eds.)", *Handbook of Data Analysis,* London: Sage, pp.505~526.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8	선거	265	18	정책	325	18	문화	774	18	사회	524
19	개발	260	19	시민	291	19	위원회	766	19	정책	494
20	중소기업	259	20	의회	282	20	정부	758	20	국민	488
21	문화	256	21	개발	279	21	개최	740	21	선거	484
22	기업	253	22	추진	270	22	대표	729	22	기관	461
23	의회	246	23	위원장	256	23	도지사	726	23	지방	454
24	행정	244	24	대표	252	24	선거	702	24	코로나	447
25	수도	242	25	회장	251	25	민주당	700	25	정부	442
26	발전	238	26	행정	249	26	중소기업	694	26	사진	428
27	서울	238	27	선거	244	27	추진	678	27	위원회	425
28	대회	232	28	교육	231	28	일자리	624	28	대표	408
29	대통령	225	29	월드컵	225	29	한국	596	29	센터	393
30	사업	221	30	사회	222	30	산업	583	30	공공	389
31	기관	217	31	단체	221	31	위원장	581	31	총선	355
32	개최	209	32	산업	220	32	교육	573	32	추진	353
33	추진	203	33	개최	220	33	활성	563	33	미래	349
34	업체	201	34	위원회	220	34	화성	511	34	남부	328
35	정치	197	35	방문	210	35	개발	506	35	경기도지사	325
36	운동	190	36	발전	199	36	행정	496	36	문화	322
37	교육	189	37	한국	196	37	발전	496	37	위원장	320
38	시대	187	38	활성	191	38	본부	482	38	특례	306
39	한국	183	39	대회	189	39	행사	464	39	화성	298
40	회장	182	40	계획	188	40	기관	456	40	산업	291
41	대표	180	41	민주당	188	41	협력	452	41	국회	290
42	산업	180	42	여성	187	42	회장	452	42	민선	290
43	대책	177	43	본부	186	43	참석	451	43	행정	288
44	실시	177	44	센터	186	44	과학	424	44	재단	279
45	생활	176	45	정치	177	45	정치	422	45	계획	278
46	단체	174	46	참석	175	46	주민	417	46	유치	274
47	건설	172	47	중소기업	172	47	국회	413	47	예비	273
48	활동	168	48	화성	166	48	계획	399	48	정치	273
49	계획	167	49	국회	166	49	전통	384	49	발전	269
50	환경	167	50	환경	164	50	단체	382	50	의장	265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그림 3〉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언론)

(2)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표 2〉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표(수원 지역 언론 외)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	경제	491	1	수원	2070	1	수원	6384	1	수원	5343
2	지역	441	2	경제	1814	2	서울	5300	2	경기	2570
3	수원	328	3	지역	1562	3	경제	3266	3	경제	2116
4	후보	201	4	경기	765	4	경기	3223	4	지역	1714
5	지방	196	5	후보	607	5	지역	2554	5	시장	1677
6	도시	145	6	의원	564	6	시장	1815	6	의회	1261
7	부산	140	7	사업	547	7	도시	1780	7	도시	1041
8	정부	137	8	도시	537	8	사업	1510	8	기업	925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9	서울	129	9	수도	520	9	의회	1343	9	지원	894
10	대통령	117	10	시장	516	10	기업	1295	10	사업	883
11	개발	115	11	정부	500	11	의원	1240	11	의원	846
12	사업	114	12	기업	493	12	주요	1230	12	민주당	806
13	의원	111	13	한나라당	448	13	중부	1073	13	시민	763
14	건설	108	14	지방	432	14	지원	999	14	후보	761
15	사회	107	15	정책	422	15	사회	966	15	사회	668
16	행정	104	16	지원	395	16	후보	940	16	대표	656
17	산업	102	17	문화	383	17	정부	930	17	센터	647
18	지원	97	18	추진	381	18	정책	839	18	특례시	637
19	정치	97	19	산업	373	19	시민	815	19	정책	629
20	문화	94	20	대표	360	20	국민	814	20	지방	562
21	기획	93	21	한국	334	21	지방	812	21	진행	534
22	국장	91	22	서울	327	22	추진	759	22	위원회	505
23	한국	89	23	개발	323	23	산업	738	23	도지사	502
24	계장	87	24	교육	311	24	위원회	738	24	국민	492
25	관리	87	25	행정	306	25	개최	730	25	기관	489
26	월드컵	86	26	도지사	306	26	센터	722	26	산업	478
27	개최	84	27	광주	304	27	한국	720	27	개최	476
28	기업	80	28	월드컵	298	28	대표	706	28	정부	470
29	참석	79	29	위원회	298	29	도지사	681	29	추진	469
30	국민	78	30	발전	284	30	문화	666	30	코로나	442
31	추진	77	31	건설	281	31	민주당	652	31	사진	385
32	선거	75	32	시민	278	32	선거	600	32	위원장	373
33	시장	74	33	선거	274	33	발전	590	33	국회	371
34	광주	73	34	대통령	269	34	대통령	588	34	의장	368
35	계획	72	35	위원장	265	35	교육	566	35	발전	362
36	대표	72	36	사회	261	36	활성	561	36	문화	357
37	인사	72	37	센터	255	37	행정	529	37	활성	349
38	시민	71	38	유치	250	38	국회	515	38	공공	349
39	대회	71	39	의회	249	39	일자리	498	39	진흥원	345
40	경기	67	40	대회	248	40	위원장	494	40	선거	344
41	환경	67	41	계획	243	41	수도	490	41	계획	342
42	자치	63	42	정치	242	42	대회	486	42	협력	334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43	도지사	63	43	국가	237	43	개발	484	43	회장	334
44	대책	63	44	개최	234	44	기관	456	44	한국	333
45	삼성	62	45	단체	232	45	협력	449	45	행정	333
46	시대	62	46	인사	225	46	계획	447	46	중소기업	326
47	의회	61	47	기관	225	47	누리	442	47	유치	324
48	교육	61	48	발표	215	48	정치	438	48	행사	306
49	유치	61	49	중소기업	213	49	방문	424	49	미래	304
50	활성	61	50	업체	211	50	본부	423	50	방문	302

〈그림 4〉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외 언론)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우선 수원 지역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인 '수원', '경제', '지역'의 안정적 상위 유지되었다. 4개 시기 모두에서 '수원'은 1위를 차지하며 지역 언론이라는 분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수원이라는 키워드는

단순 지역명이 아닌, '경제 중심 도시', '행정특례시', '수도권 외곽 확장지' 등 다양한 의미 프레임에서 활용되었다. 특히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서울 대비 수원'의 구도가 빈번히 등장하며, 이는 도시 위상과 정책 대상화 관점의 변화를 시사한다.

'경제'는 1시기(2위), 2시기(2위), 3시기(3위), 4시기(3위)로 전 시기 상위권을 유지하며, 수원 지역 보도에서 경제 이슈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음을 보여 준다. '지역'도 시기별로 3~4위를 유지하며 지역성 기반의 담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의원', '도시' 키워드의 순위 상승과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시장'은 1시기 5위, 2시기 7위에서 3시기에는 5위로 올라선 뒤, 4시기에도 6위를 기록하며 정치 행정 리더십 이슈가 꾸준히 부각되었음을 시사한다. '의원'도 1시기(8위) → 2시기(1위 제외 상위권) → 3시기(7위) → 4시기(11위)로 전 시기 15위 이내를 유지하였다. 이는 수원시의회 등 정치 관련 보도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도시'는 1시기 12위에서 2시기 8위, 3시기 6위, 4시기 10위로 점차 상위권에 자리 잡아 도시 개발, 계획, 공간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당 키워드의 부상과 소멸: '한나라당', '민주당', '특례시'가 등장하였다. 2시기(2000년대)에서 정당 키워드인 '한나라당'이 14위로 등장하였고, 3시기에는 '민주당'이 25위, 4시기에는 8위로 급상승하였다. 이는 수원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당 중심 선거 보도가 특정 시기에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4시기에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 키워드인 '특례시'가 9위로 처음 등장해, 지방자치 제도 변화가 언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시민'과 '사회'의 확산적 사용: 참여적 언론 담론 강화되었으며, '시민' 키워드는 1시기(10위) → 2시기(19위) → 3시기(14위) → 4시기(12위)로 일관된 상위권 유지를 보였다. 이는 수원 언론이 시민 참여, 주민 의견, 시민의식 등을 중심으로 보도해 왔음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사회'는 1시기(11위) → 2시기(30위권) → 3시기(11위) → 4시기(18위)로 사회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다시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나타낸다. 감염병 키워드의 등장: '코로나'의 급부상하였으며 4시기(2020년대)에는 감염병 관련 키워드인 '코로나'가 단번에 24위에 진입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등장하지 않던 키워드가 상위권에 포함된 것은 COVID-19가 지역사회와 언론보도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며, 지역 언론도 이를 중점 이슈로 다루었음을 보여 준다. '지원', '기업', '센터', '위원회' 등 행정 · 산업 키워드의 강세를 보였다. '지원'은 1시

기(14위) → 2시기(12위) → 3시기(13위) → 4시기(17위), '기업'은 전 시기에서 20위권 내를 유지하며 경제 지원 및 산업정책 관련 보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3~4시기에는 '센터', '위원회', '기관', '공공' 등의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면서 공공기반 행정 조직 및 산업정책의 세분화된 보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원 지역 외 언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의 중심성과 주변화가 병존되었으며 '수원'은 1시기 3위, 2시기 1위, 3시기 1위, 4시기 1위로 등장하며 보도량 기준으로는 비지역 언론에서도 수원이 주요 보도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면 1990년대에는 '부산'(7위), '서울'(9위), '대통령'(10위) 등 전국 단위 키워드가 다수 분포하며, 수원 자체보다는 국가 맥락에서의 보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강한 존재감: '서울' 키워드의 비중 상승하였으며 '서울'이 1시기 9위 → 2시기 22위 → 3시기 2위 → 4시기 6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수원 보도 내에서도 서울을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연계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서울 중심 경제 담론 속에서 수원은 '수도권 연계 도시'로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책 · 행정 키워드의 강화와 지방 키워드의 약세로 나타났으며, '정책', '정부', '지원', '산업', '행정' 등의 키워드가 전 시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상위에 포진하였다. '정책'은 2시기 15위 → 3시기 18위 → 4시기 19위, '정부'는 2시기 11위 → 3시기 17위 → 4시기 28위로, 비지역 언론이 수원 경제를 보다 거시적 ·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지방'은 1시기 5위 → 2시기 14위 → 3시기 21위 → 4시기 20위로 점차 하위권으로 밀려, 지역 자체의 맥락보다는 중앙-지방 관계의 구조 속에서만 다루어진 경향을 나타낸다. '기업'과 '산업'의 중장기적 부각되었으며, '기업'은 1시기 28위였으나 2시기 12위 → 3시기 10위 → 4시기 8위로 점차 상승하였다. 이는 수원 내 민간 경제 활동, 특히 대기업 또는 산업 단지 관련 보도가 언론의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산업'도 모든 시기에서 30위권 이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경제발전과 산업 육성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의 주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례시, 민주당 등 정치제도 변화 키워드의 등장으로 4시기에는 '특례시'(18위), '민주당'(12위), '의회'(6위), '후보'(14위) 등의 정치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정치 지형 변화가 비지역 언론보도의 주요 관찰 대상으로 부각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

위상 변화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키워드로서, 수원에 대한 정치적 재조명이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19의 직접적 반영되었으며, 4시기에는 '코로나'가 30위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수원에서 발생한 감염병 관련 보도 또는 방역 정책, 집단 감염 사례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3) 수원 지역 언론과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비교분석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수원', '경제',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시기에 걸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도의 출처와 무관하게 수원 자체가 중심 주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 이슈가 지역 현안 보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원'은 4개 시기 모두에서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단연 1위를 유지했으며, 비지역 언론에서도 2시기부터 4시기까지 1위를 차지하며 보도량 기준으로도 중심적인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와 '지역'은 양 언론 모두에서 전 시기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차지하였다. 이는 경제 담론이 단순히 경제발전 또는 기업 유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정체성, 공간 변화, 산업 구조 개편 등의 다양한 담론 구조와 결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2020년대(4시기)에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관련 키워드가 양측 모두에서 새롭게 상위권에 등장하였으며,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24위, 비지역 언론에서는 30위로 진입하였다. 이는 COVID-19라는 범사회적 위기가 지역과 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 보도 아젠다로 작용했음을 반영하며, 감염병 대응, 방역 정책, 집단 감염 사례 등 수원 내 코로나 이슈가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첫째, 보도 관점과 강조 주제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났다. 수원 지역 언론은 지역 정체성과 행정 리더십 이슈에 밀착된 보도 성향을 보였다. '시장', '의원', '도시', '시민', '의회' 등 지역 정치와 주민 참여에 밀접한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포진했으며, 이는 지역 내 리더십, 의사결정,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보도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시장'은 모든 시기에서 5~7위권을 유지했고, '의원'과 '시민' 역시 꾸준히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반면 비지역 언론에서는 '정부', '정책', '행정', '지원' 등 제도 중심 · 거시 담론이 강조되었다. '서울'이 3시기에는 2위까지 상승했고, '정책', '정부'는 전 시기에서 상위권을 유지하

였다. 이는 수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이 자율적 주체로서의 수원이 아닌, 국가 정책 및 수도권 구조 내 하나의 행정 단위로 수원을 다루는 경향을 반영한다.

둘째, 강조 주제의 차이에서 정치 이슈와 제도 변화의 접근 방식이 두드러졌다. 양측 모두에서 정치 관련 키워드가 등장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수원 지역 언론은 '한나라당'(2시기 14위), '민주당'(3시기 25위 → 4시기 8위), '특례시'(4시기 9위) 등 정당 중심의 변화와 지방자치 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위상 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특례시 지정, 선거구 개편, 정당 공천 이슈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가 언론 담론의 핵심으로 다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지역 언론에서는 '특례시'(4시기 18위), '민주당'(4시기 12위), '의회'(4시기 6위), '후보'(4시기 14위) 등의 키워드가 제도 변화의 결과보다는 정치권 동향이나 정책 결정 프레임으로 보도되었다. 즉, 정책의 기원과 추진 주체(정당, 정부)에 초점을 맞춘 보도 성향이 강하며, 수원시 자체보다는 정치적 흐름의 일부로 수원을 조명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공간 이슈의 차이로 도시개발과 서울 중심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 키워드는 양측 모두에서 상위권에 유지되었으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도시 개발과 공간 변화에 대한 내재적 관심이 강하게 반영되며, 1시기(12위) → 2시기(8위) → 3시기(6위) → 4시기(10위)로 안정적인 관심 지속이 확인된다. 반면 비지역 언론에서는 '서울' 키워드가 3시기 2위, 4시기 6위를 기록하며, 수원을 서울과 대비하거나 연결지어 설명하는 수도권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비지역 언론이 수원 지역의 도시성 자체보다는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확장'의 맥락 속에서 도시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TF-IDF 분석결과

(1) 수원 지역 언론 분석결과

〈표 3〉 TF-IDF 분석결과표(수원 지역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	수원	86.98936	1	수원	108.5244	1	수원	270.2011	1	수원	191.3419
2	경제	75.80416	2	경제	79.46597	2	경기	183.3956	2	경기	142.541
3	지역	67.06762	3	지역	69.66699	3	경제	155.2801	3	의회	88.9116
4	경기	46.0405	4	경기	62.08277	4	지역	134.2176	4	경제	85.24244
5	후보	39.23204	5	후보	45.6679	5	시장	126.2822	5	지역	83.83816
6	시장	35.47766	6	의원	43.86633	6	도시	104.9332	6	시장	78.51556
7	지방	33.47259	7	시장	42.98788	7	의원	97.52081	7	후보	72.16921
8	금융	32.98891	8	도시	39.12498	8	의회	93.34284	8	민주당	61.37571
9	의원	32.0668	9	도지사	37.43985	9	후보	92.88099	9	특례시	61.32853
10	시민	30.56067	10	기업	34.8264	10	사업	91.58045	10	도시	59.14566
11	사회	30.33089	11	수도	32.33309	11	기업	89.90389	11	의원	57.56593
12	선거	26.0276	12	사업	30.50585	12	사회	89.06121	12	시민	55.14537
13	지점	25.98793	13	문화	30.13227	13	지원	75.89503	13	기업	51.33557
14	도시	25.87519	14	정부	30.09332	14	시민	74.19218	14	도지사	48.4927
15	중소기업	25.65264	15	한나라당	29.70455	15	지방	66.2751	15	사업	45.29949
16	문화	25.04311	16	지방	28.99911	16	도지사	66.04629	16	선거	42.9584
17	도지사	24.37677	17	지원	28.99175	17	선거	65.96936	17	사회	42.77393
18	대통령	24.04533	18	정책	27.54299	18	센터	64.16334	18	제공	42.55979
19	지원	23.99507	19	시민	27.19873	19	문화	64.14463	19	지원	40.9512
20	정부	23.60357	20	월드컵	26.00521	20	중소기업	62.67903	20	코로나	40.88374
21	기업	23.35508	21	의회	25.94382	21	정책	61.8776	21	기관	40.71753
22	수도	23.14082	22	위원장	24.76616	22	정부	61.85241	22	국민	39.78916
23	서울	22.68717	23	개발	24.17413	23	위원회	58.37209	23	정책	38.37453
24	참석	22.61994	24	회장	24.04485	24	대표	57.90878	24	지방	37.4216
25	개발	22.55933	25	선거	23.88955	25	일자리	57.59507	25	정부	37.07773
26	의회	22.26191	26	추진	23.67939	26	민주당	56.48956	26	공공	35.8439
27	대회	22.10295	27	대표	23.6463	27	개최	55.98521	27	총선	34.16076
28	발전	21.93122	28	행정	22.78359	28	추진	52.21886	28	대표	34.05887
29	행정	21.42223	29	교육	22.63718	29	산업	49.89412	29	센터	33.07728
30	정치	20.30096	30	사회	21.92635	30	한국	49.67355	30	위원회	32.8966
31	기관	19.97166	31	방문	21.64668	31	위원장	49.3123	31	사진	32.68102
32	사업	19.84576	32	단체	20.96087	32	교육	48.64855	32	미래	31.88575
33	개최	19.81142	33	위원회	20.82993	33	화성	46.33972	33	도지사	30.58005
34	운동	19.54225	34	산업	20.70035	34	활성	45.71832	34	문화	30.01704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35	업체	19.31035	35	여성	20.52351	35	본부	45.5748	35	남부	29.63806
36	시대	18.72446	36	대회	20.50811	36	개발	44.30534	36	위원장	29.19495
37	은행	18.43657	37	개최	19.88309	37	행사	43.24787	37	국회	28.81454
38	국민	18.27771	38	정치	19.73877	38	행정	42.38065	38	민선	28.51808
39	추진	18.1524	39	한국	19.54114	39	발전	42.24426	39	추진	28.36586
40	교육	18.13284	40	센터	18.96742	40	정치	42.2337	40	공항	28.29466
41	한국	18.04301	41	중소기업	18.70082	41	기관	41.77359	41	특례	28.04567
42	생활	17.92341	42	발전	18.62404	42	회장	41.16753	42	예비	27.3692
43	회장	17.69041	43	화성	18.50713	43	국회	41.10366	43	화성	27.28829
44	산업	17.59146	44	계획	18.39164	44	주민	40.97825	44	청년	26.96238
45	대표	17.25212	45	국회	18.303	45	전통	40.5013	45	정치	26.79557
46	건설	17.10839	46	민주당	18.14605	46	협력	39.22346	46	의장	26.65321
47	실시	16.93297	47	활성	18.02593	47	수도	39.21792	47	유치	26.16336
48	대책	16.65931	48	본부	18.01281	48	참석	38.05361	48	수도	26.0519
49	환경	16.47238	49	총선	17.43793	49	계획	37.90474	49	공약	25.72414
50	활동	16.46942	50	업체	17.10921	50	대회	37.07298	50	행정	25.68356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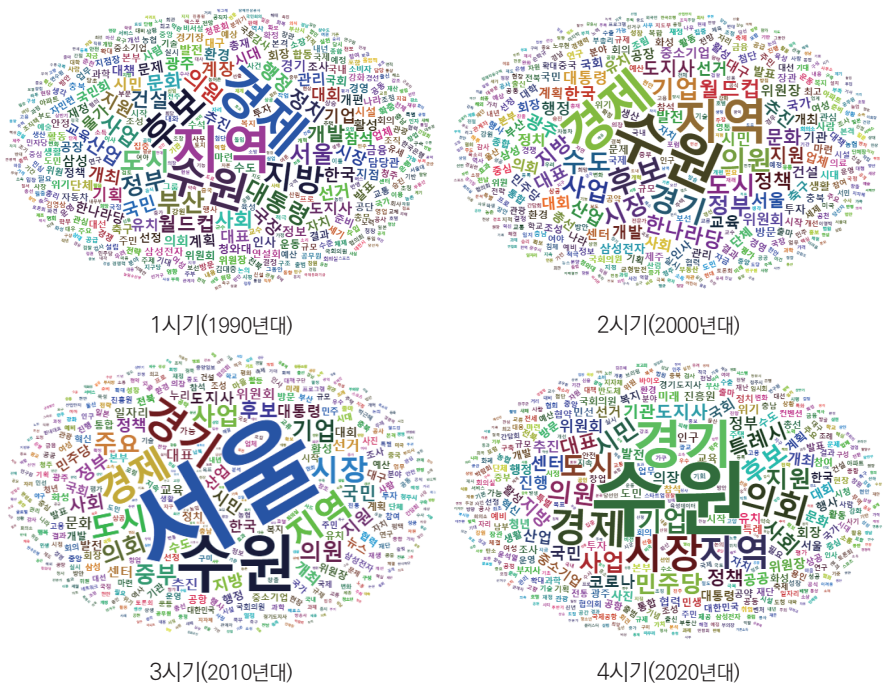
〈그림 5〉 TF-IDF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언론)

(2)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표 4〉 TF-IDF 분석결과표(수원 지역 외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1	지역	24.33292	1	수원	106.3626	1	서울	448.5492	1	수원	207.7643
2	경제	24.21003	2	경제	92.21398	2	수원	273.4977	2	경기	130.7492
3	수원	20.55454	3	지역	87.20118	3	경기	186.2009	3	시장	102.6383
4	후보	17.55616	4	후보	55.75686	4	경제	166.8593	4	경제	100.6605
5	지방	14.85953	5	경기	55.27068	5	지역	149.7097	5	지역	92.32037
6	도시	12.21051	6	의원	48.62822	6	도시	130.2971	6	의회	85.97058
7	부산	11.65303	7	도시	46.54974	7	시장	129.7784	7	도시	71.60384
8	대통령	11.17986	8	수도	45.9612	8	사업	105.9747	8	기업	65.30457
9	정부	10.92515	9	기업	44.71351	9	주요	102.0805	9	후보	63.07231
10	서울	10.72301	10	시장	44.50826	10	의회	99.81519	10	의원	62.60688
11	의원	10.05697	11	사업	44.3397	11	기업	99.69354	11	시민	61.08709
12	사업	9.795055	12	정부	40.72132	12	의원	98.67468	12	사업	59.81059
13	정치	9.61283	13	월드컵	38.01414	13	중부	94.98938	13	지원	59.35642
14	건설	9.312548	14	한나라당	37.11457	14	후보	85.84235	14	민주당	58.4934
15	개발	9.299178	15	지방	35.87509	15	사회	78.86219	15	특례시	52.38737
16	사회	9.293687	16	정책	35.74638	16	국민	78.72152	16	사회	51.86723
17	월드컵	9.238005	17	문화	33.21038	17	정부	76.93987	17	대표	49.30263
18	산업	9.124668	18	도지사	32.67842	18	지원	75.88585	18	정책	47.29216
19	문화	8.638966	19	대표	32.66381	19	시민	70.64296	19	도지사	45.08809
20	행정	8.540358	20	지원	32.65789	20	지방	68.02469	20	지방	44.62086
21	국민	8.367908	21	산업	32.15911	21	정책	67.94911	21	센터	44.36948
22	지원	8.236395	22	추진	31.53839	22	도지사	65.76389	22	기관	41.57017
23	계장	8.173742	23	서울	31.49375	23	대통령	65.63694	23	국민	40.81245
24	국장	7.98207	24	광주	31.28444	24	산업	63.79602	24	코로나	40.23516
25	개최	7.888049	25	한국	30.11117	25	한국	62.85856	25	진행	38.23923
26	한국	7.807019	26	개발	28.85248	26	대표	61.27476	26	정부	37.83239
27	기업	7.800701	27	선거	28.82442	27	개최	60.6614	27	위원회	37.48724
28	시장	7.75164	28	교육	28.72845	28	선거	60.21501	28	산업	37.16782
29	선거	7.647311	29	대통령	27.74591	29	문화	59.95638	29	개최	36.12642
30	기획	7.635522	30	시민	27.66123	30	추진	59.56646	30	국회	35.22663
31	대회	7.284293	31	행정	27.16141	31	센터	58.41266	31	추진	34.99325
32	대표	7.197532	32	대회	26.79413	32	위원회	57.88552	32	의장	34.11472
33	물가	7.152612	33	정치	25.94476	33	민주당	56.79745	33	공공	33.57627
34	시민	7.129276	34	발전	25.55181	34	국회	53.02112	34	선거	32.98951
35	광주	7.077384	35	위원회	25.49776	35	교육	51.63758	35	중소기업	31.9994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연번	단어	빈도수
36	관리	6.996845	36	건설	25.08293	36	수도	51.29536	36	회장	31.77754
37	참석	6.935522	37	유치	25.08076	37	일자리	51.0464	37	위원장	31.70123
38	도지사	6.926002	38	위원장	24.98395	38	발전	50.81483	38	문화	31.32335
39	추진	6.832794	39	사회	24.89613	39	대회	49.94539	39	대회	30.86853
40	유치	6.77665	40	의회	24.82183	40	뉴스	49.18136	40	발전	30.6757
41	시대	6.684072	41	대구	23.61856	41	정치	48.01673	41	계획	29.97524
42	계획	6.613274	42	중소기업	23.14052	42	활성	47.87742	42	유치	29.54938
43	문제	6.386977	43	계획	23.07194	43	행정	47.39332	43	대통령	29.44961
44	환경	6.371528	44	센터	23.00996	44	누리	46.77706	44	사진	29.11748
45	경기	6.280095	45	국가	22.90389	45	대구	45.62851	45	한국	28.96751
46	삼성	6.249997	46	기관	22.86053	46	위원장	44.10208	46	행정	28.87402
47	교육	6.132828	47	공장	22.81041	47	통합	44.0447	47	도민	28.84442
48	한나라당	6.079132	48	축구	22.7327	48	개발	43.98683	48	행사	28.67117
49	정보	5.986222	49	총선	22.40901	49	공항	43.06729	49	협력	28.63722
50	자치	5.963354	50	개최	22.31765	50	본부	42.43691	50	인구	28.30318



〈그림 6〉 TF-IDF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외 언론)

TF-IDF 분석결과, 우선 수원 지역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워드클라우드의 분석결과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간략하게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수원 지역 언론의 시기별 키워드 순위 분석결과는, 보도 주제가 특정 이슈에 대한 지속성과 시기별 반응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원', '경제', '지역'과 같은 구조적 키워드는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역 보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시장', '의원', '도시'는 지역 정치 및 행정의 변화를 담아내는 주요 보도 범주로 작동해 왔다. 또한 2020년대에는 '코로나', '특례시', '민주당' 등의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외생적 위기 요인과 제도적 전환 이슈가 언론 담론에 빠르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 내부 변화뿐 아니라 국가적 정책 변화와 외부 위기 요인에 대해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원 지역 외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찰과 해석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준다. '수원'과 '경제'는 지속적으로 보도 핵심 주제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서울'이 상위에 등장하면서 수원 보도가 수도권의 일부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와 '특례시' 등 시대적 · 제도적 변화에 따른 키워드가 상위권에 진입, 국가적 의제와 지역 이슈가 결합된 새로운 보도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N그램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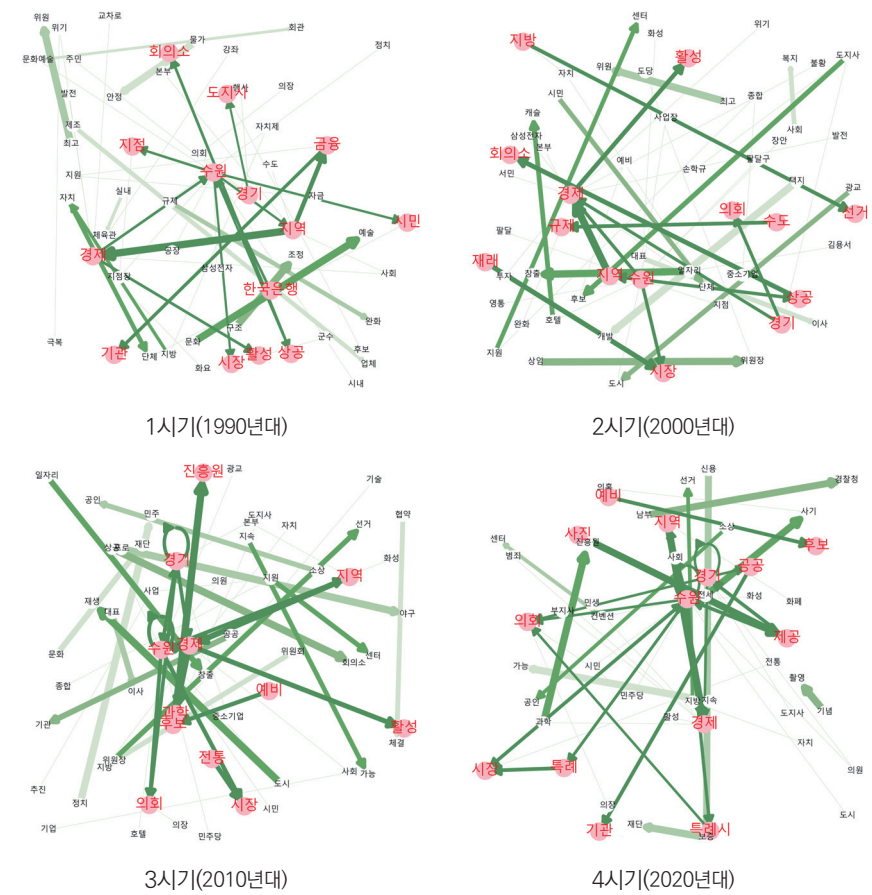
(1) 수원 지역 언론 분석결과

〈표 5〉 N그램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N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1	지역	경제	369	지역	경제	195	경기	의회	550	수원	특례시	646
2	수원	지점	191	수원	지역	119	수원	시장	413	경기	의회	606
3	한국은행	수원	127	경기	의회	112	지역	경제	357	공공	기관	264
4	경제	활성	93	경제	활성	101	전통	시장	334	수원	특례	262
5	금융	기관	92	수원	시장	81	경제	과학	318	특례	시장	261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N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6	상공	회의소	83	상공	회의소	80	경제	활성	274	예비	후보	247
7	수원	시민	79	재래	시장	73	경기	경제	272	수원	시장	242
8	수원	지역	76	수도	규제	68	과학	진흥원	237	사진	제공	240
9	수원	시장	65	수원	경제	67	예비	후보	229	경기	경제	214
10	경기	도지사	63	지방	선거	67	수원	지역	227	지역	경제	182
11	지방	자치	61	규제	완화	63	지속	가능	225	전세	사기	173
12	경제	발전	55	수원	호텔	61	지방	선거	215	경기	도지사	167
13	수원	지점장	48	지원	센터	61	일자리	창출	212	경제	과학	144
14	수원	상공	48	호텔	캐슬	56	수원	화성	211	지방	선거	144
15	경제	위기	48	수원	화성	53	지원	센터	210	소상	공인	141
16	문화	예술	46	지방	자치	53	수원	의회	204	과학	진흥원	139
17	경제	사회	45	수원	상공	51	경기	도지사	201	수원	지역	138
18	시민	단체	45	도지사	후보	51	사회	경제	196	지역	화폐	137
19	경기	의회	45	수원	영통	50	수원	시민	177	수원	시민	134
20	금융	지원	42	일자리	창출	50	도시	재생	161	수원	수원	124
21	정치	경제	40	시민	단체	50	지역	본부	157	제공	수원	118
22	지역	사회	39	수원	장안	49	상공	회의소	157	기념	촬영	112
23	지역	금융	38	손학규	도지사	48	수원	수원	148	남부	경찰청	112
24	구조	조정	36	자치	단체	46	수원	호텔	147	의회	민주당	110
25	지방	자치제	35	종합	지원	46	사회	기업	136	경제	활성	106
26	지역	본부	34	상임	위원장	45	민주당	수원	129	경기	공공	106
27	수원	공장	33	김용서	수원	45	과학	기술	127	지방	자치	104
28	위기	극복	32	경제	투자	45	공공	기관	126	특례시	의회	104
29	삼성전자	수원	31	경기	경제	43	도지사	후보	125	민주당	수원	99
30	화요	경제	31	광교	도시	43	수원	경제	123	경제	부지사	99
31	최고	위원	31	서민	경제	42	수원	상공	122	경제	범죄	97
32	경제	강좌	31	경제	단체	42	경기	수원	118	보증	재단	96
33	지역	주민	30	중소기업	종합	41	대표	이사	117	신용	보증	95
34	자금	지원	30	최고	위원	41	지방	자치	116	컨벤션	센터	94
35	지점	지점장	30	경제	불황	40	수원	경기	109	수원	전세	93
36	행사	경기	29	예비	후보	40	소상	공인	108	시장	수원	88
37	수원	시내	29	경제	위기	39	도시	수원	102	수원	컨벤션	86
38	경제	교차로	29	지역	본부	39	지원	사업	102	수원	화성	85
39	시장	군수	29	경제	발전	37	의회	의장	101	전통	시장	82
40	규제	완화	29	수원	팔달구	37	프로	야구	98	의회	의장	82
41	의회	의장	29	도시	수원	37	경기	경기	98	경기	경기	80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N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42	실내	체육관	28	수원	사업장	37	문화	재단	95	수원	의회	80
43	경제	수원	28	도당	위원장	36	위원회	위원장	94	사기	의혹	80
44	경기	문화예술	28	경기	도지사	35	사업	추진	93	경기	의원	78
45	문화예술	회관	28	대표	이사	35	경기	중소기업	92	민생	경제	75
46	제조	업체	28	사회	복지	34	의원	수원	91	지속	가능	75
47	물가	안정	27	수원	지점	33	수원	광교	90	사회	경제	75
48	도지사	후보	27	삼성전자	수원	33	협약	체결	89	의원	수원	74
49	자치	단체	27	택지	개발	32	종합	지원	88	제공	경기	74
50	수도	지역	27	수원	팔달	32	정치	민주	88	수원	도시	71



〈그림 7〉 N그램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언론)

(2) 수원 지역 외 언론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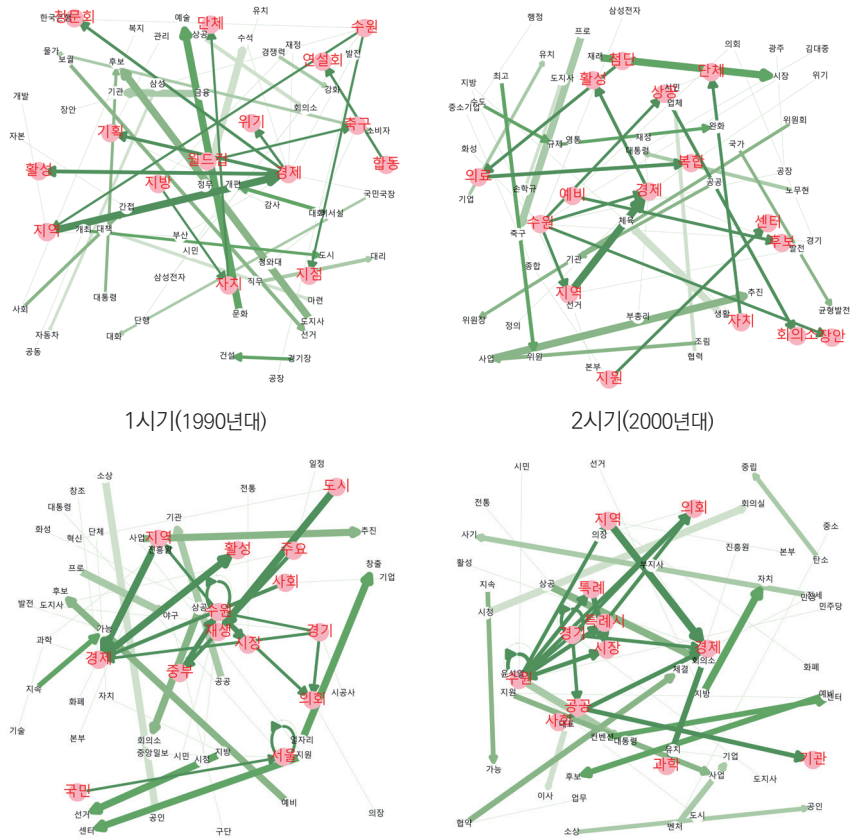
〈표 6〉 N그램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외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N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1	지역	경제	112	지역	경제	276	서울	서울	864	경기	의회	427
2	경제	활성	46	경제	활성	114	중부	수원	842	수원	특례시	329
3	지방	자치	37	첨단	의료	91	주요	중부	801	수원	시장	299
4	자치	단체	30	예비	후보	90	경기	의회	560	지역	경제	242
5	합동	연설회	25	수원	지역	82	국민	서울	377	경기	경제	229
6	월드컵	축구	24	자치	단체	81	지역	경제	360	특례	시장	218
7	경제	기획	20	지원	센터	79	수원	시장	344	사회	경제	208
8	경제	청문회	19	의료	복합	79	사회	경제	262	수원	특례	205
9	경제	위기	19	수원	장안	74	경제	활성	246	공공	기관	204
10	수원	지점	19	상공	회의소	71	도시	재생	233	경제	과학	181
11	개최	도시	19	재래	시장	70	수원	의회	230	전통	시장	180
12	경기장	건설	18	지방	자치	69	경제	과학	230	컨벤션	센터	178
13	비서실	개편	17	수원	영통	68	지속	가능	225	과학	진흥원	178
14	문화	예술	17	재정	경제	68	경기	경제	201	수원	의회	166
15	수원	공장	17	수도	규제	63	전통	시장	188	예비	후보	160
16	월드컵	유치	16	최고	위원	58	지원	센터	183	수원	컨벤션	157
17	수원	지역	16	지역	발전	58	지방	선거	179	경제	활성	147
18	수원	시민	16	수원	시장	57	일자리	창출	178	수원	수원	146
19	한국은행	수원	16	경기	수원	56	서울	대통령	172	지방	자치	140
20	경제	발전	15	규제	완화	55	수원	수원	171	수원	지역	138
21	재정	경제	15	시민	단체	54	과학	진흥원	169	경기	수원	137
22	사회	간접	15	조림	사업	53	지방	자치	166	수원	시민	133
23	청와대	비서실	15	지역	본부	52	수원	화성	164	지속	가능	131
24	삼성전자	수원	15	공공	기관	51	수원	지역	163	협약	체결	128
25	지역	개발	14	수원	경제	50	경기	수원	163	시장	수원	128
26	도지사	후보	14	수원	공장	48	상공	회의소	145	지원	사업	125
27	보궐	선거	13	사업	추진	47	사업	추진	143	특례시	의회	113
28	대통령	후보	13	수원	화성	47	경기	도지사	136	경제	부지사	113
29	개편	단행	13	위원회	위원장	45	예비	후보	136	지역	화폐	111
30	부산	경제	13	국가	균형발전	45	중앙일보	서울	123	상공	회의소	101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N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단어A	단어B	강도
31	지방	재정	13	경기	의회	44	창조	경제	115	윤석열	대통령	100
32	사회	복지	13	수원	상공	44	프로	야구	112	벤처	기업	99
33	직무	대리	12	수원	의회	44	지역	화폐	105	의회	의장	97
34	기획	감사	12	종합	지원	44	의회	의장	105	민생	경제	96
35	경쟁력	강화	12	노무현	대통령	43	주요	일정	104	소상	공인	93
36	소비자	물가	12	지방	선거	43	수원	시민	103	탄소	중립	92
37	수원	장안	11	프로	축구	43	공공	기관	103	경기	도지사	90
38	국민	대화	11	기업	유치	39	지역	본부	102	업무	협약	90
39	경제	국장	11	행정	수도	39	수원	시청	97	민주당	수원	90
40	금융	기관	11	광주	공장	38	수원	상공	96	전세	사기	90
41	경제	수석	11	경제	부총리	38	사회	기업	95	수원	도시	87
42	간접	자본	11	생활	체육	38	도지사	주요	94	기업	유치	86
43	기획	관리	11	경제	발전	37	자치	단체	93	중소	벤처	85
44	정무	수석	11	손학규	도지사	37	소상	공인	93	지역	본부	82
45	공동	개최	11	경제	위기	36	지원	사업	92	경기	공공	81
46	축구	대회	11	김대중	대통령	36	경기	시공사	91	시청	회의실	80
47	대책	마련	11	중소기업	종합	36	야구	구단	91	지원	센터	80
48	상공	회의소	11	삼성전자	수원	35	가능	발전	91	지방	선거	79
49	부산	지역	10	경제	정의	35	혁신	도시	89	대표	이사	77
50	삼성	자동차	10	협력	업체	35	과학	기술	88	경기	경기	77

N그램 분석결과, 우선 수원 지역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강한 공동 출현 강도를 보였다. 1시기(369), 2시기(195), 3시기(357), 4시기(182)로, 수치상 강도는 감소했지만, 전체 공동 출현 네트워크 내 영향력은 여전히 중심적이었다. 이는 수원 지역 언론보도에서 '지역 경제'라는 구조적 담론이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원－시장' 역시 1시기(65), 2시기(81), 3시기(413), 4시기(242)로 강도 상승을 보이며, 지방선거 및 자치단체장 중심 보도 흐름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3시기에는 선거 및 리더십 관련 보도가 집중되면서 강도 상승이 극대화되었다. 제도 변화 반영: '수원－특례시', '특례－시장' 등의 신규 결합으로 4시기에는 '수원－특례시'(646), '특례－시장'(261), '수원－특례'(262) 등 특례시 관련 키워드



〈그림 8〉 N그램 분석결과 시각화(수원 지역 외 언론)

들의 강한 공동 출현이 나타났다. 이는 2020년대 들어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해당 정책 변화가 보도 키워드 구조 전반을 재구성했음을 의미한다. 단일 개념(특례시)이 복수 키워드와 연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담론의 중심축이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산업 · 과학 프레임의 확장: '경제 – 과학', '과학 – 진흥원'의 연결 강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3시기부터 '경제 – 과학'(318), '과학 – 진흥원'(237), 4시기에서는 '과학 – 진흥원'(139), '경제 – 과학'(144) 등의 연결이 등장하면서, 산업 · 기술 기반의 지역 경제 발전 담론이 강화된 것이 관찰된다. 특히 3시기에는 과학기술 진흥 관련 기관 및 정책이 수원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 경제에서 기술 기반 산업 경제로 담론이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맥락의 변화로 '예비 – 후보', '의회 – 민주당', '민주당 – 수원'의 연결 강도가 높게 도출되었으며, 3시기부터 '예비 – 후보'(229)와 같은 선거 준비 관련 키워드가 강하게 연결되며, 정치 일정과 보도의 강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4시기에는 '의회 – 민주당'(110), '민주당 – 수원'(99) 등의 연결도 확인되며, 정당 중심 보도가 증가하고, 정치 담론 구조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공공 – 기관', '지원 – 센터', '소상 – 공인'의 연결 강도에서 공공성 키워드의 부상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공공기관 관련 키워드의 공동 출현도 시기별로 강화되었다. '공공 – 기관'은 3시기(126) → 4시기(106)로 지속적 상위권에 유지되며, '지원 – 센터'(210), '소상 – 공인'(141) 등 지역 내 공공지원 기반 정책이 언론보도의 핵심 연결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특히 코로나19와 맞물려 정책 전달 기능으로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남부 – 경찰청', '전세 – 사기'의 연결 강도에서는 사건성 보도와 범죄 이슈 관련 연결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제 · 행정 중심 담론 외에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회문제, 공공안전 등의 보도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원 지역 외 언론 분석결과에서는 초창기 '지역 – 경제' 중심의 보편적 담론 구조(1~2시기)가 도출되었다. 1시기와 2시기의 가장 강한 공동 출현 단어쌍은 모두 '지역 – 경제'였다. 1시기(112), 2시기(276)로, 비지역 언론에서도 수원에 대한 보도를 지역 경제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보여 준다. 이 외에도 '지방 – 자치', '자치 – 단체' 등의 조합은 수원의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 – 활성', '경제 – 기획', '경제 – 발전'과 같은 단어쌍은 국가 경제 구조 속 수원의 위치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수원 자체보다는 매크로한 정책 담론의 하위 단위로서 수원이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3시기(2010년대): '서울 – 서울', '중부 – 수원', '경기 – 의회' 등 대도시 연계 프레임이 부상하였다. 3시기부터는 공동출현 강도 상위권에 '서울 – 서울'(864), '중부 – 수원'(842), '주요 – 중부'(801) 등이 등장하며, 수원 보도가 서울 및 중부권 중심의 권역 프레임 속에서 처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수원 – 시장'(344), '수원 – 의회'(230), '지방 – 선거'(179) 등의 등장으로, 정치 행정 리더십 담론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 – 과학'(230), '과학 – 진흥원'(169), '창조 – 경제'(115) 등은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 산업 육성 프레임 속에서 수원이 함께 호명되었음을 시사한다. 4시기(2020년대)에는 '수원 – 특례시', '특례 – 시장' 등 특례시 전환 담론의 중심화되었다. 4시기에는 '수원 – 특례시'(329), '특례 – 시장'(218), '수원 – 특례'(205) 등이 공동출현 상위권에 위치하며, 수원의 제도적 위상 변화가 비지역 언론보도에서 핵심 담론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비지역 언론도 단순한 지역 소식을 넘어, 수원의 제도 전환을 국가적 관점에서 의미화했음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또한 '공공 – 기관'(204), '경제 – 과학'(181), '사회 – 경제'(208), '소상 – 공인'(93), '지원 – 센터'(80)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성과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도 공동출현 키워드로 나타난다. 즉, 비지역 언론은 수원을 제도적 실험 도시이자 공공정책 실현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수원 지역 언론과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비교분석

단일 키워드 빈도 기반의 워드클라우드보다, N-gram 분석은 핵심 키워드들이 어떤 이슈 문맥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지속 가능' 등의 결합어는 특정 시기의 정책 담론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N-gram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의 해석적 축을 설정하였다.

우선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모두 전 시기에서 '지역 – 경제' 키워드가 가장 강한 공동 출현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담론의 일관된 재생산이 확인되었다.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1시기(369)에서 4시기(182)까지, 비지역 언론에서는 1시기(112)에서 2시기(276)까지 '지역 – 경제'가 지속적으로 중심 키워드로 자리하였다. 이는 언론 유형과 관계없이 수원이 '지역 경제의 주요 단위'로 인식되며, 보도 내용이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4시기에는 양 언론 모두 '수원 – 특례시', '특례 – 시장', '수원 – 특례' 등의 키워드 조합이 강한 공동 출현 강도를 보이며 '특례시' 제도 도입에 대한 보도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원의 행정적 위상 변화가 지역 내부뿐 아니라 비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보도 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단일 키워드인 '특례시'가 '시장', '수원', '의회' 등 복수 키워드와 광범위하게 결합되면서, 담론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했음이 분석되었다. 둘째, 3시기 이후부터는 양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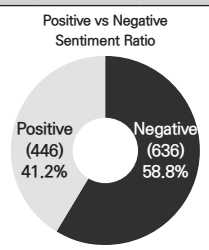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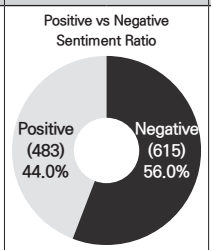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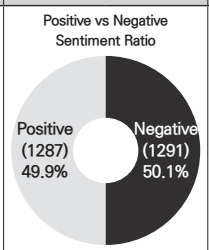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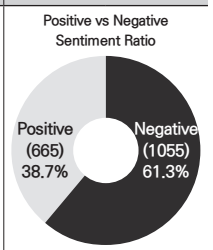
모두에서 '경제 – 과학', '과학 – 진흥원' 등의 키워드 결합이 확인되며, 산업기반 및 기술 중심 지역 경제 담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3시기(318), 4시기(144)에서 '경제 – 과학'이, 비지역 언론에서는 3시기(230), 4시기(181)에서 동일 조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과학 – 진흥원' 역시 양쪽 언론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이 수원 관련 보도에서 주요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수원이 반도체, 연구단지, 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첫째, 수원 지역 언론의 '정치 행정 리더십' 강조이다. 수원 지역 언론은 모든 시기에서 '수원 – 시장'의 공동출현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1시기 65 → 4시기 242), 특히 3시기에는 413으로 폭증하였다. 이와 함께 '예비 – 후보', '의회 – 민주당', '민주당 – 수원' 등의 정치 주체 중심 키워드 결합도 수원 지역 언론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이는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리더십, 정당정치 변화가 수원 지역 언론보도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다뤄졌음을 보여 준다. 지역 정치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은 지역 언론의 대표성과 대변 기능이 강하게 작동했음을 반영한다. 반면 비지역 언론의 경우, 정치 보도 역시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서울 – 서울', '중부 – 수원', '경기 – 의회' 등의 키워드처럼 수원이 외부 정치 행위자의 관찰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 – 서울'(864), '중부 – 수원'(842), '주요 – 중부'(801) 등의 조합은 수원이 서울 및 중부권 정치구조 속 하위 개념으로 보도되었음을 의미하며, 자체 정치 리더십보다는 지역 간 연계성이나 수도권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포지셔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비지역 언론의 '권역 프레임' 및 '거시적 정책 서사'이다. 비지역 언론에서는 3시기 이후 '서울 – 서울', '중부 – 수원', '경기 – 의회' 등 대도시 · 권역 중심 보도 프레임이 강화된 반면, 수원 지역 언론은 '수원 – 시장', '의회 – 민주당' 등 시 단위 정치 · 행정 보도가 두드러졌다. 이는 비지역 언론이 수원을 수도권의 일부, 혹은 정책 실험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며, 지역 언론은 보다 구체적인 주체와 이슈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비지역 언론은 '창조 – 경제', '국가 – 균형발전', '경제 – 활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거시 정책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수원이라는 지역 단위를 국가 정책 담론 안에서 통합적으로 서술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 구조적 분석 및 제도적 성과 프레임이 비지역 언론에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4) 감성 분석결과

(1) 수원 지역 언론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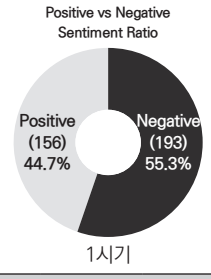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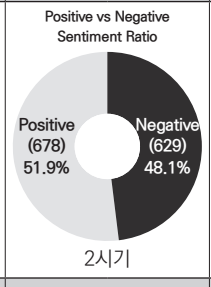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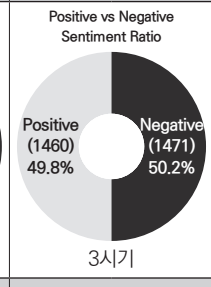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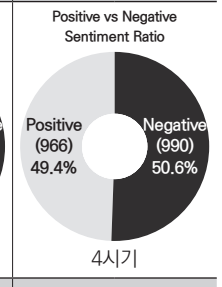
〈표 7〉 감성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발전	182	발전	152	발전	375	발전	201
2	안정	102	최고	81	우수	140	혁신	99
3	적극	73	성공	61	혁신	138	안전	85
4	기대	66	희망	60	희망	134	최고	71
5	감사	62	적극	54	기대	133	기대	71
6	최고	58	감사	49	최고	128	가치	67
7	개선	55	개선	47	전문가	128	성공	65
8	향상	51	전문가	44	성공	126	희망	63
9	우수	26	기대	41	개선	126	감사	62
10	희망	26	사랑	40	감사	125	적극	58
11	능력	23	안정	32	적극	122	전문가	58
12	소득	23	향상	28	행복	120	개선	57
13	명예	23	우수	26	안전	117	안정	53
14	성공	22	정상	24	가치	88	우수	48
15	사랑	22	도움	22	사랑	81	사랑	44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위기	100	위기	95	위기	120	위기	160
2	어려움	48	불황	93	갈등	86	범죄	109
3	부족	47	어려움	34	어려움	72	피해	92
4	불황	39	지지	31	피해	70	의혹	85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5	지지	37	부족	27	부족	61	어려움	79
6	위축	32	피해	27	범죄	54	비판	60
7	비난	31	부담	23	부담	52	재난	53
8	불편	30	소외	20	지지	49	갈등	52
9	불안	29	갈등	19	불편	46	지지	50
10	부진	25	고통	18	장애	44	장애	35
11	피해	25	최악	17	비판	43	부족	34
12	부정	20	불편	16	불황	41	부담	30
13	소외	20	위축	16	소외	40	불안	25
14	오염	19	장애	16	불안	32	바이러스	24
15	부담	18	부진	15	재난	27	걱정	21

(2)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표 8〉 감성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외 언론)

1시기(1990년대)			2시기(2000년대)		3시기(2010년대)		4시기(2020년대)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긍/부정 비율(중립 제외)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발전	52	발전	220	발전	413	발전	257
2	안정	35	최고	104	혁신	255	혁신	165
3	감사	30	개선	92	적극	152	성공	118
4	적극	23	기대	91	우수	149	안전	102
5	개선	23	적극	91	기대	142	가치	100
6	기대	21	전문가	69	최고	130	개선	88
7	최고	17	감사	68	개선	128	우수	87
8	소득	15	소득	59	성공	128	적극	83
9	사랑	13	가치	57	가치	125	기대	77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긍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0	승리	13	성공	55	희망	120	희망	66
11	성공	12	안정	49	행복	120	전문가	66
12	희망	11	희망	49	감사	117	안정	64
13	도움	9	사랑	48	안전	117	활력	64
14	전문가	8	혁신	45	안정	108	최고	63
15	안전	8	승리	38	전문가	94	사랑	62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위기	33	위기	94	위기	135	위기	194
2	부족	15	어려움	53	부족	87	범죄	83
3	지지	14	부족	49	어려움	78	어려움	82
4	비난	10	지지	44	갈등	74	피해	70
5	범죄	10	피해	43	의혹	72	재난	61
6	피해	9	범죄	29	피해	67	바이러스	44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부정단어	
연번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7	어려움	9	불황	27	범죄	67	의혹	42
8	장애	9	갈등	25	불법	57	부족	41
9	불법	8	부담	24	지지	51	장애	35
10	부심	8	비판	24	부담	47	부담	33
11	부상	7	비난	23	불안	41	지지	29
12	부담	7	부상	20	불편	39	경상	29
13	흥청	7	한계	19	흥청	38	갈등	28
14	걱정	7	소외	19	장애	36	불편	25
15	고통	6	부진	18	비판	35	소외	25

감성 분석결과, 우선 수원 지역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기별 긍 · 부정 비율 변화는 안정적인 긍정 중심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기에서 긍정 단어의 빈도수가 부정 단어보다 높게 나타나며, 수원 관련 보도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담론 구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3시기(2010년대)의 경우, 긍정 단어 '발전'(375), '우수'(140), '혁신'(138), '기대'(133), '감사'(125) 등 다수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며, 긍정 정서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이 도시 발전과 산업 · 기술 성장 중심의 보도 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4시기(2020년대)에는 부정 단어의 빈도수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긍정-부정 간의 균형성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160), '범죄'(109), '피해'(92), '의혹'(85) 등 사건성 및 사회문제 중심의 키워드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사회갈등, 범죄 보도 증가 등 외부 충격 요인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긍정단어의 시기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과 '기대'의 일관된 핵심성이 두드러졌다.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긍정 단어는 '발전'이었다. 1시기(182), 2시기(152), 3시기(375), 4시기(201)로, 수원 보도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도시 발전, 경제 성장, 사회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외에도 '기대'는 4시기까지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며, 지역 주민과 언론 모두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시기와 4시기에는 '혁신', '전문가', '성공', '안전', '가치' 등 산업기술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긍정 단어들이 새롭게 다수 등장했다. 이는 특례시 전환, 스마트시티 구축 등 도시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정서적 증거다.

부정단어의 시기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기'는 전 시기에서 부정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시기(100), 2시기(95), 3시기(120), 4시기(160)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시기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 불안정, 부동산 문제, 감염병 확산 등 복합적인 사회 · 경제적 위협이 언론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시사한다. 4시기에는 '범죄'(109), '피해'(92), '의혹'(85), '재난'(53), '장애'(35), '바이러스'(24) 등 사건성과 불확실성, 안전 이슈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 언론이 개인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안전, 사회갈등, 재난 이슈를 더 자주 다루고 있다는 증거로, 도시 담론이 발전 중심에서 생활 중심,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준다.

수원 보도의 감성적 경향은 시기별로 변해왔지만, 공통적으로 긍정 담론과 부정 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특정 사건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정서적 편중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3시기에는 '혁신', '우수', '안전' 등의 긍정 단어가 전면에 등장하며 긍정 프레임이 강화되었으나, 4시기에는 '위기', '범죄', '피해' 등의 단어가 부각되며 불안과 경계의 정서가 일부 보도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다층성은 지역 언론의 역할이 단순한 긍정 담론 생성에서, 문제 제기와 경고 기능까지 포

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시민 체감형 이슈에 대한 언론의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수원 지역 외 언론보도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단어의 빈도 분석결과 4개 시기 모두에서 '발전'은 긍정 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시기(52), 2시기(220), 3시기(413), 4시기(257)로, 수치적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준다. 이는 비지역 언론이 수원을 '성장 중인 도시', 혹은 발전 사례로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3시기와 4시기에서는 단순 경제발전뿐 아니라 정책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 프레임과 연결되며 긍정적 평가가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안정', '혁신', '기대', '성공', '안전', '가치' 등의 단어가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수원이 가진 제도적,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주류 언론의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다. 4시기에는 특히 '혁신'(165), '성공'(118), '안전'(102), '가치'(100), '활력'(64) 등 전문성과 실현가능성 중심의 단어들이 상위권에 자리잡으며, 수원이 '제도 전환의 모델 도시'로서 재조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단어 빈도 분석결과 '위기'가 모든 시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치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시기(33), 2시기(94), 3시기(135), 4시기(194)로 급증세를 보이며, 비지역 언론이 수원 관련 보도에서 위험 인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4시기에는 '범죄'(83), '피해'(70), '재난'(61), '바이러스'(44), '의혹'(42), '장애'(35) 등 사건성 및 위기적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회갈등, 지역 범죄 및 행정 문제 등 수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족', '어려움', '갈등', '부담', '지지' 등의 단어는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며, 수원이 구조적 한계를 지닌 도시로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긍 · 부정 정서의 비율 비교를 했을 시, 균형적 구조에서 부정 강화로의 이행이 두드러졌으며 전체적으로 비지역 언론보도의 정서적 경향은 긍정 중심 → 중립적 균형 → 부정 강화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3시기까지는 긍정 단어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시기에서는 부정 키워드의 총합이 긍정 키워드와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구간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원의 제도적 전환(특례시), 공공정책 적용(스마트시티), 재난 상황 대응(COVID-19) 등을 비판적, 점검적 시선에서 조망하는 비지역 언론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 수원 지역 언론과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비교분석

비지역 언론의 보도는 수원 지역 언론보다 사회적 사건, 정책 실패, 행정 위기 등 부정 정서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범죄', '의혹', '피해', '바이러스' 등은 수원 지역 언론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지만 비지역 언론에서는 상위권에 자주 등장하였다. 반면 수원 지역 언론은 '희망', '시민', '행복', '참여' 등 공동체 중심, 생활 밀착형 키워드의 사용이 뚜렷해, 정책 보도의 생활화 및 주민 중심 프레임이 강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보도의 주체와 수용자의 물리적 거리감, 보도의 목적성(설득 vs 감시), 뉴스 가치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언론정서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5) LDA토픽모델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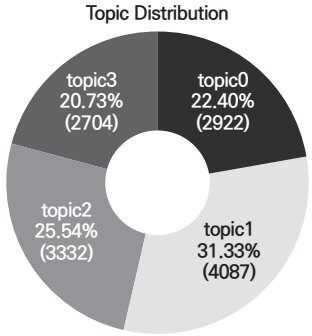
(1) 수원 지역 언론 분석결과

〈표 9〉 LDA토픽모델링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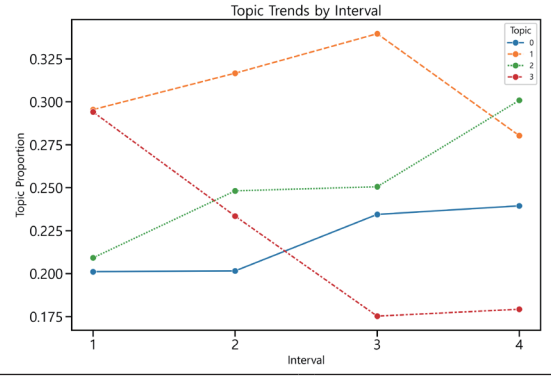
topic0 : 문화 및 시민사회	topic1 : 지역사회 및 지방발전
도시, 시장, 시민, 경기, 경제, 문화, 특례시, 행정, 사업, 협력, 추진, 위원회, 정책, 민선, 가능, 재단, 교류, 대회, 지속, 지역, 행사, 의회, 제공, 계획, 도지사, 특례, 발전, 일자리, 사진, 개최	경제, 경기, 지역, 사회, 기업, 사업, 산업, 센터, 지원, 개발, 교육, 수도, 한국, 화성, 남부, 여성, 진흥원, 과학, 유치, 투자, 미래, 정부, 청년, 발전, 서울, 개최, 지방, 계획, 시대, 포럼

topic2 : 입법 및 거버넌스	topic3 : 경제환경 및 위기 대응
경기, 의회, 후보, 의원, 민주당, 선거, 시장, 도지사, 지역, 위원장, 지방, 위원회, 국민, 총선, 정치, 대표, 공약, 예비, 경제, 국회, 국회의원, 의장, 정책, 출마, 정부, 전통, 대통령, 위원, 예산, 민주	경제, 지역, 지원, 경기, 기관, 중소기업, 기업, 상공, 공공, 회장, 본부, 코로나, 금융, 정부, 위기, 업체, 삼성전자, 사업, 개최, 공인, 활성, 대표, 신용, 회의소, 사회, 대책, 센터, 정책, 고용, 연합회

각 토픽별 비율



topic	count(건)	ratio(%)
0	2922	22.40
1	4087	31.33
2	3332	25.54
3	2704	2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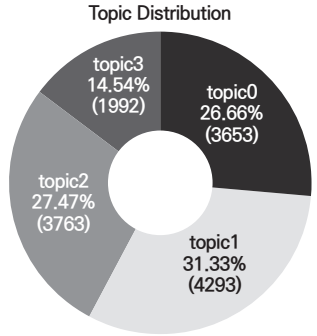
(2) 수원 지역 언론 외 분석결과

〈표 10〉 LDA토픽모델링 분석결과표 (수원 지역 외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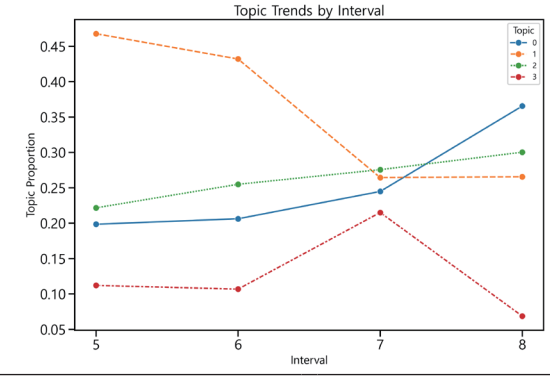
topic0 : 지방정치 및 행정 거버넌스	topic1 : 지역거점 도시
수원, 시장, 의회, 경제, 경기, 의원, 시민, 위원회, 지역, 민주당, 특례시, 위원장, 의장, 회장, 행정, 정책, 대표, 도시, 문화, 지방, 기획, 국회, 사회, 화성, 민선, 전통, 복지, 자치, 상공, 활동	지역, 후보, 경제, 정부, 지방, 수도, 선거, 민주당, 도지사, 산업, 광주, 수원, 대통령, 통합, 정치, 국민, 국가, 경기, 대구, 대표, 공항, 의원, 총선, 건설, 사업, 본부, 발표, 국회의원, 추진, 공약

topic2 : 과학기술 혁신	topic3 :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경기, 수원, 도시, 경제, 사업, 센터, 지원, 지역, 개최, 교육, 중소기업, 대회, 진흥원, 산업, 기관, 협력, 개발, 추진, 과학, 정책, 사회, 문화, 발전, 혁신, 활성, 계획, 재단, 진행, 행사, 기술	서울, 기업, 수원, 주요, 중부, 사회, 투자, 경제, 청년, 국민, 삼성전자, 지원, 한국, 유치, 수출, 삼성, 대통령, 대표, 경기, 고용, 정부, 프로, 부산, 사업, 업체, 미국, 시장, 일자리, 국내, 일본

각 토픽별 비율



topic	count(건)	ratio(%)
0	3653	26.66
1	4293	31.33
2	3763	27.47
3	1992	14.54



LDA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우선 수원 지역 언론 결과를 살펴보면 Topic 0은 '도시', '시민', '문화', '문화재', '전통', '행사', '공연', '예술', '센터', '전시',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인프라와 시민 참여와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은 수원 지역에서의 문화자원 활용과 시민사회 활동이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원시'와 연계된 지역문화 활성화, 전시 · 축제 등의 공공행사, 시민단체와 관련한 보도가 중심을 이루며, 지역 정체성의 강화 및 공동체 형성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지역 언론이 문화 기반 지역 발전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주요 보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opic 1은 '의회', '의원', '시장', '도지사', '정책', '공약', '발의', '예산', '민선', '자치', '민주당', '국회', '주민', '대표' 등의 정치 및 행정 관련 단어들이 주를 이룬다. 이 군집은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의회 활동,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 추진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원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지역 정치 구조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의 활동, 지방정당의 공약 이행, 주민 참여 기반의 지방 거버넌스 작동 방식 등이 포함되며, 지역 정치에 대한 감시와 비판뿐만 아니라 제도적 참여의 확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는 지역 언론이 정치 · 행정 권력의 흐름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중요한 보도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영한다.

Topic 2는 '경제', '기업', '산업', '고용', '창업', '중소기업', '상공', '유치', '투자', '일자리', '센터', '기관' 등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이 군집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고용 창출 등 민간경제 부문의 활력을 중심으로 한 보도 흐름을 나타낸다. 특히 창업지원, 산업육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 민간 주도의 시도가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담론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Topic 3은 '정책', '계획', '복지', '행정', '환경', '지속', '공공', '도시', '대응', '실천', '변화', '실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정책과 연계된 보도를 포괄한다. 특히 복지 확충, 환경보호,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삶의 질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공공정책이 지역 언론의 주요 관심사임을 시사한다. 이 군집은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적 정책 수행을 강조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능력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수원 지역 외 언론 분석결과, Topic 0은 '수원', '시장', '의회', '경제', '경기', '의원', '시민', '위원회', '지역', '민주당', '특례시', '위원장' 등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제도적 구조, 지역 정치 참여, 행정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진 보도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핵심 키워드 중 '시장', '의회', '의원', '위원회', '위원장', '의장', '행정', '정책', '국회', '자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과 의결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보도 경향을 나타낸다. '시민', '대표', '상공', '활동'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나 민간 부문의 의견 반영, 또는 단체 중심 활동과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당', '특례시', '도시', '지방', '민선', '기획', '복지' 등은 지방자치제도 변화, 정당 기반 지역정치, 도시 행정 기획 및 복지정책 등의 주제를 포함하며, 이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지방행정의 단위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 · 행정 실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례시', '민선', '의회', '자치' 등의

단어는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자치제도 변화에 대한 언론보도의 주목도를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Topic 0은 지방정치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 행정적 거버넌스 이슈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토픽으로 판단되며, 수원 지역을 둘러싼 정치 · 행정 주체들의 담론 형성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보도 흐름을 잘 보여 준다.

Topic 1은 '도시', '산업', '특례시', '거점', '지역', '도시재생', '복지', '경제', '공공', '지원', '고용', '시설', '중소기업',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이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부상하고 있는 담론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거점', '산업', '시설', '지원', '고용' 등의 단어는 산업 및 기반 시설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수원이 특정 산업 및 행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복지', '도시재생', '협력' 등은 지역 공공서비스 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비지역 언론의 관심을 반영한다.

Topic 2는 '국가', '중부', '수도권', '서울', '도시', '정책', '사회', '행정', '지방', '변화', '청년', '자치', '정치' 등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은 수원을 하나의 '지역현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간구조 변화 및 정치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서술하는 보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회', '제도', '정치', '중앙정부', '논의' 등의 단어들은 수원이 특정 정책 논쟁 또는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수원은 지방에 위치한 하나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구조 개편, 지방자치법 개정, 청년정책 분산 등의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담론에 자주 포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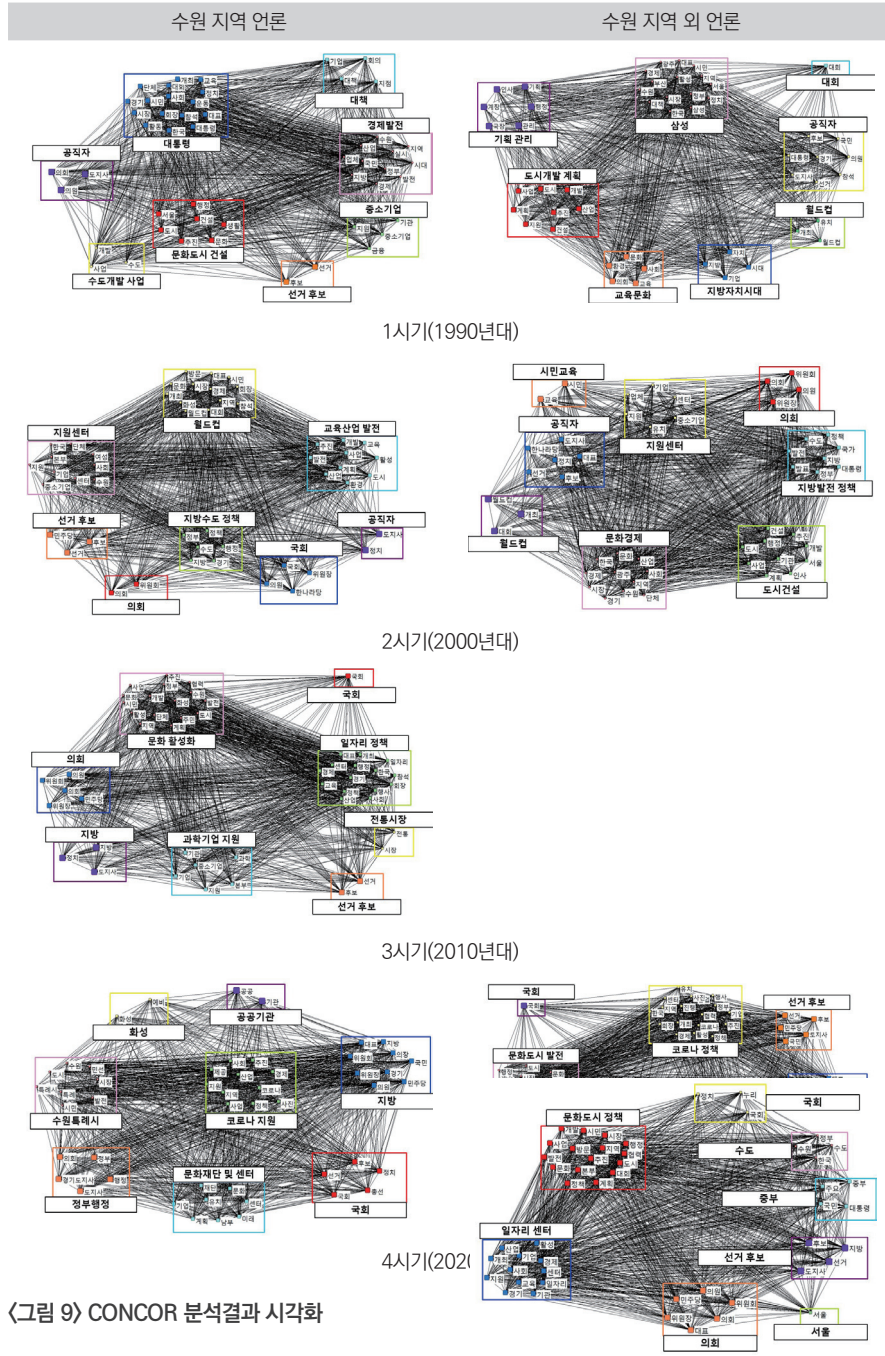
Topic 3은 '경제', '기업', '수원', '삼성전자', '지원', '센터', '유치', '산업', '활성', '기관', '중소기업', '센터', '연구', '기술', '창업', '혁신', '미래', '일본' 등 산업 활동 및 기업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삼성전자', '창업', '기술', '혁신' 등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연계된 단어들의 등장 빈도가 높으며, 이는 언론이 수원을 경제 성장의 거점도시, 특히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보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센터' 등의 키워드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 기업 지원의 교차 지점에서 수원이 주요한 정책 실현 공간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6) CONCOR 분석결과

CONCOR 분석결과, 1990년대 수원 지역 언론은 ‘대통령’, ‘중소기업’, ‘수도개발’, ‘선거후보’ 등 국가 단위 개발 정책 및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당시 수원이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도시 정체성 형성과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담론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에서는 ‘삼성’, ‘도시개발 계획’, ‘월드컵’, ‘지방자치시대’ 등 산업 중심 도시 수원의 이미지와 지방자치제도의 실험 도시로서 수원을 포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 외부 언론은 수원을 국가 경제 정책의 하위 단위로 위치시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교육산업 발전’, ‘월드컵’, ‘지방수도 정책’, ‘의회’ 등의 키워드가 높은 군집력을 보였다. 이는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 내 공공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한 담론이 주를 이뤘음을 보여 준다. 특히 ‘지원센터’, ‘공직자’, ‘문화재단’ 등의 등장으로 행정 기능의 강화와 시민 대상 서비스 확대 흐름이 강조되었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은 ‘문화경제’, ‘도시건설’, ‘지방발전 정책’, ‘시민교육’ 등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흐름 속에서 수원을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 도시로 묘사하며 정책 수혜지로서의 프레임을 유지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수원 지역 언론은 ‘문화 활성화’, ‘과학기업 지원’, ‘전통시장’, ‘의회’, ‘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 지역 발전과 시민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와 ‘과학기술’이 함께 군집된 구조는 복합적인 도시 발전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은 ‘중부’, ‘서울’, ‘수도’, ‘선거후보’, ‘일자리 센터’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수원을 수도권 보조도시, 또는 정책적 실험 도시로서 조망하는 시각을 유지하였다. ‘서울–수원’ 프레임이 강하게 부상하며 수도권 권역 연계성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림 9〉 CONCOR 분석결과 시각화

2020년대 수원 지역 언론에서는 ‘수원특례시’, ‘의회’, ‘공공기관’, ‘코로나 지원’, ‘문화재단’ 등 도시 위상 변화와 재난 대응,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도 양상이 나타났다. ‘특례시’와 관련된 키워드의 높은 군집력은 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며,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회복력 담론도 함께 형성되었다. 수원 지역 외 언론 또한 ‘수원–특례시’, ‘코로나 정책’, ‘공공기관’, ‘의회’ 등을 중심으로 수원의 제도적 위상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의미화하고 있었다. 특히 외부 언론은 수원을 공공성 확대와 지역 회복력 실험의 거점도시로 인식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 정책 실험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시기별 분석을 종합하면, 수원 지역 언론은 지역 주체 관점에서의 정체성과 실질 정책 수요에 대한 반영, 즉 삶의 질 개선, 행정 역량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중심의 보도 흐름을 강화해왔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은 국가 정책 실행 또는 실험도시로서 수원을 포지셔닝하며 정책 수혜와 제도 실험의 사례 도시로 주로 묘사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4시기)에는 양측 모두에서 ‘수원특례시’ 키워드의 군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도시 위상 전환과 관련된 정책 담론이 언론보도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공공기관’, ‘문화재단’, ‘지원’, ‘회복력’ 등의 키워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정책 방향성을 반영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련 언론보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 간 보도 내용 및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여 년에 걸쳐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 감성분석, N그램 분석, 토픽모델링(LDA), CONCOR 분석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원 지역 경제 담론의 변천 과정을 정량적이고 구조적으로 조망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이 수원 경제 이슈를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보도 키워드와 프레임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음을 밝혔다. 이는 언론의 지역성이 단순한 지리적 요인을 넘어서, 보도

관점과 독자 대상의 차이에 따라 언론 담론의 내용과 방향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향후 지역 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시,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의 담론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연구 결과, 첫째, 수원 지역과 수원 외 지역 언론 모두에서 ‘수원’, ‘경제’, ‘지역’과 같은 키워드가 모든 시기에 걸쳐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으며, 이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슈와 연결되어 조명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언론은 ‘시장’, ‘의회’, ‘시민’, ‘후보’, ‘지원’, ‘센터’, ‘문화’, ‘공공기관’ 등과 같이 실생활 밀착형 키워드와 지역정치 · 행정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수원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에 보다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는 ‘특례시’, ‘코로나’, ‘회복’, ‘공공’, ‘지원’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도시 위상 변화와 사회적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에서는 ‘정책’, ‘정부’, ‘서울’, ‘국회’, ‘경제’, ‘투자’, ‘유치’, ‘산업’, ‘대기업’, ‘창업’, ‘과학기술’, ‘중앙정부’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수원을 개별 도시로 보기보다는 수도권과 중앙정부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지로서 조망하는 프레임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수원–특례시’라는 키워드쌍은 지역 언론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 행정 권한 확대와 지역 거버넌스 재편과 연결된 반면, 외부 언론에서는 이를 중앙정치 문맥에서의 제도 개편 및 지방정책 사례로서 보도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보도 주체의 입장에 따라 수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상이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감성분석결과를 보면, 수원 지역 언론은 시기별로 비교적 긍정적 감성이 꾸준히 유지되며 ‘발전’, ‘기대’, ‘성공’, ‘혁신’, ‘안정’ 등의 긍정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 언론이 수원이라는 도시의 가능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원 지역 외 언론은 특정 시기에 ‘위기’, ‘불황’, ‘피해’, ‘갈등’, ‘의혹’ 등의 부정적 단어가 집중되어 등장하였으며, 이는 외부 언론이 수원을 구조적 위기나 사회문제 해결의 실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무적 시사점이다.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과의 근접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실생

활 밀착형 경제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도시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언론을 정책 전달 및 여론 수렴의 전략적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지역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수원이라는 도시가 수동적 보도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담론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와 정책홍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 제도 개편, 재난 상황 등 주요 국면에서는 보도 양상의 차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미디어 대응 역량의 내재화가 요구된다.

다음은 학술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언론보도 분석에 있어, 단순한 키워드 빈도 분석을 넘어 N-gram, 감성분석, LDA, CONCOR 등 정교한 알고리즘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담론 구조를 계량적으로 탐색하였다. 특히 시기별 변화와 담론의 맥락적 전이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시간적 축과 공간적 축이 결합된 지역 언론 분석의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사 유형(보도, 칼럼, 사설 등), 발화 주체(기자, 지자체, 시민기자 등) 등 언론 내 세부 속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가 실제 정책 결정과 시민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현재 수원은 특례시로 전환되며 도시 위상과 행정권한의 실질적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지역 언론은 여전히 수원을 수도권 보조도시, 정책 수혜지, 또는 행정 실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보도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 불균형은 지역 정책의 정당성과 시민 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지역 언론 생태계 육성과 균형 잡힌 지역 보도 환경 구축,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정책 의제를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특례시 제도 정착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 홍보, 공공정보 전달, 시민 참여 기반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언론보도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외부의 시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성과 경제 담론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시 언론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투고일 2025년 3월 27일 **심사일** 202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30일

참고문헌

Ban. Hyun, 2004, "The role of press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Coverage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by central and local newspapers", *professor's essay,* 3(1), pp.263~286.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993~1022.

Brieger, R. L., 1974, "Th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In M. Hardy & A. Bryman (Eds.)", *Handbook of Data Analysis,* London: Sage, pp.505~526.

Cheong, A. Y., Park, J.Y., & Nam, Y. J. 2022, "Analysis of Smart City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4), pp.1563~1582.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pp.267~297.

Heimerl, F., Lohmann, S., Lange, S., & Ertl, T., 2014, "Word cloud explorer: Text analytics based on word clouds", *In 2014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1833~1842.

Hindman, 2009, "The Myth of Digital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janen, J., Dovbysh, O., Jangdal, L., & Lehtisaari, K., 2021, "Towards (hyper) local public sphere: Comparison of civic engagement across the Global North", *Media and Communication,* 9(3), pp.74~84.

Janowitz, M., 1980, *The Community Press in an Urban Setting,* The social Elements of Urbanism Second Edition.

Jocelyn D. R, 2014, *Local Media Coverage of Environmental Conflict: The Klamath River Basin,* University of Washington.

Jonscher, N. 1995, *Lokcale Publizistik,* Opladen.

Jung, A., Park, J., & Nam, Y., 2022, "Analysis of smart city news coverage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4), pp.1563~1582.

Jung, Y., Kim, J. & Park, J., 2021, "Analysi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ext Mining Approach: Based on comparison between Central and Local daily newspapers", *Locality & Communication,* 25(4), pp.7~32.

Kwak, S. J. & Kim, H. H., 2019, "Keywords and topic analysis of social issues on twitter based on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8(1), pp.13~18.

Manning, C. D., Raghavan, P. & Schütze, H., 2008,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176~187.

Praet, S., Van Aelst, P., Daelemans, W., Kreutz, T., Peeters, J., Walgrave, S. & Martens, D., 2021, "Comparing automated content analysis methods to distinguish issue communication by political parties on Twitter", *Comput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 3(2), pp.1~27.

Salton, G. & Buckley, C., 1988, "Term-weighting approaches in automatic text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24(5), pp.513~523.

Seo, H. J,, 2023, "Analysis on Local Smart City Plan of Local Government Using Text Min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27(2), pp.129~158.

Turney, P. D., 2002, *Thumbs up or thumbs down? Semantic orientation applied to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reviews,* Proceedings of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Yang, H.-S., 2020, "How is 5.18 recalled after 40 years?: Analysis of Chosun-Ilbo, Hankyoreh, and Gwangju-Ilbo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Regional and Communication,* 24(2), pp.4~28.

Zain, N. R. M., 2014, *Agenda setting theory,*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pp.1~11.

요 약

본 연구는 수원 지역 경제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상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언론과 비지역 언론 간 보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역 경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지역 정체성 형성과 주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특히 수원과 같은 대도시는 중앙-지방 간 프레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여 년간의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해당 기간 수원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의 보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워드클라우드, TF-IDF, N그램, 감성분석, 토픽모델링, CONCOR 분석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수원', '경제', '지역'은 모든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며 수원 이슈의 중심성이 확인되었다. 지역 언론은 '시장', '의회', '시민' 등 지역 행정과 리더십,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 보도 경향을 보인 반면, 비지역 언론은 '정책', '정부', '서울' 등 제도 중심, 수도권 프레임을 기반으로 보도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2020년대에는 '코로나' 및 '특례시'와 같은 외부 충격과 제도 변화가 언론보도에서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 행정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지역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보 전달 채널로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역성과 언론의 관계를 빅데이터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지역 언론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보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원처럼 수도권 중핵도시에 대한 중앙언론의 보도 편향을 개선하고 지역 담론이 국가적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 생태계의 균형적 재조정이 요구된다.

주제어 : 수원, 경제, 언론,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ABSTRACT

Big Data Analysis of News Reports on Economic Issues in Suw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Local and Non-local Media

Seung Hoon, Jung / Eun Jong, Cho / Geun Hyeon, Kim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media coverage on economic issues in Suwon from the 1990s to the 2020s, comparing local and non-local media perspectives. Employing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including word clouds, TF-IDF, N-gram analysis, sentiment analysis, topic modeling, and CONCOR analysis—the research identifies notable differences in framing and keyword emphasis between the two media groups. While both local and non-local media consistently highlight core terms such as "Suwon", "economy" and "region" local media tend to focus more on civic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emphasizing keywords like "mayor", "council", and "citizen". In contrast, non-local media adopt a broader, policy-oriented approach, with frequent references to "government", "policy" and "Seoul". In the 2020s, the emergence of new topics such as "COVID-19" and "special city" designation marks a shift in both media types, reflecting institutional and societal chang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practical,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t underscores the essential role of local media as public information platforms; introduces a methodological contribution by applying big data techniques to regional journalism; and calls for efforts to reduc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entral and local media, especially in rapidly urbanizing regions like Suwon.

Keywords : Suwon, Economy, Media, Big Data, Text Mining

『수원학연구』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 · 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5. 연구결과의 학술적 · 실천적 기여도
6. 표 · 그림 · 사진 · 지도 ·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8. 국문 ·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수원학연구』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 · 나이 ·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

제11조(저자의 의무)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 · 위조 · 변조 · 이중게재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제13조(자기 표절)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 ·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 · 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 · 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 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hwp)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 왼쪽/오른쪽 18㎜, 머리말/꼬리말 12㎜로 한다.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 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 제목 표기

1. 국문논문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 제목을 기재한다.
2) 영문 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 · 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1) 국 · 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1) 저자가 1인인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 suwon.re.kr, Tel :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2) 왼쪽 여백만 2칼럼 둔다.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1. 각주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① 홍길동,∨1998,∨「의적의 개념」,∨『의적연구』1,∨활빈학회,∨100~101쪽.
   ② 홍길동,∨1960,∨「의적연구」,∨『의적학보』1∨;∨1998∨『의적의 사회사』,∨활빈출판사∨재수록,∨100쪽.
   ③ 홍길동,∨1997,∨앞의 논문(앞의 책),∨100쪽.홍길동,∨1988(a),∨앞의 논문,∨100쪽.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⑤ A.∨R.∨Zolberg,∨1972,∨"Moment of Madness",∨Politics and Society ∨Vol.∨2,∨No.∨2,∨pp.∨183~207.
   ⑥ 조한욱∨옮김,∨1996,∨『고양이 대학살』,∨문학과 지성사(Robert∨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u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⑦『삼국사기』,『고려사』,『실록』,『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고려사』∨권76,∨百官1∨贊成事.∨"(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세종실록』∨권9,∨세종∨6년∨5월∨1일(경자).∨"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壽齋遺稿』,「書啓」(소장처,∨도서번호).

2. 참고문헌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편집위원

김종혁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한림대학교 교수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유석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헌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우 아주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22

발행인 | 김성진
편집인 | 한동민
발행일 | 2025년 12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www.suwon.re.kr
031-220-8058
인 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